박사학위논문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적 연구

2018년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박 새 암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적 연구

A Historical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박 새 암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적 연구

A Historical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박 새 암

박새암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적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박 새 암

이 논문은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다룬 통시적 연구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성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밝혀 한국어교육사 안에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교회의 공식 연회록과 보고서, 개인 서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양상을 ⑴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⑵단기 집중 강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⑶연합언어학교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⑷현대 한국어교육으로의 이행기로 구분하여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⑴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는 한국에 진출한 여러 교파 선교회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북장로회〉와 〈미감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 선교회는 산하에 선교사들의 언어 교육을 관리하는 하부 조직인 〈언어 위원회〉를 두고 일종의 학습 가이드라인인 '학습과정'과 선임 선교사가 후임 선교사들의 학습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⑵단기 집중 강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는 이전 시기 한국어교육의 한계였던 '교실 수업'이 1909년부터 〈북장로회〉에서 시작한 평양에서의 《Language Class》라는 단기 집중 강좌를 통해 나타났다. 이후 〈미감리회〉와의 협력을 거쳐, 당시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으로 조직된 선교회들 간의 통합 기구였던 〈연합선교협의회〉로 이어져 1914년까지 평양과 서울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개설되었다. ⑶연합언어학교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에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설 운영된 연합언어학교인 《Language School》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전개되었다. 1920년부터 적어도 1936년까지 운영된 이 학교는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전용 교과서, 표준화된 지필과 구술평가, 수료증의 발급, 급여를 지급받는 상근 교원 등 근대적인 제도적 교육기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⑷현대 한국어교육으로의 이행기에는 1950년을 전후하여 새롭게 등장한 《Korean Language School》이 1940년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되며 중단되었던 《Language School》이 해방 이후 돌아온 선교사들에 의해 재건된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 기관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라는 한국 최초의 현대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상보적 운영과 내용 중심 접근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선교를 위한 한국 문화 이해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과 당시의 중층적인 문자생활이 반영된 한자와 문체 교육이 강조된 교육 내용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현대 한국어교육 이전 시기의 한국어교육의 전

체적인 흐름을 짚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교육 형성의 토대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주체와 학습자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는 있으나 당시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가진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근대적 성격을 확인하였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로 그 시기를 제한한 점, 동일한 시기에 병존하였던 한국에서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과의 세밀하고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사, 개신교 선교사, 선교회, 언어 위원회, 한국어 학습과정, 연합언어학교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 4
제 3 절 연구사 검토 ····· 9
제 4 절 연구의 절차 ····· 11

제 2 장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전개의 배경 ····· 14
제 1 절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전개의 역사적 배경 ····· 15
1) 19세기 초반, 한국어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 ····· 16
2) 19세기 중반, 가톨릭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 ····· 19
3) 19세기 후반, 서양인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 ····· 26
제 2 절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전개와 특징 ····· 32
1) 일본의 전통적 한어(韓語) 교육 ····· 32
2)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어교육의 변화 ····· 35
3)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선어교육의 전개 ····· 40
4)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특징 ····· 50

제 3 장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 53
제 1 절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 54
1)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 57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 75
3)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의 의의와 한계 ····· 97
제 2 절 단기 집중 강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 100
1)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 《Language Class》의 개설과 폐지 ····· 102
2)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 《Language Class》의 교육 내용 ····· 123

3)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Language Class》의 교육 방식과 교사진 130
4)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Language Class》의 의의와 한계 ····· 132
제 3 절 연합언어학교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 134
1) 연합언어학교《Language School》의 설립 과정 ····· 135
2)《Language School》 교육과정의 변화와 내용 ····· 136
3)《Language School》의 교육과 평가 ····· 152
4)《Language School》의 운영 축소와 한국어교육의 중단 ····· 154
5)《Language School》의 의의와 한계 ····· 159
제 4 절 연합언어학교의 재건과 현대 한국어교육으로 이행기 ····· 161
1) 또 다른 연합언어학교《Korean Language School》의 등장 ····· 161
2)《Korean Language School》과《Language School》의 연속성 ····· 166
3)《Korean 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 172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개설과 현대 한국어교육의 시작 ····· 179

제 4 장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성격과 의미 ····· 184
제 1 절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특징 ····· 184
1) 교육 방법의 측면 ····· 184
2) 교육 내용의 측면 ····· 201
제 2 절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의미와 한계 ····· 207
1)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당대적 의미와 한계 ····· 207
2) 현대 한국어교육에서의 시사점 ····· 211

제 5 장 결 론 ····· 218

참 고 문 헌 ····· 224
부 록 ····· 238
ABSTRACT ····· **283**

표 목 차

<표 1> 19세기 초반 한국어 관련 서양인 저술 목록 ····· 18
<표 2> 19세기 후반 서양인 편찬 이중어 사전 ····· 23
<표 3> 19세기 후반 서양인 저술 한국어 학습서 ····· 25
<표 4> 일본 내 조선어학과의 설치와 폐지 현황 ····· 38
<표 5> 일제 강점기 일본어 해득 조선인 통계 ····· 43
<표 6> 선교회별 선교사 파송 시기와 파송 선교사 수 ····· 55
<표 7> 〈북장로회〉 한국 선교회의 문헌 목록 ····· 58
<표 8> 1901년 '학습과정'의 1년차 학습 항목 ····· 62
<표 9> 189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 66
<표 10> 190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 68
<표 11> 1891년과 1901년 '학습과정'의 문법 학습 내용 비교 ····· 71
<표 12> 1901년 '한국어 학습과정'에 포함된 문화 관련 항목 ····· 72
<표 13> 191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 73
<표 14> 확인 가능한 〈미감리회〉 연회록 「Officail Minutes」 목록 ····· 78
<표 15> 1899년 한국어 시험 결과 ····· 81
<표 16> 〈언어 위원회〉의 '학습과정' 개정 시기 ····· 84
<표 17> 「OMAKM」(1893)의 〈언어 위원회〉'학습과정' ····· 85
<표 18> 『OMAKM』(1896)의 개정 '학습과정' ····· 86
<표 19> 1908년과 1909년 '학습과정'의 문법 항목 제시 방식 차이 ····· 92
<표 20> 1909년 〈북장로회〉 언어학교 개설 승인 내용 ····· 102
<표 21> 1912년 「KMF」의 《Language Class》의 홍보 내용 ····· 109
<표 22> 개신교 발행 한글 신문과 발행 기간 ····· 126
<표 23> 1920년 《Language School》의 임시 교육과정 ····· 137
<표 24> 1921년 《Language School》의 개정 교육과정 ····· 139
<표 25> 'Outside English Reading'의 도서 목록 ····· 142

<표 26> 1926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 143
<표 27> 1928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 146
<표 28> 1931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 148
<표 29> 1934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 150
<표 30>《Language School》학기별 등록 인원 ····· 155
<표 31>《Korean Language School》발행 한국어 교재 목록 ····· 167
<표 32>《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1년차 임시 커리큘럼 ····· 173
<표 33>《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1년차 2학기 보충과정 ··· 175
<표 34>《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2년차 임시 커리큘럼 ····· 176
<표 35> 《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3년차 임시 커리큘럼 ····· 178
<표 36> '학습과정'에서 'Study'와 'Learn' 항목 비교 ····· 188
<표 37> 〈미감리회〉의 1893년 한국어 학습과정 ····· 193
<표 38> 〈북장로회〉의 1911년 한국어 '학습과정' ····· 194
<표 39> 1926년《Language School》1학년 수업 내용 ····· 198

그 림 목 차

[그림 1] 일본인용 조선어 학습서의 연도별 출간 현황 ····· 37
[그림 2] 〈경성 조선어연구회〉 발행 잡지의 발행 기간 ····· 49
[그림 3] 〈미감리회〉 파송 선교사 증감 추이(1885~1917년) ····· 76
[그림 4] 1898년 1년차, 2년차 '학습과정'의 일부 ····· 88
[그림 5] 1908년 2년차, 3년차 '학습과정'의 일부 ····· 92
[그림 6] 1914년 《Language Class》 개설 과정 ····· 118
[그림 7] 1912년 《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 ····· 125
[그림 8] 1913년 《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 ····· 127
[그림 9] 1914년 《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 ····· 129
[그림 10] 교파별 신규 파송 선교사의 연도별 감소 추이 ····· 157
[그림 11] 장로교 선교부의 1948년 예산안 중 'Language Study' 관련 내역 · 162
[그림 12] 《Language School》과 《Korean Language School》의 교재 관련성 ····· 169
[그림 13] 『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의 속표지와 판권지 ····· 17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1]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개신교계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한, 또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대상으로[2] 이 시기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성격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통시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는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정립[3]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타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

---

1) 이 연구에서 '한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위치하였던 나라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구한말), 대한제국, 식민지 조선 등을 의미하며, '한국어', '한국어교육'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의 개념으로 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원문을 인용하거나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조선', '식민지 조선', '한어(韓語)', '조선어', '조선어교육' 등으로 사용한다.

2) 본고의 제목에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이 모호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어교육에 있어 교육을 주도한 주체이기도 하였으며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한국어교육'을 지칭하는 동시에 '개신교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3) 분과 학문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은 노명완(1997),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그 탐구 과제",『한국어학』6, 한국어학회, 36-64쪽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국어교육학 역시 과거에는 한국어교육과 같이 유사한 인접 학문들 안에서 그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은 그 자체가 바로 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의미하고, 이는 인접 학문에 종속되어 온 국어교육을 다른 학문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탐구함을 의미한다.
   ㉡ 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은 국어교육 내용의 범주화와 체계화를 가져온다.
   ㉢ 국어교육학 자체의 학문적 정체성은 물론 다른 인접 학문들과의 관계 파악, 학제적 협동이 가능해진다.
   ㉣ 국어교육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어 활동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국어교육 전공 교과과정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유능한 국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성을 정립한다는 것은 한국어교육학과 여타 인접 학문들 간의 차별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인 동시에 한국어교육학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4] 한국어교육학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한국어교육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 다시 말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어가 외국어로 교수·학습된 역사적 발달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시적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과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시간의 잣대'를 들이대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시대구분 논의가 대표적인데 특정 대상에 대한 '시대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그 대상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각 시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5] 이러한 측면에서 백봉자(2001), 조항록(2005ㄴ), 민현식(2005), 강남욱(2005), 허재영(2007ㄱ)[6] 등에서 시도한 한국어교육사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시대구분은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를 새롭게 시도할 때 보다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시사를 제공하는 일종의 '작업가설'로 작용할 수 있다[7]는 점에서

---

4) 조항록(2005ㄱ),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방법론 소고", 『한국언어문화학』 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65-281쪽. 여기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을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연역적 방식은 기존의 학문적 분류 틀에 바탕을 두고 기초 학문영역, 응용 학문영역을 망라한 상태에서 인접 학문을 설정하고 여기로부터 한국어교육학을 정립하는 방법이고, 귀납적 방식은 한국어교육이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존재하여 왔음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역사적인 발달 과정과 특성을 통해 한국어교육학을 정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오성철(2015), "한국 현대교육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시론", 『교육사학연구』 25-2, 교육사학회, 157-184쪽, 여기에서는 158쪽. 사물을 시간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역사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은 단순한 '연대적 시간(chronological time)'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 그리고 '역사학적 시간(historiographical time)'이라고 하였다. '역사적 시간'은 역사가의 인식과 독립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과거 사회가 지닌 변화와 지속의 흐름을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들이 과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이 '역사적 시간'에 선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재구성한 것이 바로 '역사학적 시간'인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시간의 잣대'를 들이대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바로 '시대구분'이라고 하였다.

6)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31쪽; 조항록(2005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민현식(2005), "한국어교육학 개관",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강남욱(2005), "教材 評價論을 통한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재영(2007ㄱ),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해와 탐색』, 보고사.

더욱 그렇다.

그런데 시대구분 연구는 과거 사건과 현상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축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8]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사의 기초적인 실증적 연구가 충실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시대구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한국어교육사의 시대구분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9] 상대적으로 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현대의 한국어교육 이전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백봉자(2001), 조항록(2005ㄴ)이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개설을 한국어교육사의 시작으로 보아 이전에 실재하였던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나 민현식(2005)과 허재영(2007ㄱ)에서 현대 한국어교육 이전 시기를 '근대교육기', '근대적 교육기, 일제강점기'로 구분하며 그 기준으로 '광복'과 '한일합병'을 제시하고 있는 것[10] 역시 이 시기 한국어교육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를 조망하는 시대구분 논의와 과거의 특정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구분은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를 새롭게 시도할 때 보다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시사를 제공하는 일종의 '작업가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가설은 축적된 실증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보다 의미를 지닐 수 잇을 것이다. 시기를 구분하는 작업과 실증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작업은 서로 순환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7) 오성철(2015), 위의 논문, 158쪽.

8) 차하순 외(1995),『韓國史時代區分論』, 소화,

9) 기존의 한국어교육사 시대구분에 관한 논의들에 대한 정리는 박새암(2016ㄱ), "'근대적 한국어교육 형성기' 설정의 문제",『언어와 정보사회』 29,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51-180쪽, 여기에서는 154-160쪽과 강남욱(2005), 앞의 논문, 164-169쪽을 참고할 수 있다.

10) 박새암(2016ㄱ), 앞의 논문, 158쪽. 여기에서는 민현식(2005), 허재영(2007)이 제시한 시대구분의 기준인 '광복'이라는 사건이 '국어교육'에 있어서 언어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어교육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고, '일제강점기'라는 기준 역시 이 시기 존재하였던 서양인 선교사 중심의 한국어교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현식(2005), 허재영(2007)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교육에서 '민족어교육'의 개념을 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역사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이라는 특정 시기에 주목하여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그 성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어 학습과 교육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계 영미권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기술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이다. 그런데 왜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 다른 시기가 아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이라는 특정 시기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이 시기가 19세기 후반 개항, 개화로 한국에 이주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해 한국어 학습과 교육이 시작되어, 이른바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개설로 대변되는 현대적 개념의 한국어교육[11]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로 한국어교육사 안에서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현대 한국어교육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2] 그

---

11) 현대적 개념의 한국어교육 또는 '현대 한국어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5·2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31쪽; 조항록(2005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등의 기존 논의나 학계의 통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와 같이 대학의 부설기관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한국어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물론 19세기 후반 이전에도 역사적으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교수·학습되었던 현상은 있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드나 강남욱(2005)의 언급대로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물교류와 접경무역 등으로 인한 민간 차원의 한국어 학습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교린국(交隣國) 사이의 외교관계에서 한문 이외의 직접적인 통·번역의 필요성으로 역관들이 공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사례는 사료를 통해서 또 학습에 사용된 교재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의 역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정광(1990), "중국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고찰",『이중언어학』6, 이중언어학회, 169-181쪽을, 일본에서의 역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정승혜(2006ㄱ), "대마도에서의 한어(韓語) 교육",『語文硏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58쪽; 정승혜(2006ㄴ), "일본에서의 한어(韓語) 교육과 교재에 대한 개관",『이중언어학』30, 이중언어학회, 335-353쪽; 정승혜(2015), "조선후기 조일(朝日) 양국(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한국실학연구』29, 한국실학학회, 81-117쪽; 허지은(2008), "쓰시마 조선어 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한일관계사연구』29, 한일관계사학회, 123-170쪽; 이명희(2003), "明治時代의 朝鮮語學習 -〈交隣須知〉의 時代的

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의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을 '근대 한국어교육 시기'로 보거나(민현식, 2005; 허재영, 2007ㄱ 등) 현대 한국어교육의 전사(前史)로 파악하기도(오대환, 2009) 하는 등 논쟁의 지점이 발견되는 시기이다.

근대 전환기[13]에 개항과 함께 들어온 서양의 근대적 문물의 유입은 언어 연구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서구 언어학 지식을 배경으로 한국어를 연구하였고 그 연구의 성과로 여러 문법서들과 학습서들이 출판되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외국어 교육의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필요성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어 학습과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 및 교육기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어교육의 질적, 양적인 진전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교육의 대상이었던 한국어의 위상과 지위, 속성의 변화도 이 시기 한국어교육을 관찰할 때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한문이라는 문어를 중심으로 공통 문어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당시 한국어는 외국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역어(local language)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14] 그러나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조선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전략적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어 역시 국제사회에서 '외국어'로서 인지되어 체계적(systemize), 통제적(controlled), 전략적(strategic)으로 연구와 학습의 대상으로 인식된다.[15] 그리고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이하 '일제')에 의한 국권 강탈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인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언어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의 '조선어'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보편적 통용어에서 일개 식민지 '조선'의 지역 방언으로

背景을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4, 韓國日語日文學會, 205-227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3) 흔히 '개화기'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홍종선(2009:152)은 서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개화기'보다는 변화의 양상에 근거하는 '근대 전환기'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논자에 따라 '근대 초기', '근대 계몽기', '애국 계몽기', '개항기', '개화기', '구한말' 등으로도 사용된다.

14) 강남욱(2005), 앞의 논문, 4쪽에서는 서구 유럽의 중세 사회가 라틴어(Latin)라는 문어를 공통으로 삼고 지식사회의 문화소통을 꾀하였듯이 동양에서는 그 역할을 한문이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15) 강남욱(2005), 위의 논문, 6쪽.

그 지위가 추락하게 된다.[16] 또한 이 시기의 '조선어'는 내외적 요구로 언어적 근대화[17]의 과정을 거쳐 '국어'라는 지위를 갖추기까지의 과정에 놓여 있었다.

또한 교육의 주체도 역시 주목해야 한다.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이 시기는 학습의 주체가 곧 교육의 주체였다. 이는 당시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한국어의 학습이 필요하였던 학습자 집단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초기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과 학습을 통해 획득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문법서 및 학습서, 사전 등을 편찬하고, 후속 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기 한국어교육의 역사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이 가지는 중층성이다. 한국어교육의 발생은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이 시기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은 당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새롭게 등장한 선교지였던 한국에서 개신교의 선교라는 필요성에 의해,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대륙으로의 전략적 진출과 한반도 강점 이후의 식민지 통치라는 필요성에 의해 한국어 학습이 요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진 두 개의 한국어교육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두 한국어교육의 발달과정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18]

---

16) 오대환(2009),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 연구: '조선어 장려 정책'과 '경성조선어연구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5-28쪽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조선어교육은 일제의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과 만주국과 마찬가지로 통치를 위한, 잠정적으로 실용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지역토착어 교육'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17) '언어적 근대화'는 언어의 규범화와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미쓰이는 이를 '입말에 기초한 글말의 창출(규범화)과 그 도달점으로서의 민족어(national language)의 형성과정'으로 규정하였다. 三ツ井崇(2003),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語支配の構造: 朝鮮語規範化問題を中心に, 임경화·고영진 역(2003),『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 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사, 9쪽.

18) 강남욱(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로스(Ross, J.), 호세코(宝迫繁勝), 게일(Gale, J.S.)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32(2), 한국학중앙연구원, 193-222쪽. 여기에서는 근대 초기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토대로 당시 한국어교육의 두 주축을 로스의『*Corean Primer*』로 대변되는 서북방의 한국어교육과 호세코의『韓語入門』,『日韓善隣通語』로 대변되는 동남방의 한국어교육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서북방의 한국어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어교육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고찰을 통해 연구한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만 한국어교육사의 시대구분 논의나 한국어 교육의 발달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전개된 한국어교육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교육사를 논의할 때는 각 나라별로 전개된 양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시기도 다를 뿐더러 한국어교육이 발전해 온 그 과정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양상을 반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역사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라는 특정한 시기, 한국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어교육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시기 이전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이라는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18세기부터 이미 대마도(對馬島)의 조선어통사 양성소인 《한어사》(韓語司, 1727~1871)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부산의 초량왜관으로 유학을 보내는 방식의 유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 《한어사》를 계승한 《이즈하라한어학소》(嚴原韓語學所, 1871~1873)는 설치 1년 만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어학소를 초량관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1873년 10월에는 이전을 완료하고 명칭을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로 개칭하여 초량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였다.

또한 19세기 초중반 무렵부터는 프랑스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하며 한국어를 익히기도 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들은 그 수가 많지 않았고 개항

육은 서양의 제책 방법을 기본으로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제시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동남방의 한국어교육은 기존의 동양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 면에서 과감할 정도의 서양식 문법 체계를 도입하여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에 대해 실험적인 형태의 교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 특정하고 있는 두 개의 한국어교육은 강남욱(2009)에서 제시한 두 양상이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학습자 집단과 교육의 주체(교재의 저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19) 가령 미국의 영어교육사와 한국의 영어교육사 그리고 일본의 영어교육사는 절대 획일적인 기준으로 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전 서학(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던 터라 비밀리에 입국하여 숨어 지내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어휘를 수집하고 한국어 문법을 관찰하고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해와 분서로 관련 사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발굴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시 이들의 한국어 학습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0]

그리고 초량왜관의 경우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주였으나 왜관이라는 한정된 지역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었고 교육 방식에 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21] 《초량관어학소》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박진완(2013, 2015, 2016)[22]에서 고찰한 바 있는데 교육방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작문 교육에 복문(複文, retranslation)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복문은 한 번 모국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원래의 외국어로 재번역하는 방법으로 에도 시대의 한문 교육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방식을 한국어의 교육에 적용한 것으로[23] 이러한 복문을 이용한 교육 방식은 전통적인 외국어교육의 보수적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과 초량왜관, 《초량관어학소》의 한국어교육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개항으로 외국인들의 이주와 거주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후 제도적 차원의 학습과 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으로 연

---

20)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교사 수가 매우 적고,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추정컨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지인과의 접촉을 통한 습득과 문헌을 사용한 후임 선교사에게로 전수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초량왜관에서 진행되었던 한국어교육의 1단계는 坂下(교사(訓導), 통사 등의 집무실이 있던 곳)에서 2단계는 왜관 내 일본 사찰인 동향사(東向寺)에서 조선인 교사가 類合, 十八史略, 小學, 四書, 古文, 三體詩 등을 수업했다고 한다. 매달 3일과 8일에는 4명 중의 1명이 출제자가 되어 주제를 말하고 나머지 3名이 이에 적합한 문장을 만들어 대답하는 토론회 방식의 평가를 하였고 평가 후에는 토론내용을 언문으로 기록해 부산에서 쓰시마의 아메노모리호슈에게 송부하면 이를 점검한 후에 제본하여 보관하였다고 한다. 황백현(2010), 對馬島의 韓語學習에 관한 硏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5-90쪽.

22) 박진완(2013), “구한말 일본인에 의한 조선어 교육 방식 연구 -초량어학소(草梁語學所)『복문록(復文錄)』의 분석을 통해-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3차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343-355쪽; 박진완(2015),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의 조선어 교육방식 연구 -「複文錄」의 분석을 통해-”,『한국어 교육』2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7-124쪽; 박진완(2016),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復文錄」의 성립 과정”,『한국어학』72, 한국어학회, 85-119쪽.

23) 박진완(2015), 위의 논문, 102쪽.

구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였다.

제 3 절 연구사 검토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지역에서 교육의 주체도, 교육의 객체도, 교육의 목적도 전혀 다른, 단지 교육의 대상만 동일하였던 두 개의 한국어교육이 병존하여 각자 다른 발전과정을 지닌 채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인 일본인 중심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근래 근대에 대한 관심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어문교육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비교적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 이 시기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특히 오대환(2009)은 기왕에 주를 이루던 국어 연구와 국어교육 연구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닌 한국어교육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고, 민족어문교육에 대한 관심에서의 접근이기는 하나 허재영(2007ㄴ, 2011ㄱ)[24]의 연구도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병존하였던 다른 하나인 서양인과 개신교 선교사 중심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그들이 저술한 문법서나 학습서에 대한 국어학적인 관심, 또는 교재론적인 관심이 주를 이루었을 뿐 교육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개연성, 가능성, 추정 등으로 이야기될 뿐 실체에 대한 실제적인 규명이나 논의는 최근에 발표된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대환의 일련의 연구들[25]은 이 분야에서

24) 허재영(2007ㄴ),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293-316쪽; 허재영(2011ㄱ), 『일제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 경진.

25) 오대환(2011), “해방 전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조선어교육에 관한 기록의 발굴”.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7-194쪽; 오대환(2012), “*Korean for Beginners*를 통해 본 해방 전의 조선어교육 -초판본(1925년)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86쪽; 오대환(2013ㄱ),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조선어교재 ‘일용조선어(EVERY-DAY KOREAN)’에 관한 고찰”, 『한국어교육』 2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86쪽; 오대환(2013ㄴ), “해방 후의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의 역사적 의미 -Korean Language School(1949-1958)-”, 『언어와 문화』 9-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3-191쪽; 오대환(2014),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조선어교육의 쇠퇴 원인에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오대환(2011)은 선교사들이 간행한 영문 잡지인 「*The Korea Mission Field*」(이하 「*KMF*」)와 당시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여러 교파의 현지 선교회 간의 협의체였던 〈연합선교협의회〉[26](The Fed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의 연례회의 회의록(연회록)인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이하 「*AMFC*」)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관련 기록을 발굴하여 해방 전 선교사들을 위한 조선어교육 전문 기관이었던 《Language School》의 실체와 교육과정을 고찰하여 소개하였고, 이어 《Language School》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던 사우어(C.A. Sauer)의 『*Korean for Beginners*』(1925)와 언더우드(H.H. Underwood)의 『*Everyday Korean*』(1921)을 각각 분석한 오대환(2012)와 오대환(2013)을 발표하였고, 오대환(2014)에서는 《Language School》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의 조선어교육의 쇠퇴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그간 한국어교육사 연구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실제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27]

이 밖에도 박새암(2016ㄴ, 2017)[28]은 오대환의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당시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선교회를 만들고, 그 규모도 가장 컸던 〈미감리회〉와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회를 중심으로 각각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그동안 개연성과 가능성으로만 존재하였던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실체적 모습이 어느 정도

대한 고찰", 『언어와 문화』 10-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41-166쪽.

26) 이 단체의 국문명은 현재 통일되어 사용되지 않고 개별 연구자나 단체에서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07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The Gen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는 〈통합선교공의회〉로, 이후 새롭게 조직된 'The Fed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는 〈연합선교협의회〉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27) 오대환의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본 논문의 주제 설정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한국어교육사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이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28) 박새암(2016ㄴ),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연구-〈미감리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3-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9-144쪽; 박새암(2017),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초기 한국어교육 연구", 『인문과학연구』 35,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8-200쪽.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발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한국어교육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한계, 그리고 이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당대와 현 시점에서의 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분 부분이 아닌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되어 온 전 과정을 조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토대 연구로서,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이라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이라는 특정 시기 그리고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이라는 특정 대상에 주목하였다. 즉,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한국에서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양상과 그 성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한국어교육사 안에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제 4 절 연구의 절차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본격화되기 이전 한국어교육의 역사적인 배경과 당대 한국어교육의 상황을 고찰하였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역사가 진보하든 퇴보 또는 회귀하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우연 또는 필연적으로 축적된 동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전개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동인으로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서양인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19세기 중반 무렵 조선에 입국하여 비밀리에 포교 활동을 하였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 활동, 그리고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서양의 외교관과 개신교의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에 입국하였던 초기 선교사들

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 활동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진행되었던 서양인들의 한국어 연구 및 학습 관련 저술을 검토하고, 이러한 것들이 19세기 후반 한국에서 전개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과 어떠한 측면에서 연관되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당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당시 한국에서의 전개된 한국어교육의 전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간에 이루어졌던 한국 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 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전반적인 모습 역시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의 3장에서는 19세기 후반 한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양상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면밀히 고찰한다. 먼저 19세기 후반 한국에 진출한 개별 교파의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계획하고 관리하였던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는 한국 진출 시기가 가장 이르고 규모가 크며,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장로교의 〈북장로회〉와 감리교의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 한국에 진출한 여러 개신교 교파 간의 초교파적 연합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으로 조직된 〈연합선교협의회〉의 주도로 전개된 '연합언어학교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와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등장한 '단기 집중 강좌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한국어 교육기관인《Language School》과 단기 집중 한국어 강습회인《Language Class》와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어교육으로의 이행기'는 해방 이후 재건된 연합언어학교인《Korean Language School》과 이 기관의 후신(後身)인《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설립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3장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전개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을 지니고 형성되었는지를 교육 방법의 측면과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대 한국어교육에서의 시사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5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써 2장에서 4장까지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 그리고 이후의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제 2 장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전개의 배경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개항되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이다. 이 시기에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된 자본주의의 팽창이 값싼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잉여상품의 처리를 위해 다투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민지화와 종속화를 추진하며 경쟁적으로 세계를 분할해 갔다. 이러한 독점적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열강의 해외팽창 정책이 곧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한반도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본으로 이식된 제국주의가 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갔으며, 대항해 시대의 가톨릭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함대와 함께 확산되었던 것처럼 개신교 역시 영국, 미국 등의 제국주의 확산과 함께 조선에 대한 선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확산과 기독교의 전파는 한반도에서 한국어교육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잠정적 학습자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이른 시기에 근대화를 이루어 체질을 바꾼 일본은 대륙으로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야욕을 내비치며 한반도 진출을 본격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한국어 교육과는 그 목적과 의도 면에서 차별화된 한국어교육으로 전환된다. 또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개항이 이루어지고 구미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이전까지 만주나 일본 등의 주변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진출을 모색하던 개신교 선교사들 역시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로 한국어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대륙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을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개신교 선교사라는 두 부류의 외부 세력의 한반도로의 유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1] 이 두

1) 일본인의 경우 조선후기부터 '왜관'에 머무르기도 하였으나 거주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아 한국인들과의 실제적인 접촉은 일부 관리나 상인들로 한정되었

세력의 한반도 진출로 이전에 없던 외국인의 한국 내 거주가 시작되었기에,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즉,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당시 한국의 상황적 특성은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한 개신교 선교사들과 한국을 지배·통치하기 위한 일본인이라는 두 집단에 의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간에서 상이한 목적과 양상으로 두 방향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이 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한정되나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배경 하에 전개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한국의 상황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장의 1절에서는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배경의 종(縱)적 축으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횡(橫)적 축으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과 동일한 시기에 병존하였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대략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전사(前史)로서 의미가 있으며, 병존하였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당대의 의미와 한계를 보다 명징하게 드러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 1 절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전개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후반 개신교의 한국 선교로 인해 서양인 선교사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학습자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에 한국어를 학습하였던 인접한 나라의 학습자들과는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어 학습의 목적도 통상이나 외교가 아닌 '선교'라는 종교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왕에 있었던 학습자들과는 차별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시작된 개신

었다.

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변화도 완전히 새로울 수는 없다. 모든 변화에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존재하고 변화 이전에 점진적으로 누적된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19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나타났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19세기 초반 등장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의 한국어 관련 저술들과, 중반 이후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사제들의 가톨릭 전교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연구와 학습, 그리고 개별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한국 선교 초기에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연구했던 일부 초기 선교사와 외교관들의 활동들이 이 시기의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의 한국어 연구와 학습에 관한 활동과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한국어교육의 역사적인 흐름의 어떠한 토대 위에서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19세기 초반, 한국어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

서양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찰은 19세기 초반부터 발견된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통상 또는 선교 과정에서 인접국이었던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가 서양 세계에 포착되었고, 통상과 선교의 새로운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국어에 관한 초보적이고 탐색적인 관찰 수준이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홀(Basil Hall)이 1818년에 펴낸 항해기[2]에 실려 있는 서해안 주민들에게서 수집한 한국어 단어 27개이다. 이후 클라프로트(Heinrich Julius von Klaproth)는『鷄林類事』등의 서

2) 원서명은『*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로 약 5개월간 조선의 서해안과 일본의 류큐 지역을 탐험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진도 지역에서 수집한 한국어 어휘 27개가 실려 있다.

적에서 추린 400여 어휘를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였고,[3] 일본에 머물렀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Seibold)가 독일로 돌아가 저술하여 1832년에 출판한 일본에 관한 책[4]의 일부(7장)에 지볼트가 일본에 나가사키에 근무하던 시기에 나가사키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인 표류민(漂流民)들을 통해 파악한 조선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 기술하였고, 『千字文(천자문)』과 『類合(유합)』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 개신교 선교사로 첫 한국 선교를 시도하였던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가 1832년에 「*Chinese Repository*」에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라는 글을 기고하였고, 1833년에 귀츨라프의 동료였던 모리슨(Robert Morrison)도 「*Chinese Repository*」에 "*The Corean Syllabary*"라는 제목으로 한글 자모표를 기고한다.[5]

1835년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메드허스트(W. H. Medhurst)[6]가 『倭語類解(왜어유해)』와 『千字文』에 영문 번역과 색인을 붙여 서양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어휘집인 『朝鮮偉國字彙(조선위국자휘)』[7]를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지금의 자카르타)에서 출판하며 한국어 학습을 위한 초보적인 단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8] 이 책의 저자인 메드허스트

---

3) 클라프로트의 『*Asia Polyglotta nebst Sprachatlas*』는 1823년에 1권, 1831년에 2권이 출간된 것으로, 23개 언어의 단어들을 언어별로 분류하고 독일어 표제어의 알파벳 순서로 수록한 다중언어 어휘집으로 1권 "XVⅡ. Koreaner"에 한국어 단어 약 400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964:70)에 따르면 한국어 단어의 출처는 《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된 〈鷄林類事〉와 〈東醫寶鑑〉 등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송기중(1993), "近代化 黎明期의 外國語 語彙에 대한 關心", 『韓國文化』 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7-48쪽, 여기에서는 25쪽.

4) 이 책의 서명은 『*Nippon : Archiv für Beschreibung von Japan*』이다. 지볼트가 1823년부터 6년간 일본에서 네덜란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기록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일본 근무 당시 보좌관이었던 호프만의 도움을 받아 집필한 것으로 1832년 출간을 시작하여 1858년에 완성하였다.

5) 모리슨의 이름으로 기고되었지만 당시 「*Chinese Repository*」의 편집자였던 모리슨이 메드허스트가 보낸 자료에 해설을 붙여 출판한 것이라는 견해(이응호, 1980)도 있으나 동료 선교사였던 귀츨라프의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6) 실제 책의 서지에는 메드허스트라는 이름이 아닌 'Philo Sinensis'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메드허스트의 필명이다.

7) 이 책의 영문명은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 which is added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in Chinese and Corean*』이다.

8) 『조선위국자휘』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견이 있다. 김두응(1978)과 이응호(1982)는 단순히 어휘집으로 보고 있고, 정광(1981), 이기문·장소원(2000)의 경우는 『왜어유해』와 『천자문』의 번역에 색인을 붙인 것으로 본 반면에 한영균(2015)은 이 책을 최초의 서양인 저작의 한국어 학습서이자 최초로 만들어진 본격적인 영-한 어휘자료집으

는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등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던 한국어의 학습에 한자(漢子)를 매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양인들이 보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관찰이었을 뿐 본격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 관련 저술은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머무른 적이 없는 저자들이 한국인들과의 짧은 접촉 내지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한국어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던 것이었기에 한국어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로 기술의 부정확한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전반(前半)에 있었던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과 관찰은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어 연구와 학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9] 다음의 <표 1>은 19세기 전반(前半)에 출판된 한국어와 관련된 서양인의 저술을 정리한 것이다.[10]

출판년도	문헌 명	언어	저자	출간지역
1818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영어	홀 (B. Hall)	영국 런던
1823	*Asia Polyglotta nebst Sprachatlas*	독일어	클라프로트 (Klaproth)	프랑스 파리

로 이해하였다.

9) 한영균(2015), "『朝鮮偉國字彙』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코기토』 7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3-135쪽, 여기에서는 124-131쪽에서는 『조선위국자휘』가 이후 서양인들의 한국어 관련 저술과 푸칠로(Пуциппо)의 『試作露韓辭典(시작노한사전)』, 『韓佛字典(한불자전)』 등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언더우드의 『한영ᄌᆞ뎐』이나 게일의 『한영ᄌᆞ뎐』 초판 등이 『한불ᄌᆞ뎐』을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조선위국자휘』가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0) 이 목록은 윤애선(2013), "개화기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고리 맞추기", 『코키토』 7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4-162쪽에서 제시한 목록과 송기중(1993), "近代化 黎明期의 外國語 語彙에 대한 關心", 『韓國文化』 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7-48쪽; 한영균(2015), 위의 논문, 113-135쪽, 그리고 『역대한국문법대계』의 서지를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11) 지볼트의 『*Nippon*』에 실려 있는 것에 독일어 번역을 추가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1832	*Nippon : Archiv für Beschreibung von Japan 7장* 『*Nippon*(일본)』	독일어	지볼트 (Siebold)	네덜란드 라이덴
1832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 Chinese Repository 1*	영어	귀츨라프 (Gützlaff)	중국 상하이
1833	*"The Corean Syllabary", Chinese Repository 1*	영어	모리슨 (Morrison)	중국 상하이
1835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朝鮮偉國字彙』)	영어	메드허스트 (Medhurst)	인니 바타비아
1840	*Das Tsiän Dzii Wen: Buch von Tausand Wörtern* (『千字文』)[11]	독일어	호프만 (Hoffmann)	

<표 1> 19세기 초반 한국어 관련 서양인 저술 목록

홀이나 클라프로트의 저술은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많지 않은 양의 어휘를 소개한 정도에 그친 것이었지만, 「*Chinese Repository*」에 실린 글은 비록 중국의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잡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인접하였으나 서구 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을 비롯한 서양인들에게 조선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이었다. 그리고 1832년에 출판이 시작되어 1854년까지 출간된 지볼트의 『*Nippon*』은 초판이 출간된 이후 유럽에서 다투어 번역을 하여 1835년에는 파리에서 프랑스어로, 1841년과 1845년에는 런던과 뉴욕에서 영어로, 1842년에는 러시아어, 1860년에는 스페인어로 각각 출판된다.[12] 이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자, 언어가 유럽 사회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 프랑스의 가톨릭 선교사나 영미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를 통해 조선의 말과 글을 접했을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2) 19세기 중반, 가톨릭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

한영균(2015), 위의 논문, 127-128쪽에 따르면 영역(英譯)은 메드허스트의 『조선위국자휘』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한다. 이 책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응호(1983), "Hoffmann의 「천자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1,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3-82쪽을 참고할 수 있다.

12) 이응호(1983), 앞의 논문, 68쪽.

서양인들이 한국어를 관찰이 아닌 학습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전파와 관련이 깊다. 16세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서적 등을 통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가톨릭은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소수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소속의 사제들이 한국에 들어와 전교 활동을 하였는데[13], 이러한 전교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한국어를 학습하였을 것이다.[14]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은 조선에 파견되기 전에 라틴어와 영어뿐 아니라 성 쉴피스 신학교와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부에서 다양한 동양어를 교육받았다고 한다. 남아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이때 받은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라코 델쿠르(Ragot-Delcourt, 2006:157)에 따르면 선교사들로서의 직업 훈련에는 필수 과목으로 영어가 있었으며, 번역을 위해 동양의 문화, 문학, 종교, 철학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1840년대부터는 파리동양어학교의 중국어 강의뿐 아니라 티베트어, 인도어 강의 등의 동양어 강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또한 지볼트의 『*Nippon*』이 1835년에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는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또는 한국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이들 프랑스의 가톨릭 선교사들은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860년대까지는 먼저 중국에서 중국어를 학습한 후에 조선에 들어와서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며, 1870년대부터는 리델(Ridel)이 만주(滿洲)에 세운 조선신학교(朝鮮神學校)[16]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17]

---

13)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서양인 가톨릭 선교사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신부인 모방(Maubant)으로 1836년 1월에 의주를 거쳐 한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 예수회의 스페인 출신 신부인 세스페데스(Gregorio de Céspedes)가 일본군의 종군 신부로 조선에서 1년 반 가량 활동하였으나 조선인 선교가 아닌 일본군 대상의 선교가 목적이었다.

14)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원주민의 언어로 교리문답을 제작했고, 기초 문법책이나 다소 간략한 언어 규칙을 교리문답에 덧붙였다. 고예진(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쪽.

15) 이은령(2011), "『한어문전』의 문법기술과 품사구분", 『프랑스학연구』 56, 프랑스학회, 177-210쪽에서 재인용.

하지만 가톨릭 선교사들이 활동하였던 때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시기였기에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18]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는지 대해 일부 추정은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19]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1831년부터 병인양요(丙寅洋擾)가 발발한 1866년 사이에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의 수는 21명이었다.[20]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학습을 위한 별다른 교재도 없이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던 생소한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외국어를 채록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포교의 역사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언어를 배울 기회와, 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축적하고 있었

16) 1869년 10월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를 통해 리델 신부가 제6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만주의 차쿠(岔溝)에 조선 교구 대표부를 설치하고 조선신학교(朝鮮神學校)를 설립하였다. 1881년 조선 교구 대표부가 나가사키(長崎)로 이전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신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쳤는지에 현재로써는 확인할 수 없다.

17) 송 민(1897),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어 연구 과정』,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33-148쪽.

18)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해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처형되고, 자료 역시 대부분 유실되었다. 달레(Charles C. 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ee, 1874)』에 따르면 다블뤼(Daveluy) 등 漢·韓·佛 사전, 10만 어휘 이상의 한국어-라틴어 사전, 공동 문법서 등 개발했으나 1866년 박해로 전량 압수되었고 분서(焚書)되었다고 한다. 강남욱(2005), 앞의 논문, 49쪽.

19) 초기에 중국을 거쳐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러하였듯이 가톨릭 선교사들 역시 조선으로 파견을 가기 전에 적지 않은 시간을 중국에서 준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로 한문(漢文)과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오랜 시간을 거쳐 중국에서 수입된 천주교 서적과 언해본 역시 구비되어 있었기에 이를 매개로 조선인과 소통을 하고, 조선의 말과 글을 배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현범(2015),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180쪽에서 선교사들의 전기(傳記)나 〈파리외방전교회〉로 보낸 서한 등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내용을 찾아내어 짧게나마 소개하였는데 초기에는 한국어 학습을 위해 대개 지방의 깊은 산골에 모여 사는 교우촌(敎友村)에서 조선인 신자의 집에 머물며 한국어만 쓰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1860년대 이후부터는 신임 선교사의 현지 적응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약 한 달 반 가량을 서울의 교구장의 집에 머물며 '조선 전교지 사목 규칙'과 다블뤼나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등이 만들어 놓았거나 만들고 있었던 '조선어 사전'을 베끼게 하였고, 그 후에 지방의 교우촌에서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였다고 한다.

20)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의 수는 모두 22명이었으나 실제로 입국한 선교사는 21명이었다고 한다. 조현범(2015), 위의 책, 98-102쪽.

다. 특히 가톨릭 선교사들은 라틴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전과 문법서라는 언어 학습 도구의 유용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고, 초보적인 수준이었겠으나 대조언어학적인 관점도 견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21] 이러한 점에서 조선에 파견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들도 한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여 후임자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사전(『한불ᄌᆞ뎐(韓佛字典, *Dictionnaire Coreen Fracais*)』)과 문법서(『*Grammaire Coreenne*』)를 만들게 되는 상황은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불ᄌᆞ뎐』과 『*Grammaire Coreenne*』[22]가 인쇄되어 정식으로 출간된 시기는 『한불ᄌᆞ뎐』이 1880년, 『*Grammaire Coreenne*』는 1881년이며, 저자는 조선에 파견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이다.[23] 인쇄본이 출간된 것은 1880년과 1881년이지만 그 발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1845년부터 조선에 머물던 다블뤼(M.N.A. Daveluy) 신부이다. 다블뤼는 제4대 조선교구장이었던 베르뇌(S.F. Berneux) 주교의 지원을 받아 프티니콜라(M.A. Petitnicolas) 신부, 푸르티에(C. Pourthié) 신부와 함께 사전 편찬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1866년 병인박해로 이들이 순교한 이후에는 리델(F.C. Ridel) 주교, 페롱(S. Félon)[24] 신부 등이 작업을 이어받아 완성한 것으로 실제적인 초고[25]의 완성은 『*Grammaire Coreenne*』은 1867년에, 『한불ᄌᆞ뎐』은 1868년에, 또 다른 사전인 불한사전 역

---

21) 윤애선(2013), "개화기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고리 맞추기 -*Grammaire Coréenne*(육필본) 분석을 통하여-", 『코키토』 7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4-162쪽, 여기에서는 115-116쪽.

22) 이 책은 흔히 학계에서 '韓語文典(한어문전)'으로 불리는데 책에 표기된 제목이 아닌 후대의 연구자들이 붙인 별칭이다. 본 연구에서는 1909년에 출간된 다카하시(高橋亨)의 『韓語文典(한어문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래의 서명인 『*Grammaire Coreenne*』을 사용하겠다.

23) 선교사들 외에도 많은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조력자들 중에 알려진 이들은 리델의 조력자인 최지혁과 달레의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한국천주교회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장(Jean)'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남종삼 밖에는 없다. 이은령(2011), 앞의 논문, 181쪽.

24) 페롱은 활판본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불한사전인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의 저자이다. 이 사전은 『한불ᄌᆞ뎐』과 같은 시기에 집필되었으며, 완성시기는 1868년 2월 이후에서 1869년 2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강이연(2005),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 *GRAMMAIRE CORÉENNE*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과 번역학적 의의-", 『프랑스어문교육』 2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7-35쪽, 여기에서는 8-9쪽.

25) 『*Grammaire Coreenne*』, 『한불ᄌᆞ뎐』의 육필본은 모두 전해지고 있다. 『*Grammaire Coreenne*』의 육필본에 대해서는 윤애선(2013)을, 『한불ᄌᆞ뎐』은 강이연(2005)와 이은령(2016)이 상세하다.

시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다시 말해 『한불ᄌᆞ뎐』과 『*Grammaire Coreenne*』는 가장 이른 시기에 서양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사용된 사전과 문법서였다.[27]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사전과 문법서가 한반도의 주변에서 문헌을 통한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저자들이 직접 한국어를 관찰하고 연구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록 정식 출간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지만 정식 출간 이전에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필사되면서, 또 교정을 거치면서 한국어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1890년 H.G.언더우드(元杜尤, H.G. Underwood)의 사전과 문법서가 출판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서양인들이 『한불ᄌᆞ뎐』과 『*Grammaire Coreenne*』로 한국어를 접하고 한국어 학습과 연구 등에 참고하였다[28]는 점에서 볼 때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이나 연구에 미친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출판 년도	문헌 명	저자	저자 정보
1874	*Опытъ русско корей скаго словаря* (『試作露韓辭典(시작노한사전)』)	푸칠로 (М.Пуцилло)	러시아 관리
1880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한불ᄌᆞ뎐(韓佛字典)』)	리델 (Ridel)	프랑스 선교사
1890	*A Concise-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韓英字典(한영ᄌᆞ뎐)』)	언더우드 (H.G. Underwood)	미국 선교사
1891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영한사전』)	스코트 (J. Scott)	영국 외교관

26) 『*Grammaire Coreenne*』과 『한불ᄌᆞ뎐』의 서지 연구는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이들의 상세한 출간 경위와 서지 사항 등은 강이연(2005), 윤애선(2013), 이은령(2016), 하강진(2016) 등을 참고하라.

27) 이상현(2010),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東方學志』 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9쪽에서는 사전과 문법서가 한국어의 표상을 한국인이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말과는 다른 형상으로 변모시켜 주며, 그 속에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대상, 즉 인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할 의사소통의 도구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28) 개신교 선교사뿐 아니라 1909년 조선 전교를 시작한 독일 〈베네딕토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들 역시 프랑스어를 매개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어 학습서를 편찬했다. 이런 점에서 리델의 사전과 문법서는 당시 조선을 거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 입문서이자 자신들의 사전과 문법서를 위한 지침서와 다름없었다. 이은령(2016), 앞의 논문, 205쪽.

1897	*A Korean-English Dictionary* (『韓英字典(한영ᄌᆞ뎐)』)	게일 (J. Gale)	캐나다 선교사

<표 2> 19세기 후반 서양인 편찬 이중어 사전

위의 <표 2>는 19세기 후반 출간된 서양인 저술의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이중어 사전을 정리한 것이다. 출간 시기로는 푸칠로의 『시작노한사전』이 가장 이르기는 하나 서명에 붙은 '시작(試作)'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소략한 시험적으로 편찬된 사전이었으며, 약 3,600개 정도의 표제어에 『왜어유해』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북방언(함경도 육진방언)을 싣고 있어 당대 한국어의 어휘 사용 양상을 충분히 담은 사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전 편찬의 목적이 연해주의 관리였던 푸칠로가 당시 급증하던 조선인 이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수월히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29] 사전이 사용된 환경 역시 제한적이었으며 『한불ᄌᆞ뎐』과도 상호 영향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한불ᄌᆞ뎐』이 출간된 이후인 1890년에 나온 H.G.언더우드의 『한영ᄌᆞ뎐』과 1897년에 간행된 게일(奇一 J.S. Gale)의 『한영ᄌᆞ뎐』[30]은 모두 『한불ᄌᆞ뎐』에 깊이 기대고 있다. H.G.언더우드의 『한영ᄌᆞ뎐』의 1부인 <한영부>[31]는 『한불ᄌᆞ뎐』의 자모 배열에 따라 표제어를 배열하고 있으며[32], <한영부> 표제어의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H.G.언더우드의 『한영ᄌᆞ뎐』의 표제어의 94%가 『한불ᄌᆞ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3] 또한 H.G.언더우

29) 『시작노한사전』의 서문에서 푸칠로는 "나는 남 우스리스크 주에서 프리모르스키 지방 행정청의 촉탁 관리로 일했다. 러시아에 이주하는 사람의 거주지 조정, 더 나아가 한국 사람에 대한 모든 일을 맡고 있었다. 이주민과 의사소통할 정도의 한국어 지식에 따라 일 수행의 성과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며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사전 편찬의 연유를 밝히고 있다. Natalia, Noskova(2013), "『시험적인 노-한 사전』(1874)과 『시험적인 노-한 소사전』(1904)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이 사전은 1911년과 1931년에 각각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31) 이 사전은 한영사전과 영한사전을 모두 담은 것으로 1부는 <한영부>, 2부는 <영한부>로 구분하겠다.

32) 언더우드는 이 책의 서문에서 『한불ᄌᆞ뎐』의 순서를 따른 것은 아직은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의 수는 매우 적은 반면에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사용자들이 『한불ᄌᆞ뎐』의 순서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당시 한국어를 학습하던 서양인들에게 『한불ᄌᆞ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중요한 학습의 매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이상현(2010), 앞의 논문, 234쪽.

드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송순용(宋淳容, 字는 德祚)이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고『한불ᄌᆞ뎐』의 편집에도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점[34] 역시 H.G.언더우드의『한영ᄌᆞ뎐』에『한불ᄌᆞ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신하게 한다.

H.G.언더우드의『한영ᄌᆞ뎐』은 소형사전이었다. 그는 이 소형사전과 함께 대형사전 역시 기획하고 있었는데『한영ᄌᆞ뎐』이 출간된 당시 이미 대형사전이 1/3가량 완성된 단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형사전의 제작을 담당하고 완성한 이가 게일이다.[35] 게일이 이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것은 그가 프랑스어 독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36] 즉, 사전을 편찬할 때『한불ᄌᆞ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실제 게일의『한영ᄌᆞ뎐』은 그 서문에서 사전을 만들 때 프랑스 신부가 정리한 단어 목록을 기초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전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용 문법서인『*Grammaire Coreenne*』역시 이후 출간된 개신교 선교사들이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음의 <표 3>은 19세기 후반에 출간된 서양인 저술의 한국어 학습서들이다.

출판년도	문헌 명	저자	저자정보
1877	*Corean Primer*	로스 (J. Ross)	영국 선교사
1881	*Grammaire coréenne*	리델 (Ridel)	프랑스 선교사
1882	*Korean Speech(Corean Primer*의 개정판)	로스 (J. Ross)	영국 선교사
1887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언문말칙』)	스코트 (J. Scott)	영국 외교관
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韓英文法(한영문법)』)	언더우드 (H.G. Underwood)	미국 선교사
1893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언문말칙』) 개정판	스코트 (J. Scott)	영국 외교관

34) 이상현(2010), 위의 논문, 225쪽.
35) 이상현(2010), 위의 논문, 231쪽.
36) 1893년 2월 25일 게일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김인수 역, 2009:57)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94	*The Korean Grammatical Forms* (『ᄉᆞ과지남(辭課指南)』	게일 (J. Gale)	캐나다 선교사
1896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Fifty Helps*』)	애니 베어드 (A.L. Baird)	미국 선교사

<표 3> 19세기 후반 서양인 저술 한국어 학습서

『*Corean Primer*』와 그 개정판인 『*Korean Speech*』의 저자인 로스가 책을 집필하기 전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사전과 문법서를 접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책의 내용상으로는 저자인 로스가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 익힌 중국어 지식과 중국어 학습서[37] 집필 경험과 북방의 접경 지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을 토대로 한 독자적인 저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후에 출간된 스코트의 『언문말칙』과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 게일의 『ᄉᆞ과지남』은 모두 『*Grammaire Coreenne*』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였으며, 그 문법 기술을 상당 부분 전수하고 있음은 기존 논의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8]

3) 19세기 후반, 서양인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

개신교 역시 1884년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만주와 일본 등 접경지에서 한국 선교를 시도하며 성경 번역과 전도를 위한 한국어 학습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소속의 로스와 그의 매제인 맥킨타이어(J. Mclntire)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39] 국경 지역에서 매서인(賣書人)을 통해 이를 보급하며 한국 선교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어학 능력을 지녔던 로스가 의주 출신의 이응찬(李應贊)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후인 1877년에 『*Corean Primer*』를, 5년 뒤인 1882년에는 이 책의 개정판인 『*Korean Speech*』를 출판한다.

37) 1876년에 출간된 중국어 회화서인 『*Mandarin Primer*(中國官語入門)』을 말한다.
38) 스코트, H.G.언더우드, 게일의 한국어 학습서와 『*Grammaire coréenne*』의 영향 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은령(2012), 앞의 논문, 442-455쪽에 상세하다.
39) 초기에 이루어진 한글 성서 번역은 한문 성경을 이용한 중역(重譯)이었다.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이수정의 성서 번역 역시 이와 같은 중역의 방식이었다.

『*Corean Primer*』는 서양인이 저술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로스가 1876년에 중국에서 출간한 중국어 회화 교재인 『*Mandarin Primer*(中國官語入門)』를 전범(典範)으로 하여, 이 책의 기본적인 틀을 가져와 제작한 것으로,[40] 이 책의 도입부(introduction)에서 밝히고 있는 집필 목적[41]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 무역, 선교'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기에 한국의 북방 변경에서 시작된 '한국어 학습'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스의 『*Corean Primer*』와 『*Korean Speech*』가 가지는 당대의 의미는 스크랜튼(W.B. Scranton)과 그리피스(W.E. Griffis)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크랜튼은 로스의 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우리들은 누구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기와 인내로서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최초의 사전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존 로스 목사를 잊을 수 없다. 그의 한국어 교재는 우리 몇 사람에게 한글을 깨칠 수 있게 하였고, 그의 성서사업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만주에서 온 몇 명의 협조자를 얻게 하였다. 로스는 또한 죤 맥킨다이어(John MacIntyre)목사와 함께 성서번역사업을 개척하고 聖書的 韓國語의 기초를 닦아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잊을 수 없는 謝意를 표하는 기쁨을 가지는 바이다."(백낙준, 1973:151)[42]

그리피스도 자신의 저서인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에서 다음과 같이 로스의 『*Corean Primer*』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은자의 나라 한국』 대부분은 1877년부터 1880년 사이에 쓰여졌으며, 그

40)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강남욱(2005), 앞의 논문, 50-51쪽과 최근 논의인 김주필·홍성지(2017), "한국어 교재 Corean Primer (1877)의 특성과 텍스트 형성 배경", 『언어학』 78, 한국언어학회, 99-129쪽을 참고할 수 있다.

41) 도입부에서 밝히고 있는 이 책의 집필 목적은 '이 책은 앞으로 한국과 거래하는 관료와 상인, 주로 선교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The following lessons are intended to introduce to the Corean language those desirous to prepare for the official, mercantile, and chiefly the missionary intercourse with Corea, which cannot be of distance date.", Ross(1877), *Corean Primer*, p3.

42) 고예진(2013), 앞의 논문, 29-30쪽에서 재인용.

뒤 主題의 기술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쓴 한국어 문법과 사전 외에도 로스가 쓴『*Corean Primer*』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이들 음운서의 도움으로써 나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의문나는 점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다."(이응호, 1979:35)[43]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외에도 부정적인 평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영국 외교관이었던 애스턴(W.A. Aston)이 일본 주재 영국 외교관이었던 사토우(E.M. Satow)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사토우의 한국어 통역사가 로스의『*Corean Primer*』를 읽고 평가한 내용이 있다.

"…로스의 책을 읽은 한국인 통역사에 들은 바를 따르면 로스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한국인에 의해 중국어 문장들이 한국어 문장들로 번역된『만다린 프라이머』(Mandarin Primer)의 번역책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라운(Brown)의『Colloquial Japanese』초판처럼 말입니다. (그 책의) 문장들 다수가 한국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한국인 통역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책에 한국어와 함께 그 어원이 한자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더 알아보기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44]

이러한 언급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부정적인 평가와 북방 지역 방언이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로스의『*Corean Primer*』는 한국어 학습에 마땅한 교재가 없었던 초기의 영어권 개신교 선교사들에게는 한국어 학습을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였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첫 개신교 신자인 이수정(李樹廷)이 〈미국성서공회〉의 일본 총무였던 루미스 목사(H. Loomis)의 요청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유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며, 미국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였다.[45] 이수정의 이런 노력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개신교

43) 고예진(2013), 앞의 논문, 30쪽에서 재인용.
44) 석주연(2017), "구한말 영국인 외교관 애스턴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 -한국어 관련 논문과 한국어 학습 일지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9-117쪽, 여기에서는 83-84쪽.
45) 이수정은 당시 일본 교회에서 대두되었던 한국선교론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신교를 일본

선교사들은 한국 입국 전에 잠시 동안 일본에 머물며 한국 입국을 준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수정을 비롯하여 일본에 유학중이던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이라는 현상이 포착된다.[46]

이들은 일본에서 로스와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과 리델의 『한불ᄌᆞ뎐』, 『*Grammaire Coreenne*』 등을 통해 한국어를 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인 개인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 및 연구하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 "그는 한국어 공부에 하루 다섯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바빠서 공부를 거의 못하는군요'라고 한국인 선생은 불평하였다. 그러나 잘 짜여진 이야기를 완전히 읽어 본 날도 많았다. 그는 아침 6시에 공부를 시작하였다. 7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이후 운동도 하였다. 선생과 붓과 종이와 함께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를 쓰고 발음해 보고 말하였다. 이 공부는 점심식사 종이 울릴 때까지 바빴다."[47]

> "개척 선교사들은, 아마도 사전을 편찬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공책이나 묵은 편지의 뒷장이나 소매, 종이 등 무엇이든 가까이에 있는 평평한 바닥에다 단어장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아, 사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열망을 가졌다. 문법의 서법이나 시제, 혹은 관용구 등을 찾아내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가 콜롬버스나 아르키메데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흔히 가졌다. 다행히 프랑스의 선교사인 리델 주교가 숲 속에 길을 뚫어 놓긴 했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용어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깊은 고뇌의 경험으로부터 정확한 단어들을 찾는 것은 격심한 펌프질을 연상시키는 힘든 작업이었다."[48]

을 통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직접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2014), 앞의 책, 118-119쪽.

46) 만주와 일본에서의 한국 선교 시도와 성경 번역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2011),『한국 기독교의 역사1』, 서울: 기독교문사, 101-126쪽; 이상규(2011),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 :한국성경번역사 개관",『고신신학』13, 고신대학교 고신신학연구회, 229-258쪽; 전무용(2011),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7) 이만열(1985),『아펜젤러 :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43쪽

48) 이만열(1985), 위의 책, 167쪽.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미감리회〉 선교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입국하였던 아펜젤러(H.G. Appenzeller)가 남긴 기록으로 이러한 기록을 통해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어 학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한국어 학습서와 사전의 출간으로 이어졌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스코트의 『언문말칙』,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 게일의 『ᄉᆞ과지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은 1884년에 입국하여 약 8년간 조선에 체류했던 영국의 외교관 스코트의 『언문말칙』이다. 저자인 스코트가 비록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영어권 학습자를 위해 문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한국어를 익히는 데 유용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이 책은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1893년에 나온 개정판은 문법 부분을 보완하여 문법서로서의 구성을 갖추었는데 1부는 문법 설명(Introductory Grammar), 2부는 문장 연습(Colloquial Phrases: Excercise)로 구성하였는데[49], 전반적인 체계는 『*Grammaire Coreenne*』와 유사하다.[50]

이후 1890년에 출간된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은 2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Grammatical Notes'로 한국어 문법에 대한 기술이고, 2부는 'English into Korean', 즉 영어의 문법 체계로 본 한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영어권 화자의 문법지식을 고려해 영어 문법의 틀에서 한국어를 기술한 것으로 영어권 화자가 대다수였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사용되었다. 한국인 개인교사나 한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개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49) 초판의 <문법부>는 7품사로 명사, 형용사, 대명사, 조사, 부사, 후치사, 접속사의 순서로 기술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수사를 형용사에 독립시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여 8품사 늘었으며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조사, 부사, 후치사, 접속사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초판에는 없는 간접화법이 <문법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되었다는 점과 각 품사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후에는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부의 경우 초판은 66과였던데 비해 개정판에서는 40과로 줄었고 주제별로 재배열하였다.

50) 스코트는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한국어 연구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어를 습득하던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방식은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과 『한영ᄌᆞ뎐』이 출간되면서부터 비로소 조금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틀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1]

게일의 『ᄉᆞ과지남』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52] 개인적 저술이 아닌 명백히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선교회 차원의 작업이었다. 〈북장로회〉의 1892-1893년간의 연회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문법서 또는 학습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던 게일이 그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H.G.언더우드, 게일, 스코트, 애니 베어드[53] 등 개신교의 한국 선교 초기에 입국하여 한국어를 학습하고 연구하였던 이들 초기 서양의 선교사들과 외교관의 노력은 이후 교파별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큰 공헌이었다. 이들이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와 사전들은 20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및 학습에 사용되었던 바이블(Bible)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의 결과물들이 나온 이후에도 『한불ᄌᆞ뎐』과 『*Grammaire Coreenne*』 역시 꾸준히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학습 관련 문법서와 사전의 편찬에 참고가 되었고, 이후 교육에서도 꾸준히 이용되었다는 점[54]에서 1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개신교 선교사의 한국어교육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 가톨릭

---

51) 이는 〈북장로회〉 선교사들의 첫 한국어 시험이 이 두 책이 출판과 같은 1890년에 시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언어 위원회〉의 한국어 '학습과정' 역시 비슷한 시기인 1891년의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52) "I offer the following to the Presbyterian Mission as the result of my efforts in accordance with work set apart for me by the annual meeting of 1892-1893."(나는 1892-1893년의 연례회의를 통해 내가 별도로 추진한 일이 있는데 그 노력의 성과로 이 책을 장로회 선교부에 제출한다.), 서민정·김인택 역(2010), 앞의 책, 46-47쪽.

53) 애니 베어드(A.L. Baird, 안애리)는 〈북장로회〉의 개척선교사로 평양 숭실학교(Pye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현 숭실대학교)의 창립자인 윌리엄 베어드(W.M. Baird, 배위량)의 부인으로 숭실학교에서 식물학, 천문학, 지리학 등을 가르치며 『동물학』, 『식물도셜』, 『챵가집』 등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어학 능력도 뛰어나 1897년에 초판이 나온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는 이후 판을 거듭하며 30년이 넘게 꾸준히 애용된 초급자용 스테디셀러 한국어 학습서였다.

54) 이러한 양상은 3장에서 다루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공헌도 결코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앞서 다뤄진 책들의 저자들이 모두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들이라는 점이다.[55] 이 점은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 이후 《Language Class》를 중심으로 전개된 단기 집중 한국어 강좌를 〈북장로회〉가 주도하게 된 것이 단지 한국 현지 선교회의 규모면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2 절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전개와 특징

이 시기에 시작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다루기에 앞서 같은 시기, 한반도라는 같은 공간에서 전개되었던 한국어교육의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인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어교육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또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당대적 위상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 일본의 전통적 한어(韓語) 교육

일본은 한반도의 인접국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한반도의 언어를 학습한 나라이다. 특히 지금의 대마도(對馬島, 쓰시마)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3세기경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있었다. 한반도의 언어 학습에 관한 가장 앞선 시기의 기록은 『續日本記(속일본기)』의 것으로 761년에 미노(美濃)과 무사시(武藏) 두 지역의 소년 각 20명에게 신라어를 배우게 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외에도 『日本後紀(일본후기)』에서도 고닌(弘仁) 4年(814) 9월과 6年(816) 정월의 기사(記事)에 대마도에 신라역어(新羅譯語)를 1명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언어를 학

55) 게일의 경우 〈캐나다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토론토 대학교 〈YMCA〉의 지원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선교 지원이 중단된 1891년 이후에는 〈북장로회〉로 소속을 옮겨 활동하였다.

습해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56]

근세[57] 이후부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심은 대마도였다. 대마도의 사람들은 일본보다는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웠던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었기에 한어(韓語)[58]의 구사는 주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또한 대마도가 자리한 지정학적인 위치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외교 사절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이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유리한 곳이었다.[59] 그렇기 때문에 한어 구사가 가능했던 대마도 사람들은 두 나라의 외교 관계에서 통역을 담당하거나 한반도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대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목적과 한반도와의 정치적, 외교적 가교로 쓰고자 했던 정권의 요구에 의해 한어를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대마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727년에 설립된 전문 통사(通事) 양성소인《한어사》가 중심이었다.《한어사》는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60]가 1720년에 제출한 통사양성책인 '한학생원임용장(韓學生員任用帳)'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일본 최초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이었다.《한어사》의 설립으로 이전까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세습적 가정교육으로 한어를 배우거나, 교역을 위해 조선의 왜관에 머물며 조선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한어를 습득했던 것

56) 李覲洙(1987),『朝鮮朝의 語文政策 硏究』, 홍익대학교 출판부, 7쪽; 정승혜(2006ㄱ), "대마도에서의 한어(韓語) 교육",『語文硏究』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58쪽, 38-39쪽; 강남욱(2009), 앞의 논문, 195-196쪽.

57) 근세는 중세와 근대 사시의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선이 건국한 1392년을 기점으로 하나 그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차가 크다.

58)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어 또는 조선어가 아닌 韓語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山田寬人(1998), "朝鮮語学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I880年～1945年-",『朝鮮學報』169, 天理大學朝鮮學會, 53-83쪽에서는 韓, 韓語라는 명칭이 한일병합을 경계로 하여 조선어학습서 및 사전 등의 책명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이전에는 전무했던 鮮, 鮮語라는 명칭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59) 정승혜(2006ㄱ) 역시 대마도에서 한국어 학습을 전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일본에서 '쇄국체제'가 시작된 시점부터 대외 교섭의 장소가 마쓰마에(松前), 쓰시마(對馬), 나가사키(長崎), 오사카(大阪) 네 곳으로 한정되었고, 대마도 사람만이 부산의 왜관(倭館)에 거주할 수 있어 한반도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60) 아메노모리호슈는 대표적인 한어(韓語) 학습서인『交隣須知(교린수지)』의 저자로 일본의 한국어교육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생애와 언어관 및 교육관에 관한 논의는 김혜란(2008),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교육관", 한국외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과 이길원(2013),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의 언어관과 국제교류",『石堂論叢』57,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03-170쪽이 상세하다.

과는 달리《한어사》의 설립 이후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과정[61]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조선의 초량왜관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다.

대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메이지유신으로 인한 '폐번치현(廢藩置縣)' 정책에 따라 쓰시마번(對馬藩)이 폐번된 이후에는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한어사 역시 폐지된다. 한어사의 폐지 이후 1872년 이즈하라(嚴原)에 설치된《한어학소》(韓語學所)가 새롭게 한어 전문가 양성을 담당하였으나[62] 생도관리에서의 문제 등[63]으로 인해 1년 만에 부산의 초량왜관에 설치한《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로 이전하여 1880년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개설될 때까지[64] 한어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즉, 대마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상인이라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세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본에서의 전통적인 한국어교육은《한어사》,《한어학소》,《초량관어학소》로 이어지는 전문적인 통사 양성 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으로 이어져오다 일본의 근대화와 더불어 동경외국어학교라는 최초의 근대적인 형태의 한국어교육[65]으로 변모한 것이다.

---

61)《한어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승혜(2006ㄴ), "일본에서의 한어(韓語) 교육과 교재에 대한 개관",『이중언어학』30, 이중언어학회, 335-353쪽; 허지은(2008), "쓰시마 조선어 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한일관계사연구』29, 한일관계사학회, 123-170쪽; 황백현(2010), "對馬島의 韓語學習에 관한 硏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초량관어학소》의 교육에 관한 논의는 박진완(2013, 2015, 2016)에 상세하다.

62) 山田寬人(2000), "教育機関에 있어서의 朝鮮語科의 設置와 廢止에 관한 一考察",『일본문화학』9, 한국일본문화학회, 423-435쪽, 425쪽에서는 大曲(1936:148)을 인용하여 일본 外務省이 嚴原韓語學所를 설립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同年(1872년) 六月　外務權大錄 森山茂가 對馬를 방문했다. 여기서 吉副喜八郎은 친구인 越粕太郎과 함께 森山를 방문하여 朝鮮語가 國家를 위해서는 대단히 必要하며 또 朝鮮語學校의 設立이 가장 急務인 것을 力說했기 때문에 森山은 이에 贊成하고 上司에게 그 情勢를 具申했다. 이로 인하여 官에 있어서도 그 要望을 받아들여서 一箇年 三百円정도의 經費로 嚴原에 朝鮮語學所를 設置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다."

63)《한어학소》가 9개월 만에 폐지된 것은 학생들 간의 경제 수준 격차에 따른 분쟁, 당국에 대한 불만과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인한 분규 속에서 조선 현지가 아닌 대마도에서의 학습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황백현(2010), 앞의 논문, 84쪽.

64) 1880년에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를 개설하며《초량관어학소》의 학생과 교사를 동경외국어학교로 송치하였고,《초량관어학소》는 폐지하였다.

65) 일본 최초의 근대적 한국어 교육기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정근식(2007)은 1872년 개소한 이즈하라의 한어학소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보았고, 정승혜(2006ㄴ)는 1880년에 동경외국어학교에 개설된 조선어학과를 최초의 근대적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논의 모두 어떠한 근거에 기대고 있는지

2)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어교육의 변화

대마도를 중심으로 조선과의 외교와 통상에 목적을 두고 전문 통사를 양성하였던 일본의 전통적인 한국어교육은 메이지 정부가 담당하는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개설되며 그 성격이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한반도 침략의 수단으로 변모한다. 그 실체적인 근거는 첫째,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 설립, 둘째, 일본인용 조선어 학습서 발행의 급증, 셋째, 일본 내 대학의 조선어학과 개설과 폐지, 한어에서 조선어로 명칭의 변경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가)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의 설립과 성격

일제 강점기 초기의 통역관 양성과 고위직 통역관의 산실이었던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의 설치는《초량관어학소》의 폐지와 함께 이루어졌는데《초량관어학소》가 외무성의 소관이었던데 반해 동경외국어학교는 문부성의 관할이었다. 문부성은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의 설립을 '한어 망실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학과 설립 경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적인 목적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위한 국가전략적인 측면에 있었다.

동경외국어대학사 편찬위원회에서 1999년에 펴낸『동경외국어대학사』의 연표에 따르면 1880년 조선어학과의 개설 당시 입학 허가를 받은 24인 중에서 동경외어 소속 급비생 8인과 자비생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무성 소속의 관비생 5명, 육군성 소속의 관비생 2명, 해군성 소속의 관비생 5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외무성과 군의 위탁 교육생이었던 셈이었다. 즉,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 설치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써 외교와 군사의 측면에서 전문적인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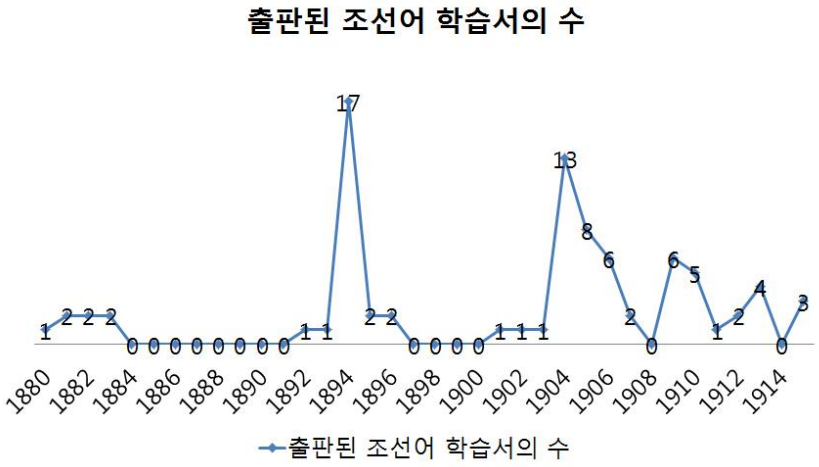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한어사〉라는 전통적인 통사 양성 기관에서 '한어학소'와 '초량관어학소'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구에 부합한 것이었다.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의 교육은 '일본에서의 기초 학습과 조선에서의 실습'을 기본적인 틀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한어사와 한어학소가 가지고 있던 '대마도에서 기초 학습 후 왜관에서의 실습'이라는 틀은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다만 그 구체적 장소가 동경과 서울로 바뀌어 '동경에서의 기초 학습 후 서울에서의 실습'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전환에는 조선어학과의 생도들에게 요구되었던 실무 능력이 통역뿐 아니라 조선의 정세파악이라는 정보수집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으로의 침략을 본격화하는 데 있어 부산이라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조선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주요 거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의 개설은 일본이 침략의 수단으로써 본격적으로 조선어교육을 시행했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본인용 조선어 학습서 발행의 급증

개화기를 전후하여 한일병합 때까지 발행된 일본인용의 조선어 학습서를 보면 눈에 띄는 시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山田寬人(1998)에서 1880년에서 1945년까지 발행된 조선어 학습서의 수를 정리하여 제시한 표인 '朝鮮語學習書發行數(조선어학습서발행수)'의 일부인 1880년에서 1914년까지만을 도표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일본인용 조선어 학습서의 연도별 출간 현황

위의 [그림 1]에서 1894년과 1904년 각각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주변 강대국들 간에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발발한 시기이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두 시기에 각각 일본인용의 조선어 학습서가 집중적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영향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데 당시에 발간된 조선어 학습서의 서명에 『日淸韓三國對照會話(일청한삼국대조회화)』(1894)와 『日韓淸會話(일한청회화)』(1894), 『日露淸韓會話自在(일로청한회화자재)』(1904)와 같이 조선, 청나라, 러시아의 언어를 모두 다루고 있는 학습서들이 다수 발행되었다는 점과 『兵要朝鮮語(병요조선어』(1894), 『日韓會話(일한회화)』(1894)처럼 책의 서문에 군사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학습서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66] 나타난다. 또한 당시 발행된 대다수의 조선어 학습서들이 조선어에 대한 문법 해설이 전무하고, 한글 표기 역시 전혀 없이 단순하게 조선어의 발음을 카타가나(片仮名)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당시 조선어 학습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행된 맥락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대륙진출의 실체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67]

66) 『兵要朝鮮語』의 범례에는 '本書は兵用を主もせるを以て。(본서는 군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와 같이 학습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6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山田寬人(2000), 앞의 논문, 423-435쪽을 참조할 수 있다.

다) 일본 내 조선어과의 개설과 폐지

일제의 침략 전쟁과 함께 급증한 조선어 학습서의 발행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은 일본 내의 조선어과의 설치이다. 편무진(2003)에서는 이 시기에 일본 내에서의 조선어과 설치와 폐지 현황을 다음의 <표 4>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68].

교육기관명	내용	설치연도	폐지연도
韓語學所	전공	1872	1873
東京外國語學校 朝鮮語學科	전공	1880	1886
長崎県立嚴原中學校	제2외국어	1883	?
(東京)高等商業學校	제2외국어	1894	**1897**
慶応義塾 朝鮮語學校	전공	1894	1895
高等商業學校附設外國語學校 韓語學科	전공	**1897**	1927
山口高等商業學校	제2외국어	1905	1922
長崎高等商業學校	제2외국어	1905	1922
東洋協力專門學校	전공	**1909**	1920

<표 4> 일본 내 조선어학과의 설치와 폐지 현황

위의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내에서 조선어과의 설치가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가 대륙으로의 침략을 전제로 조선 내에서의 상업 또는 군사 목적의 조선어에 대한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들 학교의 조선어학과 설치 이유에서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인한 일본과 조선의 관계 변화를 염

68) <표 4>에서 밑줄과 굵게 처리된 것은 원래의 표(편무진, 2003)에서 보이는 오기를 연구자가 바로 잡은 것이다. (東京)高等商業學校의 조선어과는 1897년 이후 강의를 담당할 교원이 없어져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高等商業學校附設外國語學校 韓語學科의 개설 시기는 1897년이다. 또한 山田寬人(2000: 428)는 (東京)高等商業學校의 조선어교사였던 山崎英夫가 1897년에 신설된 高等商業學校附設外國語學校 韓語學科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였다는 점과 (東京)高等商業學校가 1897년에 강사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두 학교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東洋協力專門學校의 경우 1907, 1908년에는 支那語學科와 臺灣語學科의 학생들이 조선으로 파견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조선어가 정식으로 학과로 설치된 시기는 1909년이다.

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9]

라) 한어에서 조선어로, 명칭의 변화

한일병합[70]은 일본인 중심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대상이었던 한국어의 제도적 지위가 한 나라의 공식적인 언어에서 일개 식민지 국가의 지방어로 전락하게 된 것인데,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더 이상 외국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어에서 조선어로 그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일병합 이후에 발행된 학습서의 서명에서는 한(韓), 한어라는 명칭이 전혀 쓰이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일병합 이전에 발행되어 한일병합 이후에 새롭게 판(版)을 낸 학습서의 경우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서명만이라도 바꿀 정도로 철저하였다.[71] 또한 학교의 교과명 역시 1910년을 경계로 변경된 곳이 많은데 동경고등상업학교(東京高等商業學校)에서는 1910년까지 '韓語(한어)'였던 교과명을 1911년부터는 '朝鮮語(조선어)'로 변경하였고, 야마구치고등상업학교(山口高等商業學校)와 나가사키고등

69) 高等商業學校附設外國語學校 韓語學科 개설 이유에 대해서 石川(1996:182)은 "新外語가 淸日戰爭의 前後經營의 하나로서, 특히 露·淸·韓語學科의 需要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山口高等商業學校와 長崎高等商業學校의 조선어과 설립의 목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본교 창립의 취지는 淸·韓 방면에서 활약할 인재의 造就를 主眼으로 했다. 日露戰爭의 전후를 통해 東亞의 발전을 급무로 하던 사정에 인한 것이다. 先輩校 즉 東京及 神戶(第二) 兩高等商業學校가 널리 對世界的인 商業知識을 가르친 것에 대해, 本校及 山口(第四) 兩校는 특히 東亞의 개발을 지향하여 그 敎育方針을 정했다." -『長崎高等商業學校三十年史』(1935), 山田寬人(2000), 앞의 논문, 428쪽에서 재인용.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第二外國語를 淸語韓語로 한 것으로서 이것은 本校가 滿韓經을 교육의 一綱領으로 한 趣旨에 근거한 것이다." -『山口高等商業學校沿革史』(1940), 山田寬人(2000), 위의 논문, 428쪽에서 재인용.

70) 경술국치, 한일합방, 한일합병, 일제병탄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조약의 당시 정식명칭은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이다. 이태진(2006), "한국병합조약인가, 한일합방조약인가",『역사비평』75, 역사비평사, 280-285쪽에서는 이 조약이 강요당한 것이었다는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국병합늑약',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일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71) 山田寬人(1998), 앞의 논문, 58-59쪽.

상업학교(長崎高等商業學校)도 역시 1911년도의 개정으로 교과명이 '韓語(한어)'에서 '朝鮮語(조선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적 위상이 외국어에서 식민지 지역의 일개 방언으로 전락하였다고 해서 조선어 학습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일병합을 계기로 실질적·공식적으로 조선에 대한 통치를 시작한 일본에 있어 조선어 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의 확대로 인해 조선어교육의 기반은 점차 일본에서 조선으로 그 교육의 장(場)이 옮겨가게 된다.[72]

3)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선어교육의 전개

오대환(2009)은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이 시기 조선어교육이 1921년 시행된 조선어 장려 정책과 1938년의 황민화 정책을 분기점으로 하여 성장하고 쇠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두 정책이 식민지 시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교육이 전개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견해에 따라 조선어 장려 정책의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선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 조선어 장려 정책 실시 이전

한일병합 이전부터 조선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조선어 교육기관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들 교육기관들에서는 현지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조선어부터 상업을 위한 조선어, 그리고 일본의 관비 유학생들을 위한 조선어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통감부의 설치로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 이후,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강제 점령이 시작된 이후에는 조선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민

72) 정근식(2007), "구한말 조선어 교육과 일본인 통역 경찰의 형성",『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7-55쪽은 이러한 교육의 場의 이전을 '대마도-부산'이라는 이행기적 축으로부터 '동경-서울'이라는 근대적-식민지적 축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다.

치 통치에 활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당시의 일본인 교원과 경찰관 등의 관원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이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총독부는 식민지의 일개 지방 방언이었던 피지배층 언어인 조선어를 지배층인 일본인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조선어교육을 강화한다. 이는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동화정책'의 수행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교육의 제일선에 있던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의 시행[73]과 식민 통치에서 조선 민중을 가장 근거리에서 접해야 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선어교육의 시행이었다.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의 시행 배경에는 조선총독부의 '동화주의'와 '무단정치'라는 식민지 통치 정책과 '조선교육령'으로 대변되는 교육 정책이 있었고, 그 기저에는 '국어'는 일본어이나 대다수의 민중이 일본어를 모르는 식민지 조선의 언어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는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었고 강제 병합 전 효과적인 조선 지배를 위해 조선인들의 일본어 사용에 대한 조사와 압박을 하고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정책[74]을 내세운다. 또한 통감부 시절부터 조선의 교육제도를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일본인 교육 관료들을 조선에 파견하였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교육 관료 외에도 일본에서 데

---

73) 1911년 동경전문학교(와세다 대학의 전신)의 창설자이자 총장이었던 오오쿠마 시게노부는 "(전략) 그 나라의 시정, 교육, 그 밖의 임무를 진 우리 국민에게, 조선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 국어를 배우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 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수단으로 우리 국민에게 조선어를 배우게 해, 이것에 의해 그가 지도의 임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언제까지라도 계속 행하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을 우리로 동화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교육의 임무로 파견되는 교육가는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 행정상의 시정이라 해도, 이것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고 조선어교육의 한시적 필요성을 논하였다. 오대환(2009), 앞의 논문, 30쪽에서 재인용.

74) 대한매일신보의 1907년 10월 26일자 기사에는 "금번에 관제를 ᄀᆞ뎡ᄒᆞᄂᆞᆫᄃᆡ 탁지부에ᄂᆞᆫ 판임관 이십오명을 둘터인고로 ᄒᆡ부에 잇ᄂᆞᆫ 판임관즁에 일어를 잘ᄒᆞᄂᆞᆫ사ᄅᆞᆷ으로 가리혀 쓴다더라."는 내용이 실렸으며, 1910년 7월 16일자의 기사에는 "각경찰셔ᄂᆞᆫ 슌사보를 각방곡에 파송ᄒᆞ여 일본말을 아ᄂᆞᆫ쟈가 잇고 업습을 집집마다 됴사하였다더라."는 내용이 있어 이와 같은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오새내(2013),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육에 종사한 조선인 교육자들의 행적에 대한 국어학사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459-486쪽, 여기에서는 233쪽.

려온 일본인 교사들을 조선의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일본어로 거의 모든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75] 이러한 배경에는 와세다 대학의 교수였던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필두로 한 당시 일본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들의 조선어학습 불요론(不要論)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寺內正毅)도 조선인 교육에 대한 자신의 방침에서 조선 통치의 근저에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신하였고 그 방편이 일본어의 보급이라는 견해[76]를 밝힌 바 있다. 즉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과 통치자들은 식민지의 언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본과의 동화를 식민지 통치에 주요 기조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식에서 통치의 다른 수단으로 주요하게 활용되었던 것이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정치였다.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그로 인한 소요사태를 처리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당시 헌병경찰의 권한은 막강했고 그 임무의 범위 역시 대단히 포괄적이었다.[77] 항일투쟁에

---

75) 이 시기 조선에서의 일본어교육에 대해서는 편무진(2003), 허재영(2011) 등의 자료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76) 홍양희(2015), "식민지 초기 교육 담론과 '동화주의'", 『한일관계사연구』 50, 한일관계사학회, 253-285쪽, 여기에서는 261쪽에서는 일본 '제국교육회' 소속의 일본 교육 전문가들과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일본 교육 전문가들과 총독 데라우치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교육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였다.

① 조선교육에 대한 나의 방침은 점진주의로 쟁할 수 있다. 교육과 같이 문명의 정도, 인민의 생활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개혁은 도리어 민심을 동요시켜 의외의 악결과를 생기게 하는 일이다.

② 일본어의 보급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하고 총독부내에도 극단의 일본어론자가 있을 지언정 일인도 반대하는 자가 없다. 요는 정도 문제일 뿐, 이리하여 여하한 정도, 여하한 범위에서 일본어를 교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목하 연구중이다.

③ 유교주의는 조선교육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주종, 남녀, 부자의 관계를 보아도 유교는 그 본국지나보다도 오히려 조선에서 원만하게 발달하였음을 보고, 나는 동주의에 대해 충분한 보양을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④ 기타 교원의 양성 보통교육의 보급 등에 관해서는 전력을 들여 취조중이다. 요컨대, 나는 조선통치의 근저는 교육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에 다수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77) 당시 헌병경찰의 권력에 대해서 김남수(2010), 『100년 전의 한국사 : 미래 100년을 위해 과거 100년을 질문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198-199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병경찰의 임무는 매우 다양했다. 이른바 '불온'연설 단속, 단체 가입 통제, 언론 감시 및 단속 등 정치적인 사항은 물론 이미 1908년경부터 민적 사무 취급을 시작으로 출생신고, 청소 지도, 민사 조정, 어업 단속, 정세 활동 지원, 묘지 장례 화장장 단속, 화약 단속, 검역, 음식물 위생 단속, 도로의 정비와 유지 등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생의 모든 사항을 관할했다. 법령에 규정된 헌병경찰의 권한은 막강했다. (후략)"

대한 무력 진압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출판의 검열과 같은 정치적인 사항뿐 아니라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생의 모든 사항까지 관여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 경찰 집단은 총독부 소속의 모든 관원들 중에서 대민 접촉이 가장 빈번한 조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 5>에서 보여주는 식민지 조선의 언어 현실은 일본어 보급을 통한 점진적인 동화와 무력만을 사용한 통치만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8]

연도	겨우 조금 이해한 자	일상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	일본어 해득자 총수	전체 인구 (조선인)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
1913	63,090	29,171	92,261	15,169,923	**0.61%**
1915	110,746	56,955	167,701	15,957,630	**1.05%**
1916	140,448	72,125	212,573	16,309,179	**1.30%**
1917	170,500	85,341	255,841	16,617,431	**1.54%**
1918	200,195	102,712	302,907	16,697,017	**1.81%**
1919	232,390	108,276	340,666	16,783,510	**2.03%**
1920	244,643	122,722	367,365	16,916,078	**2.17%**
1921	290,707	150,517	441,224	17,059,358	**2.59%**

<표 5> 일제 강점기 일본어 해득 조선인 통계

위 <표 5>의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을 나타나듯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는 조선인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뗀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전체 인구의 2%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한일병합 초기에는 일본어 해득자의 수가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꾸준히 조선 민중들에게 국어(일본어)를 보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21년까지도 일본어 해득자는 전체 조선 인구의 3%에도 못 미쳤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79]

78) 통계 자료는 朝鮮總督府官報 第2108號(1919.8.20), 第3595號(1924.8.7), 第226號(1927.9.28), 第454號(1928.7.4)에 실린 '朝鮮人ニシテ國語ヲ解スル者ノ數表'의 내용과 第2779號 附錄(1921.11.16), 號外(1922.9.23)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1914년의 자료는 찾을 수 없어 생략하였음.

79) 물론 총독부에서 실시하였던 이 통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이러한 언어 현실에서 ‘조선어 필요론’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조선어 필요론’은 주장한 이는 다름 아닌 ‘조선어 불요론’을 주장했던 오오쿠마 시게노부였다. 오오쿠마는『教育實驗界』(1911)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어의 한시적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전략) 그 나라의 시정, 교육, 그 밖의 임무를 진 우리 국민에게 조선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 국어(일본어)를 배우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 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수단으로 우리 국민에게 조선어를 배우게 해, 이것에 의해 그가 지도의 임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언제까지라도 계속 행하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을 우리로 동화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교육의 임무로 파견되는 교육가는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 행정상의 시정이라 해도 이것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80]

이듬해인 1912년의 보통학교장강습회에서 우사미(宇左美) 내무부장관의 훈시와 학무국장인 세키야(関屋貞三郎)의 훈시에서도 ‘조선어 필요론’이 언급된다.

> “여러분에게 특히 분려(奮勵)를 바라는 것은 조선어 연구이고, 여러분이 종사하는 교육은 단지 아동에게 읽는 법, 쓰는 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는 충량한 신민의 육성에 있으며 즉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자 스스로 조선어를 읽고 또한 제대로 말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성격을 알고, 부형과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면 도저히 성공과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본 강습회가 가장 많은 시일을 조선어의 강습에 들이는 까닭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중이 되겠지만 충분히 조선어 연구에 힘을 써 조선어를 자유롭게 운용할

도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인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80) 오대환(2009), 앞의 논문, 30쪽에서 재인용.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81]

"조선어를 모르기 때문에 국어(일본어)교육에서도 지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훈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이 교원의 지도 감독도 충분하지 못하고 父兄母妹 등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이것이 본 강습회가 조선어 강습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이유이며 여러분은 이를 기초로 하여 쉼 없이 연구에 매진하여 숙달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란다."[82]

이들은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도, 그리고 조선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 사상을 알기 위해서도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곧 교육을 통한 동화의 수단이었던 조선어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감시하고 조선인에 관한 정보를 채집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 초기 조선어 장려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동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의 제일선에 있던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83]과 치안 유지를 위한 대민 접촉 과정에서 조선어가 필요했던 경찰들을 대상으로 강습회 위주의 조선어교육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선어 장려 정책 실시 이후

'조선어 장려 정책(朝鮮語奬勵政策)'의 원래의 명칭은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조선어장려규정(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朝鮮語奬勵規程)'이며 이 규정에 따라 1921년 5월부터 매년 시험(조선어장려시험)이 실시되어

81) 오대환(2009), 위의 논문, 31쪽에서 재인용.
82) 야마다 칸토(2012), "'지배를 위한 조선어 학습'을 생각한다", 고영진 외(編),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 문제』, 서울: 소명출판, 203쪽에서 재인용.
83) 오대환(2009), 앞의 논문, 31-32쪽에서는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의 조선어교육의 배경에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만으로 교수하는 직접교수법이 주요 교수법으로 강제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조선어를 배제하지 못한 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선어가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해서 조선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어의 학습이 유독 교사에게 강력히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1943년까지는 유지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언어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조선에 있던 일본인 관리 전체가 대상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등급에 따라 매월 5~50원의 수당을 2~4년간 받을 수 있었다.[84]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에는 이 시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조선 재주의 內地人 관리가 조선어를 아는 것은 단순히 각종 업무를 실행하는 경우에 편의가 많을 뿐 아니라 內鮮人의 융화를 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찰의 단속, 산업장려 등에 있어 자칫하면 人民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자가 조선어를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本府는 종래 총독부 및 소속관서 근무의 내지인 직원, 특히 항상 인민과 접촉하는 지방청 직원에 대해 조선어 학습을 장려해 왔지만 大正9년(1920) 이후 한층 그 장려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 내지인 관리 중에서 조선어에 숙달한 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 大正10년(1921)부터 이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조선의 사정을 잘 알게 되고 각종 업무를 실행하는 데에 편의를 꾀하는 것을 기대한다."[85]

여기에 기술된 바를 보면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 관원에 대한 조선어 장려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시험을 통한 장려수당'의 지급이라는 정책을 통해 외적동기를 유발하여 이를 더욱 분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조선어장려정책 이전과 이후의 일제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의 조선어교육의 전개 양상에 변화를 가져온 지점이기도 하다.

즉, 이전의 것이 주로 총독부의 주도로 통치, 교육 등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강습회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조선어교육이었다면 이 정책의 시행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조선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선어 교육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성 조선어연구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86]

---

84) 山田寛人(2004),『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67-93쪽.

85) 야마다 칸토(2012), 앞의 책, 200쪽에서 재인용.

이 단체가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1923년경으로 볼 수 있으며, 통역관 출신이며 경성고등보통학교의 교유(敎諭)로 임시교원양성소에서 조선어를 가르쳤던 이완응(李完應)[87]과 일본인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이토칸도(伊藤韓堂)가 함께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단체의 출판물 중의 하나인 「조선문조선어강의록」에 실린 '조선어연구회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본회는 조선어연구회라 칭하고 본부는 경성부에 둔다.

제2조 본회는 조선문 조선어의 연구와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이루고 그 위에 내선융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조선문조선어강의록을 발행해 회원에게 배포한다.[88]

제4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강의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언제든지 입회가능하다.(입회금 불요)

제6조 본회 회원은 회비로 매월 금 70전의 회비를 전납하고 제3조의 소정의 강의록을 배부 받는다. 회비의 영수는 강의록 송부로 증명하고 따로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다.

제7조 본회의 강의록은 제1호부터 강습하는 회원이 아닌 경우 모아 배포하는 것은 불허한다.

제8조 수개월분의 회비를 일시에 전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비를 감액한다. (3개월 1원, 6개월 3원 80전, 일개년 7원) 회비가 모두 전납되었을 때에는 송부하는 책의 겉봉투에 '회비완료'라는 인

86) 오대환(2009), 앞의 논문, 47-49쪽에서 '경성 조선어연구회' 등장의 배경에는 조선어 장려 정책뿐 아니라 문화정치 시기에 들어 등장한 근대적인 자본가 계층의 조선인, 경찰제도의 변화 크게 늘어난 일본인 경찰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87) 이완응은 황민화 정책의 시행으로 조선어교육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줄어든 1938년경부터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放送푸로'라는 라디오 방송 시간 알림란에 10시 10분부터 第一放送(제1방송)에서 '國語講座(국어강좌)'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이름이 올라 있음을 1938년 7월 19일자부터 12월 19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88) 제1회 강의록 중(제10호)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규정에서는 '내선융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장을 날인하여 통지를 대신한다.

제9조 본회의 강의록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어발음급문법 2. 조선어회화 3. 조선서한문례 4. 국문선역 선문국역 5. 조선어학습상의 주의 6. 조선문장강화 7. 조선지리급역사경개[89] 8. 조선어단어급숙어

제10조 회원은 강의록의 배부를 받아 경연회, 담화회, 강습회 등에 출석할 수 있다. 단,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제11조 강의록에 의문이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단, 질문이 필요한 강의록의 호수, 페이지 수, 행수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반신료를 첨부한다. 회원은 각자 조선문의 작문, 번역문, 언문습자, 기타를 송부하여 첨삭 또는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으로 본 강의록에 대해 소정 연한의 강습을 끝낸 자는 수업(修業) 증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과를 수료한 자로써 졸업증서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행하여 그 시험의 합격한 자에게 그것을 수여한다. 단, 시험에 관한 규칙은 학기의 끝에 그것을 발표한다.

위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조선어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선문조선어강의록」이라는 일종의 조선어 학습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였는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이 잡지를 배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문조선어강의록」이라는 잡지 형식의 조선어 학습 교재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민간 영리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90]

잡지 형식의 교재를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 단체의 기본적인 교육 방식이 통신교육의 형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제10조의 조항에서처럼 이 강의록을 가지고 강연회, 담화회, 강습회와 같은 면대면 교육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한 교육 방식은 아니었다.[91] 이후 「조선문조선어강의록」 제2회를 발행할 때에는 새로이 '월간잡지 조선어'라는 잡지가 추가 발행된 것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학습 사항에 대한 피드백 역시 우편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단체는 잡지 형태의 교재를 활용한 통신교육이 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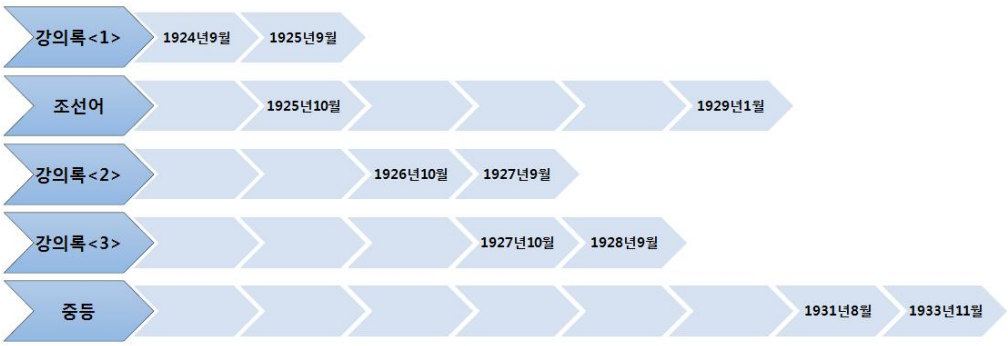
89) 개정된 규정에서는 삭제된다.

90) 오대환(2009), 앞의 논문, 65쪽에서도 5~8조까지의 조항의 내용을 근거로 이 단체가 총독부를 대변하는 관변단체라기보다는 민간에 의해 설립된 영리단체로 보았다.

91) 이 조항은 이후 「월간잡지 조선어」 제14호에서 있었던 2차 개정 때 삭제된다.

교육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체에서 통신교육을 위해 발행한 잡지는 「조선문조선어강의록」 1~3회, 「월간잡지 조선어」, 「중등조선어 강좌」인데 우에다(2009:8)에 따르면 이 이들 잡지의 발행 기간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92]



[그림 2] 〈경성 조선어연구회〉 발행 잡지의 발행 기간

이러한 통신교육 방식으로 한 때 회원수가 1800여명에 이르기도 했었으나 이후 점차 회원수의 감소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1930년대 이후에는 잡지의 발행은 중단되고 조선어 학습 교재를 출판하는 단체로 남았다가 1937년 이후부터는 조선어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출판물을 출간하게 된다. 이처럼 회원수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어 장려 정책'의 예산 감소로 1928년의 조선어 장려 규정의 개정에서 장려 수당이 줄어 그로 인한 학습 동기의 저하가 발생하여 학습자가 감소하였다는 점과 이 단체가 1930년에 개정된 '언문철자법' 3차 개정에 반대하며 새로운 표기법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93]

이와 같은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920년대의 '조선어 장려 정책' 이후 확대되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조선어교육은 1930년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다 쇠퇴하게 된다. 이는 앞서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사례에서와 같이 '조선어 장려 정책'의 변화와 1938년 시행된 황민화 정책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 조선에서의 조선어 사용과 교육이 제약을 받게

92) 오대환(2009), 앞의 논문, 121쪽에서 재인용.
93) 오대환(2009), 위의 논문, 91-113쪽.

되는 것과 같은 조선어교육의 환경이 변화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지던 일본인 대상의 조선어교육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4)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특징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지향점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양성에서 다수의 비전문가 양성으로 점차 변하였다. 전문적인 한어 통사를 양성하였던《한어사》에 그 역사적 기반을 두고 있는 일본의 한국어교육은 대륙 진출과 조선 침략을 위한 조선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조선어교육을 시행하였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필요로 현장 일선의 일본인 교원과 경찰관원, 그리고 조선 내 모든 일본인 관원에 대한 조선어교육을 장려하며 이전의 소수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조선어를 교육하려는 방향으로 점차 교육의 지향점이 변화하였다.

둘째, 교육의 지향점의 변화와 연관되어 교육의 방식 역시 소집단 면대면 교육에서 강점 이후에는 임시교원양성소와 같은 강습회 중심의 교육으로, 그리고 잡지라는 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집단 대상의 통신교육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교수법의 경우 당시 일본 식민지에서의 일본어교육이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한 직접교수법의 방식이 선호되었던 반면 조선어교육의 경우, 특히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조선어교육은 철저히 일본어를 매개 언어로 실제적인 회화연습 등의 언어 사용이 포함되지 않은 번역 위주의 교수법이었다.[94] 이러한 방식의 교수법이 사용되었던 것은 이때의 조선어 학습이 조선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인 욕구보다는 조선어 장려 수당이라는 외적동기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려 시험을 대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

94) 오대환(2009), 앞의 논문, 175쪽.

과 면대면 교육이 아닌 잡지라는 매체를 활용한 통신교육이 지니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인 대상 조선어교육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학습자 집단에 있다. 한어 통사나 외교관, 검열관과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 경찰관, 교원 등 총독부 소속 관리로 대상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특정 집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육 참여자의 한축인 교육의 주체는 관(官)에서 민간으로 변화하였고,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완응과 같은 조선인들이 교육의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는 등 일본인 대상 조선어교육에 참여한 많은 조선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경우 이름이나 행적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일본인 대상 조선어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경우 대체로 그 행적의 파악이 가능한 것 역시 특징적이며,[95] 일본인들의 조선어교육을 위한 학습서를 저술하여 출판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조선인 참여자들은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였다기보다는 총독부의 언어 정책에 따라 총독부에 종속된 채, 총독부를 대행하여 일본인들에게 조선어교육을 시행하였던 대리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96]

여섯째,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가장 주목할 특징은 소멸과 단절이다. 이들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공적인 차원에 이루어진 관(官) 주도의 주류를 이루는 교육이었다. 또한 교육 내적인 측면에서도 서구 언어학 이론을 반영하며 발전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전용 교재의 개발, 교과목 개념, 평가의 시행 등 점차 제도적인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언어 정책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점차 쇠퇴하다가 종국에는 소멸하게 된다. 그 원인은 이미 기존 논의들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당시 조선어가 외국어가 아닌 식민지 지역어로서 교수되고 학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주요한 원인은 당시 조선어교육이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수요와 요구보다는 주로 교육 주체인 총독부라는 관(官)의 필요

95)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육에 종사한 조선인 교육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새내(2013), 앞의 논문, 459-486쪽에서 소개한 바 있다.
96) 오대환(2009), 앞의 논문, 178쪽.

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데 있었다.

이상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였던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의 역사적인 배경과 대략적인 전개 양상과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에 진행될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역사적 배경과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 이 시기 한국어교육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제 3 장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개신교의 본격적인 한국 선교는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고,[1] 1884년 일본에 있던 〈미감리회〉(美以美教會,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C) 소속의 선교사 매클레이(R.S. Maclay)가 김옥균의 중재로 고종에게 병원과 학교 사업을 허락 받은 이후부터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선교사들이 입국하며 시작하였다.[2]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 중에서 최초로 한국에 정주(定住)하였던 이는 비록 선교사의 자격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었으나 〈북장로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PCUSA)의 알렌(H.N. Allen)이었다. 〈북장로회〉 역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에 있던 알렌을 의료 선교사로 파견한 것이다.[3]

이후 〈미감리회〉와 〈북장로회〉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였고, 〈남감리회〉, 〈남장로회〉, 〈구세군〉,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 〈영국성공회〉, 〈안식교〉, 〈동양선교회(성결교)〉 등의 교파에서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여 해방 전인 1945년까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수는 1526명에 이른다.[4] 이러한 많은 수의 외국인이 선교 사업

---

1)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사실 미국인들의 종교행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1883년의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에서 개항장 내에서 "종교의 전례와 각종 의례"에 대한 자유를 주어 영국인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했고(4조 2항), 최혜국(最惠國)의 권리가 있던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류대영(2004),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 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91쪽.

2) 그러나 당시 이들에게 조선에서의 선교의 자유가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학교와 병원의 설립을 허가 받은 것뿐이어서 초기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추어야만 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 사업은 개신교의 주요한 선교 전략이었으며 병원과 학교는 선교 사업을 위한 전초기지였다. 따라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 역시 초기에는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복음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와 병원을 통한 간접 선교의 방식을 취하였다.

3) 그러나 알렌은 선교사의 자격이 아닌 미공사관의 공의라는 외교관의 신분으로 입국하였다. 이 때문에 감리교 측에서는 알렌이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옥성득(2016),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새물결플러스, 58-91쪽에서 이런 주장들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4) 『내한선교사총람』(1994)의 통계에서는 1529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통계에는 일본 주재

(전도, 교육, 의료)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일상생활과 선교 사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전에는 없던 한국어 학습과 교육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비교적 초기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선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지였던 조선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고 익혀야 했고, 점차 늘어나는 후임 선교사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교육을 위해서 연구도 해야 했으며, 교육과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역시 고민해야 했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과 교육에 대한 선교사들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양상을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교육은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개신교 여러 교파의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였던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북장로회〉에서 시작하여 다른 교파 선교회까지 확대되어 하계 휴가 기간에 단기간의 집중적인 몰입 교육이 이루어졌던 '단기 집중 강좌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 그리고 이 단기 집중 강좌를 정례화하여 상설 운영되었던 《Language School》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연합언어학교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와 해방 이후 재건된 《Korean Language School》이 최초의 현대적 한국어 교육기관이었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발전하였던 '현대 한국어교육으로의 이행기'이다. 이 장에서는 각 시기에 전개되었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교육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관련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전개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를 직접 파견한 최초의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미감리회〉와 〈북장로회〉에서 선교사를 직접 파견하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선교사로 한국 선교에 관여는 하였으나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았던 〈미감리회〉 소속의 맥클레이와 그의 부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톰슨(J. Austin Thomson)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 거주하였던 개신교 선교사는 1526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파의 해외선교본부(Board)에서 경쟁하듯 선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고,[5]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교파별로 현지 선교회(Mission)를 조직하고, 선교지부(Station) 설치하여 선교지역을 확장해나가며 체계적인 선교 사업을 벌인다.[6] 다음의 <표 6>은 당시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한 교파의 한국 현지 선교회의 최초 파송 시기와 1945년까지 파견한 선교사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7]

소속 교파	선교부 이름	최초 파송 시기	최초 파송 선교사	파송 선교사 수
장로교	북장로회	1884년	알렌(H.N. Allen)[8]	338명
감리교	미감리회	1884년	스크랜턴(W.B. Scranton)[9]	250명
성공회	영국성공회[10]	1889년	코르프(C.J. Corfe)	76명
장로교	호주장로회	1889년	데이비스(J.H. Davis)	84명
장로교	남장로회	1892년	테이드(L.B. Tate) 등	190명
감리교	남감리회	1895년	리드(C.F. Reid)	182명
장로교	캐나다장로회[11]	1898년	푸트(W.R. Foote) 등	82명
구세군	구세군	1908년	호가드(R. Hoggard)	127명
기타 선교부 및 교파 불분명[12]				197명
계				1526명

<표 6> 선교회별 선교사 파송 시기와 파송 선교사 수

5)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교계에서 논쟁이 있다. 교파별로도 입장이 다르고 교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선호·박형우(2012), "19세기 말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대한 연구",『東方學志』157, 연세대 국학연구소, 275-303쪽; 김칠성(2014), "한국개신교 선교역사의 시작은 언제인가?",『한국교회사학회지』38, 한국교회사학회, 181-216쪽; 최재건 역(2010),『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1, 193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3-22쪽;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2011),『한국 기독교의 역사1』, 서울: 기독교문사, 126-144쪽; 옥성득(2016), 앞의 책, 58-107쪽을 참고할 수 있다.

6) 'Board', 'Mission', 'Station'을 지칭하는 용어는 교회사 관련 논의에서도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각 '(해외)선교본부', '(현지)선교회', '(지역)선교지부'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다만, 기존 논의에서 인용할 때에는 원문의 표현을 따르도록 하겠다.

7) 이 <표 6>의 내용은『내한 선교사 총람』(1994),『한국 기독교의 역사1』(2011),『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8) 〈북장로회〉에서 첫 공식 파송을 결정한 선교사는 헤론(J.W. Heron)이었으나, 가장 먼저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였던 선교사는 알렌이었다. 그러나 알렌의 경우 입국 이후 몇 년간 선교사로서가 아닌 의사와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들어 언더우드를 〈북장로회〉 최초의 선교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위의 <표 6>을 보면 여러 교파들 중에서 〈북장로회〉와 〈미감리회〉가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에 정착하였고, 파송된 선교사의 수도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선교회는 초기부터 한국의 개신교 전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및 교육 역시 주도하였다.

19세기 중반 전파된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 선교사들의 경우는 당시 조선에서 공식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였기에 한국어 학습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선교회의 회의록이나 현지 선교회에서 해외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 등에 비교적 소상히 남아 있는 편이다. 특히 〈북장로회〉와 〈미감리회〉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한 교파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장로교와 감리교의 대표적인 선교부로 한국의 선교사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적지 않았으며, 가장 먼저 한국 현지에 선교회를 설치하고 한국 선교를 시작한 선교회로 한국어 학습에 관한 노하우 역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다.[13]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북장로회〉와 〈미감리회〉의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겠다.

---

9) 스크랜턴은 부인과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부인(M.F. Scranton), 아펜젤러(H.G. Appenzeller)와 그의 부인과 함께 출발하였으나 몇몇 문제로 다른 이들보다 한 달 먼저 입국하였다.

10) 〈영국성공회〉의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85년에 중국인 2명을 부산에 파송하였고, 1887년에는 중국과 일본 선교를 관장하던 울프(J.H. Wolfe) 주교가 한국을 방문하여 본국에 선교단 파송을 요청하여 코르프 주교가 첫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11) 〈캐나다장로회〉의 공식 선교는 1898년이나 캐나다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8년 게일(J.S. Gale)이 시작이다. 게일의 뒤를 이어 4명의 선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였으나 이들은 이후 〈북장로회〉나 〈남감리회〉로 소속을 바꾸었다.

12) 성결교회의 모체인 〈동양선교회〉(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안식교〉(The Seventh Day Adventist)의 경우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들에 의해 먼저 선교부가 만들어진 이후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하였으며, 미국 침례교 계통의 〈엘라딩기념선교회〉(Ella Thing Memorial Mission), 〈러시아정교회〉 등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

13)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이 두 교파의 선교회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였고, 이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한국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의 결과물이 바로 H.G.언더우드, 게일, 스코트, 애니 베어드 등이 저술한 초기 한국어 학습서들이다.

1)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가) 선교의 시작과 한국어 학습의 필요

〈북장로회〉는 알렌이 1884년 9월 미국 공사관의 무급 의사로 가장 먼저 한국에 입국하였다.[14] 알렌이 1884년 12월에 있었던 갑신정변으로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일을 계기로 〈북장로회〉는 한국 선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후 1885년 7월 공식적인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회가 만들어졌으며 의료 및 교육 사업, 순회 전도 활동 등을 통해 선교지역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15]으로 교인들이 일시에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국 선교회와 해외선교본부에서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때마침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돌아간 언더우드 등의 '한국선전운동'의 결과로 많은 선교사가 새롭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16] 교세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선교사들 역시 증가하였고, 이들을 선교지에 최대한 빨리 투입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선교회와 마찬가지로 〈북장로회〉 역시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언어 능력을 중시하였다. 선교사 지침서인 『*A Manual Prepared for Use of Missionary Candidates and Missionaries in Connection with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4th ed.』(1882)[17]에는 해외 파송을 지원하려는 선교사들은 자신의 '어학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어야 했고, 선교지에 파송된 첫해와 이듬해 말에는 현지 선교회의 상임위원회가

14) 알렌은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지만 입국 당시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조선에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관 공의 자격으로 입국한 것이다.

15) 1903년 원산에서 시작돼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한국의 오순절'로 불리는, 한국개신교회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당시 불안한 정세 속에서 교회를 찾은 이들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신자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그 배경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북장로회〉의 한국 파송 선교사의 수는 1907년에 처음 두 자릿수가 되고, 1908년에는 22명의 선교사가 신규 파송되었다.

17) 〈북장로회〉의 해외선교본부에서 간행한 것으로 선교사의 파송과 관련한 다양한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침서였다.

해외선교본부에 신규 파송된 선교사의 현지어 능력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18]으로 보아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회에서도 한국으로 신규 파송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북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관리와 한국어 능력 평가 등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은 〈북장로회〉 한국 선교회의 공식 연회록인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이하 「*Minutes and reports of PCUSA*」)와 연차보고서인 「*Annual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이하 「*Annual Report of PCUSA*」), 그리고 〈북장로회〉 선교회의 규정 및 내규를 기록해 놓은 문서인 「*Rules and by law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이하 「*Rules and by laws*」)그 기록이 남아 있다.[19] 다음의 <표 7>은 〈북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검토한 연회록과 연차보고서 등 문헌의 목록이다.

문헌명	연도
『*Minutes and reports of PCUSA*』	1903, 1904, 1906, 1907,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8, 1919
『*Annual Report of PCUSA*』	1894, 1899,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Rules and by laws*』	1891, 1901, 1908, 1913, 1916

<표 7> 〈북장로회〉 한국 선교회의 문헌 목록

18) 이선호·박형우(2013),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지침서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7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75~303쪽, 여기에서는 283-284쪽.

19) 〈북장로회〉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회를 조직하고, 연 1회의 연례회의를 통해 전도, 교육, 의료 등 선교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조사 및 보고하였고, 그 결과를 해외선교본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연회록과 연차보고서이다. 연회록은 연례회의의 거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연차보고서는 연례회의의 결과와 연례회의 동안에 보고된 각 위원회와 선교지부의 보고서를 모아 정리한 최종보고서이다.

나) 〈언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언어 위원회〉[20]는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관리와 평가 등 제반 업무를 논의하였던 선교회 산하 위원회로 연회록과 연차보고서에 실려 있는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언어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이 위원회가 선교회 안에 설치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회가 조직된 해는 1885년이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연회록과 연차보고서 등은 1891년의 것이 가장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H.A. Rhodes)가 정리한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 역사 연표에는 1890년 3월 15일에 공식적인 언어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21] 적어도 1890년부터는 이 위원회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었다. 「*Annual Report of PCUSA*」에는 각 선교지부별로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 업무 중에는 '한국어 학습(Language Study)'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학습 역시 선교사에게 부여된 업무였던 것이다.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1년차에 예정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선교회 일에 관한 투표권이 제한되었고, 최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선교사[22]는 편집(Editorial), 교육(Education), 평가(Examination), 위원회 직책, 선교회나 선교지부의 책임직을 맡을 수 없었으며, 새롭게 개척된 선교지부에 부임도 할 수 없었다.[23] 이러한 규정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부진이 선교사 개인에게도, 선교회

20) 이 위원회의 명칭은 문헌상에서는 〈Study of Korean Language Committee〉, 〈Language Committee〉, 〈Examination Committee〉이 혼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위원회〉〉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21) 최재건 역(2010),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1, 193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555쪽.

22) 〈북장로회〉 선교회에서는 한국어 최종 시험을 통과한 선교사는 시니어(senior), 통과하지 못한 선교사는 주니어(junior) 회원으로 구분하였다.

23) "All members of the Mission shall be " junior missionaries" until they have passed their third year language examinations, when they shall become " senior missionaries." Only senior missionaries shall be elegible for Chairmanship of the Mission, for the opening of new Stations, or for service on the Executive, Finance, Language, Educational, Editorial, Rules and By-Laws, Nominating, Federal Council, or Apportionment Committees.", 「*Rules and by laws*」(1901), p1.

에도 부담이 되게 만들었고, 선교회 차원에서 신규 파송 선교사들이 한국어 학습에 실패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곳이 바로 〈언어 위원회〉였다.

게다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1, 2년차의 신규 파송 선교사들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어 능력을 평가하여 선교본부에 보고를 해야 하였기 때문에 〈언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위해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였다.[24]

(1) 〈언어 위원회〉의 한국어 능력 평가

〈언어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1904년경까지는 <Language Committee>가 아닌 <Examination Committee>였다. 또한 위원회가 연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위원회에서 실시한 한국어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위원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주된 활동이었다.

평가 결과의 보고는 아주 상세하지는 않으나 연차별로 구술과 지필을 구분하여 개별 선교사의 시험 통과 여부를 일일이 보고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시험 결과를 단순히 통과 여부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선교사들이 받았던 평가의 결과를 점수화 또는 등급화하여 제시한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5]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 평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고, 〈언어 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거의 없다. 그러나 1903년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모펫(S.A. Moffett)의 보고에서 평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약간의 짐작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정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술시험은 모든 회화(Conversation) 영역의 점수가 60% 이상, 읽기 또는 번역과 분석(Analysis) 등

24) 「*Rules and by laws*」(1891), p11.
25) 위원회에서 1909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시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기술을 ‘passed', 'not passed'로 단순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런 추정을 가능하다.

의 지필시험은 각 항목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나 평균은 되어야 통과를 할 수 있었다. 통과하지 못한 항목의 경우 그 이듬해의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시험을 봐 통과해야 했는데[26] 지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술 평가에 보다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평가 항목의 내용은 어떠하였을까? 모펫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항목(subject)'들은 〈언어 위원회〉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제공한 학습 지침의 일종인 '학습과정(Course of Study)'의 각 년차별 학습 항목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학습과정'의 항목들은 학습을 위한 지침인 동시에 평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8>은 1901년 '학습과정'의 1년차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학습 항목들인데 1901년 당시 신규 선교사들은 이 내용들을 1년간 학습한 후, 그해 또는 이듬해의 개최된 연례회의 기간[27] 동안 이 학습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의 진행은 연회 시작 전 또는 연회 기간 중 〈언어 위원회〉의 보고가 있기 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13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1, 2년차의 구술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두 명의 위원회 소속 위원과 한 명 이상의 시니어(senior) 선교사 앞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었지만 3년차 시험 응시자는 구술과 지필 모두 반드시 위원회 앞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28]

---

26) "The Committee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n the oral examinations those who fail to reach a grade of 60% in either Conversation, Reading or Translation and Analysis should be conditioned on such subject, even though the average grade be above the passing mark. Those thus conditioned will be expected to take an examination on the conditioned subject before proceeding to the next year's examination.", 「*Minutes and Reports of PCUSA*」(1903), p72.

27) 기록을 보면 연례회의는 평균적으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28) "Examinations shall be in charge of the Language Committee and shall take place such time in connection with Annual Meeting as the Committee shall arrange, excepting that the first and second year written examinations may be given by a member of the Committee or other senior missionary authorized by the Committee at any Station where there are candidates in the June preceeding Annual Meeting, and that first and second year oral examinations may also be given at such time and place but only in the presence of two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ne other senior missionary; but third year examinations both written and oral must be taken before the Committee.", 「*Rules and by laws*」(1913), p18.

1년차 선교사의 학습 항목들	1. 한국어로 말하기 매일 연습하기 2. 베어드 부인의『*Fifty Help*』 3.『언문말칙』의 모든 'exercises' 공부하기 4.『한영문법』의 *Grammatical Notes* 주의 깊게 읽기 5.『한영문법』의 2부 1-4장의 문장들 공부하기(각 장의 구분에 특별히 주의할 것) 6.『*Grammaire Coreenne*』의 한국어 연습활동 16개 읽고 분석하기 7. 한국어 쓰기(쓰기와 철자 모두에 집중) 반복 연습하기 8.『한영문법』 56-59쪽의 수사 및 단위명사(specific classifiers) 배우기 9. 찬양의 형식 공부하기 10. 동사 종결어미 25개(『ᄉᆞ과지남』에 설명된) 완벽한 숙달을 위해 세심하게 공부하기 11. 마가복음 첫 장 읽고 번역하기 12. 전도문서(Christian tract) 읽기 13. 인사와 소개하기의 다양한 형식 배우기 14. 10개 대화문 암기 15. 주기도문 암기 *Nevius' Methods of Mission Work* 그리피스의『*Korea – the Hermit Nation*』읽기 선택사항 – 한자 200개 배우기

<표 8> 1901년 '학습과정'의 1년차 학습 항목

1913년의 경우 평가 방식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선교지부에 임명된 시니어 선교사 또는 관리자(supervisor)는 학습자가 2년차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는데 만약 1, 2년차 학습자가 3회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연례회회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고, 3회의 정기 평가의 평균 점수는 연회에서의 시험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29] 즉, 기존에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선교지부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연회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지역 선교지부에서의 정기 평가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He shall give the student periodic tests until he passes his second year examinations, reporting on such tests at once to the Station and to committee. No first or second year student shall be permitted to take the annual examinations unless he shall have taken three such quarterly tests. The average grades of these three tests shall count equally with those of the annual examinations.", 「*Rules and by laws*」(1913), p18.

⑵ 〈언어 위원회〉의 한국어 학습 관리

〈언어 위원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그 첫 번째로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던 의료 선교사를 제외한 선교사들의 경우 파송 1년차에는 한국어 학습 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이들이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업무를 조정하였다. 의료 선교사였던 헤론이 서울에 도착한 지 5일 후인 1885년 6월 26일에 뉴욕에 있던 해외선교본부의 총무 엘린우드(F.N. Ellinwood)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러한 정황은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그 편지의 일부이다.

(전략)
"아직 우리의 진정한 신분(선교사)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누룩은 천천히 퍼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곳 본토어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정식적인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고, 제 개인 사택으로 이사하지 않았으며 좋은 어학교사를 구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단어와 어구를 배우고 있으므로, 진료하러 오는 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소리를 익히고 있으므로 정식 공부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학 공부 외에 다른 일이 없는 자만큼 빨리 배우기는 어려운데, 오전 9시에 제중원에 나가서 4시가 되어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귀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필요합니다. 알렌 의사가 병원의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고 왕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어학 공부에 최소한 하루 세 시간을 헌신하고 그렇게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략)"[30]

이 편지에서 헤론은 제중원 업무로 인한 시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 외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는 다른 선교사보다는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

30) 옥성득, 「양화진에 묻힌 첫 선교사 헤론(3)」, 「국민일보」, 2015년 10월 26일자. 밑줄 및 강조는 필자.

하고 있어 선교회 차원에서 당장 시급하게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던 의료 선교사들 외에는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배정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언어 위원회〉에서 한국어 학습의 관리를 위해 취했던 또 다른 방식은 '멘토링(mentoring) 시스템'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부임 연차가 아닌 한국어 능력에 따라 시니어와 주니어 선교사로 구분하였다. 시니어 선교사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습과정'을 마친 이들만이 가능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들에게 주니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도록 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을 보조할 경험 있는 원어민 개인 교사를 소개하거나 학습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선교지역이 확장된 후에는 이 시니어 선교사들을 각 선교지역의 한국어 학습 관리자(supervisor)로 임명하여 그 지역의 신규 선교사와 주니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원어민 개인 교사를 선발할 때 조언을 하거나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선교사와 원어민 개인 교사 모두와 상담을 하여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31] 특히 신규 선교사들은 관리자가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직접 한국어를 지도하게끔 규정하였다.[32]

시니어 선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 외에 위원회에서 직접 한국어 학습에 관한 팁(tip)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11년의 〈언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General Suggestions'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모두 4개의 항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3]

> ㉠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새 단어와 구절을 기록하고, 그 노트를 공부하라.
> ㉡ 단어보다는 문장 전체를 공부하라.
> ㉢ 관용적인 표현은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라.
> ㉣ 들을 기회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라.

---

31) "The Language Committee shall appoint one of its members or some other representative in each Station where any junior missionary is located to have special oversight of his studies, to advise with him in the selection of a teacher, and to counsel with and direct both missionary and teacher in the prosecution of study.", 「*Rules and by laws*」(1913), p18.
32) 박새암(2017), 앞의 논문, 186-187쪽.
33) 「*Rules and by laws*」(1901), p10.

⑶ ‘학습과정’의 개발과 정비

앞서 기술하였듯이 〈언어 위원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이 바로 ‘학습과정’이었다. 이 ‘학습과정’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공된 한국어 학습 안내 지침서인 동시에 위원회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학습과정’ 개발하고 정비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학습과정’에는 선교사들이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과 참고할 서적 등이 담겨 있는데 각 연차별로 학습해야 할 문법 항목, 읽어야 할 서적, 배워야 하는 특별한 기술 등이 각 연차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 나름의 등급화를 위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거쳐 ‘학습과정’을 수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1년에 한 차례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학습과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과정’이 단계별로 등급화가 되었다는 점, 평가를 통한 세환효과(wash-back effect)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학습과정’이 일종의 커리큘럼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선교사를 위한 ‘학습과정’의 내용과 변천

선교사들을 위한 ‘학습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확인이 가능한 것은 1891년과 1901년, 1911년 단 세 개뿐이다. 이 중에서 1891년과 1901년의 것은 「*Rules and by laws*」에서, 1911년의 것은 「*Minutes and reports of PCUSA*」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확인 가능한 ‘학습과정’이 세 개뿐인 것은 〈언어 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학습과정’에 대한 선교회 차원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였고[34], 그 때문에 인

34) 정확한 기술은 없으나 아마도 <상임 위원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쇄 시간에 맞추어 보고서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Rules and by laws*」의 'Course of Study' 항목에는 '학습과정은 선교회가 〈언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선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쇄해야 한다.'[35]는 기술이 있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⑴ 189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먼저 1891년의 '학습과정'은 1890년에 첫 한국어 시험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비교적 초창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 '학습과정'은 3년 과정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1년차	- 『한영문법』의 Grammatical Notes 세심하게 읽기 - 『한영문법』의 2부의 첫 4개 장의 문장 또는 『언문말칙』의 모든 연습활동 또는 이 둘을 적절히 결합하여 배우기 - 마가복음 읽고 번역하기, 첫 8개 장 자세히 분석할 것(특히, 문장 구조, 단어의 의미, 양자 관계에 주의) - 『오륜행실』 1, 2권의 한국어 부분 읽고 번역하기 - 한자부수 214자, 한자 200자 배우기 - * 선택과목 : 맹자의 한국어 부분
2년차	- 1년차 과정의 Grammatical Notes 상세히 공부하기, 『한영문법』 5-10장의 문장 배우기 - 『오륜행실』의 나머지(3-5권) 읽고 번역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나머지 장들 읽고 번역하기 - 위원회에서 할당한 영문 전도문서 번역하기 - 상용한자 500자 배우기 - * 선택과목 : 공자의 논어 읽기(『*Grammaire Coreene*』에 소개된 같은 이야기), 한국어를 읽으면서 『오륜행실』에서 한자 배우기
3년차	- 3년차 과정은 2년차가 끝날 때 개별 선교사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시

<표 9> 189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35) "The course of study shall be such as the Mission shall approve on recommendation of the Language Committee and shall be printed after approval by the Mission.", 「*Rules and by laws*」(1901), p10.

외견상 전체 3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3년차의 경우 2년차의 학업 결과에 따라 〈언어 위원회〉가 개개의 선교사들에게 개별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현지 선교회에서 해외선교본부에 1, 2년차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고해야 했던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교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 2년차의 평가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문법 학습은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과 스코트의 『언문말칙』을 사용하고 있는데[36] 1년차에 모두 집중되어 있어 아직 문법 학습에서는 등급화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1년차에는 마가복음[37]과 오륜행실을 '읽기, 번역하기, 문장 구조 파악하기, 단어 뜻 파악하기 등'의 활동에 사용하였고, 2년차에는 여기에 마태복음[38]이 추가되고, 〈언어 위원회〉에서 할당한 '전도문서(christian tract) 번역하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년차에는 한자 부수 214자와 한자 200자, 2년에는 500자의 한자 학습이 부과되었으며, 맹자, 논어와 같은 유교서적 읽기[39]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190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이후 1901년의 '학습과정'은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기존 3년 과정이었던 것이 5년 과정으로 늘어났다는 것[40]과 각 년차별 학습 내용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크게

36) 1891년까지 출간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서는 이 두 종 외에 로스의 『*Corean Primer*』(1877)와 그 개정판인 『*Korean Speech*』(1882)가 있었지만 북방지역 방언이 토대였던 탓에 선교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7) 1885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수정 번역 『신약마가젼복음셔언히』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개정하여 1887년에 출간한 『마가의젼한복음셔언히』이다.

38) 성경번역위원회의 지시로 아펜젤러가 번역한 『마태복음젼』이 정식으로 출간된 것은 1893년이고, 임시역본이 출간된 것은 1892년 1월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 사용된 것은 정식 출간된 것이 아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9) 'Korean part'라는 언급으로 보아 경서의 언해본이었을 것이다.

40) 3년이었던 학습과정이 5년으로 변경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1891년과 1901년 10년 사이에 선교회에서 발행한 연회록과 연차보고서 중에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것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1년의 「*Rules and by laws*」에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10>은 1901년의 '학습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년차	1. 한국어 말하기(talking) 매일 연습하기 2.『*Fifty Helps*』 3.『언문말칙』의 모든 연습활동 공부하기 4.『한영문법』의 *Grammatical Notes* 상세히 읽기 5.『한영문법』2부의 첫 4개 장의 문장 공부하기(각 장의 구분에 특히 주의할 것) 6.『*Grammaire Coreenne*』의 한국어 연습활동 16개 읽고 분석하기 7. 한국어 쓰기 반복 연습하기(글쓰기와 철자 모두) 8.『한영문법』56-59쪽에 제시된 수사 및 단위명사(specific classifiers) 배우기 9. 찬양의 형식 공부하기 10. 동사 종결어미 25개(『ᄉᆞ과지남』에 설명된) 완벽한 숙달을 위해 주의 깊게 공부하기 11. 마가복음 첫 장 읽고 번역하기 12. 전도문서 읽기 13. 인사와 소개의 다양한 형식 배우기 14. 10개의 대화 암기하기 15. 주기도문 암기하기 *Nevius' Methods of Mission Work* 그리피스의『*Korea – the Hermit Nation*』읽기 선택사항 – 한자 200개 배우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3년 과정에서 5년 과정으로 변화는 1901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1) 1년차의 한국어 말하기(talking)는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반면 2년차의 한국어 말하기(speaking)는 대중, 청중을 향한 연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교를 위한 한국어의 학습이라는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1년차와 차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원문에 'grass characters'로 되어 있으나 한자의 초서체(草書體)라기보다는 한글(언문)의 필기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 시기상으로 보아 1894년에 출간된 H.G.언더우드의『찬양가』내지는 1895년 리와 기포드가 편찬한『찬셩시』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찬양가』의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에서,『찬셩시』는 서울을 기준으로 서북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44) 중국어 번역 성경은 번역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High Wenli Version(深文理译本)', 'Easy Wenli Version/Simple Wenli Version(浅文理译本)', 'Mandarin Version/Colloquial Version(官话译本)'이다. 'High Wenli Version'은 문어체역본으로 흔히 '고급문리역본'이라고도 하며, 'Easy Wenli Version'은 '半文半白' 즉 문어체와 구어체가 섞여 있는 것으로 '초급문리역본'이다. 그리고 'Mandarin Version'은 구어체역본으로 중국에서는 이를 백화문역본(白话文译本), 방언역본(方言译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년 차	1. 한국어 말하기(speaking)[41] 매일 연습하기 2. 1년차 학습과정의 복습 3.『한영문법』5-10장의 문장 공부하기 4.『오륜행실』1권 읽고 번역 및 문장 구조 분석하기 5.『*Grammaire Coreenne*』연습활동 17-33번 읽고 분석하기 6. 동사 종결어미 25개(『ᄉᆞ과지남』에 설명된) 완벽한 숙달을 위해 주의 깊게 공부하기 7. 기도문 5개 암기하기 8. 성경구절 20개 암기하기 9. 한국의 지리 공부하기(市, 道, 주요도시, 산, 강, 도서 등). 10. 전도문서 2개 읽기 11.『한영문법』185쪽 목록의 상용동사 외우기 12.『ᄉᆞ과지남』89, 90, 91쪽의 단어 외우기 13. 마가복음 읽기 끝내기 14. 일상적으로 쓰이는 한자어의 한자 배우기 15. 한국어 소리 내어 읽기와 한글(언문) 쓰기 매일 연습하기 선택사항 - 요한복음 첫 3개 장의 한자 배우기: 흔한 이름에 있는 한자 배우기
3 년 차	1. 한국어 말하기 매일 연습하기 2. 2년차 학습과정의 복습 3. 한국어 구어로 성경 번역하기 4. 동사 종결어미 25개 자세히 공부하기 5.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읽기 6. 전도문서 5개 읽기 7. 복음서 설명에 유용한 연설 5 단락 외우기 8. 성경구절 30개 암기하기 9. 한국어 작문 항상 연습하기 10. 편지 쓰기의 형식 배우기 *London Conference Reports*, 1888, and *Shanghai Conference Reports*, 1890에 포함된 자신의 업무에 관한 기사를 주의 깊게 읽기 선택사항 - 요한복음의 나머지 한자 읽기(성경 각 권의 이름 한자 배우기)

4년차	1. 한국어 말하기 매일 연습하기 2. 3년차 학습과정의 복습 3. 위원회에서 할당한 주제의 전도문서 준비하기 4.『한영문법』의 174-184쪽 주의 깊게 공부하기 5. 성경구절 30개 암기하기 6. 동사 종결어미 25개(『ᄉᆞ과지남』에 설명된) 완벽한 숙달을 위해 주의 깊게 공부하기 7.『ᄉᆞ과지남』 주의 깊게 공부하기 8.『언문말칙』,『한영문법』,『*Grammaire Coreenne*』의 이야기 다시 읽기. 9. 한국어 작문 항상 연습하기 10. 필기체[42] 읽고 쓰기 배우기 11. 선교회의 찬송가 비판적으로 읽기[43] 12. 한국 고전 작품 중 하나 읽기 카펜터(Carpenter) '*Self-support in Bassein*' 읽기 한자: 마가복음 읽기
5년차	1. 한국어 말하기 매일 연습하기 2. 1-4년차 학습과정 복습하기 3. 성경구절 한 주에 하나씩 암기하기 4. 한국의 역사 공부하기 5. 한국 시가 공부하기(운율과 율격에 집중) 6. 한국어 소설 읽기 7. 한국인들의 상세한 인간관계(가족관계) 공부하기 8. 중용(中庸) 읽기 9. 한국의 불교신앙, 영혼(조상) 숭배, 다른 토착신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정신적, 종교적 사항들의 습득을 위한 특수한 관점에서) 로렌스(Lawrence)『*Missions in the Orient*』 읽기 동양의 종교에 대한 책 읽기 한자 공부(초급문리역본[44] 신약 성서 읽기 능력의 습득을 목적으로)

<표 10> 190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위의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내용에서 첫 번째 변화는 문법 학습을 위한 학습서로『한영문법』과『언문말칙』외에 새로 출간된 한국어 학습서인 베어드 부인의『*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1897, 이하『*Fifty Helps*』)와 게일의『ᄉᆞ과지남』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법 학습의 내용에서는 아래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Fifty Helps*』와『ᄉᆞ과지남』이 새롭게 학습 항목으로 추가되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1891년과 큰 변화가 없지만 전에 비해 학습해야 할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45] 그러나 3년차, 4년차, 5년차의 학습 항목들은 1, 2년차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복습임을 확인할 수 있어 문법 학습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1891년의 학습과정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891년 문법 학습 항목	-『한영문법』 1 부 문법편 -『한영문법』 2 부 1-4 장 -『언문말칙』 연습문제 전체	-『한영문법』 1 부 문법편 복습 -『한영문법』 2 부 5-10 장	×	×	×
1901년 문법 학습 항목	-『*Fifty Helps*』 -『언문말칙』 연습문제 전체 -『한영문법』 1 부 문법편 -『한영문법』 2 부 1-4 장 -『韓語文典』 연습문제 1-16 -『한영문법』 56-59 쪽 -『ᄉᆞ과지남』 어미활용 25 개	-『한영문법』 2 부 5-10 장 -『韓語文典』 연습문제 17-33 -『ᄉᆞ과지남』 어미활용 25 개 -『한영문법』 185 쪽 단어 암기 -『ᄉᆞ과지남』 89-91 쪽 단어 암기	-『ᄉᆞ과지남』 어미활용 25 개	-『한영문법』 174-184 쪽 -『ᄉᆞ과지남』 어미활용 25 개 -『ᄉᆞ과지남』 전체 -『한영문법』, 『언문말칙』, 『*GRAMMAIRE CORÉENNE*』 다시 읽기	-복습

<표 11> 1891년과 1901년 '학습과정'의 문법 학습 내용 비교

두 번째 변화는 학습을 위한 활동이 좀 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문장 구조의 파악과 단어의 뜻 파악을 위한 텍스트 읽기와 번역하기 위주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철자와 글씨 쓰기 연습이나 소리 내어 읽기, 작문 연습 등의 보다 다양한 활동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전도 활동이나 예배와 같은 종교적 활동을 대비한 한국

45) 박새암(2017)에서는 이를 학습과정이 세분화되고 상세화된 것이라고 보았으나 1891년의 문법 학습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습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 학습 내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매 년차마다 암기해야 할 항목으로 십계명, 주기도문 등을 비롯한 주요 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개, 인사, 설교 등의 형식에 학습이 추가되었다. 성경 역시 1891년에는 마가와 마태복음 두 개만이 학습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학습 항목에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891년에도 오륜행실과 맹자와 논어 읽기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맹자, 논어의 경우는 선택 학습 항목이었으며, 모두 유교 관련 서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1901년에는 다음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지리, 역사, 문화, 사상,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학습 내용이 고려되었다.

1년차	인사와 배웅의 형식 배우기 그리피스(W.E. Griffis)의『*Corea, The Hermit Nation*』읽기
2년차	한국의 지리 공부하기
3년차	편지글 형식 배우기
4년차	필기체 읽고 쓰는 법 배우기, 한국의 고전 읽기
5년차	한국의 역사 공부하기, 한국 詩歌의 운율과 율격 공부하기, 한국 소설 읽기, 한국인들의 상세한 인간관계 공부하기, 중용 읽기, 한국의 종교(불교, 영혼 숭배, 토착신앙 등) 공부하기, 동양 종교에 관한 책 읽기

<표 12> 1901년 '한국어 학습과정'에 포함된 문화 관련 항목

이러한 요소들은 물론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 당시 언어 학습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6]

46) 박새암(2017), 앞의 논문, 193쪽.

⑶ 191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911년의 ‘학습과정’은 기존에 비해 상당히 정돈된 모습을 보인다. 다음의 <표 13>을 보면 다시 3년 과정으로 바뀌었으며, 독특하게 1년차의 학습과정은 다시 3개 학기로 나누어 매우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1년차	1학기	1. 소리 내어 한국어 읽기 매일 연습하기(특히 거센소리와 음운변화에 집중) 2. ‘초학언문’의 첫 페이지 공부하기 3.『*Fifty Helps*』의 전반부 공부하기 4.『언문말칙』 공부하기(18-33쪽, 71-76쪽, 162-172쪽) 5.『한영문법』 공부하기(23-53쪽, 72-86쪽) 6. 한국어 철자 쓰기 매일 연습하기
	2학기	1. 한국어 말하기(talking) 매일 연습하기(한국어 읽고 쓰기) 2.『언문말칙』 공부하기(34-45, 52-71, 76-93, 173-200쪽) 3.『*Fifty Helps*』의 후반부 공부하기 4.『한영문법』 공부하기(54-71, 87-141) 5. ‘초학언문’ 끝내기 6. 마가복음 첫 장 읽고 번역하기 7. 주기도문 암기하기
	3학기	1. 한국어 말하기 쓰기 매일 연습하기 2.『언문말칙』 나머지 공부하기 3.『한영문법』 1부 끝내기 4. 마가복음 2-4장 읽고 번역하기 5. ‘턴로지귀’ 읽기(십계명 외우기) 6. 찬양의 형식 공부하고 10개 기도문 문장 배우기. 7. 소개와 인사의 다양한 형식 배우기 8. 다음의 동사 종결어미과 연결어미 숙달하기 : ᄒᆞ오, ᄒᆞᆫ다, ᄒᆞ다, ᄒᆞᄂᆞ냐, ᄒᆞ엿다, ᄒᆞ겟다, ᄒᆞ겟ᄂᆞ냐, ᄒᆞ자, ᄒᆞᆸ셰다, ᄒᆞ쇼셔, 이오, 일다, 이냐, 잇소, 잇다, ᄒᆞᆷ니다, ᄒᆞᆷ넛가, 이올세다, ᄒᆞ고, ᄒᆞ니가, ᄒᆞ면, ᄒᆞᆯ지라도, ᄒᆞ니, ᄒᆞ여, ᄒᆞ여야, ᄒᆞᆯ, ᄒᆞᆫ, ᄒᆞᄂᆞᆫ, ᄒᆞ나, ᄒᆞ여도. 9. ‘Christian News’의 ‘교회통신’에서 선택한 기사 읽고 번역하기 10. 한국어 문장 100개 교정 후에 쓰고 외우기 11. (선택사항:한자) ‘유학초게’ 1권의 한자 200자

47) 1908년에 출판된『찬숑가』로 예상한다. 이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장·감공용 찬송가를 편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한 것인데 베어드(Mrs. Baird), 밀러(F.S. Miller), 벙커(D.A. Bunker)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편집 원칙은 이미 사용하던 찬송가를 토대로

2년차	1. ‘the christian News’의 ‘교회통신’ 최소한 한 주에 한 칼럼 읽고 분석하기 2. ‘찬숑가’[47]에서 선택한 찬송가 20개 공부하기 3. 마가복음 읽기 끝내기 4. 기도문 5개 암기하기(제안 : ‘원입교인규죠’ 5-8쪽) 5. 한국의 지리 공부하기 6. 전도문서 2개 읽기(제안 : ‘구세진쥬’, ‘쟝원량우샹론’) 7. 동사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숙달을 위해 주의 깊게 공부하기(슴ᄂᆡ다, ᄒᆞ여오, ᄒᆞ지오, ᄒᆞ네, ᄒᆞᄂᆞ니라, ᄒᆞ리다, ᄒᆞ릿가, ᄒᆞ올셰다, ᄒᆞ회다, ᄒᆞ오닛가, 이오닛가, ᄒᆞᆸ시오, ᄒᆞ리라, ᄒᆞ니라, ᄒᆞ도다, ᄒᆞ노라, ᄒᆞ러, ᄒᆞᄂᆞᆫ지, ᄒᆞ거든, ᄒᆞᆫ즉, ᄒᆞᄂᆞᆫᄃᆡ, ᄒᆞ던지, ᄒᆞ넌거, ᄒᆞ면셔, ᄒᆞ매, ᄒᆞᆫᄃᆡ, ᄒᆞ거늘, ᄒᆞ기에, ᄒᆞ거니와, ᄒᆞ엿다가) 9. 한국어 작문하기(최소 200단어 이상) 10. 짧은 설교(Gospel talks)하기 배우기 11. 사도신경과 성경구절 25개 암기하기 12. (선택사항:한자) ‘유학초게’ 1, 2권 끝내기
3년차	1. 영문 성경을 한국어 구어로 번역하는 연습하기 2. 복음서와 사도행전 읽기 끝내기 3. ‘Christian News’ 매주 한 페이지 읽기 4. ‘셩경문’, ‘셩경도셜’ 읽기 5. 한국어 작문 반복 연습하기(특히, 편지 쓰기) 6. ‘쟝원량우샹론’ 1-26쪽의 한자어에 들어 있는 한자의 한국어 번역 배우기 7. 성경구절 25개 암기하기 8. 상세한 한국의 가족관계 공부하기(‘GRAMMAIRE CORÉENNE’의 가계도 참조) 9.『ᄉᆞ과지남』완벽하게 공부하기 10. (선택사항:한자) 국한문체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읽는 법 배우기

<표 13> 191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이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1년차 학습과정의 세분화이다.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아마도 초급 단계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년차의 학습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법 항목의 경우를 보면『언문말칙』[48]과『한영문법』의

새 찬송가를 첨가하되 말은 존경어로 구조가 명확하며 의사가 정당하고 교리에 적절한 것만을 쓰기로 한 것이다. 1908년에는 악보 없이 가사만 262편이, 1909년의 개정판에는 4편이 추가되어 악보판으로 개정되었다.『찬숑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숙자(1995), “한국 최초의 개신교 통일찬송가 「찬숑가」(1908) 연구”,『敎會와 神學』27, 장로회신대학교, 652-675쪽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페이지를 사용해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다른 주목할 변화는 문자 학습을 위한 전문 교재의 사용이다. 1년차 1, 2학기에 '초학언문'이 1년차 3학기와 2년차에는 '유학초게'라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학언문'[49]은 본래 한국인의 한글 교육을 위한 한글 교재이고, '유학초게'[50] 역시 한국인 어린이를 위한 한자 교재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학습을 위한 교재라 볼 수는 없으나 문자 학습을 위한 전문 교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학습할 내용에 대한 지시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한 것이나[51]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문 읽기[52]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가) 선교의 시작과 한국어 학습의 필요

한국에서 감리교회의 시작은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인 맥클레이 박사가 한국에 들어온 1884년 6월 24일로 보고 있다. 김옥균의 중재로 맥클레이가 고종에게서 〈미감리회〉의 한국에서 의료와 교육 기관의 설립을 허가 받은 이후, 1885년에 입국한 스크랜턴과 아펜젤러 등의 선교사들이 〈한국선교회〉(Korea Mission)를 조직하였고, 1905년 6월에는 〈한국선교연회〉(Korea Mission Conference)를, 1908년 3월에는 〈한국연회〉(Korea Conference)가 조직되어 1930

48) 1911년의 '학습과정'에 제시된 『언문말칙』의 쪽수는 1893년 출간된 개정판 기준이다.

49) 1895년 간행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자 未詳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철영(2005), 『여명기 민족을 깨운 기독교 출판』, 서울: 이레닷컴, 90-91쪽에서는 존스(J.H. Jones)의 저술로 보고 있으며, 배제학당의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구성은 모두 20개의 공과(工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모, 반절표, 낱자 단어, 두자 단어, 짧은 문장, 긴 문장, 짧은 글의 순으로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내용은 초반에는 면학에 대한 내용이, 후반에는 종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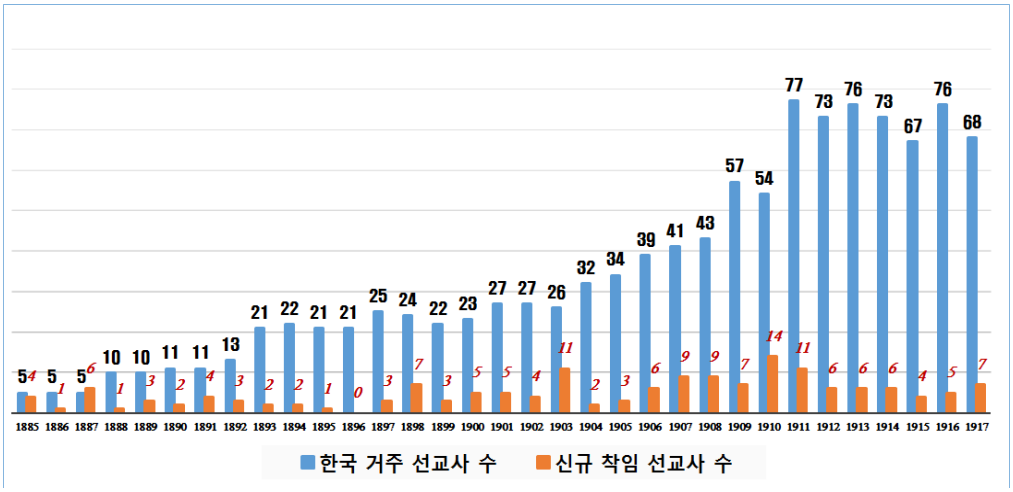
50) '유학초게'라는 서명의 책을 찾을 수 없었으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인 『啓蒙幼學初階』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51) <표 13>에서 1년차 3학기 7번 항목과 2년차의 7번 항목과 같이 학습해야 할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를 일일이 제시한다거나, 2년차의 8번 항목과 같이 작문에 사용할 단어 수를 지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52) 2년차와 3년차 '학습과정'에 등장하는 '*Christian News*'는 시기상 1910년에 창간하여 1914년에 폐간한 장로교 계열의 교계 신문인 『예수교회보』이다.

년 9월 〈남감리회〉(南監理會, South Methodist Episcopal Church)와 통합한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선교사들이 주축이 된 선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53]

의료와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한 〈미감리회〉의 선교 활동으로 한국인 신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교세의 확장은 신규 교인의 교육과 선교 지역 확대로 늘어난 선교지 관리 등을 위해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게 되어 한국으로 파송된 〈미감리회〉 소속 선교사의 수도 다음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54]



[그림 3] 〈미감리회〉 파송 선교사 증감 추이(1885~1917년)

처음 내한한 선교사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였을 것이다. 한국어를 가르칠 만한 교사도, 학습에 도움을 받을 서적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원어민 화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55] 또한 초기 선교 활동을 위해 건물을 짓고, 교육 및 의료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

53) 박새암(2016ㄴ), 앞의 논문, 120쪽.
54) 박새암(2016ㄴ), 앞의 논문, 127쪽.
55) 이러한 상황에 대해 메리 스크랜턴은 “명사의 어휘를 배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 어휘들을 ‘행동’으로 해야만 했을 때 때때로 그 행동은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없어도 당혹스러웠습니다.”(장지철·김흥수 역, 2010:65)라고 묘사하였다.

어를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56] 이러한 한국어 학습에서의 어려움들은 이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일 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복음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원인이기도 하였다.[57]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에 있어 현지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거기에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신규 선교사들의 유입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선교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다.

다른 선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미감리회〉의 한국 파송 선교사들 역시 현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연 1회 연례회의(年會, 이하 '연회')를 열어 선교, 교육, 의료 등 선교부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조사 및 보고를 하였다. 이 연회의 전 과정을 기록한 공식 회의록인 「*Official Minutes*」에는 선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전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선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통제 및 관리하였는지 그 면모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58] 다음의 <표 14>는 현재 확인이 가능한 「*Official Minutes*」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59]

---

56) 아펜젤러의 한국어 선생의 "당신은 너무너무 바빠서 공부를 할 없군요."라는 불평이 이를 잘 보여준다(이만열 역, 2015).

57)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에게 허락된 것인 의료와 교육 사업이었지 선교 활동의 자유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려던 선교사들에게는 부족한 한국어 능력 역시 큰 장애물이었다. 아펜젤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소책자를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읽을 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장지철·김흥수 역, 2010:75)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58) 〈미감리회〉의 「*Official Minutes*」는 모두 3종류가 있는데 1885년에서 1904년까지의 연회를 기록한 〈한국선교회〉의 「*Official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이하 「*OMAKM*」)와 1905년부터 1908년까지의 연회를 기록한 〈한국선교연회〉의 회의록인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이하 「*OMKMC*」 그리고 1904년부터 1930년까지 연회를 기록한 〈한국연회〉의 회의록인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이하 「*OMKAC*」)가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개관은 박새암(2016ㄴ), 앞의 논문, 119-144쪽을 참고하라.

59) 「*OMKAC*」는 1930년 〈미감리회〉가 〈남감리회〉와 통합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언어 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1917년을 끝으로 찾을 수 없어 이 연구에서는 1917년까지의 것만을 살펴보았다.

『*OMAKM*』		『*OMKMC*』		『*OMKAC*』	
연도	회차	연도	회차	연도	회차
1893	9회	1905	1회	1908	1회
1896	12회	1906	2회	1909	2회
1898	14회	1907	3회	1911	4회
1899	15회	1908	4회	1912	5회
1900	16회			1913	6회
1901	17회			1914	7회
1902	18회			1915	8회
1903	19회			1916	9회
1904	20회			1917	10회

<표 14> 확인 가능한 〈미감리회〉 연회록 「*Officail Minutes*」 목록

이 「*Official Minutes*」에는 〈미감리회〉의 선교회 산하의 여러 위원회가 연회 동안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중에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언어 위원회〉[60]도 있었다. 이 위원회가 선교회에 설치된 시기는 1888년으로 예상된다.[61] 개신교의 경우 해외선교에 있어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의 현지어 구사능력을 중요시하였다. 앞서 〈북장로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교사들의 체계적인 현지어 학습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 선교지에서도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언어 위원회〉가 1888년에 설치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첫째, 파송된 선교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의 [그림 3]을 보면 1887년 한 해에 6명의 신규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처음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선교사의 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6명이라는 숫자는 일견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당시 선교회의 입장에서는 분명 큰 증가였으며,

60) 「*Official Minutes*」에 기록된 이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1893년에는 <Committee on Course of Study in the Korean Language for Foreign Missionaries>, 1896년에는 <Committee on Course of Study in Korean Language for Missionary>였으나 1898년부터는 <Committee on Study of Korean Language>로 고정되었다.

61) 현재 확인이 가능한 「*Official Minutes*」는 앞의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1893년의 것이 가장 이른 것으로 그 이전 시기의 연회록의 내용은 확인 불가능하다. 그러나 1909년의 연회록인 「*OMKAC*」(1909:108)의 "Interesting Event in Mission History"라는 기사에 〈언어 위원회〉가 1888년 9월 24일에 첫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어("The First committee on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was appointed Sept. 24, 1888.")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1909년은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에 이 해의 연회록에는 그간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이 많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신규 교인의 추세로 보아 향후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1887년 갑자기 늘어난 6명의 신규 선교사와 추후 파송될 선교사들의 현지 적응과 빠른 선교 사업 투입을 위해 한국어 학습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배경은 3년이라는 시간이다. 1885년 입국한 4명의 선교사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익혀 신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배경 안에서 1888년에 〈언어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언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북장로회〉의 〈언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감리회〉의 〈언어 위원회〉 역시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관리와 평가였으며, 이를 위한 '학습과정'의 개발과 정비를 담당하였다.

⑴ 〈언어 위원회〉의 한국어 능력 평가

〈미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연 1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보았는데 한국어 시험이 연 1회 시행된 것은 연회와 관련이 있다.[62]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연회에는 선교회 소속의 거의 모든 선교사가 참석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 날짜를 정하지 않더라도 시험의 시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차 연회가 있었던 1900년에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연회가 개최되었는데 한국어 시험은 5월 21일 오후에 실시되었고, 23일에는 〈언어 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당시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도착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조세핀 페인(Miss J.O. Paine) 선교사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은 콥

62) 초기였던 1893년에는 연 4회 분기마다 시험을 치렀으나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1896년부터는 연 1회로 바뀌었다.

(G.C. Cobb)과 브룩스(A.M. Brooks) 선교사에 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63]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시험이 해당년도의 연회 기간 중 〈언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의 내용은 〈북장로회〉와 마찬가지로 '학습과정'의 학습항목들이 곧 평가항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학습항목들은 구술시험과 지필시험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학습과정' 중 작문과 같은 특정 항목은 미리 준비하여 시험을 치를 때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다.[64] 또 다른 근거는 보고서에 종종 등장하는 조건부 승급이다. 1905년에 버딕(G.M. Burdick) 선교사는 2년차 시험을 통과하여 3년차로 승급을 하였는데 2년차 '학습과정' 중 2개의 항목은 3년차에서도 계속 공부하는 조건이었다.[65] 그리고 1904년의 시험에서 에드먼드(Miss M.J. Edmund) 선교사는 1년차의 학습항목들 중에서 '『언문말칙』과 『*Fifty Helps*』, 음절표'를 다시 공부하는 조건으로, 구타펠(Miss M.L. Guthapfel) 선교사는 '『*Fifty Helps*』와 인사와 배웅하기'를 다시 공부하는 조건으로 2년차로 승급하였다.[66] 이를 통해서 '학습과정'의 각 학습항목들이 곧 평가항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험의 어떠한 방식이었을까? 연회록과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험 방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1899년에 연회에 제출한 아펜젤러의 한국어 시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얼마간의 짐작이 가능하다. 아펜젤러는 '시험은 구술과 지필을 모두 보고, 철자, 글씨 쓰기, 문장의 구조, 즉 문법(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평가'[67]한다고 하였는데 그해 평가 결과를 보면 아마도 구술시험은 통과 여부(pass/not pass)만 판단하고 지필 시험은 점수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8] 물론 이러한 단순한 언급만으로

63) 「*OMAKM*」(1899), p12.
64) 1902년부터는 학습항목 중 하나였던 1500~3000자 분량의 한국어 작문을 자신의 한국어 교사와 1년간 함께 준비하여 시험을 치를 때 제출해야 했다.
65) 「*OMKMC*」(1905), p82.
66) 「*OMAKM*」(1904), p65.
67) "The examination was both oral and written. Attention was given to pronunciation, orthography, writing of the characters, and the construction of sentence, *i.e.* the grammar - everything we could think of.", 「*OMAKM*」(1899), p12.
68) 박새암(2016ㄴ), 앞의 논문, 139쪽에서 다음 <표 15>와 같이 1899년에 치러진 한국어 시험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당시 한국어 시험의 실제 모습의 파악은 어렵겠지만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구술과 지필 시험은 선택적 응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의 <표 15>를 보면 포웰의 경우 3년차에 구술시험에만 응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각 년차별 평가항목 역시 선택적 응시가 가능했는데 1905년의 시험에서 에드먼드(Miss M.J. Edmund) 선교사는 2년차의 평가항목 중에서 하나의 항목만 통과하였고 그 항목에 대한 점수(credit)를 인정받은 채로 2년차의 학습을 계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아 '학습과정'의 각 년차별 학습항목들은 일종의 학점(credit)으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던 선교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학습과정' 중에서 학습한 항목들을 시험을 보고 해당 년차의 모든 항목을 통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면 조건부로도 승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⑵ 〈언어 위원회〉의 한국어 학습 관리

〈언어 위원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평가와 더불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는 학습자 평가를 통해 승급, 유급, 졸업 등의 학사관리를 하였는데 승급과 유급의 결정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시간이 아닌 숙달도가 기준이었다. 부임 이후 1년간 한국어를 학습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차에 규정된 학습 내용을 통과하지 못하면 승급할 수가 없었고, 반대로 1년의 학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1년

레벨	응시	이름	결과
3년차	oral	E.D. Follwell	passed
2년차	entire	Miss Nellie Pierce	99
		Miss Lillian Harris	95
		Mrs. Florence Sherman	94
		Dr. H.C. Sherman	97
1년차	entire	Miss Lillian Harris	100
		Dr. H.C. Sherman	95
		Mrs. Florence Sherman	95
		W.C. Swearer	95

<표 15> 1899년 한국어 시험 결과

차의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과하면 2년차로 승급하였다. 1900년의 연회록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에른스버거(Dr. E. Ernsberger)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나온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1일 평균 3시간 이상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여 1년차 전체 과정을 칭찬할 만한 수준으로 통과하였기 때문에 2년차 과정으로 승급을 요청한다는 기록이 있으며,[69] 1901년에도 모리스(C.D. Morris), 에스티(Estey), 해몬드(Hammond), 힐만(Hillman)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온 지 반년이 채 안 되었지만 1년차 전체 과정에서 규정된 학습 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렀다는 기록 등이 있다.[70]

또한 위원회에서는 개별 선교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하였는데 개별 선교지부의 업무가 과다하여 한국어 학습이 미비한 경우는 선교사들의 요청을 받아 시험의 연기를 승인해 주거나 학습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 것이다. 1901년의 연회록에는 벡(S.A. Beck) 선교사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벡 선교사가 'Press'[71] 관련 과도한 업무로 한국어를 학습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한국어 과정의 책임자에게 양해를 얻어 당해의 시험 연기를 승인 받았으며,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Press'의 업무를 도울 다른 선교사가 도착할 때까지는 벡 선교사가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벡 선교사가 한국어 공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는 것이다.[72]

---

69) "Dr. Emma Ernsberger took the examination in the studies of the first year. Though on the field less than one year she has been able to devote an average of three hours a day to language study and passed a creditable examination in the studies for the entire year. We recommend that she be advanced to studies of the second year.", 「*OMAKM*」(1900), p17.

70) 이외에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유급한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도 거의 매해 연회록에서 찾을 수 있다.

71) 연회록에는 'Press'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Methodist publishing house', 즉 〈미감리회〉 출판부인 '감리교 출판사(구 삼문 출판사, The Trilingual Press)'의 업무였다.

72) "S.A. Beck appeared before the Committee and stated that in view of the heavy responsibilities placed upon him in connection with the Press he had been excused from the study of the language by the Superintendent. It is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that as Bro. Beck has to serve as both manager and foreman of the Press it will not be possible for him to prepare for the language examinations, at least until another foreigner arrives to help in the Press. In view of this we recommend that Bro. Beck do the best he can in connection with the study of the language but that he be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선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고려도 있었는데 의료 선교사들의 경우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1년차에도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업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909년의 보고서에서는 1년차 간호사들은 오전 업무에서 제외하여 한국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1913년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한국어 시험에 의학 및 위생 문제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언어 위원회〉가 평가를 통한 승급과 유급,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고려한 학습과 평가 일정,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학습 내용 및 평가의 고려 등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⑶ '학습과정'의 개발과 정비

선교 초기에는 적은 선교사의 수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따라서 신규 착임 선교사들은 본격적인 선교활동 전에 한국어를 학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선교사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은 선교의 가장 주된 전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선교사 개개인 역시도 낯선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당면한 의료, 교육 등의 선교사업과 넓은 선교지역의 문제로 이미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한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언어 위원회〉는 선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선교지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학습과정'은 이러한 판단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학습과정'은 직접적인 면대면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닌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등급화하고 배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습자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기능도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take the examinations.", 「*OMAKM*」(1900), p17.

이 ‘학습과정’은 1893년의 연회록에 처음 등장하여 〈언어 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인 1916년까지 13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수정·보완되며 정비되었다[73]. 다음의 <표 16>은 〈언어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연회록에서 ‘학습과정’의 개정이 있었던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74]

자료명	연도	개정유무	자료명	연도	개정유무
「OMAKM」 9회	1893	○	「OMKMC」 3회	1907	○
「OMAKM」 12회	1896	○	「OMKMC」 4회	1908	○
「OMAKM」 14회	1898	○	「OMKAC」 1회		
「OMAKM」 15회	1899	×	「OMKAC」 2회	1909	○
「OMAKM」 16회	1900	×	「OMKAC」 4회	1911	×
「OMAKM」 17회	1901	×	「OMKAC」 5회	1912	×
「OMAKM」 18회	1902	○	「OMKAC」 6회	1913	○
「OMAKM」 19회	1903	×	「OMKAC」 7회	1914	○
「OMAKM」 20회	1904	○	「OMKAC」 8회	1915	×
「OMKMC」 1회	1905	×	「OMKAC」 9회	1916	×
「OMKMC」 2회	1906	○	「OMKAC」 10회	1917	×

<표 16> 〈언어 위원회〉 의 ‘학습과정’ 개정 시기

다) 선교사를 위한 ‘학습과정’의 내용과 변천[75]

먼저 1893년의 ‘학습과정’은 전체 3년, 각 4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분기별 학습내용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

73) 현재 확인이 가능한 〈미감리회〉의 연회록은 1893년의 것이 가장 이른 것으로, 만약 〈언어 위원회〉가 시작되었던 1888년에서 1892년까지의 연회록이 발견된다면 ‘학습과정’의 최초 등장 시기와 개정 횟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892년에 〈언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시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시험 실시와 학습자 승급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92년을 〈언어 위원회〉에서 ‘학습과정’이 처음으로 규정된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74) <표 16>에 제시된 개정 유무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서 위원회의 보고서가 누락된 경우(1900년)나 연회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1894, 1895, 1897, 1910년)가 있기 때문이다.

75) 〈미감리회〉의 한국어 ‘학습과정’은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이 모두 11개로 이 모두를 본문에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일부만을 제시하고, 전체 ‘학습과정’은 이 논문의 <부록>으로 따로 첨부하였음을 밝힌다.

1년차	1분기	- 언더우드『한영문법』Part1의 전반부 - 精選 문장 50개 암기
	2분기	- 언더우드『한영문법』Part1 후반부 - 精選 문장 100개 암기
	3분기	-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ver. 스크랜턴) 암기 - 精選 문장 150개 암기 -『셩경문답』(M.F. Scranton) 읽기 * (시험에서 주기도문 언문으로 쓰기 예정)
	4분기	- 요한복음 1~5장 읽고 검토 -『미이미교회문답』(G.H. Jones) 읽기
2년차	1분기	- 언더우드『한영문법』Part2 - 학습할 각 메인 토픽에서 한 문장씩 한국어로 번역하기 -『쟝원량우샹론』(S.A. Moffet)
	2분기	- 요한복음 6~10장 읽고 분석 - 숫자와 성경의 인명 한자 배우기 -『진도입문문답(眞道入門問答)』(F. Ohlinger)
	3분기	- (복습) 요한복음 읽고 분석 -『미이미교회강례』(H.G. Appenzeller),『묘축문답』(〃) 읽기
	4분기	- 요한복음 1장 전반부의 한자와 한글 편지글의 형식 -『구약공부』(G.H. Jones),『훈ᄋᆞ진언』(M.F. Scranton) 읽기 * (학업 기대치: 원고 없이 한국어 설교 가능한 수준)
3년차	1분기	-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한자와 가족 관계 어휘 -『ᄉᆞ민필지』(H.B. Hulbert) 읽기
	2분기	- 창세기 1,2장과 한국어 직함 관련 어휘
	3분기	-『오륜힝실』 첫 두 권 읽기
	4분기	- 창세기 3,4장과 요한복음 2,3장의 한자 - ᄉᆞ복음메합셔(W.B. Scranton) 읽기

<표 17>「*OMAKM*」(1893)의 언어 위원회 '학습과정'

1893년의 '학습과정'은 1년차에는 문법 학습과 한국어 문장 암기를 통해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한글 성경과 짧은 전도문서(christian tracts) 읽기를 통해 2년차의 마지막에는 '원고 없이 한국어 설교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년차부터는 한자의 학습을 시작하여 3년차에는 본격적으로 한문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과정을 제안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문법에 대한 학습은 언더우드의『한영문법』(1890)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서양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76]

그러나 1893년의 '학습과정'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으며, 학습내용 역시 피상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했던 선교사들에게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3년 뒤인 1896년의 개정된 '학습과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래의 <표 18>과 같은 모습이다.

1년차	1. 한글 자모 2. 단순형 명사(The Noun in its simple forms) 3. 인칭 대명사 4. 동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단순형, 직설법, 의문형, 명령형 5. 간단한 형용사와 부사 6. 인사와 배웅의 형식 7. 숫자 세기 8. 돈 9. 시제와 조건절과 같은 동사의 간단한 종속절 형식 10. (a) 제공된 대화문 10개 암기 (b)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읽을 것> : 감리교 교리문답, 요한복음 1~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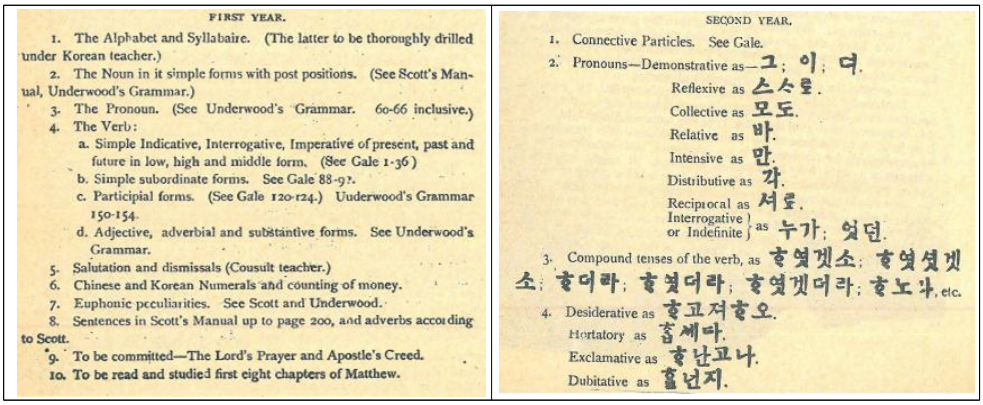
76) 1893년 이전 출판된 한국어 학습서는 로스(J. Ross)의『*Corean Primer*』(1877),『*Korean Speech*』(1882), 스코트(J. Scott)의『언문말칙』(1887), H.G.언더우드의『한영문법』(1890)이 있었는데 언더우드의 것 외에는 모두 회화서의 성격이 강했다.

2 년 차	1. 명사형 어미의 복잡한 형식 2. 대명사, 지시사, 부정사, 재귀사 등 3. 동사의 복합시제와 미완료시제 4. 동사적 명사 5. 단위 의존 명사 6. 동사의 희구, 권고, 감탄, 의심, 약속 형식 7. 2인칭과 3인칭을 칭찬하는 형식 8. 한자어 숫자 9. 대화문 20개 암기, 감리교 교리문답 학습 끝내기, 요한복음, 마가복음 후반부 학습 끝내기 <암기할 것> : 십계명 <읽을 것> : 셩경도셜, 묘츅문답
3 년 차	1. 문장의 결합과 접속사 2. 기도 형식 3. 방해, 가정 등과 동사의 고유한 형식 4. 음운 변화 규칙 5. 탈락과 규칙 6. 관용 표현 7. 문어체 8. 전체 복습 9. 즉흥대화(시험 응시자들은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2000개를 습득해야 함) <공부할 것> :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감리교 의례, 묘츅문답 등 <읽을 것> : 오륜힝실(Vol.1)

<표 18>『*OMAKM*』(1896)의 개정 '학습과정'

1896년의 '학습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한영문법』(1890) 한 권으로 2년차 1분기면 끝이 났던 문법 학습이 3년차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분포되었고, 학습할 내용 역시 개별 문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문법 학습 항목 외에는 각 년차별로 암기할 것과 읽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전도 활동에 필요한 기도문과 전례 의식에 요구되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93년의 '학습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보였던 한자와 한문 학습이 제외되어 이전에 비해 조금은 현실적인 한국어 학습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학습과정'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1896년의 ‘학습과정’은 1898년에 약간의 수정이 더해져 1902년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사용되었는데 학습 방식에 관한 지시사항이 추가되고 문법 학습 항목의 경우 학습 시 참고할 학습서와 페이지 수를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적시하는 등 기존의 ‘학습과정’에 비해 제시 방식이 보다 상세해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FIR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ire. (The latter to be thoroughly drilled under Korean teacher.)
2. The Noun in it simple forms with post positions. (See Scott's Manual, Underwood's Grammar.)
3. The Pronoun. (See Underwood's Grammar. 60-66 inclusive.)
4. The Verb:
   a. Simple Indic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of present, past and future in low, high and middle form. (See Gale 1-36)
   b. Simple subordinate forms. See Gale 88-97.
   c. Participial forms. (See Gale 120-124.) Uuderwood's Grammar 150-154.
   d. Adjective, adverbial and substantive forms. See Underwood's Grammar.
5. Salutation and dismissals (Cousult teacher.)
6.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7. Euphonic peculiarities. See Scott and Underwood.
8. Sentences in Scott's Manual up to page 200, and adverbs according to Scott.
9. To be committed—The Lord's Prayer and Apostle's Creed.
10. To be read and studied first eight chapters of Matthew.

SECOND YEAR.

1. Connective Particles. See Gale.
2. Pronouns—Demonstrative as—그; 이; 더.
   Reflexive as 스스로.
   Collective as 모도.
   Relative as 바.
   Intensive as 만.
   Distributive as 각.
   Reciprocal as 셔로.
   Interrogative or Indefinite as 누가; 엇던.
3. Compound tenses of the verb, as 흐엿겟소; 흐엿셧겟소; 흐더라; 흐엿더라; 흐엿겟더라; 흐노라, etc.
4. Desiderative as 흐고져흐오.
   Hortatory as 홉세다.
   Exclamative as 흐난고나.
   Dubitative as 흘넌지.

[그림 4] 1898년 1년차, 2년차 ‘학습과정’의 일부

위의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년차의 1번과 5번 항목을 보면 ‘철자와 반절표(음절표)는 한국어 교사의 지도 아래 철저히 연습하라’, ‘인사와 배웅은 교사와 상의하라’와 같이 학습 방식에 대한 지시사항을 제시하고, ‘대명사는 언더우드의『한영문법』60-66쪽을 참고하라’ 등과 같이 학습에 참고할 서적과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선교사들의 학습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학습과정’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반절표(syllabaire) 학습의 추가, 3년차에 있던 음운 변화의 특성(Euphonic peculiarities)이 1년차로 이동했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에 비해 발음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2년은 ‘학습과정’의 개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1년차의 문법 학습량이 줄어들면서 각 년차별 학습할 문법 항목의 변화가 있기도 하였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학습내용이 신설이 많았다. 1년차에『찬미가』[77] 읽기가 추가되고, 2년차에는 한국의 지리, 한자어의 어원

학습, 3년차에는 『언문말칙』의 서문(introduction) 읽기[78], 신문('신학월보') 읽기, 소설('홍길동전') 읽기와 함께 1500~3000자 분량의 한국어 작문이 추가되어 학습내용이 확장되었다. 또한 각 년차별로 '추가 읽기 자료'로 영문으로 쓰인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 가장 구별되는 것은 각 년차별 학습과정 아래에 "설명과 제안(EXPLANATIONS AND SUGGESTIONS)"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학습과정'에 대한 일종의 사용설명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였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한국어 학습방법의 실체적인 모습을 일부일지라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1년차>

①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자모 쓰기 연습과 반절표 반복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음절의 원음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며, 음운 변화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Scott's Manual의 1-17쪽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위(1년차의 학습과정)의 3,4,5번의 학습은 한국어 문법의 이론적인 부분 이상으로 학습자들이 숙지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 교재들 각각의 내용을 숙달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책들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적인 구조에 더 충분히 친숙해지기를 기대한다.

③ 한국어 문장 300개는 학생들이 영어 번역을 첨부하여 한국어로 써야 한다. 이것은 시험을 치를 때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로 절반, 구어체로 절반을 써야 한다. 학생들은 학습 매뉴얼 또는 직접 쓴 것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쓸 수 있다. 이들 방법을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77) 감리교의 경우 1892년 선교사 존스(G.H. Jones)와 로드와일러(L.G. Rothweiler)가 중국의 찬송가집을 악보 없이 가사만 번역하여 출판한『찬미가』를 사용하였는데 1902년에는 처음 30여곡 내외에서 205곡을 대폭 증보된 6판이 출간되었다. 연회록에는 'Hymn-book'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1902년 개정된 6판이나 1899년 개정된 5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8) 'History and origin of the Corean Alphabet'이라는 부제가 있으며, 한국인의 문자 생활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④ 음운 변화의 학습은 한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1년차에서 철저한 반복 연습은 학생들이 이후의 학습을 쉽게 만들 것이다.

<2년차 >

① 2년차에서 문법에 대한 학습은 한국어 동사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주요 한국어 동사인 'ᄒᆞ다'는 약 800개의 다른 활용을 하는데 그것에 친숙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쓴 "Gramaire Coreene"가 2년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② 2년차의 한국어 문장 300개는 1년차와 동일한 규칙으로 한다.(1년차 3번 항목 참고)

③ 한국 지리에 대한 공부는 학생들이 한국의 산, 강, 주요 도시, 행정 구역 그리고 한국의 5개의 큰 섬의 위치와 명칭에 친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④ 의례에 대한 학습은 세례식, 성찬 예식으로 정회원과 전도사( )[79]에게 요구될 것이다.

⑤ 어원 공부를 위한 100개의 한자어는 '위원회'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3년차>

① Scott's Manual의 서두는 한국 문자의 역사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것이다. 또한 철학적인 견지에서 언어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이유에서 'Korean Repository'에 실려 있는 글들에서 언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도움이 될 것이다.

② 편지글 형식에 대한 공부할 때는 한국인들이 간행한 편지글 매뉴얼인 "간독"[80]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③ 한국어의 관용적 특징을 공부할 때 학생들은 그 자신의 조사/관찰에 기댈 필요가 있다. 연중 내내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발견한 관용적인 형태를 기록해야 할지 모른다.

④ 즉흥 기도와 말하기의 연습은 예배와 지역 기도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79) 장로교에서는 강도사(講道師)라고도 하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일정 기간 수련을 받으며 경험을 쌓는 과정의 교역자 직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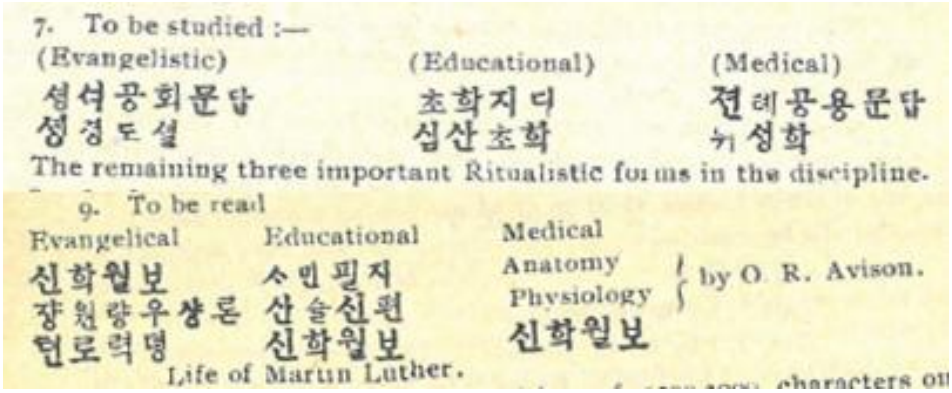
80) 『언간독』 또는 『증보언간독』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간행된 한글 편지 교과서이다. 방각본으로 나온 것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1886년을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설명과 제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의 방식의 큰 틀은 1년차에는 철저한 발음 연습과 한국어 문법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2년차에는 동사, 특히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 같은 활용에 집중한 학습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에 포함된 기초적인 한자의 학습에 초점을, 3년차에는 편지, 즉흥적인 기도와 연설과 같은 실용적인 문어와 구어의 학습에 초점을 둔 학습을 하는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02년에 개정된 ‘학습과정’은 1908년의 개정이 있기까지 큰 변화 없이 사용되었는데 1904년에는 ‘한국어 문장 쓰기’가 300개에서 400개로 늘어났으며, 1906년의 개정에서는 ‘한자 배우기’가 추가되어 1년차에는 50개, 2년차에는 500개와 부수 파악하기, 3년차에는 1000개 한자 읽기가 학습과정에 반영되었다. 1907년에는 2년차와 3년차의 한자 학습이 게일이 저술한『牖蒙千字(유몽천자)』1권(1903)의 학습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의 ‘학습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한국어 학습에서도 선교 분야의 세분화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학습과정에서는 2년차에는 ‘미이미교회문답’과 ‘셩경도셜’을, 3년차에는 ‘신학월보’, ‘쟝원량우샹론’, ‘텬로력뎡’을 공통된 읽기 텍스트는 제시하였는데 1908년의 개정 ‘학습과정’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전도, 교육, 의료’의 세 분야로 선교 분야를 세분하여 각각 공부하거나 읽어야 할 텍스트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어휘 등을 익히게 하려는 시도로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서도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81]

81) 1909년부터는 2년차의 선교 영역별 제시는 없어지고, 3년차만 1908년과 동일하게 선교 영역별 세분화를 하였다.


7. To be studied :—
(Evangelistic) (Educational) (Medical)
성서공회문답 초학지디 젼례공용문답
성경도설 십산초학 뉘성학
The remaining three important Ritualistic forms in the discipline.
9. To be read
Evangelical Educational Medical
신학월보 스민필지 Anatomy } by O. R. Avison.
장원량우상론 산술신편 Physiology }
현로력뎡 신학월보 신학월보
Life of Marun Luther.

[그림 5] 1908년 2년차, 3년차 '학습과정'의 일부

1909년의 개정 '학습과정'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몇몇 문법 학습 항목의 경우 다음의 <표 19>와 같이 지시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 '학습과정'	1909년 '학습과정'
Scott's Manual, page 18-160	Scott's Manual. a. Declensions of nouns and pronouns b. Times and seasons c. Adjectives; kind, conjugation, and comparison
Underwood's grammar, Part I	The verb. a. As conjugated in Underwood's b. The distinction between it-ta(잇다) and il-ta (일다). Scott p.135 c. Negation(Scott) Adverbs, as given in scott Post-positions(Scott p.153)

“Fifty Helps”, by Mrs. Baird	Study the formation of indirect discourse as given in Mrs. Baird’s Fifty Helps. a. 면, 거든 Mrs. Baird’s Fifty Helps. Gale’s Grammatical Forms 88,90. b. 니, 니싸, 니간드로, ᄒᆞ니,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ᆫ고로 Gale’s Grammatical Forms 70-73. c. Concessive ᄒᆞ나, ᄒᆞ되, ᄒᆞ도, ᄒᆞ거니와, ᄒᆞᆯ지라도 Gale’s Grammatical Forms 96-99. d. Alternative ᄂᆞᆫ지, 던지 Mrs. Baird’s Fifty Helps and Gale’s Grammatical Forms 117-118. e. Temporal Scott p.118 f. Fearing Scott p.122 g. Wishing and desiring ᄒᆞ고져ᄒᆞ다, ᄒᆞ고시푸다, ᄒᆞ려 or 랴ᄒᆞ다
Thorough study and constant practise of Korean Salutations and Dismissals	Salutations and dismissals in high, middle and law forms. a. On acquaintance b. Morning and evening c. On street

<표 19> 1908년과 1909년 ‘학습과정’의 문법 항목 제시 방식 차이

또 한자 학습 내용은 다시 1906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습과정’이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이 되거나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모색하였음을 보여준다.

1911년과 1912년 연회록의 〈언어 위원회〉 보고서에 첨부된 ‘학습과정’은 1909년의 것과 차이가 없어 1910년부터 1912년까지는 ‘학습과정’의 개정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3년의 ‘학습과정’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감리회〉 소속의 선교사가 쓴 한국어 학습서가 처음으로 학습 내용에 추가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908년부터 시도되었던 선교 영역별 학습 내용의 분화가 없어진 것이다. 학습 내용에 새로 추가된 한국어 학습서는 두 종류였는데 스톡스(M.B. Stokes)의 『*Korean by Clause-method*』[82]와 벡커(白雅德, A.L. Becker)가

82) 보고서에는 ‘Stokes’s Helps’라고 되어 있으나 출판 시기와 저자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의

저술한 다른 하나[83]이다. 스톡스의 학습서는 1912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과정'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학습할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장로교 측에서 출판된 한국어 학습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감리교 측에서 출판된 한국어 학습서를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기존에 전도, 교육, 의료로 분화했던 3년차의 읽기 학습에서 교육과 의료 영역을 제외한 것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업무 목적별 세분화가 실제 현장에서 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후 1914년의 '학습과정'의 개정의 핵심은 한자 학습이었다. 1908년 이후 지명에 포함된 한자의 학습만 있었던 '학습과정'의 한자 학습을 1914년에는 1~3년차까지 각각 1년차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용한자 200개와 부수 읽는 법, 2년차에는 국한문혼용체(Mixed Script)의 요한복음 1~10장 읽기, 3년차에는 역시 국한문혼용체의 로마서 또는 히브리서 읽기의 추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자 학습의 확대는 위원회에서 상용한자의 학습이 향후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데[84] 당시의 문자 생활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자 문해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914년의 개정된 한자 학습 관련 내용의 핵심은 '읽기'의 강조였고,[85] 학생들에게 옥편의 부수나 게일의 사전[86]을 학습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1914년의 개정을 끝으로 '학습과정'의 개정에 대한 〈언어 위원회〉의 보고는

책으로 판단한다. 이 책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절 단위로 패턴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적으로 기존에 출판된 한국어 학습서와는 구성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게일의 『ᄉᆞ과지남』이나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이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설명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스톡스의 책은 문법 설명을 최소화하고 일종의 '패턴드릴(patten-drill)'의 방식을 취하여 실제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본문을 구성한 학습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83) 벡커가 저술한 것은 'Introductory Sentences'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출판년도와 서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출판이 되었는지도 사실 불분명하다. 그러나 스톡스의 것과 함께 '학습과정'에 추가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1912년을 전후한 것으로 생각된다.

84) "The committee feels that the required Chinese will be valuable to all Missionaries and will form a basis for furthur study.", MEC(1914), 『KOREA ANNUL CONFERENCE』, p79.

85) "pupils are expected to only recognize not write the characters.", ibid, p79.

86)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 (The Chinese Character), 1914)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언어 위원회〉 역시 1916년 연회에서의 보고 이후 1917년 『*Official Minutes*』에서의 언급을 끝으로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1917년 연회의 5일차인 5월 25일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선교부의 회계담당자였던 데밍(C.S. Deming)의 발의로 〈언어 위원회〉가 해산하였고, 그 해에 예정되었던 한국어 시험 역시 취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선교 초기 〈미감리회〉의 한국 파송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언어 위원회〉가 1888년부터 1916년까지 30년간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 위원회〉의 활동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남아 있지 않지만 앞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규 선교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 수의 감소와는 관계가 없었던 듯하다. 실제적인 원인은 아마도 〈언어 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어 학습 또는 교육기관이 등장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1913년과 1914년의 연회에서 〈언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다. 먼저 1913년의 보고서 말미에는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이라며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 "현재, 연례 언어 수업에 참석하는 것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그곳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상기 과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아직은 이 언어 수업이 어떤 특정 학점(credit)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 능력 및 지식을 지닌 많은 학생들과의 접촉으로 얻은 사실, 방법 및 열정을 통해 전체 코스가 훨씬 커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언어위원회는 선교회의 모든 학생들이(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한 달 동안 참석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매년 1913년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87]

87) "Altho at present, attendance at the yearly language class can not be compulsary nor can the work done there be regarded as taking the place of the above course, yet, as credit on certain parts of this required work can be given on work properly passed there, and as the whole course will be rendered much casier through the facts, methods and enthusiasm gained by contact with many students of various grades, abilities and acquirements, the language committee heartly recommends that all language students of the Mission, old or young, attend and take the month; course planned for each year.(For the year 1913 the class is being held at Pyeng Yang from June 13th to July 10th).", 「*OMKAC*」(1913), p96.

이 내용은 〈미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들에게 1913년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평양에서 열리는 《Language Class》에 참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 한 달간 참석하는 것으로 한 해의 학습과정을 대신하는 것은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14년의 보고서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언급이 있는데 1914년 서울에서 열리는 《Language School》에 참석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소속 선교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다.[88]

이 집중 강좌는 오랜 시간 한국어를 연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선교사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89] 그런데 사실 〈연합선교협의회〉의 《Language Class》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북장로회〉 선교회에서는 1909년부터 이미 평양에 있던 애니 베어드를 중심으로 한 달 기한의 한국어 집중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90] 〈북장로회〉에서는 1911년에는 평양의 〈미감리회〉 선교사들과의 협력 하에 이 강좌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이를 계기로 〈북장로회〉에서 공식적으로 〈미감리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Language Class》에 한 명의 교사와 학생들을 파견하게 된다.[91]

《Language Class》가 출발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연합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미감리회〉가 아닌 〈북장로회〉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감리회〉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이 〈연합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북장로회〉에게 넘겨주면서 〈미감리회〉 선교회 내에서 〈언어 위원회〉의 역할이 차츰 줄어들면서 1917년에는 결국 위원회가 해산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2]

---

88) “The Committee again recommends the attendance upon the summer Language School to be held this year in Seoul.”, 「*OMKAC*」(1914), p79.

89) 《Language Class》와 《Language School》에 대해서는 이 장의 2절과 3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90) 〈북장로회〉 선교부의 단기 한국어 집중 강좌는 평양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게일을 중심으로 하여 개최하였는데 몇몇 이유로 유지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KMF*」, 1912년 8월호.

91) 「*KMF*」, 1912년 5월호.

92) 박새암(2016ㄴ), 앞의 논문, 119-144쪽은 〈언어 위원회〉 해산의 원인으로 〈미감리회〉가

3)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의 의의와 한계

한국어교육의 역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개별 교파의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기의 한국어교육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선교사 개인이 출간한 한국어 학습서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밝혀진 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인 교육이 아닌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학습만이 있었던 시기로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교파별 선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어교육의 양상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북장로회〉와 〈미감리회〉 같은 개별 교파 선교회에는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였던 선교회의 하부조직이며,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주체인 〈언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언어 위원회〉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러 지역의 소속 선교사에게 일종의 커리큘럼[93]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3년 과정의 '학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교파 간의 연합체인 〈연합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교회들 간의 여러 협력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갖기 위해 '연합언어학교'에 주력할 필요를 가졌던 것으로 보았으나 '연합언어학교'가 시행된 과정을 고려해본다면 〈북장로회〉에 주도권을 내어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다만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합언어학교'가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후에도 각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관리하였던 정황을 발견할 수 있고, 〈북장로회〉의 경우도 〈언어 위원회〉가 '연합언어학교' 이후에도 계속 존치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감리회〉의 〈언어 위원회〉의 폐지는 특수한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나 정확한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1919년부터 재개되는 《Language School》은 평양이 중심이 되었던 《Language Class》와는 달리 〈미감리회〉, 〈남감리회〉, 그리고 〈북장로회〉의 서울 선교지부의 주도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미감리회〉의 〈언어 위원회〉의 폐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후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93) 두 선교회가 운용하였던 '학습과정'을 커리큘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일정한 프로그램 아래 교육의 전(全)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습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年限) 내에서의 시간 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 계획 또는 실천', '단위 과정에 이수해야 할 내용의 목록'이라는 커리큘럼의 개념에서 본다면 선교회의 '학습과정' 역시 포괄적으로 커리큘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운용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회귀 또는 수정이 이루

첫째, 학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둘째, 학습 내용의 균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 1회 '학습과정'의 학습항목들에 대해 구술과 지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승급, 유급 등의 학사 관리가 존재했음을 〈미감리회〉와 〈북장로회〉의 연회록에 제출된 〈언어 위원회〉 보고서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94]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외에도 소속 선교사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자 관리 전략의 사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멘토링 시스템'이다. '멘토링 시스템'은 선교사를 부임 연차가 아닌 3년차 '학습과정'의 전 과정의 수료 여부로 시니어 선교사와 주니어 선교사로 구분하여 시니어 선교사가 주니어 선교사의 한국어 학습을 돕거나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시니어 선교사들을 개별 선교회의 지역별 선교지부의 책임자(supervisor)로 지정하여 선교지부 산하의 주니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게끔 하였다. 이 방식은 '학습과정'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한국인 개인교사의 경험 부족과 면대면 교육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측면이었다. 또 '학습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주니어 선교사들에게는 선교회 내의 업무와 의사결정권의 제한 등 제약을 두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신교의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선교사 개인의 경험과 노력에 한국인 개인교사의 도움이 더해진 학습 또는 습득이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95] 개별 교파 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부조직인 〈언어 위원회〉의 주도로 체계적인 교

어졌다는 점은 그 상세한 과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세환(wash-back)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4) 본 연구에서 이 두 선교회를 제외한 여타 선교회들의 한국어교육 양상을 모두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이 장에서 살펴본 이 두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가 선교 초기 '학습과정'의 계획과 구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역할과 활동에서 대체로 유사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던 여타 선교회들의 한국어교육 양상 역시 이 두 선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95) 한국인 개인교사 역시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닌 선교회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미감리회〉의 1893년 연회에서 채택된 〈언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모든 개인교사에게는 위원회가 승인한 선교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북장로회〉의 연회록에는 한국어 개인 교사에게 한 달에 10~12엔(서울은 12엔, 지방은 10엔)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개인이 아닌 선교회 차원에서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해준다.

육 시스템을 형성하고 학습자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파별 선교회의 한국어교육 양상은 이 시기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선교사의 개인적인 학습이 아닌 개별 교파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차원에서의 한국어교육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이 개별 교파 선교회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 및 관리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포괄적인 교수 활동의 일부분인 수업, 즉 교사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미감리회〉의 1911년의 연회록의 실린 〈언어 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인데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이 처해 있던 현실적인 문제를 짐작케 해주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위원회가 준비하고 연회에서 채택된 '학습과정'은 선교사들의 1년간의 한국어 학습에 실제 적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이 '학습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는 1년차의 선교사들이 이 '학습과정'의 학습과 실제 적용이 8개월이 될 때까지는 선교회에서 다른 어떤 업무도 맡기지 않기를 촉구한다.

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배경은 그해에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 선교사들의 시험 결과가 이전에 비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선교회의 규정으로는 신규 부임 1년차 선교사들에게는 다른 업무는 없이 한국어 학습만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교 현장에서의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학습과정'에 따른 한국어 학습이 선교사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의 하나였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일부 제약도 있었으나 강제된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학습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선교사 개인에게도, 선교회에도 양심과 규정을 지켜 한국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것은 충분히 훈련된 교사, 선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모일 시간, 거리, 장소와 같은 시공간의 문제 등 직접적인 교수활동이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회에서 '학습과정'과 〈언어 위원회〉 주도로 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은 교사, 시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록 훈련된 교사가 없고, 다른 시공간에 있음에도 동일한 학습 내용을 전제로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자 한 어쩔 수 없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96]

그러나 개별 교파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회들 간의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였던 초교파적 통합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조직된 〈연합선교협의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해소되어 간다.

제 2 절 단기 집중 강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선교 초기에는 〈북장로회〉와 〈미감리회〉 등 교파별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1910년대에 들어서는 교파들 간의 초교파적 연합 운동의 영향으로 조직된 선교회들 간의 협력 기구인 〈통합선교공의회〉와 〈연합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전의 개별 교파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별 선교회가 마련한 일정한 커리큘럼인 '학습과정'과 자격을 갖

96) 이러한 전략적 방안은 '학습과정'의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학습과정'에는 'learn'과 'study'를 구분하고 있는데 'study'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으로 학습에 참고할 한국어 학습서에 그 내용이 포함된 항목에, 'learn'은 모어 화자인 개인 교사 또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에게 배워야 하는 내용들로 주로 발음이나 한자 또는 관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에 사용되었다. 이런 측면 역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춘 선임 선교사들의 관리 및 감독, 정기적인 평가 등을 통해 학습자의 자학자습(自學自習)에 기반한 원격교육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 비해 〈연합선교협의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인 《Language School》을 설립을 통해 선교사들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집합교육의 성격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Language School》로 학교와 교실 수업 중심의 한국어교육으로의 변화는 선교사들의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한 단기 집중 한국어 강좌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며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강습회는 중국, 인도 등지의 선교회에서도 실시된 것으로 조선의 선교사들만의 특수한 언어 학습 방법은 아니었다고 한다.[97] 이 강습회는 1909년에는 대구에서, 1910년에서 1913년까지는 매해 평양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고, 1914년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역시 4주간의 강습회가 열렸다.

이 단기 집중 학습 형태의 강습회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개신교 선교회 간의 초교파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19세기 말 시작된 '하나의 개신교'를 목표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98]의 영향으로 1905년 장로교의 4개 선교회, 감리교의 2개 선교회가 협의체를 형성하여 〈통합선교공의회〉를 결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통합선교공의회〉는 통합에 대한 내부적인 견해의 차이로 1912년에는 〈연합선교협의회〉로 재결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성경과 찬송가의 번역과 출판, 교회 중심의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신규 부임 선교사들에 대한 교육 역시 〈연합선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강습회를 통한 집체 교육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97) 오대환(2014), 앞의 논문, 146-148쪽.

98)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은 '교회일치운동' 또는 '교회연합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성경 번역과 찬송가 발행 등 문서사업과 교육 및 의료사업, 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 연합하여 선교 및 사회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Language Class》의 개설과 폐지

가)《Language Class》의 개설과 그 배경

선교사들의 한국어 집체 교육이자 단기 집중 강좌였던《Language Class》는 〈북장로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한국선전운동(Korea Propaganda)의 효과로 1908년부터 많은 신규 선교사들이 도착하게 되면서 이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언어 위원회〉에서 선교부 안에 언어학교(language school)의 개설을 요청한 것이다. 1909년 2월 8일에는 브라운 박사가 편지를 보내 언어학교의 개설을 다시 권고하면서 1909년의 연회에서 다음 <표 20>과 같은 내용으로 언어학교 개설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된다.

시간	12월(1909년)과 5월(1910년)
장소	12월 - 서울, 5월 - 평양
강사	언더우드와 애니 베어드
학생	위원회에서 면제하지 않은 이상 모두 출석해야 함
비용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조정하여 선교지부 또는 선교회에서 지출

<표 20> 1909년 〈북장로회〉 언어학교 개설 승인 내용

이 〈북장로회〉 언어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한 달 기한으로 개설되었는데 191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09년 12월에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한 달간 한 강좌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게일과 브루넨(Brnen)이 수업을 담당하였고, 1910년 5월에는 평양에서 애니 베어드의 담당으로 한 강좌의 수업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1909년과 1910년 처음 시도된 선교사들의 한국어 집체 교육은 꽤나 성공적이었듯이 보인다. 특히 애니 베어드의 주도하에 진행된 평양에서의 수업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99] 이에 고무된 위원회는 '한국어 특별

99) 위원회는 보고서에 베어드 부인의 평양에서 한국어 강좌가 계속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We recommend, that the Mission approve most heartily of and look forward to the continuance of the Language School held in Pyeng Yang under the leadership of Mrs. Baird.)

강좌(Special Class for Language Study)'를 기획하는데 위원회 위원들에게 1, 2년차 학생을 위한 특별 수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가장 잘 준비된 것을 택하여 위원회의 관리 하에 서울, 평양, 대구에서 2주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개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100] 1911년에는 애니 베어드의 주도로 평양에서 〈미감리회〉와 협력 하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이듬해의 한국어 강좌에 〈미감리회〉에 교사의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 1912년부터는 〈북장로회〉만의 언어학교가 아닌 10개 선교기관에서 71명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언어학교(Union Language School)'의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가 6월, 평양에서 한 달간 개최되었고,[101] 1913년 6월 역시 평양에서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1914년에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6개 선교부와 구세군에서 6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102]

《Language Class》와 같은 단기 집중 강좌의 개최는 기존의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가지고 있던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인한 초교파적 단체인 〈연합선교협의회〉의 출범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기 집중 강좌가 요구되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점차 성장해오던 한국인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와 주변 선교지역이었던 중국에서의 'Union Language School'의 성공적인 활동에서 받은 자극이 작용하고 있었던 듯하

100)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1) [*KMF*]의 1912년 5월의 기사에는 '지난 2년간 연합언어학교가 평양에서 운영'되었다고 하여 연합언어학교의 한국어강좌가 1910년에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1912년 8월의 기사에서는 〈북장로회〉가 2년 전부터 대구와 평양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유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1909년에서 1911년까지 〈북장로회〉의 연회록에 이 한국어 강좌에 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09년에서 1911년까지는 〈북장로회〉가 개설한 한국어 강좌였으며, 1912년부터는 다른 선교회들과의 협력 하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북장로회〉에서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운영한 《Language Class》를 1912년에 시작한 《Language Class》를 위한 시범 운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2) '연합언어학교'의 한국어 강좌는 애초에는 6개월 기간의 정규 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한 달 과정의 단기 강좌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That it is inpracticeable at present to arrange for a six months Union language school as suggested."이라는 1912년 보고서의 언급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언어학교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애니 베어드는 「*KMF*」 1912년 5월호에 "ARE WE SATISFIED"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다. 이 글은 그해 6월에 개설될 《Language Class》에 대한 공지와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를 겸한 것이었다.[103]

"ARE WE SATISFIED"

"Among the many things affected by the astounding changes of the last few years in Korea, the status of the missionary may be reckoned as one. Time was when the message of the missionary, communicable by himself alone, was of such unique interest that the manner of its conveyance hardly attracted attention. Through its medium of more or less broken, halting and imperfect speech, gleamed the bright sheen of the Pearl of great price, and all else was forgotten. Now, however, theyears of preliminary work are beginning to bear fruit. The various mission institutions from primary and high schools up through Bible training classes, Bible Institutes, Normal, Schools, Medical School, Academics, College, up to Theological Seminaries at the apex of the educational structure, are all turning out a yearly grist of graduates. The result is that the missionaries find themselves brought into competition with native brethren, whose equipment for efficient service, if not so broad and thorough as their own in some respects, is infinitely better adapted meet the needs of the situation in some others, such as an absolute mastery of the vernacular and intimate familiarity with the home and heart life of the Oriental.

This state of things operates to place the missionary in one of two positions. He may fall back on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s can do it better than he can anyway, and thus relegate himself to the shelf of the his largely gone himself interesting chiefly as a relic of a bygone period when a low order of a purpose, and the object of kindly tolerance in the part of the Koreans finding that he is training up rivals to himself, he may forge resolutely ahead toward a constantly higher plane of usefulness. And whether reaches or not depend upon his ever increasing facility in the language.

The language! Ay, there's the rub! How many of us, even those longest on the field, are satisfied with our attainments in the language? New comers will read this with astonishment. They hear us older ones get off a few magic sentences such as "Koankei chianso," or "Chaseihi morogeisso," or "Poaiya algeisso," and they little realize that we are still following the line of least resistance, as one man well put it, and that

103) 이 글이 실린 당시의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을 모두 실었다.

outside of few beaten track, we are not very much more at home in the language than they are. Some good old soul, with whose speech we are familiar, comes in full of a matter of interest which she wishes to impart to us. We are able to grasp the mountaintops of her remarks, but the valleys of her speech, the little tricks and turns that give accuracy, are lost to us. We are able to make a pretty good guess at what she said, but we don't know *exactly.* Can we sit down comfortably to read the church news in the "Hoi Po", or the editorials of the "Mai Il Sin Po?" Perhaps we would rather not answer these questions. Yet we are here to mold the public opinion of this people; we have constituted ourselves leaders, and it is surely up to us to qualify for the position.

The investigations of Commission V. of the Edinburgh Conference are said to have "proved beyond a doubt that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e missionary body now on the field has attained proficiency in the language." None realize this more keenly than the missionaries themselves, and there is now in session in Shanghai, during the month of March, a notable meeting, a Union Language School representing 27 Mission Boards, and attended by 170 missionaries. Of this number 35 are new recruits, but the remainder represent every length of service, up to 51 years on the field. Is this a confession of failure? By no means. Rather an expression of God-prompted dissatisfaction with present achievement, and an announcement of the fixed determination to become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at any cost of time or hard work. This school, though the largest of all, is only one of four in session at Shanghai during the month of March, and the Hangchow missionaries, being unable to attend the school at Shanghai, gathered together to the number of 16 to undertake similar work.

If these things are possible in great, incohesive, dialect-ridden China, why not in our compact little country? Some of us would like to see the experiment tried, and to this end we are issuing the following circular and proposed daily schedule. The teachers secured are of necessity, fellow-missionaries, and the whole thing is simply a proposition to "Come, let us study together." It it to be hoped that a large number of the mission workers will avail themselves of the opportunity."[104)]

이 기고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그리고 성경 학교와 일반 학교들, 의과 대학과 신학 대학 등의 교육을 통해 배출된 많은

104) 「*KMF*」, 1912년 5월호, pp130-132.

졸업생들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 능력과 동양 문화에 대한 익숙함을 무기로 한국에서의 선교를 놓고 선교사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② 선교사들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하나는 한국인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 다른 하나는 선교사 자신의 유용성을 믿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선교사의 한국어 실력의 향상에 따라 결정된다.

③ 많은 선교사들의 언어 능력은 부족하다.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회보'의 교회 소식이나 '매일신보'의 사설도 편안히 앉아 읽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국 상하이에서는 27개의 선교부에서 170여명이 참석하는 연합언어학교가 한 달간 개설되는데 이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상하이의 연합언어학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항저우의 선교사들은 항저우에서 16개 선교부가 모여 수업을 개설한다.

⑤ 거대한 중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왜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도 이러한 시도를 위해 다음의 일정표를 제안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은 보편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105]을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치리(治理) 세 가지였는데 1893년에 설립된 〈장로교선교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106] 소속의 선교사들은 이 정책에 따라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105) 한국 선교 초기인 19세 말 대체로 20대였던 젊은 선교사들이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자 1890년에 당시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북장로회〉 선교사 네비우스(J.L. Nevius)가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의 노하우를 전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장로교뿐만 아닌 한국에서 선교를 하던 거의 모든 개신교 선교 단체의 선교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106) 1893년 결성된 〈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소속 선교사들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 한국인이 자립하여 전도하는 훈련을 강화하는 선교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07년에는 평양숭실학교(The Union Christian College at Pyeng Yang)에서 7명의 한국인 장로교 목사가 배출되었고 외국의 선교회로부터 독립된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耶蘇敎長老會 大韓老會), 이른바 '독노회(獨老會) 시대'가 시작되었고,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다.

이렇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지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한국어에도 능숙하고 한국의 문화에도 익숙한 한국인 목회자들은 전도 활동에서 자신들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선교 정책 전반을 주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한국인들과의 소통에 유리한 한국인 지도자들의 등장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107]

애니 베어드는 이러한 의구심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선교사들의 《Language Class》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또한 바로 옆 중국의 상황을 제시하며 이러한 수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즉, '연합언어학교'의 《Language Class》는 기존 개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지니고 있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라는 교육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인 개신교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위축되었던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고자 하는 한 방안으로, 또 중국의 '연합언어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자극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의 연합 협의체이다.

107) 선교회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생각은 H.G.언더우드가 「*KMF*」의 1913년 1월호에 기고한 "선교사가 필요한 조선교회"라는 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조금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당대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이광수가 1918년(9.6~10.19)『매일신보』에 기고한 「신생활론」에 대해 게일이 두 달 후에 출판된 *The Korean Magazine*을 통해 장문의 평문을 기고한 사건은 선교사들이 한국인 목회자나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고문에서 게일은 장로교 신자이며 미션 스쿨인 오산학교의 교사이기도 하였던 이광수가 「신생활론」에 내비친 기독교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수천 명의 민중들이 읽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광수의 「신생활론」에 대한 게일의 비평은 황호덕(2016), "사전과 번역과 현대 한국어문학, 고유한 근대 지성의 출현과 전파 번역의 황혼-이광수, 제임스 게일, 윌리엄 커의 근대 한국(어)관, *The Korea Bookman*을 중심으로-",『반교어문연구』42, 반교어문학회, 14-45쪽에 소개되어 있다.

나) 《Language Class》의 운영 경과

1909년부터 〈북장로회〉의 주도로 시험적으로 운영되었던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는 1912년부터는 한국 내 개신교 여러 선교회들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1912년의 《Language Class》는 평양에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간 개설되었으며 10개의 선교회에서 모두 71명 이상의 선교사가 참석하였다.[108] 이는 굉장히 높은 호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09] 「*KMF*」의 1912년 8월호의 기사를 보면 애초에 계획에 준비된 교사는 2 또는 3명이었으나 예상보다 너무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수업을 신청하여 교사를 급하게 6명으로 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110]

수업은 모두 5개가 개설되었는데 1단계 2개 반, 2단계 2개 반과 3단계 이상 1개 반이었는데 참가자들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년차와 2년차의 경우는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한 반이 너무 크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분반을 한 것이다.

《Language Class》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단기간의 집체 교육이었으나 한국어 학습 외의 활동도 다양한 편이었다. 다양한 주제로 매주 1, 2회의 특별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부는 언어와 관련된 주제도 있었다. 또 테니스 대회, 야구 경기 및 관람 등의 체육 활동과 예배, 찬양, 찬송가 등 종교적 활동도 포함되었다. 4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들이

108)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에는 11개 선교부에서 58명이 참석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KMF*」의 기록과 Rhodes(1935)의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그보다 많은 71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109) 1912년의 《Language Class》에 참여한 선교회와 인원은 북장로회(28), 남장로회(10), 미감리회(19), 남감리회(3), 호주장로회(3), 캐나다장로회(1), 구세군(2), 동양선교회(2), 안식교회(1), 성서공회(2)이다. [*KMF*]의 1912년 8월호의 기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현지 선교회와 선교지부에서 참여하였으며, 참가자의 연령도 16세부터 다양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110) “The unexpectedly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scared the three teachers originally appointed into telegraphing over the country loud calls for helps, so that the faculty at length stood as follows; Mrs. W.M. Baird, Rev. Cyril Ross and Rev. C.F. Bernheisel for the Presbyterians, A.L. Becker and Dr. Van Buskirk for the Northern Methodists and Rev B.M Stokes for the Southern Methodists.”, 「*KMF*」, 1912년 8월호, p253.

라는 특성에 맞게 언어적, 육체적, 영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KMF*」의 1912년 5월호 소개된 《Language Class》에 대한 홍보에서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교육 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Curriculum), 교사(The School Building), 접객(Entertainment), 한국인 교사(Korean Teachers), 오락(Recreation), 영감과 찬양(Inspiration and Praise), 등록 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의 7개 항목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교육과정	발음, 회화, 읽기, 번역, 어휘, 문법, 철자, 작문, 지리, 편지글, 글씨 쓰기, 교과서 수업
교사 (校舍)	교실 - 평양 숭의여학교(The Pyeng Yang Women's Academy) 숙소 - 숭의여학교 기숙사(32인 이상), 가정집(50인 이상)
이용 안내	숙소 - 가정집은 책과 개인용품만 휴대, 기숙사는 간이침대, 침구, 접이식 의자 등 휴대 필요 식사 - 솜씨 좋은 요리사 상주, 기숙사 식당 이용 가능 * 하인 동반 가능, 식탁과 의자는 위원회에서 제공
한국인 교사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개인 한국어 교사를 동반할 것을 권고 (신청을 하면 대학이나 학교의 학생을 개인 교사로 확보 가능)
오락	유람선 타기, 급류 타기, 달구경 및 소원 빌기, 강변 산책, 매주 토요일 오후 야구 경기 관람, 테니스 코트 완비
영감과 찬양	일요일과 토요일 저녁 특별 찬송가와 찬양 및 연설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는 홀드크래프드(Mr. Holdcroft)에게 보내야 함

<표 21> 1912년 「*KMF*」의 《Language Class》의 홍보 내용

위의 <표 21>을 보면 다른 내용보다도 교사(校舍)와 숙소 등 생활에 대한 이용 안내가 상세하다. 당시 생소한 문화권에 이주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1, 2년차의 학습자들의 참가가 많다보니 교육 외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

른 측면에서는 이 4주간의 집중 강좌가 평소 많은 업무에 시달리던 선교사들에게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짧은 휴가와 같은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평양은 비교적 북부에 있고 대동강을 면하고 있는 데다 대도시여서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교사들에게는 더운 여름을 보낼 휴양지로 적합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동강에서의 다양한 놀이와 상비된 테니스 코트, 매주 주말에 열리는 야구 경기와 같은 즐길거리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함께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1912년의《Language Class》는 참가자의 규모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다음 글은 H.G.언더우드가 「*KMF*」의 1913년 3월호에 기고한 글이다.

THE LANGUAGE CLASS IN PYENG YANG.

The Schedule of the Korean Language Class to be held in Pyeng Yang in June and July next, is certainly a most tempting one both as to teachers and subjects taught. The Advantages of these classes have already been proved by experience, and fill with regret, if not envy the minds of those who in past years, plodded on practically alone with the scant aid of a Korean teacher(?).

But there are few good things in this world without some counter balancing evils. Of those, which place a serious handicap on this class, we have learned both from residents of Pyeng Yang and language students, as well as from the plain indications seem in the statement of arrangements published by the Committee.

It seems an ungrcious act to make any criticism of what is so great a benefit to the whole missionary community, but it certainly is done in no spirit of fault finding, but only with a desire to call attention to a difficulty which needs correction.

We recognize the fact that it is hard to arrange anything important, perfectly, at the first, but with experience, and time, to help, we believe all will come right.

No one can say too much of that benefit conferred by the teaching, but the inconvenience, and difficulties, not to say dangers, arising from the gathering of so many visitors, under the conditions which seem necessary, and afflicting entertainers as well as entertained, are really very serious. These conditions are overcrowding in the most trying season of the year[111] to which is added the menace to health resulting from change of food and water - even the best - especially at that time. Many are thus crowded together

in dormitories without their usual comforts, with the improbability of thorough supervision of service, and table, and sanitation, by a competent and careful housekeeper.

The housekeepers, on the other hand, who have been engaged in exhaustive missionary effort during the year, are worked to the limit, with overcrowded houses, full of guests who are sometimes ill, adding worry to labor, at a time when the system is relaxed with heat and overwork, and when they should be resting and gaining strength for next year's battle. Dormitories and homes together were hardly sufficient for last year's influx of guests.

Again, the physicians and nurses who go to Pyeng Yang to study, are, we are told, obliged to spend too much of their time, in attending the sick. This fact in itself, speaks volumes of the dangers incurred. We are credibly informed, that some of the doctors who came to class last year, stated their unwillingness to take the time, so hard to secure in leaving their stations, to practice medicine, which they could have done of the doctors and the one who willingly attended all calls was scarcely able to get any time for study.

The statement that there was so much illness, needs no comment. That there were quite a number who were ill, at that time and among them two deaths, one of which cost the mission the loss of one of its most efficient and beloved workers, demands the serious attention of our missions, and an earnest effort to prevent similar catastrophies in the future.

We have learned from one of the members of Pyeng Yang station, that when the question of having the language class held there was left to the ladies of that place, they decided to consent to it, only on condition, that the visitors should be all accommodated in the school and college dormitories ; not because of lack of hospitality, for many visitors have repeatedly proved the wide and untiring hospitality of these missionaries, but because after two or three year's experience, they have learned, that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working as strenuously as they do thro' the rest of the year, and then filling their homes with guests for sic weeks. We sympathize heartily with them in the resolution taken.

For students the conditions are equally trying. Tho' urged to attend by the need of such valuable assistance, as well as by the reiterated advice of the language committee, it is not pleasant to do so, with the knowledge, that they may overburden entertainers, and that while risking illness, they can neither ask for medicine, or medical treatment, without depriving some unlucky doctor or nurse of the study they came to attend at considerable

111) Other work for natives occupies the cooler months, and the dormitories needed are in use by the schools except in the summer.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좀더 시원한 달(月)에 많고, 숙소들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사용한다.)

sacrifice.

We believe that such an amount of illness, as has occurred during these classes, is due mainly to the time of year, and overcrowding, rather than to the unhealthfulness of Pyeng Yang : but there are quite a number of those who have stayed there, who assert that it is unhealthful, at least for visitors in the summer months. The myriads of flies, and the condition of the streets in the hot and wet season, would give some foundation for this belief.

But whatever the causes of sickness, it is evident that correction is needed somewhere, somehow. Our most thoughtful missionaries could hardly do better than to take up the matter and give it their gravest attention. To leave it to the decision of the women in Pyeng Yang, is to put them in a very trying dilemma, for on the one hand it forces them to close their homes to guests, on the other they are places under unjust and extreme physical strain.

As we look about for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 we wonder if it would not be feasible to divide the class, having part in Pyeng Yang and part in Seoul, since the houses in Seoul, tho' many more in number than in Pyeng Yang are so scattered, that it would be no more possible here than there, to arrange at present for all the students to be quartered with safety within convenient distance from the class rooms.

On the other hand, were Dr. White's proposition to give us a large dormitory here in Seoul, accepted, that, with the homes in that neighbourhood, would we believe, comfortably house not only half, but all the guests.

Again, even in case of overcrowding, the advantages of Seoul, along health lines are incomparably greater. Beautiful, wide, well paved streets are being cut in all directions ; fine sewers are being laid, mud ditch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scavengers carry away nearly all refuse, police sanitary regulations are good and fairly well carried out, and there is at least one well manned and equipped hospital, with senior doctors, (who are not members of language class) numerous dispensaries, and drug stores, and trained nurses. This (even tho' the White dormitories, were located in Pyeng Yang, instead of here) can hardly be hoped for in that station for some years to come. As for foreign teachers our missions have enough efficient ones, to divide and have a full complement for both places, were the classes divided.

We do not pretend that this is the only solution of the problem, but it appeals to us as one which would greatly relieve present difficulties. At any late we hope that the missions will take the matter into careful consideration and we beg for suggestions, before the next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 L. H. U.

"Those who live on the mountain have a longer day than those who live in the valley. Sometimes all need to brighten our day is to rise a little higher."[112]

(평양에서 다음 6월과 7월에 개설할 조선어반의 일정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몹시 솔깃한 계획인 것이 분명하다. 이 수업의 장점은 이미 검증된 바 있고 만일 과거에 조선어 선생들의 인색한 협조와 함께 혼자나 다름없이 꾸준하게 일을 진척시킨 사람들의 노고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인 법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출판한 협약문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지적에서뿐만 아니라 평양에 사는 사람들과 어학반 학생들로부터도 어학반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선교사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나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늘어놓는 행동은 모두 무례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한 행동은 확실히 흠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단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어려움에 대해 주의를 불러일으키려는 열정으로 행해진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중요한 것을 완벽하게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경험과 시간과 도움을 통해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어느 누구도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초대한 사람이나 초대받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위험과 불편이나 어려운 점들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식량과 물이 바뀌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강에 대한 위협이 더해지는 일 년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특히 그러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안락함을 얻지도 못하고 유능하고 꼼꼼한 숙소 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식사나 위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로 몰려들었다.

반면에 더위와 과로로 규칙이 느슨해지고, 그들이 내년의 영적 전투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어야 할 때에도, 일 년 내내 힘든 선교사업에 몸 바쳐 일한 숙소 관리인들이 손님들로(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그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북적되는 기숙사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기숙사와 숙소는

112) 「K*MF*」, 1913년 3월, pp67-70.

모두 지난 해 손님들이 몰려는 것을 거의 감당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연구하기 위해 평양에 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에 어학반에 왔던 의사들 가운데 몇몇은 평양에 오지 않았다면 의학공부를 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뺏기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모든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던 한 의사는 공부할 시간을 거의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많은 질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명은 사망했고 그 둘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선교회는 가장 유능하고 사랑스러운 일꾼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 선교회가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양지부의 동료로부터 그곳에서 개설되는 어학반을 여는 문제가 평양의 여성들에게 위임될 경우, 방문객들이 학교나 기숙사에 모두 수용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많은 방문객들이 여러 번 선교사들의 풍족하고 그칠 줄 모르는 환대(歡待)를 이미 경험했으므로 선교사들이 그들을 잘 대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2, 3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지칠 줄 모르게 일을 감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을 6주 동안이나 방문객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에 진심으로 동감한다.

학생들에게서도 조건은 똑같이 열악하다. 어학위원회의 반복되는 충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중의 조력의 필요에서도 참석을 강력하게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너무 일부 불행한 의사나 간호사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도 시도했던 공부시간을 빼앗지 않고서는 그들이 약이나 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학반에 참석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발생한 이러한 병들이 평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일 년의 이 시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적어도 여름철 몇 달 동안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덥고 습한 계절에 볼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파리와 거리의 상태는 이러한 가정의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우리 가운데 가장 연륜 있는 선교사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평양의 여자 선교사들에게 일임하는 것은 그들을 매우 곤란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 문제는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방문객이 묵어가지 못하도록 닫아버리게 할지도 모르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부당하고 극심한 육체적인 긴장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학반을 일부는 평양으로 일부는 서울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평양보다 서울에 묵을 만한 곳이 더 많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집들은 여기저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학당 교실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안전하게 모든 학생들을 숙박시키도록 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여기 서울에 널찍한 숙소를 제공해주겠다는 화이트 박사(Dr. White)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가 절반의 손님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객을 위해 그 주변의 집들과 더불어 편안한 집을 제공해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숙소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도 서울이 건강관리에 훨씬 더 좋다. 아름답고, 널찍하고 포장도 잘 해놓은 거리가 사방으로 교차한다. 깨끗한 하수관이 놓여 있고, 도랑은 점차 사라져가며,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경찰은 위생법규를 매우 철저히 수행하며 수석의사들(그들은 어학반의 학생이 아니다)과 여러 개의 약국과 노련한 간호사가 있는, 직원과 설비가 잘 갖추어진 병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것은 (화이트 박사의 숙소가 이곳이 아니라 평양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간은 평양지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인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회는 어학반을 두 곳으로 나누어도 두 장소를 보충할 만한 능력 있는 교사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현재의 어려움들을 상

당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거나 우리는 선교회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바라며 다음 연합공의회(Federal Council) 전까지는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113]

1913년 3월의 「*KMF*」에 기고한 H.G.언더우드의 글에는 이 강좌가 가지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상세히 그 내용들을 밝히고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참석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것들인데 언더우드는 평양이라는 도시가 비위생적이었다기보다는 당시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고, 여름이라는 시기상 습한 환경과 파리와 같은 해충으로 인해 많은 질병의 발생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114]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H.G. 언더우드는《Language Class》를 서울과 평양의 두 곳으로 나누어 개설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는 이후 1914년의 실시된《Language Class》의 수업이 평양에서 서울로 옮겨져 시행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듬해인 1913년의《Language Class》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열렸으며,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1912년의《Language Clas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1913년의《Language Class》는 기대와 함께 부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13년의 강좌가 개강되기 전까지 「*KMF*」에만 2월, 3월, 5월에 걸쳐 모두 3번의 홍보 기사를 실었으며, 개별 교파의 선교회에서도 소속 선교사들에게 비용 지원, 선교회 자체 '학습과정'의 학점 인정이나 시험 면제 등의 조건을 내걸며 이 강좌에서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마도 1912년《Language Class》 이후 개최된 총회(mass-meeting)에서 '연합언어학교'의 상설화를 결의한 것[115]과 관련

113) 번역은 서정민(2004),『韓國과 언더우드 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의 언더우드家』,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0-113쪽에서 인용하였으며,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은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114) 참석자들에게 발생한 질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했다. 하나는 병에 걸린 선교사의 건강 문제(1912년에는 2명이 사망하기까지 하였음)와 그로 인한 학업 부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 병에 걸린 선교사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의료 선교사들이 자신의 학업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913년 《Language Class》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합선교협의회>와 현지 선교회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1913년의 《Language Class》에는 96명의 선교사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116]

1914년의 《Language Class》는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4주간 진행되었으나 수업이 개설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애초의 계획은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평양숭실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117] 〈연합선교협의회〉의 〈언어 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해의 강좌를 개설하지 않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

115) 1912년 8월호의 「*KMF*」에는 그해 5월에 있었던 《Language Class》에 대한 번하이즐(片夏薛, C.F. Bernheisel) 선교사의 소회와 평가가 실려 있는데 글의 말미에는 《Language Class》가 끝난 후 열린 선교사 총회에서 채택된 세 가지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KMF*」, 1912년 8월호, pp253-254.

① That each Mission represented in the General council be requested to cooperate in making this language school a permanently successful institution, and at its ensuing Annual Meeting or otherwise it be requested to elect two members to represent it on a Board of Directors who shall have power to make plans for the permanent organization and running of the school. (공의회에 소속된 각 선교회는 이 언어학교를 영구적으로 성공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협조해야 하며, 연회 또는 이사회에서 상설기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를 운영할 권한을 가진 선교부의 책임자 2명을 선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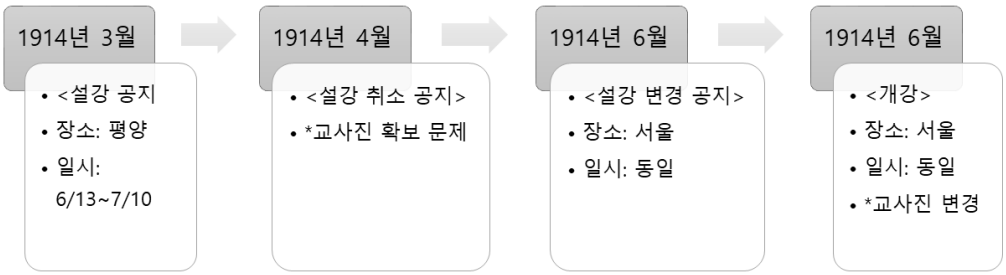
② That the said Board of Directors be requested to hold a meeting for organization and making plans for the future of the language school not later than last of September. (상기 이사회는 이 조직을 위한 회의를 열고 9월 말까지는 언어학교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Realizing the great benefit derived from language classes which all missionaries may attend, especially for beginners in the study of the language, we recomme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plan for a language school for beginners to be in session for six months each years and that all new missionaries be appointed to the school: and further that the language school referred to in the two previous resolutions hold in the month of June or other suitable season a month session for more advanced pupils. (모든 선교사가 참석할 수 있는, 특히 초급자를 위한 언어 수업들로부터 오는 큰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회가 초급자를 위한 언어학교를 매년 6개월 과정으로 계획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모든 신임 선교사들은 학교에 등록할 것과 앞의 두 결의안에 언급된 언어학교가 6월 또는 가능한 시기에 고급반 학생들을 위한 1개월 과정의 수업을 개설할 것을 요청한다.)

116) 그러나 〈북장로회〉 연회록인 「*Minutes and reports of PCUSA*」(1912)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북장로회〉의 〈언어 위원회〉에서는 "현재 제안된 대로 6개월간의 연합언어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That it is inpracticeable at present to arrange for a six months Union language school as suggested.)"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였다.

117) 「*KMF*」, 1914년 3월호, pp85-86.

가[118] 종국에는 동일한 날짜에 장소만 서울로 옮겨 수업이 개설되었다.



[그림 6] 1914년《Language Class》개설 과정

위의 [그림 6]에서 드러나듯이 1914년의《Language Class》의 개설은 짧은 시간 동안 결정이 번복되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1914년 3월호 「*KMF*」에 평양에서의 설강 공고를 낸 지 한 달 만에 폐강 공고를 내었고, 다시 두 달 후인 6월호 「*KMF*」에 짧게 설강 변경 공지[119]를 내고 장소를 서울로 옮겨 6월 13일에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급박한 개설 과정 탓인지 참여한 선교회의 수도 참석한 선교사의 수도 모두 이전에 비해 줄어든 8개 선교회에서 60여명의 선교사가 참석하였다.[120]

1914년 4월의 「*KMF*」의 설강 취소 공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1914년의《Language Class》를 개설하지 않기로 한 직접적인 원인은 교사진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1914년 3월호 「*KMF*」에 공지된 일정표에 따르면 교사진은 레이놀드, 게일, 베커, 반 버스커크, 윌리엄 커, 번하이즐, 애니 베어드 7인으로 모두 선교사로 배정되었으나 1914년 10월호 「*KMF*」의 실린 수업 후기를 보면 서울에서 실제 진행된 수업에서는 레이놀즈, 번하이즐, 윌리엄 커, 애니 베어드가 빠지고, 이들을 대신하여 쿤스와 다섯 명의 한국인 강사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18) 「*KMF*」, 1914년 4월호, p121.
119) “Many will be pleased to learn that language classes will be held this summer in Seoul, from June 13th to July 10th.”, 「*KMF*」, 1914년 10월호, p186.
120) 「*KMF*」, 1914년 10월호, p322.

그런데 이러한 교사의 교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14년의《Language Class》의 개설 과정이 왜 이처럼 순조롭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1912년에 시작된 이른바 '대학 문제(College Question)'였다. 이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에 '하나의 연합대학'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였을 때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평양이 좋은지, 서울이 좋은지를 두고 미국의 해외선교본부와 조선에 있는 각 선교회, 그리고 서울과 평양의 선교지부에서 일어난 논쟁을 말하는데 감리교 측에서 서울에 새로운 연합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121]하고 이로 인해 논쟁이 가중되면서 1914년에는 감리교 측이 평양에서의 교육 사업에서 철수한 후, 1915년 3월에는 〈북장로회〉의 서울 선교지부의 H.G.언더우드[122] 등과 함께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학교,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at Seoul)을 설립하게 된다.[123]

즉, 1914년 당시의 상황은 감리교 측이 평양에서의 교육 사업에서의 이탈로 장로교 측과 '대학 문제(College Question)'로 촉발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던 것이다.[124] 실제로 「*KMF*」의 1914년 3월호에 교사로 공지된 선교사들 중에서 그해 6월에 서울에서 개설된《Language Class》에 교사로 배정되지 않은 선교사인 레이놀즈, 번하이즐, 윌리엄 커, 애니 베어드는 모두 장로교 측 선교사였으며, 〈남장로회〉선교부 소속인 레이놀즈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북장로회〉 선교회의 평양 선교지부(Pyeng Yang Station) 소속의 선교사들이었다. 기존에 공지된 교사들 중에서 남아 있던 게일은 〈북장로

121) 1912년 3월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회의 연회에서 결의하였다. 단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고 그 장소를 서울로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북장로회〉의 윌리엄 베어드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연합 대학인 평양숭실학교의 폐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22) 당시 〈북장로회〉는 평양을 지지하는 윌리엄 베어드와 모펫(마포삼열, S.A. Moffet) 등 평양 선교지부 그리고 서울을 지지하는 H.G.언더우드 등의 서울 선교지부로 세력이 분열된 상태였다.

123) '대학 문제(Colloege Question)'와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 경과에 관한 논의는 박용규(2003), "칼리지 문제와 서울·평양 미션회 갈등",『역사신학 논총』5,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159-169쪽; 이용민(2010),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와 평양 선교지부의 관계",『한국기독교와 역사』3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5-225쪽; 안종철(2011), "아더 베커(Arthur L. Becker)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한국기독교와 역사』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49-275쪽에 상세하다.

124)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가 평양숭실대학을 폐쇄하고 서울에 연합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정한 것은 1914년 1월이고 평양 선교지부의 선교사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소속 선교사 44명의 연대 서명을 하여 해외선교본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1914년 4월이다. 앞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Language Class》의 설강 취소가 공지된 것이 1914년 4월인 것은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회〉의 서울 선교지부(Seoul Station) 소속, 베커는 〈미감리회〉[125], 새롭게 투입된 쿤스 역시 〈미감리회〉 소속의 선교사였다. 이러한 점에서 1914년 《Language School》의 개설과정에 나타난 평양에서 서울로의 급박한 장소 변동, 그리고 교사진의 대거 변동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대학 문제'로 촉발된 장로교와 감리교, 〈북장로회〉의 평양 선교지부와 서울 선교지부 간의 갈등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외에도 1913년 3월 「*KMF*」에 기고한 H.G.언더우드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수업이 열리던 평양이 가지고 있던 위생상의 문제와 적절한 숙소 확보 등도 역시 문제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126]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하게 장소를 서울로 옮겨 《Language Class》를 개설된 것은 '연합언어학교'의 상설화에 대한 선교회와 선교사들의 의지가 컸던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상설화되기 위해서는 《Language Class》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와 요구가 있음을 보여야 했고 선교회 간, 선교지부 간의 갈등보다는 현장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Language Class》의 폐지와 원인

〈연합선교협의회〉의 1914년 연회에 제출된 〈언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1915년에도 역시 《Language Class》 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북장로회〉와 〈미감리회〉는 한국어 강사(선교사) 한 명씩을 파견하기로 이

125) 〈미감리회〉의 평양 선교지부 소속 선교사로 입국 초기부터 평양숭실학교에서 교육 선교 활동을 해온 베커는 '대학 문제'에서 평양이 아닌 서울을 지지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종철(2011), 앞의 논문에 잘 기술되어 있다.

126) 「*KMF*」 1913년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H.G.언더우드가 결론적으로 주장한 바는 《Language Class》를 평양과 서울 두 곳에서 개설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H.G.언더우드의 주장은 '대학 문제' 논쟁과 결부하여 볼 때 평양 선교지부가 주도하고 있던 〈북장로회〉 선교회의 선교 활동 주도권을 서울 선교지부로 옮겨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 근저에는 교육 선교에서는 윌리엄 베어드로 대표되는 평양 선교지부와 H.G.언더우드로 대표되는 서울 선교지부 간에 선교 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 결정이 되었고, 〈남장로회〉와 〈남감리회〉에도 강사를 한 명씩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다.[127] 또 수업 일정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1915년의 《Language Class》에서는 현대 전문용어(Modern Terminology), 국한문체(Mixed Script) 성경, 일본어, 보통의 한국인이 쓰는 자연스러운 구어의 학습에 집중할 것이라는 수업 내용, 그리고 수업을 위해 위원회에서 '예문 시리즈(A Series of illustrative sentences)'와 '표준 언어 과정(A Standard Language Course)'를 계획하고 있다며 그 준비 과정을 보고하였다.[128]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1915년의 《Language Class》는 실제 개설은 되지 않았다. 《Language Class》가 분반, 강사 배정, 숙소 및 식당 등의 교육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개강 2개월 전에는 사전 참가 신청서를 받고, 이를 위해 「*KMF*」에 이에 대한 공고를 내던 것을 고려한다면 1915년의 「*KMF*」에 《Language Class》에 대한 공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1915년 《Language Class》의 개설 취소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15년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에서 〈언어학교 위원회〉는 언어학교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운영할 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다음해의 《Language Class》에 참석할 선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만약 그 수가 충분하다면 위원회가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총무에게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Language Class》 개설 여부를 판단할 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129] 그러나 이후 1919년 연회에서 《Language School》 재건을

127)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and the Northern Methodist Mission each furnish one Missionary teacher and the Southern Methodist Mission and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each furnish one Missionary teacher for this proposed Language Class.", 「*AMFC*」(1914), p28.

128)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all language students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study of (1) Modern Terminology (2) Mixed Script (3) Japanese and (4) Common, Idiomatic, Colloquial Korean. The Committee is planing to prepare (a) A series of illustrative sentences, (b) A Standard Language Course.", 「*AMFC*」(1914), p28.

129) "We do not know whether there is sufficient demand for l language school as to warrant going ahead with plans for one or not. The committee therefore recommends that the secretary of this committee ascertain if there are any members of the Mission Station in Korea that would attend a month's school at the usual time next year and if there is prospect of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s attending such a school as to make it advisable

위한 〈언어학교 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연회에 〈언어 위원회〉나 〈언어학교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Language Class》가 개설되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1914년의 《Language Class》를 끝으로 평양과 서울에서 개설된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는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anguage Class》가 폐지되는 과정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급박하게 재개된 1914년의 《Language Class》에도 60여명이 넘는 선교사가 참석할 정도로 선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집중 강좌를 '충분한 수요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지되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1915년부터 1919년까지는 선교사 파송이 증가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도 《Language Class》의 폐지는 납득이 어렵다.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회 50주년의 역사를 정리한 로스(H.A. Rhodes)가 언급한 《Language Class》의 폐지 이유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로스는 "(전략) 1915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집이 어려운 점과 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들에서 학기가 열리지 못하였다"[130]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아마도 《Language Class》 폐지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예상컨대 앞에서 언급한 '대학 문제'로 촉발된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아니었을까 한다.

'대학 문제'로 인한 갈등은 1915년 3월 서울에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1920년에 평양과 서울 모두에 대학 설립을 승인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장로회〉

---

and profitable we as a committee will do our best to revive the school that was so successfully held a number of times within the past few years. Therefore the holding or not holding of the school depends on the demand for it first and the ability of the committee to arrange for it secondly. The secretary of this committee must have such information before the end of this year if plans are to be made for the class.", 「*AMFC*」(1915), pp29-30.

130) Harry A. Rhodes(1934),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1*, 1, 최재건 역(2010),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1884-193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433쪽.

의 평양 선교지부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 감리교 측 한국 선교회 사이의 지속된 갈등은 교파 간의 연합 활동을 통해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고자 했던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의 지속적인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 《Language Class》의 교육 내용

1912년부터 1914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던 《Language Class》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KMF*」에 실린 《Language Class》의 홍보 기사에 함께 수록된 수업 일정표와 강좌 끝난 후 지난 강좌에 대한 평가와 회고뿐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의 대강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Language Class》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 5일, 전체 4주로 구성되었으며, 매일 3시간씩 주당 15시간의 수업이 진행되어 전체 60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매일 15분간의 발음 연습(phonetic drill)과 15~30분가량의 채플이 함께 진행되었다. 수업은 오전 9시경에 채플로 시작하여[131] 9시 15분에서 30분까지는 발음 연습을 하였고, 9시 30분에 1교시 수업을 시작하여 50분 수업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쉬는 시간이 없이 50분간의 2교시와 3교시 수업을 연이어 진행하여 오후 12시 10분에는 수업이 종료되었다. 오후와 주말에는 테니스, 야구 경기 관람 등의 체육 활동과 예배, 찬양, 찬송가 등 종교적인 활동 그리고 유람선 타기, 급류 타기, 달구경, 강변 산책 등의 문화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오전에는 언어 교육을, 오후에는 언어 이외의 특별 활동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수업의 레벨은 1912년에는 3단계로, 이후에는 4단계로 등급화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두어 등급화를 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Language Class》 이전 개별 선교

131) 1912년에는 오전 9:00, 1913년에는 오전 8:45, 1914년에는 오전 8:40에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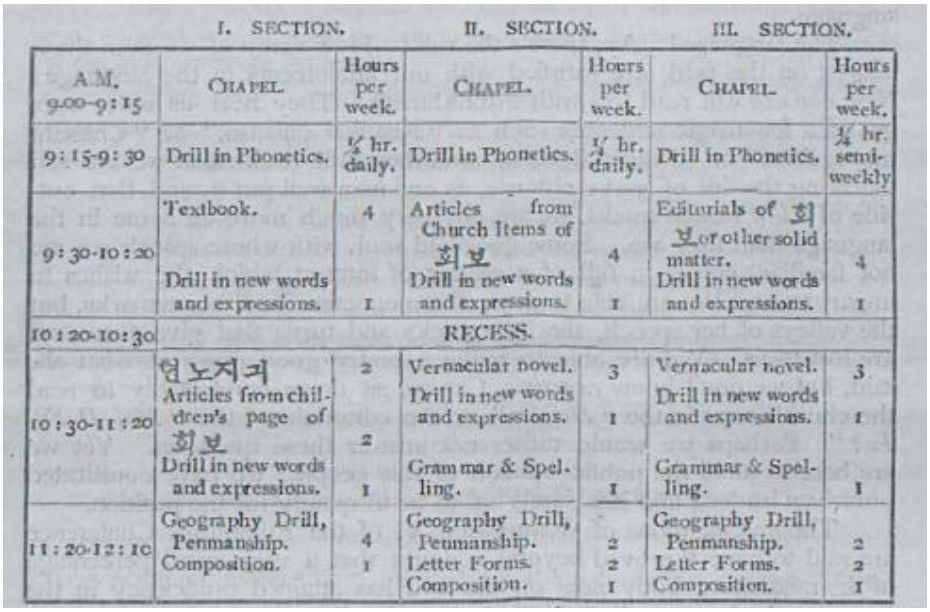
회에서 운영하였던 한국어 '학습과정'이 3년차 과정으로 수렴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별도의 배치평가가 아닌 개별 선교회 '학습과정'에 대한 학업 성취도(成就度)가 그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통편조차 수월하지 않았던 때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앞서 2절에서 확인하였듯이 각 교파별 선교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크게 상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선교회가 보관하고 있던 선교사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업의 레벨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

《Language Class》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1년에 단 한 차례라는 쉽지 않은 기회,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거의 모든 교파의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단기 집중 강좌에서 교육 내용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즉, 교파별 선교회에서 '학습과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직접적인 대면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Language Class》의 교육 내용은 앞서 언급한 듯이 「*KMF*」에 실린 홍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912년 5월, 1913년 3월, 1914년 3월호 「*KMF*」에 실려 있다.

가) 1912년의《Language Class》

먼저 1912년《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는 다음의 [그림 7]과 같은데 채플과 발음 연습을 빼면 <섹션 1(SectionⅠ)>과 <섹션 2(SectionⅡ)>는 6과목, <섹션 3(SectionⅢ)>은 7과목의 수업이 개설되었다.



A.M. 9:00-9:15	I. SECTION. CHAPEL.	Hours per week.	II. SECTION. CHAPEL.	Hours per week.	III. SECTION. CHAPEL.	Hours per week.
9:15-9:30	Drill in Phonetics.	½ hr. daily.	Drill in Phonetics.	½ hr. daily.	Drill in Phonetics.	¼ hr. semi-weekly
9:30-10:20	Textbook. Drill in new words and expressions.	4 1	Articles from Church Items of 회보 Drill in new words and expressions.	4 1	Editorials of 회보 or other solid matter. Drill in new words and expressions.	4 1
10:20-10:30	RECESS.					
10:30-11:20	언노지긔 Articles from children's page of 회보 Drill in new words and expressions.	2 2 1	Vernacular novel. Drill in new words and expressions. Grammar & Spelling.	3 1 1	Vernacular novel. Drill in new words and expressions. Grammar & Spelling.	3 1 1
11:20-12:10	Geography Drill, Penmanship. Composition.	4 1	Geography Drill, Penmanship. Letter Forms. Composition.	2 2 1	Geography Drill, Penmanship. Letter Forms. Composition.	2 2 1

[그림 7] 1912년《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

각 단계별 교육 내용 중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Drill in new words an expression(단어와 표현 연습)'과 'Geography Drill, Penmanship(지리 연습과 서법)', 'Composition(작문)', '신문 읽기' 수업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어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Geography Drill, Penmanship' 수업은 <섹션 2>와 <섹션 3>의 수업에서는 주당 2시간인데 비해 <섹션 1>에는 주당 4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초급 학습자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섹션 2, 3>에서는 줄어든 2시간을 'Letter Form(편지 양식)'[132] 교육으로 보충하였다. 그리고 신문 읽기 수업의 경우는 '회보'[133]를 교육에 사용하였는데 이때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

132) 영어 'letter form'은 '편지 양식' 외에도 '서체(書體)'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 1의 '서법'교육의 확장으로 '서체'의 교육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겠으나 교파별 선교회의 '학습과정'의 내용 중에 '언간독'을 참고한 편지 쓰기 교육 등이 제시되어 있고, 당시 구어가 아닌 문어를 통한 주요 의사소통의 수단이 편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섹션 2, 3의 'Letter Form'은 서체 교육이 아닌 편지의 전형적인 양식을 교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3) 개신교에서 발행한 신문 중에서 '회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죠션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Advocate)', '예수교회보(The Christian News)', '그리스도회보(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긔독신보'가 있으나 시기상으로 보아 1910년에 창간한 장로교의 '예수교회보' 또는 1911년에 창간한 감리교의 '그리스도회보'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할 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섹션 1>에는 어린이면(articles from children's page), <섹션 2>에는 교회면 기사(articles from Church Items), <섹션 3>에는 사설(editorial)을 각각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실제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교육용 텍스트의 난이도를 조절한 것이다.

각 년차별 교육 내용 중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섹션 1>의 경우 유일하게 'Textbook'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교재를 수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교재가 무엇인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지만 <섹션 1>에만 사용되었다는 점과 가장 많은 시수인 4시간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한글 자모, 기초적인 문법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정 교재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출판되었던 한국어 학습서라기보다는《Language Class》의 수업을 위해 개발된 전용 교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섹션 2, 3>에 있는 한글 소설(Vernacular novel) 수업 대신 <섹션 1>에는 전도문서 중 하나인 '텬노지긔' 수업이 배정되어 있어 익히 알고 있는 종교적 내용을 토대로 수월하게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섹션 2, 3>의 경우는 문법과 철자(Grammar & Spelling) 수업이 주당 1시간씩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초적인

있다. 그러나 앞서 1절에서 <북장로교>와 〈미감리회〉의 '학습과정'을 검토한 결과 〈미감리회〉는 신문이 아닌 잡지인 '신학월보'를 교육에 활용하였고, 〈북장로회〉는 '예수교회보(The Christian News)'를 교육에 활용하였다는 점과 이《Language Class》가 〈미감리회〉가 아닌 〈북장로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장로교에서 발행한 '예수교회보'가 교육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비슷한 시기 개신교에서 한국인 독자를 위해 발행한 교계 신문들의 창간 시기와 발행 기간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신문 이름	발행 기간	비고
①	죠션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Advocate)	1897.2.2~	감리교
②	대한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Advocate)	1897.12.8~1905.6.24	①의 개제
③	그리스도신문(The Christian News)	1897.4.1~1905.6.24	장로교
④	그리스도신문(The Church Herald)	1905.7.1~	장감연합
⑤	예수교신보(The Church Herald)	1907.12.10~1910.2.21	④의 개제
⑥	예수교회보(The Christian News)	1910.2.24~1914.8.18	장로교
⑦	그리스도회보(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1911.1.31~1915.2.28	감리교
⑧	긔독신보(The Christian Messenger)	1915-12.7~1937.8.1	장감연합

<표 22> 개신교 발행 한글 신문과 발행 기간

문법에 대한 교육은 <섹션 1>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1913년의《Language Class》

1913년《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는 다음 [그림 8]과 같은데 수업 과목 구성에 조금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134]

CHAPEL. a.m. 8.45-9.15	SECTION I.	SECTION II.	SECTION III.	SECTION IV.
9.15-9.30	M.T.W.T.F. Phonetic Drill.....Mr. Cram.			
9.30 to 10.20	M. T. W. Methods Mr. Becker T. F. Stories Mr. Stokes	M.T.W. Editorials Mr. Cram T. F. Moonchas Mr. Bernheisel	M. T. W. Stories Mrs. Baird T. F. Grammar & Composition Dr. Reynolds	M. T. W. Practice in Parliamentary Forms Mr. Bernheisel T. F. Editorials Mr. Cram
10.20 to 10.30	RECESS.			
10 30 to 11 20	M. T. Textbook Dr. Reynolds W. T. F. Mark or 런노지귀 Dr. Van Busk'k	M. T. W. Church News Mr. Stokes T. F. Methods Mr. Becker	M.T.W. Moonchas Mr. Bernheisel T. F. Church News Mr. Stokes	M. T. W. Stories Mrs. Baird T. F. Composition & Translation Dr. Reynolds
11.20 to 12.10	For those who wish to take it { Japanese, Rev. Mr. Shiroto. Chinese, Kim Hyeng Chai.			

[그림 8] 1913년《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나의 섹션(Section Ⅳ)이 더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1912년의《Language Class》이후 열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언어학교가 6월 또는 가능한 시기에 고급반 학생들을 위한 1개월 과정의 수업을 개설할 것을 요청'[135]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12년에 열린《Language

134) [그림 8]의 'M. T. W. T. F.'는 요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업이 개설되는 요일을 제시하는 것이다.

135) "(전략)…the language school referred to in the two previous resolutions hold in the month of June or other suitable season a month session for more advanced pupils.",「*KMF*」, 1912년 8월호, p254.

Class》에서 고급 단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1913년의 《Language Class》에서는 이러한 수요와 요구가 반영이 되어 기존의 3개의 레벨에서 고급반 한 단계가 더 개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2년과 동일하게 채플과 발음 연습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고, 각 섹션별로 4개의 수업과 1개의 선택 수업이 개설되었는데 <섹션 1>은 벡커의 'Methods', 스톡스의 'Stories', 레이놀드의 'Textbook', 반부스커크의 'Mark or 텬노지귀'가 <섹션 2>는 크램의 'Editorial', 번하이즐의 'Moonchas', 스토크의 'Church News', 베커의 'Methods'가 <섹션 3>은 애니 베어드의 'Stories', 레이놀드의 'Grammar & Composition', 번하이즐의 'Moonchas', 스토크의 'Church News'가 <섹션 4>는 번하이즐의 'Practice in Parliamentary', 크램의 'Editorial', 애니 베어드의 'Stories', 레이놀드의 'Composition & Translation' 수업이 개설되었고, 마지막 시간은 시로토 목사(Mr. Shiroto)의 일본어, 김형채(Kim Hyeng Chai)[136]의 한자(또는 한문) 수업 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눈에 띄는 교과목 상의 변화 중 하나는 'Moonchas'라는 과목의 신설이다. 아마도 '문자'라는 과목일 것이다. 문자(文字)는 기호로서의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 숙어나 성구(成句)'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어려운 말, 유식한 말을 할 때 '문자 쓴다'고 타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문자'가 바로 이를 뜻한다. 학식 있는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역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숙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있어 '문자'의 사용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요소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문자' 수업의 개설은 한국인들과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자 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일본어와 한문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적인데 일본어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 이후 선교사들 역시 일본어 학습에 대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136) 이 인물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한국 개신교의 교회사 관련 자료에 등장하는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김기풍을 돕기 위해 1908년에 평양에서 제주도로 파송된 '김형채'와 동일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있다.[137] 그러나 채플과 발음 연습을 빼면 하루 3시간으로 주당 수업 시간과 전체 수업 시간은 전년과 동일하다.

다) 1914년의《Language Class》

1914년의 수업은 사실 다음 [그림 9]와 같은 일정표대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서울로 장소를 옮겨 강사가 6명이나 교체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CHAPEL. a.m. 8.40–9.10	SECTION I.	SECTION II.	SECTION III.	SECTION IV.
9.15–9.30	Phonetic Drill, 1. 2. 3. 4.; Dr. Reynolds and Dr. Gale Lectures, 3.; By teachers.			
9.30 to 10.20	Methods. 1. 2. 3. Mr. Becker Practice in Vernacular 4. 5. Mr. Kerr	Editorials. 1. 2. 3. Dr. Van Buskirk Church News. 4. 5. Mr. Kerr, 2 wks. Mr. Bernh'l, 2 wks.	Stories. 1–5. Dr. Gale, 2 wks. Dr. Reynolds, 2 wks.	Comp. & Trans. 4. 5. Dr. Baird Editorials. 1. 2. 3. Mr. Bernheisel
10.20 to 10.30	RECESS.			
10.30 to 11.20	Text Book. 1. 2. 3. Mr. Kerr, 2 wks. Dr. Van Buskirk, 2 wks. Mark or —— 4. 5. Dr. Van Buskirk	Com. & Speaking. 4. 5. Dr. Gale, 2 wks. Dr. Reynolds, 2 wks. Methods. 1. 2. 3. Mr. Becker	Etymology. 1. 2. Mr. Bernheisel Church News. 3. 4. 5. Mr. Bernheisel	Stories. 1. 2. 3. Dr. Gale, 2 wks. Dr. Reynolds, 2 wks. New Korean 4. 5. Mr. Becker
11.20 to 12.10	Japanese 1. 2. 3. 4. 5.			

NOTE:—The numbers given above, refer to the days of the week; Mon. Tues. Wed. Thur. Fri. are 1. 2. 3. 4. 5.

[그림 9] 1914년《Language Class》의 수업 일정표

수업 일정표 상으로는 191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으

137) 〈북장로회〉도 1912년부터 〈언어 위원회〉에서 일본어 학습을 위한 학습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고 애니 베어드의『*Fifty Helps*』를 토대로 일본어 학습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나 한문과 일본어 중에 선택이 가능하였던 1913년과는 달리 1914년에는 일본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고 교사로 니와(Mr. Niwa)가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교사들에게도 일본어 학습의 필요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수업이 진행된 방식은 「*KMF*」의 1914년 10월호에 실린 수업에 참석하였던 선교사 중 한 명의 소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강사의 교체에 있는데 이는 바로 다음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3)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Language Class》의 교육 방식과 교사진

1912년의 수업 일정표에 부기(付記)된 내용은《Language Class》의 실제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데 '2, 3단계의 수업은 이점이 있는 한 한국어로 진행'[138]한다는 것이다. 즉, 1단계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지만 2단계와 3단계는 가능하다면 한국어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사는 모두 선교사들로 한국인 강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언어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표어인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을 사용을 한 것으로 당시의 선교사들의 한국어 수업이 '문법-번역식 교수법'보다는 '직접 교수법'에 가까운 형태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정표에 매일 15분씩의 발음 연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발음 연습'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KMF*」에 실린《Language Class》의 홍보 기사(<표 21> 참조)에 평양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소개해주겠지만 선교사 자신의 개인교사를 동반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이들 한국인 개인교사와 지역 학교(평양숭실학교 등)의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발음 연습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발음 연습뿐 아니라《Language Class》의 전 과정에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개설된 1914년의《Language Class》에서는 교

138) "Recitations in Ⅱ and Ⅲ sections to be conducted in Korean as far as is found profitable.", 「*KMF*」, 1912년 5월호, p132.

사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도 발견된다. 1914년 3월호 「*KMF*」에 공지된 일정표에 따르면 교사진은 레이놀드, 게일, 베커, 반 버스커크, 윌리엄 커, 번하이즐, 애니 베어드 7인으로 모두 선교사로 배정되었으나 1914년 10월호 「K*MF*」의 실린 수업 후기를 보면 서울에서 실제 진행된 수업에서는 레이놀즈, 번하이즐, 윌리엄 커, 애니 베어드가 빠지고 대신 쿤스와 다섯 명의 한국인 강사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강사진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대학 문제'로 발생한 〈북장로회〉 평양 선교지부의 반발이었을 것이다. 강사진에서 빠진 이들은 〈남장로회〉 선교사였던 레이놀즈를 제외한 번하이즐, 윌리엄 커, 애니 베어드 모두 〈북장로회〉 선교사였으며 평양 선교지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었다. 경험 많고 능력 있던 강사진이 이탈하자 급하게 강사진으로 추가된 이들이 쿤스와 5명의 한국인이었다.

이들 한국인 강사는 Mr. Cynn, Mr. Piak, Mr. Hyun, Mr. Son, Mr. Oh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기록도, 심지어 성만 있을 뿐 이름도 없기 때문에 선교회나 한국 교회의 언급되는 내용만으로 추정을 해보았다. 두 가지 조건의 부합 여부를 놓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추정하였는데 첫 번째 조건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조건은 사전, 성경번역 등의 조사(助事) 또는 선교사의 한국어 개인교사로 일한 기록의 유무였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이유는 급하게 강사를 섭외하면서 많은 교육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인을 선호하였을 가능성과 사전, 성경번역 등의 조사로 일하였다면 보통의 한국인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추정해 보았을 때 Mr. Cynn은 당시 배재학당의 교장이었던 '신흥우(申興雨)'로 추정되는데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유학하였던 유학파였다. Mr. Paik은 역시 미국 유학파로 연희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白樂濬)'으로 생각되나 기록상 1914년 당시는 중국에 유학하던 시기였으므로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개신교 관련 자료에서 Mr. Paik 또는 Dr. Paik으로 언급되는 인물 중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Mr. Hyun은 감리교 목사이며 일찍이 하와이에서 생활하여 영어에 능했던 '현순(玄楯)'일 것이다. Mr. Oh는 사역원(司譯院)에서 정구품(正九品) 부봉사(副奉

事) 관직을 하였던 '오세광(吳世光)'으로 생각된다. 별다른 기록은 없으나 한학(漢學)을 전공한 이로 '현순'과 마찬가지로 1914년 출간된 존스(G.H. Jones)의 『영한ᄌᆞ뎐』(*An English-Korean dictionary*)의 서문에 사전 작업을 도운 한국어 조사(助事)로 이름이 올라 있어 이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 다만 Mr. Son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손정도(孫貞道)'가 가장 근접한 인물이나 확신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들 5인의 한국인 강사에 대한 언급이 의미 있는 것은 이들이 원어민 개인 교사가 아닌 교실 수업이 이루어진 교육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첫 한국인 교사라는 점 때문이다. 즉, 비록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한국어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머물러 있던 한국인이 교육을 주도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4)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Language Class》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Language Class》는 1909년에 〈북장로회〉에서 '한국선전운동' 이후 크게 늘어난 신규 선교사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시작되어 1911년에는 〈미감리회〉가 1912년부터는 한국에 있던 거의 모든 교파의 선교회가 참여하여 1914년까지 유지되었던 한국어교육을 위한 단기 집중 강좌였다.

이《Language Class》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과정'을 이용해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학습과정'이라는 일종의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는 있었으나 교재의 제한된 문법 설명으로 스스로 해야 하는 학습의 어려움, 선교사 개인의 언어 습득 및 학습 능력의 차이, 학습을 돕던 한국인 개인교사의 자질 등의 문제로 학습 효과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언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간의 집중 강습회는 일본과 중국, 인도 등의 해외선교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던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선교사의 수가 부족한 선교 초기에는 동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4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anguage Class》의 이러한 단기 집중 한국어 강좌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 객체인 학습자, 그리고 매개체인 교재라는 교육의 3요소가 실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 학습자 수준에 따른 등급화와 교육 내용의 세분화와 등급화 시도, 학교(교실)라는 공간, 일정하게 정해진 수업 시간표 등은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충분히 언어교육으로서 근대적 성격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만 《Language Class》의 경우 강습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도달점으로서의 교육 목표의 설정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총평하는 평가 역시 없었다.[139] 《Language Class》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일종의 학점(credit)으로 인정되어 선교사 개인이 속한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시험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Language Class》 자체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Language Class》는 기존의 개별 교파 선교회의 '학습과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측면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후의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합언어학교인 《Language School》과 《Korean Language School》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으로 이행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습회는

139) 《Language Class》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첫 《Language Class》가 끝난 후 경과 보고를 하고 있는 「*KMF*」의 1912년 8월호에 실린 번하이즐의 기사의 일부이다. 이 기사에서는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전문가로 행세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와서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 초대했습니다."(Nor did the teachers plan to pose as language experts to give inspired instruction on the Korean language but the invitation was "come and let us study together.").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최초의 제도적 한국어 교육기관인 《Language School》과 《Korean Language School》로 발전하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 3 절 연합언어학교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Language School》[140]은 〈연합선교협의회〉에서 설립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1920년부터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피어슨 성경학교'에서 장소를 빌려 시작되었다. 이 기관에 대한 기록을 발굴하여 학계에 최초로 보고한 오대환(2011, 2012, 2014)에 따르면 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는 1919년의 기록에서 확인이 되는데 중국의 남경과 북경, 일본의 동경의 언어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준비한 표준과정을 《Language Class》에서 시험 운영을 하여 1920년의 임시교육과정이 마련되었으며[141], 이후 1921년, 1926년, 1928년, 1931년, 1934년 총 다섯 번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되며 운영되었다고 한다.[142] 하지만 1935년 이후로는 등록한 학습자 수의 급감하여 제대로 된 학교의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1937년까지는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

140) 《Language School》이라는 명칭은 1912년부터 사용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학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진행되었던 〈연합선교협의회〉 주도의 단기 집중 강좌였던 《Language Class》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으로 개념화된 '학교'로서의 《Language School》과 실현된 물리적 실체인 '수업'으로서의 《Language Class》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것이다. 이 시기 문헌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이 'Summer Language School, Summer Language Class, Language Class, Language School, Union Language Class'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이후 문헌에 언급되는 《Language School》은 이전과 달리 물리적 실체로서의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1) 중국과 일본의 언어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만든 표준교육과정은 1919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서울에서 진행된 《Language Class》에서 시험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KMF*」의 1920년 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좌가 개설된 시기가 선교사들의 휴가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한 학생의 많은 수가 전체 일정의 절반밖에 수강하기 못하거나 지방의 선교사들은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42) 오대환(2011, 2012)에서는 「K*MF*」와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의 기록을 토대로 총 4회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음을 보고하였으나 오대환(2014)에서는 미국 감리교 아카이브인 'PHS'에서 새롭게 찾아낸 기록을 근거로 1934년에 교육과정의 개편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한 바 있다.

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미션의 1939년 11월 기사를 통해 1939년까지는 존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3] 여기에서는 이 《Language School》의 운영 주체였던 〈연합선교협의회〉의 공식 연회록인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이하 「*AMFC*」)에 근거하여 학교 설립의 경위와 경과를 살펴보고,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당시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였다.

1) 연합언어학교 《Language School》의 설립 과정

처음 열린 1912년의 《Language Class》의 성공적인 개최에 고무된 선교사들은 참가자 전체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언어학교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선교공의회〉에 소속된 모든 선교회가 언어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협조를 해야 하며, 둘째, 〈통합선교공의회〉의 연회에서 언어학교를 설립 및 운영할 권한을 가진 대표를 2인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셋째, 이 위원회는 언어학교의 상설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9월말까지 언어학교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144]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1913년의 연회에서는 <언어학교 위원회>(Committee on Language School)가 신설되고, 5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일회성의 단기 집중 강좌가 아닌 선교사들을 위한 상설 한국어 교육기관인 언어학교를 상설화하려는 본격적인 논의는 1912년, 평양에서 열린 《Language Class》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평양과 서울에서 두 차례의 단기 집중 강습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1915년부터는 《Language Class》도 개설되지 않았고, 관련 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연회에 제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언어학교를 상설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한 듯 보였으나 1919년 개최된 연회에 <언어학교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하여 언어학교의 설립이

143) 다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44) 「*KMF*」(1912), pp253-254.

〈연합선교협의회〉 내에서 다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위원회 권고 사항 :
① 〈연합선교협의회〉가 《Language School》을 설립할 것을 요청
② 이를 위해, 공의회는 위원회에게 남경, 북경, 동경의 《Language School》과 여러 선교회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을 준비할 권한을 요청 (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회에 보고하고, 행동 촉구를 위해 개별 선교회에 보낼 것)
③ 그 동안 공의회가 서울에 준비 중인 《Language School》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전체를 위한 언어학교가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속 선교사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선교회에서 《Language School》의 과정에 학점(credit)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

이 1919년에 제출된 <언어학교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참조하였는데 하나는 중국의 남경과 북경, 일본의 동경에 있는 《Language School》의 커리큘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선교회의 커리큘럼, 즉 앞서 3장 1절에서 살펴본 〈북장로회〉나 〈미감리회〉 등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전자는 교육과정의 외형을, 후자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0년 가을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임시 교육과정이 적용된 한국어 교육기관인 《Language School》이 설립되었고, 이후 5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며 적어도 1937년까지는 한국에 거주하였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였다.

2) 《Language School》 교육과정의 변화와 내용

교육과정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Eisnoer & Vallance, 1974:2)[145] 교과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하

145)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역(1995), 『언어교수의 기본개념』, 하우, 463쪽에서 재인용.

고, 자료, 장비, 평가, 교사 연수를 포함하는 모든 교수 과정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는 일반적으로 '목적과 내용, 수업, 평가'라는 세 가지로 대별된다. '목적과 내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계획된 교육과정이 성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수업'은 교육 방법, 학습 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수법, 시간 배당, 내용의 선택과 조정, 제시의 유형, 교실, 사용 매체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총평하는 것이다.[146] 따라서 《Language School》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이 학교의 교육 목적과 내용, 수업, 평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Language School》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Language School》의 첫 번째 교육과정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의 북경과 남경, 그리고 일본의 동경에서 운영 중인 《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과, 〈북장로회〉, 〈미감리회〉를 비롯한 한국 내 선교회의 '학습과정'을 참조하여 개발되어 1920년 가을학기에 사용된 임시(ad interim) 교육과정이었다. 이후 1921년, 1926년, 1928년, 1931년, 1934년까지 모두 5차례의 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 1920년 《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

1919년에 개최된 〈연합선교협의회〉에서 결의된 바[147]에 따라 제출된 임시교육과정이 1920년에는 공의회의 회원들과 〈언어학교 위원회〉의 위원들이 회람하고 채택되었다. 채택된 1920년의 임시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146)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역(1995), 위의 책, 464-471쪽.
147) 〈언어학교 위원회〉가 북경, 남경, 동경 소재 'Language Schol'의 교육과정과 한국 내 선교회의 '학습과정'을 분석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연회에 제출할 것.

학기	교육내용	시수
1-1	**Syllabary**	3
	Salutations (Reading, pronunciation, aspirates)	2
	Conversation (스톡스의 'Korean by Clause Method'의 전반부)	5
	Grammar (애니 베어드의 'Fifty Helps'의 쉬운 문장들로 수업)	5
1-2	**Conversation** (구어 문장과 종결어미)	5
	Religious Terms (기도 형식과 설교 문장)	5
	Mark (문법적인 관점에서 첫 3 개 챕터 집중 학습)	5
2-1	**Conversation,** 특별한 어휘와 용어(이 수업을 위해 준비한 H.H. 언더우드의 교재 사용)	5
	Mark (읽기 끝내기)	5
	Newspaper	3
	Relationships	1
	Geography (한국인에 의해 한국어로 수업, '긔독신보'에서 선택한 이슈와 등사판 도표, 지도를 이용한 특별 수업)	1
2-2	**Conversation** (위에서 계속)	5
	Pilgrim's Progress	5
	Newspaper	3
	Relationships	1
	Geography (1 학기에서 계속)	1

<표 23> 1920년《Language School》의 임시 교육과정

이 임시 교육과정은 우선 2학년 과정으로 설계되었으며 3학년 과정은 가능하면 1921년 봄 학기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1년 2학기제로 한 학기의 수업 기간은 8주로 계획되었으며, 주당 시수는《Language Class》와 동일하게 15시간이었다.

교육과정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출판된 한국어 학습용 교재는 1학년 수업에 사용된 스톡스의『*Korean by Clause Method*』와 베어드 부인의『*Fifty Helps*』가 있다. 2학년 수업에는 H.H.언더우드가 이 교육과정을 위해 준비하였다는 교재가 사용되었는데 확실한 교재명은 알 수 없으나『*Everyday Korean*』으로 짐작된다.[148] 이밖에도 성경(마가복음), 신문(Christian

148) 1921년부터 이 학교의 교재로 꾸준히 사용되었던 H.H.언더우드의『*Everyday Korean*』은 1921년에 정식으로 출판되었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으나 당시 선교회의 '학습과정'에서도 정식 출판본이 나오기 전에 등사판을 임시로 사용한 정황들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Everyday Korean*』이 정식 출판되기 전의 등사판이 아닐까 추정한다. 오대환(2012)도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Messenger),[149] 종교서적(Pilgrim's Progress) 등도 수업에 활용되었다.

나) 1921년《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

1920년 임시 교육과정으로 가을 학기의 수업을 진행한 이후 공의회에서는《Language School》의 교수진들이 학교에서의 학기 중과 학기 중간의 방학 기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고, 이에 따라 아펜젤러, 틴슬리(Miss Tinsley), H.H.언더우드를 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분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2개의 감리교 선교회와 4개의 장로교 선교회의 한국어 '학습과정'의 사본을 확보하여 비교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점에 대한 요약문을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교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식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봄 학기가 끝나고 가을 학기(1921년)의 일정에 잠정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다음의 <표 24>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Syllabary and Salutations	2
	Dictation	2
	Euphonic Changes	1
	Stokes 'Korean by Clause Method'[150]	5
	Grammar (III. Sentences, based on Scott or Baird)	5
Intra-Term Work A	○『한영문법』Part Ⅰ의 141쪽까지 주의 깊게 읽기 ○『한영문법』Part Ⅱ의 5장까지 공부 ○『*Fifty Helps*』전반부 공부 ○주기도문 암송 ○매일 적어도 1시간씩 소리 내어 읽기와 쓰기 연습 ○2학기 초에 (직접 쓴) 한국어 문장 100개 제출하기	
1-b	Easy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5
	Mark's Gospel, Chap. Ⅰ-Ⅴ.	5
	Conversation (Sentences based on Stokes or Underwood part Ⅱ)	5

149) 교단연합신문이었던『긔독신보』(基督申報, The Christian Messenger)이다.
150)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후의 맥락으로 보아 'Conversation' 과목으로 생각된다.
151) 한국 개신교 초기의 유급 여성 사역자로 '여전도인, 여조사(助師), 여전도사, 부인전도

Intra-Term Work B	○ 마가복음 끝내기 ○『한영문법』Part Ⅰ끝내기 ○『*Fifty Helps*』끝내기 ○ 전치사와 접속사 공부 (『한영문법』Part Ⅱ) ○ (시험을 위한) 한자 100자 배우기 ○ 학교에서 마친 수업을 복습하고 매일 (1초당 5음절을 읽을 수 있는 속도로) 읽기와 쓰기 연습 계속하기	
2-a	Conversation (1st half Underwood's "Everyday Korean")	5
	Aesop's Fables	3
	Geography	1
	Relationships	1
	Hymns (1-20)	2
	Gospel Talks or Bible Stories	3
Intra-Term Work C	○『스과지남』1-107쪽 공부 ○'긔독신보' 최소 1주에 1개 칼럼 읽고 분석하기(교회통신 2/3, 일반 1/3) ○ 긴 어미의 일상적인 축약형 사용 연습 ○ 학교 교수진에게 제출할 작문 직접 쓰기(최소 400단어) ○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단어나 구를 공부하고 지난 학기 말부터 배운 100개의 단어나 구를 제출	
2-b	Pilgrim's Progress Part Ⅰ.	3
	Original talks on assigned subjects	1
	Newspaper	3
	Oryun Haing Sil or some other strictly Korean book	3
	Conversation (2nd half Underwood's 'Everyday Korean')	5
Intra-Term Work D	○ 사도행전과 복음서 읽기,『스과지남』107-241쪽 ○ 한국의 법과 규범 공부 ○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 ○ 한국어 작문을 연습하고 조사(助師)나 전도부인(傳道夫人)[151]들에게 지시할 사항에 대해 적어도 두 편의 편지를 써서 학교 교수진에게 제출 ○ 최소 2권의 한국어 책 읽기(학교 교수진이 선정한 다음 항목에서 선택) ○ (시험을 위한) 한자 200자 배우기	

<표 24> 1921년《Language School》의 개정 교육과정

사' 등으로 불렸고, 영어로는 'Bible Women'이라고 하였다. 선교사들은 선교회의 기금으로 선교사 1인이 2~5인의 전도부인을 고용하였고, 전도부인들은 자신을 고용한 선교사의 지시에 따라 관할 지역에 파견되어 전도 사업을 수행하며, 선교사의 통제를 받았다. 전도부인에 대한 기록은 매티 노블(M.W. Noble) 선교사가 저술한『승리의 생활』(1927)에 비교적

정식으로 만들어진 이 교육과정은 1926년 개정이 있기 전까지 5년간 사용되었는데 역시 3학년 과정은 개설이 되지 않았다.[152] 그리고 당분간 3학년 과정의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는데 위원회에서는 3학년 과정의 수업이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개별 선교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확보되어 당장의 선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선교사들이 학교에 매여 있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언어학교 위원회>에서는 3학년 과정은 개설하지 못하였지만 개별 선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3년차의 '학습과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3년차 학습과정>

○ Read and study the rules and government of your church
(자신이 속한 교회의 규정과 규칙을 읽고 공부하라)

○ Write at least two Sermons or talks in Korean to be submitted to your Language Committee
(자신이 속한 교회의 언어 위원회에 제출할 한국어 설교나 성경이야기를 최소 2개 이상 쓰라)

○ Learn 30 Korean proverbs (see Gale)
(한국어 속담 30개 배우기),『스과지남』참조

○ Take familiar English Stories and practice telling them to your teacher.
(익숙한 영어 이야기를 선택하여 자신의 한국인 개인교사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라)

○ Continue reading of Newspaper putting emphasis on general items
(일반 기사에 중점을 두고 신문을 계속해서 읽어라)

○ Learn 200 Chinese Characters
(한자 200자 배우기)

상세히 남아 있으며, 전도부인에 대한 연구는 양미강(1997),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한국기독교와 역사』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37-179쪽이 있다.

152) 1923년의 연회에서 3학년 과정의 개설에 대한 계획이 승인을 받았다.

새롭게 개정된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학기와 학기 사이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Intra-Term'을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연합선교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인데 1년 2학기, 학기당 8주라는 학사일정에서 수업이 없는 시기가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 'Intra-Term'의 내용을 살펴보면 숙제(homework)의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前)학기 내용의 복습과 다음 학기 내용의 예습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한자 학습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네 번의 'Intra-Term' 기간 동안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 외에도 <언어학교 위원회>에서 제시한 목록에 있는 책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Outside English Reading'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목록에 있는 도서는 모두 20권으로 다음의 <표 25>에 정리해 놓았다.[153] 대부분 서양인들이 저술한 한국에 관한 책들이었으며[154] 매 'Intra-Term'에 최소 두 권 이상을 읽고 보고서를 <언어학교 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155] 이 목록을 살펴보면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의 현실 외에도 한국에서 선교사들의 삶에 관한 내용, 한국 불교와 아시아의 종교에 관한 내용, 한국의 옛이야기들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명	저자
1	Korea, The Hermit Nation	Griffis
2	Passing of Korea	Hulbert
3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Underwood
4	Ewa, A tale of Korea	Noble
5	Underwood of Korea	Underwood
6	A Modern Pioneer in Korea	Griffis
7	The Re-birth of Korea	Cynn

153) 이 목록에 제시된 도서 외에도 Royal Asiatic Society의 한국지부 자료, Christian Movement in Japan의 한국 섹션,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 관련 서적 등의 기사들도 읽기를 권장하였다.

154) <표 25>의 7번 항목인 『The Re-birth of Korea』(1920)은 한국인 신흥우가 저술한 것으로 미국 뉴욕에서 출판되었다.

155) 3년차의 경우 《Language School》이 아닌 소속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8	Day in and Day out in Korea	Nisbet
9	Korean Buddhism	Starr
10	Religions of Eastern Asia	Underwood
11	The Vanguard	Gale
12	Korean Sketches	Gale
13	Korean Folk-Tales	Gale
14	Korea: Fact and Fancy	Allen
15	Day break in Korea	Baird
16	Inside Views of Missionary Life	Baird
17	The Church in Korea	Trollope
18	Village Life in Korea	Moose
19	The Foreign Missionary	Brown
20	A Corn of Wheat	McCully

<표 25> ‘Outside English Reading’의 도서 목록

1921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Intra-Term’의 추가와 ‘Outside English Reading’이라는 독서 목록이 추가된 외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발음 교육을 위한 받아쓰기(dictation)와 음운변화(euphonic change) 연습이 추가된 점,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과 H.H.언더우드의 『*Everyday Korean*』, 게일의 『스과지남』이 교재로 추가된 점, ‘오륜행실’과 ‘이솝우화’ 등이 수업 활용에 추가된 점 등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다) 1926년 《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

<언어학교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24년 봄 학기에 3학년 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설하는 계획이 승인되었고, 게일의 도움으로 첫 3학년 수업이 열렸으나 교육과정 상에서는 3학년 과정이 추가되어 완비된 3년 과정의 교육과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6년의 개정이었다. 이 교육과정은 1926년부터 1928년 봄 학기까지 사용되었다.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Pronunciation, Dictation, Salutations	5
	Korean for Beginners(Part 1, 2의 전반부)	5
	Grammar(KFB Part 4)	3
	Expression(KFB Part 3)	2
1-B	Korean for Beginners(Part 1, 2의 후반부)	5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3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Chap. 1-4)	4
	Expression(KFB Part 3)	1
	Grammar(KFB Part 4)	2
1-C Home Work	- 언더우드의『한영문법』, 애니 베어드의『*Fifty Helps*』(1926판) 공부하기 - 허트(Heart)의 주기도문, 선별된 성경문구 20개 중에서 10개 배우기 - 마가복음 나머지 읽기 - 쓰기와 소리 내어 읽기 매일 연습하기 - 직접 쓴 문장 100개 준비하여 제출하기 - 'Chinese Character Game'의 한자 100개 배우기 - 설교 5번 하기(주일학교에서의 수업은 허락, 반복도 포함됨)	
2-A	Everyday Korean(전반부)	3
	Gospel Talks and Bible Stories	4
	Geography of Korea, and Korean Relationships	2
	Reading and Translating Korean Books	4
	Analytical Study of 20 selected Hymns	2
2-B	Pilgrim's Progress (Part 1)	3
	Oh Ryun Haing Sil(Language School's Edition)	3
	Everyday Korean (후반부)	3
	Reading and Translating Korean Magazines	2
	Expression (Half the time given to Bible Talks)	4
2-C Home Work	- 'Church Paper' 최소 1주일에 1개의 칼럼 읽고 분석하기 - 500음절 이상의 작문 쓰기(교사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최종적인 형식, 아이디어, 단어가 될 수 있게) - 100개의 새로운 단어와 절을 목록으로 만들기(위와 같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읽기 - 신약성서를 한국어 구어체로 번역하는 연습하기 - 사도신경 암기하기 - 찬송가 3편 암송할 수 있게 배우기	
3-A	Grammatical Forms (One-half of each section)	4
	Advanced work on New Forms, Connectives, Words, and Phrases	2
	Read and analyze a modern Korean Novel	4
	Expression (Original talks, criticized on Composition and Delivery)	3
	Read Genesis in Mixed Script	2

3-B	Grammatical Forms (Finish)	4
	Advanced Work as above	2
	Read and analyze assigned Koreans Books	4
	Expression as above	3
	Reading assigned book of Bible in Mixed Script	2
3-C Home Work	- 자신이 속한 교회의 규율과 규칙 공부하기(세례식 등을 포함, 비록 그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 3개의 시편을 암기(시편 117편은 불허) - 찬송가 6편 이상 암기 - 히브리서 읽기 - 공적인 연설을 직접 쓴 연설문을 자신의 글로 제출하라	

<표 26> 1926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1926년의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매 학기 사이에 있던 'Intra-Term'이 매 학년 사이로 옮겨 각 학년에 배정되어 정규 과정에 편입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변화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학교에서 상근할 한국인 교원의 채용과 관련된 것이다. 즉, 1년이 두 개 학기가 아닌 세 개 학기가 되면 9개월간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임시가 아닌 상근할 교원을 채용할 수 있고,[156] 이렇게 채용한 한국인 교원에게 'Intra-Term'의 과제 채점과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선교사인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전용 교재의 사용도 눈의 띄는 점이다. 1925년에 출판된 사우어의 『*Korean for Beginners*』가 새로 교재로 추가되어 1학년 과정, 1920년부터 사용된 H.H.언더우드의 『*Everyday Korean*』은 2학년 과정에, 게일의 『ᄉᆞ과지남』은 3학년 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orean for Beginners*』는 1학년 1학기에는 전체 시수의 2/3를, 2학기에는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오륜행실'은 앞서 3장 1절에서 살펴본 〈북장로회〉와 〈미감리회〉의 '학습과정'에서도 꾸준히 사용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것은 'Language School판'이라는 점에서 실물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어 학습을 위해 교육적 가공을 거친 교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156) 「*AMFC*」(1924).

라) 1928년《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

1928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일부 과목과 시수 등에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Pronunciation, Dictation, Salutations	5
	Korean for Beginners (Part 1, 2의 전반부)	5
	Grammar (KFB Part 4)	3
	Expression (KFB Part 3)	2
1-B	Korean for Beginners (Part 1, 2의 후반부)	5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3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 (Chap. 1-4)	4
	Expression (KFB Part 3)	1
	Grammar (KFB Part 4)	2
1-C Home Work	- 언더우드의『한영문법』공부하기 - 애니 베어드의『*Fifty Helps*』(1926판) 공부하기 - 주기도문과 선별된 20개의 성경구절 중에서 10개 외우기 - 마가복음 5-16장 읽고 번역하기 - 'Chinese Character Game'의 첫 100자 배우기, 한국어 문장 100개 준비하기 - 공식적인 설교 5번 하기(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과 주일학교 수업에서 하는 설교도 포함됨)	
2-A	Everyday Korean (전반부)	3
	Expression (Gospel Talks and Bible Stories)	4
	Reading and Writing Unmun Script	2
	Reading and Analyzing 20 selected Hymns	2
	Reading Korean Books	2
	Geography of Korea	1
	Korean Family Relationships	1
2-B	Everyday Korean (후반부)	3
	Gale's Grammatical Forms (Half of each section)	4
	Pilgrim's Progress (Part 1)	2
	Oh Ryun Haing Sil (Language School's Edition)	2
	Expression (Half the time given to Bible Talks)	4

2-C Home Work	- ‘Church Paper’ 1주일에 한 칼럼 이상 읽고 분석하기 -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읽고 분석하기 - 사도신경 외우기 - 찬송가 3편 암송하기(짧은 찬가는 제외) - 신약성서를 한국어 구어체로 번역하는 연습하기 - 100개의 새로운 단어와 절을 목록으로 만들기 - 500음절 이상의 작문하기(단어 목록과 여러분의 선생님이 최종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디어와 단어들, 그리고 필체는 자기 자신의 것이어야 함)	
3-A	Grammatical Forms (Finish)	4
	Reading and analyzing a modern Korean Novel	4
	Expression (Original talks, criticized on Composition and Delivery)	3
	New Forms, Connectives, Words, and Phrases	2
	Read a book of the Bible in Mixed Script	2
3-B	Reading Mixed Script	4
	Expression (Continuing work of 3A)	2
	New Words, etc (Continuing work of 3A)	4
	Reading assigned Korean books	3
	Lectures in korean on Korean History, literature, etc	2
3-C Home Work	- 찬송가 6편 암송하기(짧은 찬가는 제외) - 시편 3편 암송하기(117편은 제외) - 히브리서 읽기 - 자신이 속한 교회의 규율과 규칙 공부하기(세례식 등을 포함, 비록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 공적인 연설을 위해 직접 쓴 연설문을 자신의 글로 제출하라 - 2-C 이하에서는 정도에 따라 교사의 도움을 허락함	

<표 27> 1928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1928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국문체, 국한문 혼용체와 같은 한국어 문체 교육의 추가 및 강화이다.[157]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1926년 2A에서 4시간의 시수였던 ‘Reading and Translating Korean Books’가 1928년에는 ‘번역’이 빠지는 대신 시수가 2시간으로 줄고 ‘Reading and Writing Unmun Script(언(국)문체 읽고 쓰기)’ 2시간이 신설됐다. 그리고 1926년에는 3학년 과목이었던『ᄉᆞ과지남』이 1928년에는 2학년 2학기에 시작해 3학년 1학기에 끝마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3학년 2학기에는 5시간짜리 ‘Reading Mixed Script(국한문혼용체 읽기)’ 수업이 추가되었다.

157) 오대환(2011), 앞의 논문, 190쪽.

마) 1931년《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

1931년의 교육과정 개정은 등록 학생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3학년의 수업이 겨울 학기에만 2개 반이 개설되었고, 그 중 한 반은 원로 선교사들을 위해 개설된 것이었다. 다음의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로 선교사들의 위해 개설된 특별 과정은 '의회 용어', '대중 연설'과 같은 특화된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Sentences for Beginners (M.B. Stokes)	5
	Pronunciation, salutation, expression, conversation	5
	Grammar (based on above sentences, Sentence analysis)	3
	Reading and writing Eunmun (Based on 1st Yr. Public School Reader)	2
1-B	Sentences for Beginners	5
	Analytical study of Mark (1-5)	5
	Grammar (based on above sentences)	3
	Conversation	2
1-C Home Work	- 애니 베어드의『*Fifty Helps*』공부 - 주기도문과 선별된 20개의 성경구절 중에서 10개 외우기 - 마가복음 5-16장 읽고 번역하기 - 'Chinese Character Game'의 한자 200자 배우기(읽는 것뿐 아니라 쓰는 것까지) - 직접 쓴 문장 100개 준비하기 - 공식적인 설교 5번 하기	
2-A	Every Day Korean (First Half)	3
	Expression (Gospel Talks and Bible stories)	2
	Connectives (Thorough analytical study)	3
	Conversation	2
	Easy Korean Novel (as Ahai Sangwhal)	3
	Korean Magazine	2
2-B	Everyday Korean (Second half)	3
	Expression (Bible talks and stories)	2
	Connectives (Thorough analytical study)	3
	Conversation	2
	Korean Novel	3
	Easy Magazine	2
2-C Home Work	- 이전과 같음 - 오륜행실, 찬송가 자세히 공부하기	

3 (Winter Term)	Careful analysis of Korean Novel	3
	Connectives	3
	New Words and expressions	2
	Reading a Book of Bible in Mixed Script	2
	Expression (conversation, original talks, letter writing)	5
Special Course (Older Missionaries)	Parliamentary Terms and speaking in public assemblies	3
	New words and expressions	2
	Analytical study of connectives	3
	Conversation	2
	Reading Korean Book, or articles in paper	3
	Mixed Script	2

<표 28> 1931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5년간 1학년 수업의 전용 교재였던『*Korean for Beginners*』가 스톡스의『*Sentences for Beginners*』로 교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저간의 사정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Korean for Beginner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교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뒤의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다시『*Sentences for Beginners*』가 빠지고 원래대로『*Korean for Beginners*』가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3년 동안 사용한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그러나『*Sentences for Beginners*』의 경우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Korean for Beginners*』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1학년 수업에서는『보통학교용 조선어독본』이 한글(언문) 읽고 쓰기의 교재로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된 교재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직접 저술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보통학교용 조선어독본』과 같은 결과물을 수용할 정도로 한국인 학자들의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의 어문 규범화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1934년《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

1934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오대환(2013)이 'Presbyterian Historic Society'에 소장된 미 장로교 선교

문서에서 발견하여 소개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3년 3학기제로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변경 내용은 1931년의 개정에서 『*Sentences for Beginners*』로 교체되었던 1학년용 교재인 『*Korean for Beginners*』가 다시 되돌려졌다는 점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First Reader, used in Common Schools, for pronounciation, etc.	5
	Korean for Beginners (Part 1, 2의 전반부)	5
	Grammar (KFB Part 4)	3
	Expression (KFB Part 3)	2
1-B	Readers, as above	3
	Korean for Beginners (Part 1, 2의 후반부)	5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 (Chap. 1-4)	5
	Grammar & Expression (KFB Part 3, 4)	2
1-C	- 언더우드의 『한영문법』 공부하기 - 애니 베어드의 『*Fifty Helps*』(1926년 판) 공부하기 - 주기도문과 성경구절 100개 외우기 - 문장 100개 배우기	
2-A	Everyday Korean (전반부)	3
	Acts of the Apostles	5
	Korean Novel reading	3
	Analyzing 20 selected Hymns	2
	Geography and family of Relationships	2
2-B	Everyday Korean (후반부)	3
	Grammatical Forms (Gale or Stokes)	3
	Korean Novel reading	3
	Pilgrim's Progress (Part 1)	2
	Oh Ryun Haing Sil (Special Language School Edition)	2
	Expression (Bible Talks, etc)	2
2-C	- 'Church Paper' 일주일에 1개 칼럼 이상 읽고 번역하기 -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읽고 번역하기 - 사도신경 외우기 - 찬송가 3편 암송하기(짧은 찬가는 제외) - 신약성서를 한국어 구어체로 번역하는 연습하기 - 100개의 새로운 단어와 절의 목록을 만들고 이것들을 자신이 쓸 100개의 문장에 사용, 한국어를 영어로	

3-A	Grammatical Forms (Gale or Stokes) Finish.	4
	Reading and analyzing a modern Korean Novel	4
	Expression (Original talks, criticized on Composition and Delivery)	3
	New Forms, Words, and Phrases	2
	Read a book of the Bible in Mixed Script	2
3-B	Reading Mixed Script	5
	Expression (Continuing work of 3A)	4
	New Words (Continuing work of 3A)	3
	Reading assigned Korean books	2
	Lectures in korean on Korean History, literature, etc	1
3-C Home Work	- 찬송가 6편 암송하기(짧은 찬가는 제외) - 시편 3편 암송하기(117편은 제외) - 히브리서 읽기 - 자신이 속한 교회의 규율과 규칙 공부하기(세례식 등을 포함, 비록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 공적인 연설을 위해 직접 쓴 연설문을 자신의 글로 제출하라 - 학교는 영어로 된 책 목록을 제공함(모든 학생은 매 학기에 요구되는 양을 읽고, 3년에 걸쳐 총 필요량을 채워야 하며 C학기마다 서면으로 읽은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표 29> 1934년 개정《Language School》교육과정

이상과 같은《Language School》의 5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주요한 사실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전용 교재의 개발과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Language School》이전 개별 선교회가 한국어 학습을 위해 운용한 '학습과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며, 단기 집중 강좌인《Language Class》에서는 1년차 수업에 일부 적용되기는 했으나 기왕에 선교사들이 한국어교육에 활용하였던 것은 교육적 처치가 전혀 없는 실제 자료(신문, 잡지, 소설, 성경 등)이거나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독학용 한국어 학습서(또는 문법서)였다. 이 교재들(materials)은《Language Class》와《Language School》이라는 '교실 수업'의 형태로 교육의 방식이 전환된 후에도 일정 부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점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교과서(text-book)'로 점차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H.언더우드의『*Everyday Korean*』과 사우어의『*Korean for Beginners*』는《Language School》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교과서이다.『*Everyday Korean*』은

1920년의 교육과정부터 빠짐없이 2학년 과정의 '회화'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Korean for Beginners*』는 1931년의 교육과정을 제회하면 1926년의 교육과정부터 1학년 과정의 '회화, 문법, 표현(expression)' 세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26년 교육과정 이전에 1학년 과정의 회화와 문법 과목에 사용되었던 스톡스의 『*Korean by Clause-Method*』와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 베어드 부인의 『*Fifty Helps*』는 이후에 방학 중 프로그램의 교재로 사용 방식이 바뀌게 된다.

이 외에도 이전부터 꾸준히 교재로 사용되었던 '오륜행실'은 1926년 교육과정부터는 'Language School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볼 수 없어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겠으나 기존의 판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 차이가 교육적 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오륜행실' 역시 《Language School》에서의 교육을 위해 교육적으로 가공된 교과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역시 1931년의 개정 전까지는 포함된 과목이었는데 1926년 연회록의 기록을 보면 이는 팜플렛 형태의 교재로 2년 동안 500부나 복사돼 판매되었으며, 수업용 교재는 아니었으나 '*Game of 500 Chinese Characters*'도 《Language School》에서의 사용을 위해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Language School》은 기존 개별 선교회의 '학습과정'에서 추출한 '교육내용'과 중국과 일본의 《Language School》과 과도기적 단계였던 《Language Class》에서 참고한 '수업 방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고, 5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재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Language School》의 교육과 평가

《Language School》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수료, 유급, 졸업 등의 학사관리뿐만 아니라 점수와 등급이 포함된 정규 수료증까지도 발급하

여 정규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1921년의 연회에 제출된 <언어학교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학생 개인이 해당 학기 및 과정에 받은 점수와 등급을 포함한 정규 수료증을 준비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며, 시험의 통과 점수는 70점이며, 이전과 비교하여 교육과정과 시험이 모두 강화되었다는 언급이 있어 평가를 통한 수료 및 유급, 졸업 등의 학사관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교사들은 해당 학기에 치러진 시험의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개설 초기에는 3학년 과정은 아직 상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차의 시험은 각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서 치르도록 하였다.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도 구술시험은 3년차와 마찬가지로 소속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지필시험만 《Language School》에서 치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합선교협의회〉의 <언어학교 위원회>가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면서 개별 선교회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였던 〈언어 위원회〉를 대체하였던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상호유기적인 관계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1921년부터 〈미감리회〉, 〈북장로회〉, 〈남장로회〉 세 개의 선교회가 《Language School》의 학업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선교회의 언어 시험(지필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점진적으로는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가 수행하였던 기능을 《Language School》과 <언어학교 위원회>로 이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27년의 교육과정부터는 구술시험 역시 개별 선교회가 아닌 《Language School》에서 진행되었으며,[158] 1928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대한 구술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이 구술시험을 표준화하여 모든 선교회의 2년차까지의 구술시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Language School》의 이러한 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필시험에 대한 표준화를 제공하여 소속 선교회에서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학습과정'

158) 학기말 시험에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수업이 아닌 자습으로 진행되는 3학기의 학습 내용 모두가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고, 점진적으로 구술시험 표준화에 대한 개요(outline)를 제공하여 개별 선교회에서의 구술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교회에 일률적인 한국어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과정과 평가를 체계화'[159]하고자 한다는 《Language School》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회들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적인 한국어 '학습과정'을 가지고 있었다.[160] 그런데 이 '학습과정'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 평가 방식도 선교회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선교협의회〉라는 교파 간 협력체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School》은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본질적인 목적 외에도 여러 선교회들 간에 통일되지 않은 한국어 학습과 평가의 문제를 이 학교에서의 강의과정과 평가체계를 통일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Language School》의 운영 축소와 한국어교육의 중단

《Language School》의 운영은 〈연합선교협의회〉의 재정 지원과 개별 선교회의 지원을 받았지만 유료로 운영되었다. 학교에 등록하는 선교사들이 소속된 선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Christian Literature Society(이하 CLS)'에서 출판된 이 학교의 교재 판매 대금도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교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비였다. 그렇다보니 등록자 수는 재정안정성과 관련하여 학교의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다음의 <표 30>은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의 기록을 토대로 등록한 학생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161]

---

159) 「*KMF*」, 1921년 6월호.

160)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규모 큰 〈북장로회〉와 〈미감리회〉만 살펴보았으나 다른 선교회의 경우도 〈언어 위원회〉 가 있었고 자체적인 '학습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161) 이 작업은 오대환(2014), 앞의 논문, 150-151쪽에서 이미 진행한 바 있으나, 자료를 검토

개설연도	학기	등록자 수	비고
1920년	가을	30	
1921년	봄	58	
	가을	70 내외	평균치
1922년	봄	70 내외	평균치
	가을	56명 이상	1923년 봄 학기의 초급이 적어 등록자가 줄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56명보다는 많았을 것
1923년	봄	56	
	가을	48	
1924년	봄	65	
	가을	53	
1925년	봄		
	가을	47	
1926년	봄		
	가을	46	
1927년	봄		
	가을	33	정규: 25, 특별: 8
1928년	겨울	27	정규: 18, 특별: 9
	봄	4	
	가을	38	약간의 파트타임 등록 있음
1929년	겨울	38명 내외	1928년 가을 학기와 연속성, 3학년 개설 안 됨
	봄	X	개설 안 됨
	가을	28	
1930년	겨울	38	
	봄		
	가을	25	
1931년	겨울	31	
	가을	24	
1932년	겨울	16	
	봄	?	확인 불가
	가을	19	
1933년	봄		
	가을	13	
1934년	봄	15	
1935년	봄	15	
1936년	겨울	3	등록은 6명
1937년	가을	?	가을 학기 예정. 1938년 이후 연회록 없어 확인 불가능

<표 30>《Language School》 학기별 등록 인원

1914년을 끝으로 개설되지 않았던 단기 집중 강좌인《Language Class》가 선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만큼 학교 설립된 첫 학기인 1920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어 다시 정리하였다.

년 가을 학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평균 6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등록하여 수업을 들었다. 특히 1924년 봄 학기는 300명이 등록한 북경의 《Language School》, 150명이 등록한 남경의 《Language School》에 이어 50명이 등록한 동경의 《Language School》보다도 많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학교였다. 그러나 1927년 겨울 학기부터는 정규과정의 등록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1928년 봄 학기에는 겨우 4명만이 등록하였다. 이후부터는 들고남의 편차는 있으나 등록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1936년의 마지막 학기에는[162] 6명이 등록했으나 실제 수업에 참석한 학생은 3명뿐일 정도로 학교의 유지 자체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 연회록에 제출된 1927-28년도 <언어학교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등록자 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기당 수업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1928년 봄 학기에 등록자가 4명이었을 때는 더 이상 수업을 개설하면 안 된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본국으로부터 모금한 선교기금과 《Language School》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며 일정 부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등록자 수의 감소를 막지 못하였다.[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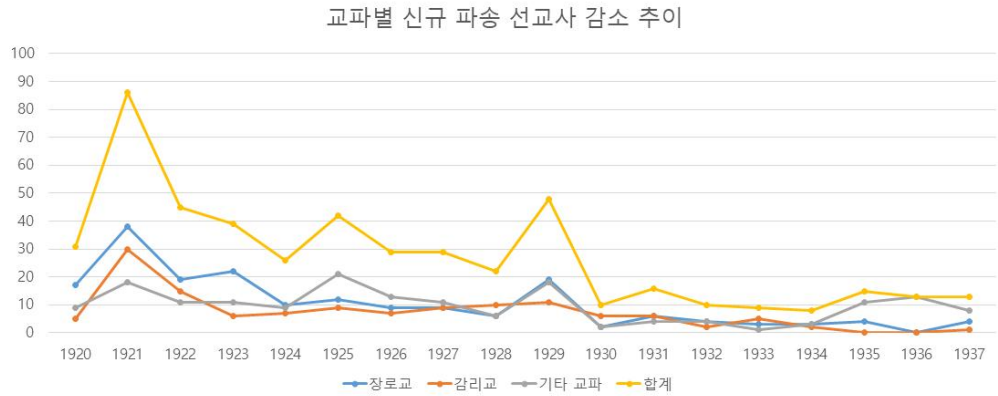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선교 사역의 성공을 위해 언어 학습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선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목적'[164]으로 하고 있는 《Language School》의 등록자 수는 감소하였던 것일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신규 부임하는 선교사 수의 감소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Language School》은 1, 2년차의 신규 선교사의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개별 선교회에서도 이들 신규 선교사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Language

162) 연회록 상에는 1937년 가을 학기의 설강 계획이 있었으나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37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제 설강되어 수업이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KMF*」의 1939년 11월호의 기사에 따르면 1939년까지는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37년을 기점으로 일제의 선교사추방령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점과 1936년의 등록자 수를 고려한다면 《Language School》의 1936년의 수업을 실제적인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63) 1936년의 연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복습과정(brush-up course)'은 이처럼 신규 파송 선교수가 줄어듦에 따라 나타난 등록자 수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제안된 '복습과정'은 《Language School》이 아닌 개별 선교회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찾으려는 시도였으나 시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64) 「*KMF*」, 1921년 6월호.

School》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파송되는 신규 선교사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교육 대상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오대환(2014)은 《Language School》이 실제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되는 1919년부터 1937년까지 신규 파송된 선교사들의 수를 조사하여 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165] 이를 살펴보면 192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66]



[그림 10] 교파별 신규 파송 선교사의 연도별 감소 추이

이러한 신규 파송 선교사 수의 감소 추이는 앞서 <표 30>의 《Language School》의 등록자 수 감소 추이가 큰 편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신규 파송 선교사 수의 감소 원인은 개신교의 한국인 지도자들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선교사들은 초기부터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별도의 '학습과정'[167]을 운영하였고, 교회의 규모가 점차 성장한 이후에는 평양과 서울 등지에 학교를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힘을 쏟는다. 이렇게 성장한 한국인 목회자들이 전도 및 교회 활동을 담당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165) 여기에서 제시한 [그림 10]의 그래프는 오대환(2014), 앞의 논문, 157쪽에서 제시한 표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166) 장로교의 숫자는 미국의 〈북장로회〉, 〈남장로회〉와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의 신규 파송 선교사 수의 합이고, 감리교는 〈미감리회〉, 〈남감리회〉의 합이며, 기타는 그 외의 선교회의 신규 파송 선교사의 수에 교파가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의 수를 합한 것이라고 한다. 오대환(2014), 앞의 논문, 157쪽.

167) 〈북장로회〉와 〈미감리회〉 등의 연회록에는 한국어 '학습과정'뿐 아니라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별도의 '학습과정'도 다수 확인된다.

수 있다.[168] 한국의 목회자들이 차츰 교회에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장로교의 경우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던 '독노회'(1907년)에서 한국인 교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12년)를 설립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치 치리(自治 治理)'하는 한국 교회가 형성되었고, 감리교의 경우 1930년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를 통합한 '기독교조선감리교 총회'(1930년)가 조직되면서부터 독자적인 한국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역할 역시 제한적으로 변화였고, 그만큼 신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할 필요도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중단에 관여한 또 다른 원인은 개신교 선교사들과 총독부와의 갈등, 그리고 선교회 교파 간 갈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피지배층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배층인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성전(2007:59-123)은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들은 독립운동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늘 받았기 때문에 1911년의 '사립학교 규칙', 1925년의 '개정사립학교 규칙' 등의 법적인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169]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때로는 총독부와 타협하며, 때로는 대립하며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개신교계 내부의 갈등까지 야기하게 된다.

1935년 총독부가 개신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신사참배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사참배 거부를 둘러싸고 총독부와의 갈등뿐 아니라 개신교계 내부의 교파 간 분열까지 야기된 것이다. 그 결과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선교사와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 간의 분열,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 교파 간 연합이 분열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제에 의한 선교사 강제 출국 조치에 의해 대다수

168)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국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간에 교회의 주도권과 관련한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
169) 오대환(2014), 앞의 논문, 155쪽에서 재인용.

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서 선교회 간의 초교파적 조직이었던 〈연합선교협의회〉는 1940년 해체되고, 《Language School》에 관한 기록도 1939년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한 1939년까지는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존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Language School》의 의의와 한계

연합언어학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기존의 개별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한 것으로 개신교 교파들 간의 초교파적 연합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만들어진 선교회들 간의 협의체의 〈연합선교협의회〉의 구성으로 가능해졌다. 〈북장로회〉가 실시한 단기 한국어 집중 강좌에 〈미감리회〉가 협력하여 기틀을 마련한 이후 〈연합선교협의회〉의 지원으로 1912년부터 1914년까지 3차례의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1919년에는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제도적 교육기관인 《Language School》에 대한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1920년부터 5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며 적어도 1936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운영되었다.

교파별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던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Language School》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갖는 의미는 '교사-매개체(교재)-학습자'라는 교육의 3요소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대면을 통한 '수업'으로 실현되고, 표준화된 '평가'를 통해 학사관리가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교사의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학습의 보조적 수단으로 머물렀던 한국인 개인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로 그 지위에 변화했다는 점과 전체 수업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Language School》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인 선교사들이 주로 수업을 담당

하였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한국인 강사들을 늘려나갔는데 한국인 중에서 최초로 《Language School》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에 배정된 교사는 1922년까지 수업을 담당하였던 '김필례(최씨 부인)'[170]였다. 1923년에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한국인 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24년에는 한국인 교원이 증가하여 전체 75시간 중에서 절반이 넘는 44시간을 한국인 교원이 강의하였으며 그 중에서 16시간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171] 1926년에는 1년 3학기제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6명의 한국인 상근 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전체 수업의 2/3을 담당하였고, 그 절반은 한국어로 강의되었다. 1927년에는 전체 교원 20명 중에서 한국인 교원이 15명이나 되었고, 주당 105시간의 수업 중에서 선교사가 43시간, 한국인이 62시간을 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근 한국인 교원의 증가가 재정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1928-29년도에는 단 한 명의 교원만 남을 정도로 학교의 재정과 등록자 수에 따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또한 학교의 입장에서는 한국인 교원이 담당할 수업의 비율을 더 높이고 싶으나 교육 자격과 능력을 가진 한국인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인 교원이 만족할 만한 전문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교재의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 개념의 교재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교재 개발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학적인 접근도 눈에 띄는데 한자 학습을 위한 교재인 '*Chines Character Game*'[172]의 경우 'Chosen Christian College(연희전문학교)'의 학생들이 잡지와 정기 간행물을 대상으로 약 3만자 가량의 한자에 대한 빈도 조사를 한 통계적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173]

마지막으로 지필과 구술시험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의 개요를 제공하여 《Language School》뿐만 아니라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

170) 김활란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독교여성운동가로 한국어 교사로 일했던 시기에는 지금의 정신여자중학교의 교사와 교감으로 근무하던 때이다. 1922년 이후에는 미국 유학으로 수업을 맡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71) 연회록에는 65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172) 수업용 교재가 아닌 방학 중 학습용 교재로 사용된 것으로, 현재 실물은 확인할 수 없다.

173) 「AMFC」(1927).

평가에도 그 규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의 《Language School》이 지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4 절 연합언어학교의 재건과 현대 한국어교육으로 이행기

1) 또 다른 연합언어학교 《Korean Language School》의 등장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41년 3월에는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주로 서양인)에 대한 강제추방령이 내려진다. 남아 있던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강제추방령에 의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이미 감소 추세에 있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왔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재개된 것은 강제추방령으로 본국으로 귀국하였던 선교사들이 종전 이후 해방[174]이 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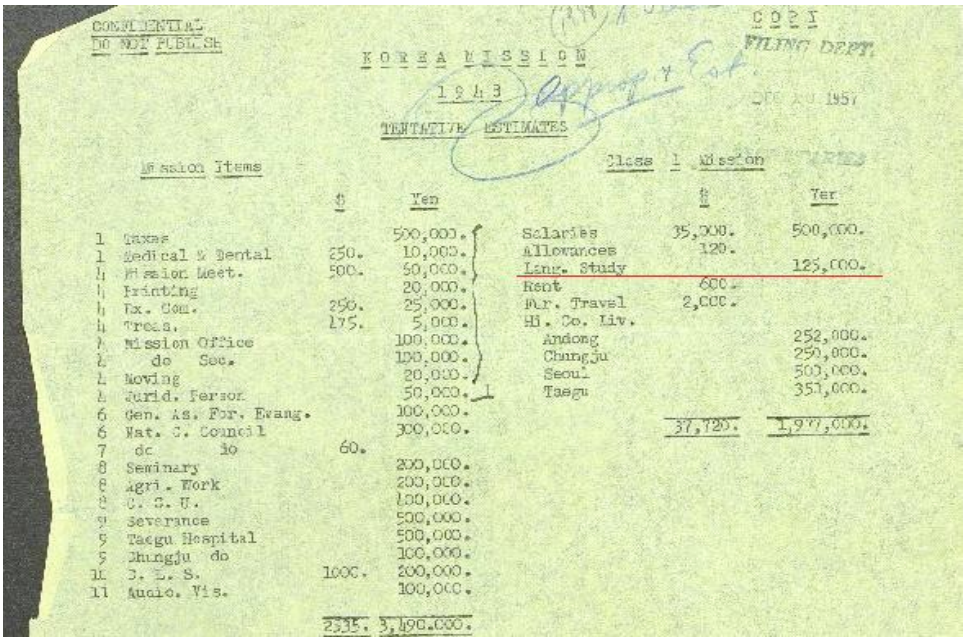
한국에 재입국한 선교사들은 이전의 《Language School》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을 다시 시작하였고, 적어도 장로교의 경우는 1948년부터는 선교부의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1]은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이하 PHS)[175]에 소장된 1948년 'Field Correspondences'(RG140-B6-F22)[176]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1월 9일에 작성된 그해의 예산안 중 일부인데, 오른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을 위해 125,000yen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임시 언어 위원회(temporal Language

174) 역사학계에서는 '해방'과 '광복'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의미 변별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나,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175) PHS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에 소재한 폐가식으로 운영되는 아카이브(archive) 도서관으로 미국 장로교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에 관한 거의 모든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의 자료들은 기록 시점을 기준으로 50년이 지난 문서들만 열람이 가능하며, 50년 이내의 자료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176) 이 영문과 숫자는 자료가 소장된 위치와 해당 자료의 고유번호로 B는 Box, F는 Folder의 약자이다.

Committee)'를 조직하고 H.H.언더우드 박사, 캠벨(Mr. A. Campbell)과 존슨(Miss. Johnson) 선교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177]



CONFIDENTIAL
DO NOT PUBLISH

COPY
FILING DEPT.

KOREA MISSION

1948

TENTATIVE ESTIMATES

Mission Items	$	Yen	Class 1 Mission	$	Yen
1 Taxes		500,000.	Salaries	35,000.	500,000.
1 Medical & Dental	250.	10,000.	Allowances	120.	
4 Mission Meet.	500.	50,000.	Lang. Study		125,000.
4 Printing		20,000.	Rent	600.	
4 Tx. Com.	250.	25,000.	Mr. Travel	2,000.	
4 Treas.	175.	5,000.	Hi. Co. Liv.		
4 Mission Office		100,000.	Andong		252,000.
2 do Sec.		120,000.	Chungju		250,000.
2 Moving		20,000.	Seoul		503,000.
2 Jurid. Persor		50,000.	Taegu		351,000.
6 Gen. As. For. Evang.		100,000.			
6 Nat. C. Council		300,000.		37,720.	1,977,000.
7 do do	60.				
8 Seminary		200,000.			
8 Agri. Work		200,000.			
8 C. C. U.		100,000.			
9 Severance		500,000.			
9 Taegu Hospital		500,000.			
9 Chungju do		100,000.			
10 C. L. S.	1000.	200,000.			
11 Audio. Vis.		100,000.			
	2335.	3,490,000.			

[그림 11] 장로교 선교부의 1948년 예산안 중 'Language Study' 관련 내역

장로교 선교부의 이러한 활동은 해방 전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강제로 출국되기 이전 《Language School》과 같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듬해인 1949년 8월에 열린 '상임 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권고 사항을 선교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178]

① 1년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 주에 최소한 30시간, 2년차를

177) PHS(1948), RG140-B6-F22, 35p.
178) PHS(1949), RG140-B6-F23, 53p.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0시간, 3년차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10시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자습 시간은 한국어 교사와 함께 공부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매달 자신의 한국어 학습 시간을 선교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어떤 선교지부도 상임 위원회가 규정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시간을 줄이거나 한국어 수업[179]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원문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1~3년차의 2학기 동안에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④ 선교사들이 3년차 1학기말에 치러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재수강하도록 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으로 미루어보아 장로교의 한국 선교부에서는 적어도 1949년부터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 ①, ③, ④의 내용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3년차의 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학습과정 내지는 교육과정을 구비하여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고사항 ②의 내용으로 보아 자습이 아닌 교실 수업 형태의 교육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온 여러 교파의 선교회 간의 초교파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Language School’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것은 1949년 또는 1950년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1950년 2월 14일에 프레이저(J.O. Praser) 선교사가 한국에서 미국의 그로스(M. Grose)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180]

The Language School is reported in the bulletin, so you will know of its activities this week a preliminary class for beginners has started and quite a number of from outside stations are at work a in it. The regular first year

179) 원문에는 ‘study language classes or schools’라고 되어 있는데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인 것으로 보아 기존에 운영되었던 연합언어학교의 《Language Class》나 《Language School》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던 복수의 ‘class’나 ‘school’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180) PHS(1950), RG140-B6-F24, 16p.

classes will start about March 1st.
(《Language School》은 회보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초보자를 위한 예비 수업이 시작되었고 지방의 꽤 많은 선교지부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1년차의 정규 수업은 3월 1일경에 시작합니다.)

즉, 1950년 3월 1일부터 《Language School》의 정규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Language School》이 해방 이전의 '연합언어학교'와 같은 초교파적 성격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같은 해 2월 9일에 플레처(Dr. Flecher)의 집에서 열린 'Inter-Mission cooperating Committee'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위원회의 언어 분과 회의에서 감리교의 사우어가 보고한 내용이다.[181]

Mr. Sauer reported that considerable work hard been done in preparation for the next session of the Korea Language School; that new text books were under preparation and production. This would involve a higher charge for tuition and probably grants would be asked for from the various Missions. A Class for Beginners had already started with an enrollment of 10. The regular session of the Language School would probably start on March 1st.
(사우어는 《Korea Language School》의 다음 과정을 위한 상당한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새로운 교재를 준비, 출판하였고, 이로 인해 학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에 여러 선교회에게 교부금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초급반 수업은 10명의 등록자로 이미 시작하였고, 《Language School》의 정규과정은 3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 과정(next session)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라는 언급을 통해 1950년의 《Language School》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비록 1949년에 《Language School》이 개설되었다는 구

181) PHS(1950), RG140-B6-F24, 18p.

체적이고 실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는 없지만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이하 GCAH)[182]의 “Guide to the Charles August Sauer Papers”에서 사우어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Korean Language School의 교장으로 봉직하였다[183]는 기술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경과를 정리해보면 해방 이후 재입국한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를 학습하였고 이후 적어도 1949년 또는 1950년부터는 선교회들 간의 협력 사업으로 재개된 《Language School》을 통한 한국어교육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에는 장소를 일본의 카루이자와(軽井沢)로 옮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84] 휴전 후, 1954년 9월에서야 다시 서울에서의 교육이 재개되었다.[185] 〈북장로회〉 선교사였던 곽안련(Charles A. Allen)의 손자인 클라크(Donald Clark) 교수[186]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Language School》의 교육이 재개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187]

> My father Allen D. Clark(a Nothern Presbyterian Missionary who grew up in Seoul and Pyongyang), worked with Rev. Charles Sauer of the Methodist Mission to reestablish the Korean language school for missionaries after the Korean armistice in 1953. The school met in various places but mostly at Chosun Christian Univercty (CCU, now Yonsei University) in space made avilable by CCU President L. George Paik (Paek Nakchun). It was typical of missionaries that they started at special training institutes at Yale, learning basic from

182) 미국 Drew University 소재한 감리교의 역사 관련 기록이 보관된 아카이브 도서관이다.
183) “From 1949 to 1958, he returned to education and his position of principal, working in the Korean Language School.”
184) 오대환(2013ㄴ), 앞의 논문, 179쪽.
185) 강병헌·강승혜(2016ㄱ), “1950년대 국내 한국어교육에서 개신교 선교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적 고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6쪽, 여기에서는 4쪽.
186) 미국 텍사스 주 Trinity University의 역사학과에 재직 중이다. 강병현·강승혜(2016ㄱ), 위의 논문, 7쪽.
187) 이하 클라크 교수의 언급은 모두 강병헌·강승혜(2016ㄱ)에서 클라크 박사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인터뷰 내용이며 원문과 한국어 번역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다.

Professor Samuel Martin. Then, upon arrival in Korea, they spent their first several months – a year at least – going to class in the missionary language school operated by Drs. Clark and Sauer.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에, 아버지 알렌 클라크(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서울과 평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음)는 감리교 선교사 찰스 사우어 목사와 함께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학교를 다시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여러 장소를 빌려 사용했지만 Chosun Christian University (CCC, 당시 연희전문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허락으로 Chosun Christian University 건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내한 전에 예일대학교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무엘 마틴 교수로부터 기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에 최소 몇 달에서 1년간 클라크 박사와 사우어 박사가 운영하던 선교사 언어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188]

2) 《Korean Language School》과 《Language School》의 연속성

앞서 새로운 연합언어학교인 《Korean Language School》이 등장하게 된 경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학교는 〈연합선교협의회〉의 해체와 일제에 의한 선교사들의 강제 추방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Language School》이 해방 이후 선교사들이 복귀하며 재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Korean Language School》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와 《Language School》에서 사용되었던 한국어 교재와의 관계, 그리고 두 기관의 교육 내용의 유사성이다.

《Korean Language School》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로 확인 가능한 것은 모두 16종이다.[189] 여기에다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5종의 등사본 교재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2월 9일에 있었던 'Inter-Mission cooperating Committee'에서 사우어가 보고한 바로 추정하면 이 교재들은 대체로 출판을 위한 준비를 거쳐 195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교재의 출판 시기와 저자, 소장처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188) 강병헌·강승혜(2016ㄱ), 앞의 논문, 7-8쪽.

189) 오대환(2013ㄱ:179)에서는 15종으로 보았으나 1939년에 출간된 『*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가 누락된 것이다.

	서명	저자	출판년도	소장처[190]
1	*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	Sauer	1939	A
2	기도문	Ahn	1950	C
3	*Twenty question for beginner*	Sauer & Ahn	1952	B,C
4	*Preparation for Worship*	Sauer & Ahn	1954	B,C
5	*Korean Conversation for Beginners*	Sauer & Ahn	1954	B,C
6	*The Alphabet in Ten Lessons*	Ahn & Sauer	1954	B,C
7	*Twenty lessons in Korean grammar*	Sauer & Ahn	1954	B
8	*Twenty lessons in John's Gospel*	Sauer & Ahn	1954	B,C
9	*Korean Prayer Forms 1*	Ahn	1955	B,C
10	*Korean Prayer Forms 2*	Ahn	1955	B,C
11	*Twenty more lessons in grammar*	Sauer	1955	B
12	*The Grammar Primer*	Sauer	1956	B
13	*(The first hundred)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Book 1 Time and Place*	Sauer	1956	B
14	*Korean Morphemes*	Ahn	1957	B
15	*First steps to Korean Letter Writing*	?	1957	C
16	*How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Part 1*	Sauer	1957	C
17	*Language Drills: a series of drill tables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questions for beginners twenty lessons in John's Gospel*	Sauer	1958	B
18	*(The second hundred)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Book 2 Sign seen in the Street*	?	1955	C
19	*Modern Korean Vocabulary*	?	1954	C
20	*Some basic facts of KOREAN GEOGRAPHY*	?	?	C
21	*Korean Grammar for Beginners*	?	?	C
22	*Korean For Beginners Parliamentary Primer*	?	1954	C

<표 31>《Korean Language School》 발행 한국어 교재 목록

위 <표 31>의 목록을 보면《Korean Language School》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교재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찰스 사우어가 저술한 것이거나 안신영[191]이라는 한국인이 함께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우어는 앞서 3장

190) A: 국립중앙도서관, B: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C: GCAH

191) 안신영(Ahn, C.Y)은 감리교인으로 교육자였다. 공주영명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

의 기술한 바와 같이 《Language School》의 주요 교재였던 『*Korean for Beginners*』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GCAH의 '*Guide to the Charles August Sauer Papers*'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925년에 출판된 『*Korean for Beginners*』는 1950년과 1954년에 재출간되었고 1930년에는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라는 책도 저술했다고 한다.[192]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1950년 이후 《The Korean Language School》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의 상당수가 1925년 출판된 『*Korean for Beginners*』와 1930년에 출판된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193] 등 《Language School》에서 사용되었던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분절하여 재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950년 이후 출간된 책들 중에서 안신영이 저술한 것을 제외한 책들의 일부에는 서명에 '*Korean for Beginners*'가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 내용 역시 1925년에 출판된 『*Korean for Beginners*』와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분 확장 또는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GCAH의 1954년 《Korean Language School》에 관한 문서에서 찾은 '*How to Learn the Korean Language*'[194]의 10번 째 항목인 'Using the odd Moments(여가 시간의 활용)'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이러한 추정을 더욱 타당성 있게 한다.

> "The 'Korean for Beginners' series is purposely bound in a series of separate manuals. One of these can be carried in the pocket or brief case. When one finds a few minutes he can study. As a matter of act five ten minute periods scattered over the day will be more value than one hour of solid study. Keep a copy of one of the manuals with you for use of odd minutes."[195]

고, 영명학교, 평양 정의학교, 배재학교, 배화학교, 감리교신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며 영어, 역사, 음악 등을 가르쳤으며, USIS 세계주보 주필, 다락방 주필과 어린이문화협회장, 계명협회(계명구락부) 총무를 역임했다. 사우어와는 공주 영명학교 시절 인연을 맺어 다락방 주필 시절에도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안신영의 자서전인 『진실에 산다』(1976)에도 학창시절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학교의 외국인 교사(선교사)의 한국어 공부를 도왔다는 기술만 있을 뿐, 《Language School》 또는 《Korean Language School》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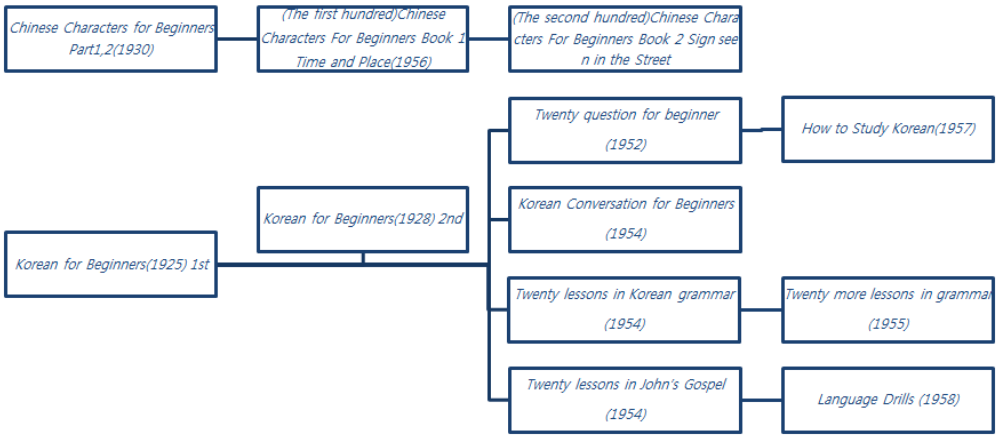
192) "Sauer wrote Korean Language for Beginners in 1925, with reprints in 1950 and 1954;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in 1930."

193) 이 책의 경우 아직까지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194) 이 문서의 내용은 교실이 아닌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Korean for Beginners'시리즈는 의도적으로 일련의 개별 매뉴얼로 묶어놓았다. 이것들은 주머니나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약간의 시간만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고정된 1시간의 공부보다 하루 중에 흩어져 있는 5~10분의 공부가 더 효율적이다. 틈틈이 사용하기 위해 이들 중 하나의 사본을 휴대하라.)

이러한 언급을 통해 휴대의 용이성을 위해 『*Korean for Beginners*』를 분절하여 사용하던 것을 재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2]는 《Korean Language School》에서 사용했던 교재들 중에서 이처럼 기존의 교재를 분절하여 재발행한 교재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196]



[그림 12] 《Language School》과 《Korean Language School》의 교재 관련성

앞의 <표 31>과 위의 [그림 1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Korean Language School》은 《Language School》의 주교재로 사용되었던 사우어의 '○○○ for Beginners' 시리즈를 파트별로 분절하여 재발행하고 한글 자모(*The Alphabet in Ten Lessons*), 편지 쓰기(*First steps to Korean Letter Writing*), 한국의 지리

195) GCAH, 1958-6-2:18.
196)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교재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의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서명을 통해 짐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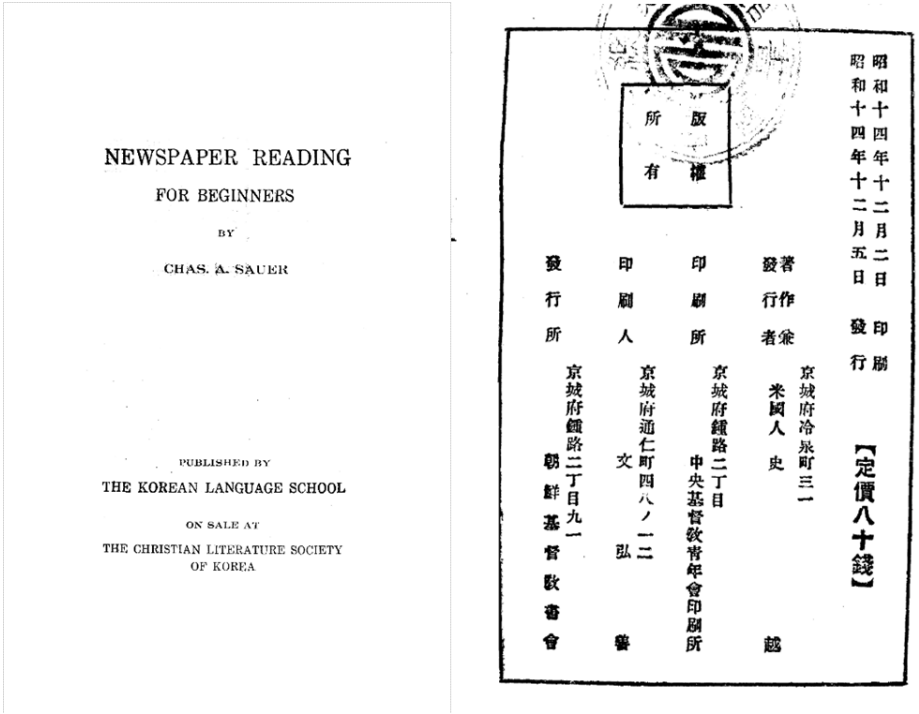
(*Some basic facts of KOREAN GEOGRAPHY*), 최신 어휘와 문법(*Modern Korean Vocabulary*[197]*, Korean Grammar for Beginners, Korean Morphemes, The Grammar Primer, Korean Grammar for Beginners*), 특수 상황에 요구되는 한국어(*Korean For Beginners Parliamentary Primer*)[198]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재를 출판하여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표 31>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라는 책의 출판이다. 이 책은 사우어가 저술한 또 하나의 'Beginners' 시리즈 중 하나로 신문 읽기 교육용 한국어 학습서인데[199] 아래 [그림 13]의 책의 판권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939년인 소화(昭和) 14년 12월 2일에 인쇄를 하고 그해 12월 5일에 발행하였고 발행소는 '조선기독교서회(朝鮮基督敎書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권지가 아닌 책의 속표지에서는 판매는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즉 '조선기독교서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책의 발행은 《Korean Language School》에서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 당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신어 목록으로 '영어-한국어' 순으로 66개의 항목에 수기로 추가한 24개의 어휘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임시정부, 해방, 반동, 친일분자, 붉은 군대' 등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선교사들의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미군의 통역 지원 등을 나가는 일이 빈번해지며 그에 따른 필요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98) 교회의 총회와 위원회 등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 등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조직, 직책 등의 전문적인 용어를 'Officers, Organizations, Committees, Ceremonies, Agenda' 등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199)『*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는 박새암(2015), "근대 한국어 신문 읽기 교재의 내용과 구성-『*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1939)』에 대하여",『한성어문학』34, 한성어문학회, 345-385쪽을, 책의 저자인 사우어에 대해서는 같은 책과 오대환(2012), 앞의 책, 123-159쪽을 참고할 수 있다.


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
BY
CHAS. A. SAUER
PUBLISHED BY
THE KOREAN LANGUAGE SCHOOL
ON SALE AT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版權所有
昭和十四年十二月二日 印刷
昭和十四年十二月五日 發行
【定價八十錢】
著作兼發行者 京城府冷泉町三一 米國人 史越
印刷所 京城府鐘路二丁目 中央基督敎靑年會印刷所
印刷人 京城府通仁町四八ノ一二 文弘善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朝鮮基督敎書會

[그림 13] 『*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의 속표지와 판권지

앞서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합언어학교인 《Language School》에 대한 기록은 〈연합선교협의회〉의 1939년 연회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방 이후 돌아온 선교사들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Korean Language School》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1950년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1939년이 끝나는 무렵에 출판된 한 권의 한국어 학습서에 《Korean Language School》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은 1939년을 기점으로 선교사들의 한국어 교육기관이었던 《Language School》의 공식적인 명칭이 《The Korean Language School》로 이미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이 기관이 해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 1940년을 전후한 선교사들의 강제추방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동일한 교육기관을 통해 재개된 것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Korean Language School》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Korean Language School》의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현재 1955년 12월에 제안된 임시 커리큘럼에 대한 기록만이 GCAH에 남아 있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200] 문헌에 남아 있는 이 임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보면 이 과정은 서울에 있는 《Korean Language School》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개별 선교회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모든 선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과목을 다루기는 하지만 개별 선교회에서 이 커리큘럼 외에도 개별 선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체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였다.[201]

이 커리큘럼은 매년 9-10주 과정의 3개 학기가 개설되며,[202] 어학원에 다니는 동안 학생들은 선교회의 다른 업무가 아닌 한국어 공부에 매진해야 했으며 최소한 하루에 6-7시간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했다. 수업은 오후에 이루어졌는데 오전 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 교사와 함께 공부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통해 각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자신만의 특별한 요구와 관심사, 그리고 능력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게 하였다. 또 매 학기는 2개의 정규과정, 2~3개의 보충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규과정은 매주 4~6시간, 보충과정은 매주 1~2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학기마다 활용 가능한 교원의 변화에 따라 수업 시수가 달라질 것이라는 언급도 있어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03]

먼저 초급 단계인 1년차의 1학기 커리큘럼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

200) 이 임시 커리큘럼은 오대환(2013ㄴ), 앞의 논문, 180-186쪽에서 소개한 바 있다.

201) GCAH, 1958-6-2:18.

202) 1년에 30주라는 수업 일정은 1년 중 나머지 10주를 선교사들이 이 학교가 아닌 각 선교회가 지정한 별도의 학습과정을 공부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3)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원인은 아마도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선교사들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국에 남아 있던 미군의 통역 지원 등의 과외 활동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나 한국전쟁 당시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통역 지원 업무에 차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Modern Korean Vocabulary*'와 같은 어휘집의 존재 역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irst Term	**Course A - Memorization / 5~6시간**
	○다음 두 교재를 격주로 사용 - *Twenty Questions For Beginners* - *Twenty Lessons in John's Gospel*
	Course B - Reading / 5시간
	○코스 A와 동시에 진행함. ○수업 시간의 절반은 다음 교재로 진행. - *Ten Lessons in the Alphabet* (2주, 10과는 생략), 이 기간에 찬송가(Korean Hymnal, Large type word edition) 읽기는 한글 자모 사용의 숙달도 평가에 사용함. - *Preparation For Worship* (2주), 알려진 찬송가와 성경 문구를 찾는 능력, 주기도문 암기, 신자들과 사도신경 암송하는 능력은 이 과정에서 완수해야 하는 기초임. ○수업 시간의 나머지 절반은 *Conversation for Beginners*를 공부하고, 앞의 두 교재를 복습
	Course C - Supplementary
	a. Grammar - 격조사,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교재> - *Korean Grammar for Beginner* (준비중) / 1시간 **b. Elementary Outlines in Korean Geography** (교재 준비중) 행정구역, 강, 생산물, 도시, 기타 통계 / 1시간 **c. How to Begin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 수업에 출석하고 이 매뉴얼을 자주 읽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수업은 초급자에 필수적이므로 정기적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언어 위원회〉와 협의할 것.

<표 32>《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1년차 임시 커리큘럼

위의 <표 32>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임을 알 수 있는데 초급 단계의 첫 학기 정규 과정에서는《Language School》의 방식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활용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재와 찬송가 읽기를 통한 한글 자모 숙달과 기초적인 기도문의 암송과 기초 회화문 학습이 교육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찬송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많이 알려진 찬송가와 성경 구절 등을 암송하는 것은 이것들이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Language School》과 선교회별 '학습과정'에서도 항상 초급 단계의 교육 항목으로 지정된 것들이었다.

보충 수업으로는 문법, 지리, 한국어 학습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어 학습법은 초급 단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법이 학습자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아주 상세한 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204]

그리고 2학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1학기 과정에 대한 복습의 개념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205] 2학기의 커리큘럼은 1학기와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코스 A>가 암기가 아닌 문법 형태(Grammatical Form)로 바뀌어 '*Twenty Lessons in Grammar*', '*Twenty more Lessons in Grammar*' 두 권의 교재를 학습하게 되며, <코스 B>에서는 '*Story of Jesus*'(Laubach series)[206] Book 1, 2를 교재로 번역된 텍스트, 텍스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쉬운 단어가 사용된 문장 등 쉬운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시작한다.[207]

1년차의 2학기 커리큘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보충과정이다. 다음 <표 33>는 1년차 2학기 커리큘럼의 보충과정만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

204) 이 매뉴얼에는 한국어 자가 학습을 위한 10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단계별 문장 패턴을 활용하는 방식, 각 교재별 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짜인 학업 스케줄과 개인 교사의 활용 방법, 한국인처럼 말하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안내하고 있다.

205) "Preliminary to the work of the second term will be a review of the material of the first term, inasmuch as incomplete material will be regarded as inter-term assignment."

206) 라우박(Frank C. Laubach)은 미국회중연합교회 소속의 선교사로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계명협회와 라우박 재단을 설립하였고, 1949년 첫 출간된 『한글 첫 걸음』의 저자이기도 하다. '예수 이야기(*Story of Jesus*)' 역시 문해교육을 위한 초급 독본이었다.

207) "The student begins reading of easy material New words used in sentences, questions and answers on text, material translated."

	Course C - Supplementary
Second Term	**a. Conversation** - 'conversation Note-book'에 관한 메모에 개략적으로 설명된 노트북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 5개의 주제는 각 주제와 관련된 15개 이상의 문장을 선택하여, 노트북에 쓰고 암기. / 2시간 <교재> - *English Phrase Book* (H.J. Lew) - *Similar texts on Korean-American conversation as available* **b. Chinese Characters** - 한자 100자, 날짜 읽기, 도시 이름 30개, 도시와 지방 주소 포함. / 2시간 <교재>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 Book 1, "Time and Place" **c. Korean History** - 한국 역사의 8개 왕조(시대)에 대한 수강 또는 읽기 <참고도서> - *High-light of Korean History* (Language School) -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Osgood) - *Korea, Her History and Culture* (Korea Office Public Information)

<표 33>《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1년차 2학기 보충과정

1년차 2학기 보충과정의 'Conversation' 과목에 대한 해설은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노트북 방식'이라는 일종의 당시 선교사들의 학습법을 확인할 수 있다. '*Similar texts on Korean-American conversation as available*'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책의 제목을 통해 일종의 대화 모음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화 모음집을 활용하여 주제별로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여 대화문을 구성하고 공책에 적고 이를 암기하는 방식인 것인데 다양한 샘플을 제공하고 적절한 주제 맥락에 맞는 대화 구성 능력을 기르려는 교육 방식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차의 3학기의 커리큘럼에서 주목할 특징은 학습자인 선교사들의 전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구성에 있다. <코스 B>는 마가복음의 체계적인 독해가 새롭게 교육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보충과정에는 'Christian Catechism(교리문답)' 과목과 'History of Missions(한국 선교 역사)'

과목이 포함되었다. 교리문답은 기초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의응답이 그 내용인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시행하는 구두문답으로 선교사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1년차 과정이 끝나고 2년차로 진급하기 전에는 Inter-Term을 통해 1년차 과정에서 끝내지 못한 항목들에 대한 공부를 끝내야 했고, 영어로 된 한국과 선교에 관한 4권의 책을 읽도록 하였다.[208]

1년간의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이 마무리된 이후인 2년차부터는 전도 활동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선교 목적의 교육 항목들이 커리큘럼에 포함된다.

First Term	**Course A - Reading / 5시간**
	이 과목은 대한기독교계명협회(이하 계명협회)가 발행한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본들을 소개한다. 이 독본들은 한국어 초급자들을 위해 아주 적은 텍스트만으로 한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교재> 한글독본 1권[209]
	Course B - Conversation / 5시간
	특히 교회, 정부 관계, 구호 문제, 학교, 병원 및 일상 선교 사업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 및 선교사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자료로 회화 <교재> 준비 중
	Course C - Supplementary
	a. Bible outlines - 성경 교육에 사용할 개요와 도표 연구 'Religious Vocabulary'에 대한 메모를 보라. <교재> *The Bible At a Glanc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2시간 **b. Chinese Characters** 한자 100자. / 2시간 <교재>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Part 2 "Signs Seen on the Street"

208) 읽어야 할 4권의 도서는 『*Korean Perspective: A Picture of Kore*』(Office of Public Information), 『*Underwood of Korea*』(Lillias H. Underwood), 『A Modern Pioneer in Korea, Appenzeller』(William E Griffis), 『Syngman Rhee』(Robert T Oliver)이다. 이승만에 관한 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209) 이 시기 '한글독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적은 여러 종류가 있었다. 오대환(2013ㄴ)은 이를 안신영의 저서로 추정하였으나 이 '한글독본' 개인의 저술이 아닌 안신영이 총무로 있던 대한기독교계명협회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위해 1953년에 발행한 것으로 모두 6권이다. 참고로 안신영이 저술한 '한글독본'은 남아 있지는 않으나 관련 기록으로 보아 1935년경에 출판되었고, 이 일로 옥고를 치른다.

Second Term	**Course A - The Book of Acts(사도행전) / 5시간**
	신약성서 두 번째 권 시작. 텍스트에 대한 질의응답과 챕터 개요에 특히 주의하라. 'Use of The Bible in Language Study'에 대한 메모를 보라.
	Course B - Bible Biographies / 5시간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서 발행한 고등부용 공과 1권
	Course C - Supplementary
	a. Prayer Forms - 찬양, 고해, 감사, 청원 / 2시간 <교재> *Korean Prayer Forms*, Part 1 (C Y Ahn) **b. Vocabulary studies** - 가족관계, 정부부처 / 1시간 <교재> 지정된 어휘 시트 **c. Talks in Korean** - 한글독복(Ⅱ-1), 예수 이야기(Ⅰ-2), Bible Biographies(Ⅱ-2)에서 공부한 자료에 기반한 한국어 말하기 / 1시간
Third Term	**Course A - Psalms(시편) / 5시간**
	한국 찬송가의 Responsive Readings(交讀)으로 선별된 시편 공부
	Course B (1) - Prayer Forms / 2~3시간
	한국어로 기도하기 공부 계속
	Course B (2) - Gospel Talks / 2~3시간
	복음서 이야기 재화하기, 복음서 이야기 쓰기
	Course C - Supplementary
	a. Chinese Characters in religious work. 한자 100자 / 2시간 <교재>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Part3 "Headlines in Church Paper" **b. Parliamentary Procedure** - 총회 및 위원회에서 필요한 한국어 / 2시간 <교재> *Preparation for presiding*

<표 34> 《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2년차 임시 커리큘럼

위의 <표 34>를 보면 2년차의 1학기부터 3학기까지 모두 직접적인 전도 활동에 필요한 항목들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도행전, 시편, 공과[210] 등 성경 공부의 양이 증가한 것뿐 아니라 '교회, 정부 관계, 구호 문제, 학교, 병원 및 일상 선교 사업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 및 선교사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보다 선교사 생활 밀착형 주제로 회화 연습을 하게끔 한 1학기의 'Conversation' 과목이나 3학기의 <코스 B>처럼 다양한 상황과 만남에서 한국어로 기도하기, 복음서 이야기 재화하기(retelling)와 쓰기를 공부하는 'Gospel Talks' 과목, 보충과정의 'Bible outlines', 'Prayer Form', 'Talks in

210) 공과는 성경을 일화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하나의 공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의미한다.

Korean', 'Parliamentary Procedure' 과목들은 모두 실질적인 전도 활동에서 필요한 영역이다.

마지막 3년차 커리큘럼은 2년 동안의 학업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1, 2년차와는 다르게 학기제 과정이 아닌 A~K까지 다양한 코스를 매 학기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각 코스별 내용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과정	내용
코스 A	Church Papers - 자신이 속한 교파의 신문 기사를 한 주에 10개씩 스크랩하고, 단어 리스트를 정리하고, 완전히 번역
코스 B	Daily Newspapers - 일간신문 기사 10개를 코스 A의 방법으로 공부
코스 C	Magazines - 직종이나 선교 사역의 유형에 따라 선택한 Children Friend, Christian Home, Farm Life 또는 다른 잡지 선정된 자료를 읽는 코스 A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읽기
코스 D	Medical Science - 'Home Nursing'의 텍스트 공부
코스 E	Natural Science - 과학 교과서나 다음 중 하나 a-Why? 왜? b-How? 어떻게? c-Study of Invention 발명 공부
코스 F	Social Science - 지리 교과서 '우리나라 생활' 1, 2권
코스 G	Social Science - 역사 교과서 '우리나라 발달' 1, 2권
코스 H	Ritual - 세례, 성찬, 결혼, 장례의 예식에 대한 공부
코스 I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서 발행한 교과서 시리즈 중 하나, 공과(Bible Biography) 1권은 2년차 2학기에 공부함
코스 J	대한기독교계명협회에서 발행한 '한글독본' 시리즈 중 하나, 1권은 2년차 1학기에 공부함
코스 K	Sermons for Children -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설교책 한 권 이상 읽기

<표 35> 《Korean Language School》의 1955년 3년차 임시 커리큘럼

그런데 이 3년차 과정에 대한 안내를 보면 위 <표 35>의 코스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상황과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코스가 바뀔 수도 있었으며, 이 리스트 자체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의 종류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211] 교실 수업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211) "The courses listed herewith are merely suggestive of courses that may be offered advanced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first two years of work. Courses offered at any given term would depend on the needs of the students enrolled. The list is suggestive of the type of work the student may do in his own private study."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방 이전의 교육기관이었던《Language School》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년차 교육을 마친 선교사를 선교사역에 투입하고자 하는 선교회 측과 보다 충분한 한국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3년차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언어학교와 견해차로 인해 발생하였던 문제들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개설과 현대 한국어교육의 시작

해방 이후 재개된 연합언어학교인《Korean Language School》의 운영을 통해 비록 서울 지역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체계를 갖추어 가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57년에 4월에 있었던 이 학교에 관한 회의 기록을 PH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회의의 목적에 대해 사우어는 '현재 한국에서의 언어 사역과 그 필요성 또 한국 위원회에의 원조를 위한 모든 요구에 관하여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학교의 등록자 수, 시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 〈남장로회〉와 〈침례회〉 선교사들의 학습을 위한 서울에서의 주거 문제, 〈북장로회〉와 감리교 간의 교육 주도 문제, 〈남장로회〉와 〈침례회〉를 위한 대전에서의 별도의 교육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212] 그 결과는 사우어가 같은 해 4월에 보낸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s conclusions, there was general agreement on the immediate need of a highly qualified Korean to take charge of The Language School on a full time basis. The Question on a budget have to be taken up later. The question as to the need of a permanent school building, or the justif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school with a permanent Korean staff and suitable dormitories was necessarily deferred for further study.
> (결론적으로 한국어 학교를 맡아 운영할 능력이 있는 한국인 전임 교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문제

212) PHS(1957), RG140-B6-F31,

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전용 교사(校舍)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한국인 정직원을 채용하고, 기숙사 시설을 갖추어 상설 학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213]

사우어의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한국인 전임 교원과 직원, 영구적인 전용 교사(校舍),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등이 완비된 상설 학교의 건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북장로회〉의 발의로 새로운 한국어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58년에 6월에 열린 〈북장로회〉의 제64차 연회에서는 새로운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어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의되었다.[214]

a. 선교회는 연세대학교 혹은 적절한 다른 기관의 지원 하에 감리교 및 여타 선교회와 함께 한국어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한다.
b. 선교회는 오토 디캠프(Otto DeCamp)와 존 언더우드(John Underwood)를 〈교파 간 위원회〉(inter-denomination Committee)의 대표로 임명하고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다.
c. 제안한 한국어 과정이 선교회의 다음 회의 전에 연세대학교에 만들어진다면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d. 연세대학교가 한국어 과정의 설립을 보류한다면 우리는 연합언어학교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고, 만족할 만한 교육과정이 연세대학교에 설립되지 않을 경우 상기 〈교파 간 위원회〉에서 우리 선교회가 대표성을 지니는 연합언어학교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북장로회〉의 발의로 연세대학교 안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한국어 교육기관을 설립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연세대학교와 협의하기 위해서 〈언어자문위원회〉(Language Consultation

213) PHS(1957), RG140-B6-F31,
214) PHS(1958), RG140-B6-F32,

Committee)가 만들어지고,[215] 이 위원회의 제안을 연세대학교에서 승인하면서 다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교단체와 연세대학교 간의 공동 협의체인 〈언어코스위원회〉(Language Course Committee)가 1959년 1월에 구성된다.[216]

다시 말해 여러 교파 선교회들 간의 협의체인 〈언어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교사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한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을 선교회와 연세대학교 간의 협의체인 〈언어코스위원회〉를 통해 전달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59년 4월 1일에 연세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0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958년에 미국 장로회 선교사인 원요한(John T. Underwood) 목사가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울 것을 제안, 백낙준 총장의 동의로 한국어학당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7월 9일에 기독교서회 회의실에서 개신교 선교사 대표 5인과 연세대학교의 박창해 교수가 모여 연세대학교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재단 이사회와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마침내 1959년 4월 1일에 연세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한국어학당이 설립되었다. (후략)[217]

---

215) 이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1958년 11월 10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PHS(1958), RG140-B6-F32,

> "The Language Consultation Committee is a loosely-organized inter-mission committee organiz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 of a language course, under the auspices of Yonsei University and also alternative possibilities. It is composed of two voting members each from the Methodist and USA Presbyterian missions and one each from any other Protestant mission organization interested enough to send a representative to the meetings."(〈언어자문위원회〉는 연세대학교 내 한국어 과정 설립 및 그밖에 다른 가능한 대안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조직된 선교회 간의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감리교와 미국 장로교 선교회 소속 대표 각 2인과 위원회에 대표 파견을 희망하는 다른 개신교 선교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216) 1958년 11월의 〈언어자문위원회〉 회의록에 언급된 이 협의체의 구성은 연세대학교 대표 2인 선교단체 대표 5인으로 구성되고,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언어코스위원회>에 파견할 선교단체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게 하였는데 이때 감리교와 장로교의 대표 각 1인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21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한국어학당 50년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1쪽.

이렇게 시작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학감 박창해 교수와 교무주임 민경배 교수 외에 7명의 전임 강사[218]가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10주를 한 학기로 하여 1년에 3학기, 총 2년간의 기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219]

『한국어학당 50년사』에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설립 목적을 '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 외교관 등 한국 관련 업무 종사자와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설립 목적을 통해 교육의 대상을 개신교 선교사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당시 학급은 정규반과 대사관반으로 편성되었는데 학생 수 총 56명 중 선교사는 21명, 경제조정관실(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in Korea) 관계 직원과 미국 대사관 직원 35명으로 오히려 선교사의 수가 더 적었고, 1960년대 초에는 선교사반, 미국대외원조기관(USOM)반, 대사관반을 개설하였는데 중반 이후 〈언어코스위원회〉에서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선교사반 대신 정규반, 대사관반, USOM반, 저녁 고급반, 방학 중 고급반 등으로 재편성되었다.[220] 이러한 교내 프로그램 외에도 주한 외국 상사 직원과 외국 특파원, 국내 기업체 초청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교육이나 1966년부터 시작한 미국 평화봉사단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등 교외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에 국한되지 않은 대중적인 한국어교육으로 발전하였음 확인할 수 있다.

교파별 선교회의 '학습과정'을 활용하여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관리를 통한 한국어교육과 《Language Class》라는 단기 집중 강좌를 통한 한국어교육,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합언어학교인 《Language School》과 《Korean Language School》을 거치며 점차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해 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나름의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육 시스템과 선교사라는 특정 집단을 위한 소규모의 한국어교육이라

218) 전임강사는 두병일, 문택자, 이선애, 이혜란, 임호빈, 정환조, 홍경표 7인이다.
219) 한 학기 당 200시간이라는 수업시수는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한국어교육에서도 표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2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앞의 책, 20-22쪽.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설립》은 기존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대중적인 성격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설립은 현대 한국어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시작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오늘날 현대 한국어교육으로 이어져 왔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성격과 의미

앞서 3장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전개되었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교육의 양상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신교 선교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학습하였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비교적 초기부터 선교회와 선교회들 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발전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여기 4장에서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특징적인 성격을 지닌 채 형성되었는지를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당대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대 한국어교육의 시사점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특징

1) 교육 방법의 측면

가) 원격교육과 집체교육의 상보적 운용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원격교육과 집체교육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초기인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는 교파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가 주도하여 독립적으로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관리하였는데 많지 않은 수의 선교사들이 넓은 선교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배치되었다. 또한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 활동보다는 학교와

병원의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의료 선교, 그리고 일부 선교사들의 순회 전도가 주된 전도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이 선교회가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특정한 교육적 안배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1)]

이 특정한 교육적 안배가 바로 '학습과정(Course of Study)'이라는 학습을 위한 커리큘럼을 선교사들에게 제공하여 선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선교지역에서 이 '학습과정'에 따라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고, 〈언어 위원회〉에서 년 1회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일종의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시스템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 선교사들이 처해 있는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대면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육(traditional education)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대안이었던 것이다.

'원격교육'은 딱 잘라 정의내리기는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나[2)] 기본적으로는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쇄교재, 방송교재, 오디오나 비디오 교재 등을 매개로 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매체의 활용'은 원격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이러닝(e-Learning)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원격교육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현재의 원격교육의 기반이 된 통신교육은 1833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는데 통신을 통한 작문교육이었다. 이후 통신교육 방식의 어학 강좌가 독

---

1) 초기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현지어 학습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만이 가진 특징은 아닌 공통적인 문제였고, 한국보다 앞선 나라에서의 선교 경험이 한국에서도 적용된 것이다.

2) 미국교육공학회에서 발간한『원격교육: 정의와 용어집』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원격교육의 개념이 모호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정연희(2013), 원격교육논의의 '교육'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0쪽에서 재인용.

> "원격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첫째, 원격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격교육이란 용어가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청중들에게 제공되어 온 무수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빠른 변화가 원격교육이 정의되는 전통적 방식에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일,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서 개설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대학의 확장 프로그램으로까지 다양화되었다. 이후 20세기 초, 1차 대전을 전후로 통신교육이 전통적인 면대면 공교육을 대신하는 형태로도 활용되었다.[3] 즉,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에 통신교육을 통한 어학교육은 주로 미국에서 건너온 그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방식이었던 것이다.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에서 원격교육으로서의 속성을 공유한다.[4]

첫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었다. 선교사들은 주어진 '학습과정'에 따라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학습과정'에서 년차별로 지정된 학습 내용을 지정된 교재로 공부하였는데 각 년차별 학습 내용을 반드시 그 해에 완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교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량에 따라 스스로 학습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원격교육의 속성과 동일하다.

둘째, 〈언어 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 조직이 뚜렷한 교육목표와 의도를 갖고 개발한 커리큘럼 및 교재가 있었으며, 정기적인 학습 결과의 평가를 통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앞서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어

---

3) 정인성(1999), "초중등학교에서의 원격교육 도입 전략 탐구",『교육공학연구』15(1), 한국교육공학회, 355-373쪽, 여기에서는 358쪽.

4) 원격교육의 특징을 면대면 교육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인성(2007),『원격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① 시공간적 측면에서 면대면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으나 원격교육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다.

② 학습자의 특성은 면대면 교육은 대체로 동질적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대체로 학부모에게 의존한다. 원격교육은 대체로 이질적이고 분산된 지역에 거주하며 성인인 경우가 많다.

③ 교수방법은 면대면 교육은 면대면 수업을 실시하며, 원격교육은 교수매체를 통한 수업을 실시한다.

④ 상호작용은 면대면 교육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하고 원격교육은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⑤ 교수개발은 면대면 교육은 개별 교수자에 의존하지만 원격교육은 부문별 전문가에 의한 공동 작업을 실시한다.

⑥ 수업 형태는 면대면 교육은 교수자에 의존한 집단교육을 실시하지만, 원격교육은 자습에 의한 개별학습을 실시한다.

⑦ 행정조직은 면대면 교육은 교수자들이 행정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지만, 원격교육은 강력한 행정조직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자학자습'을 위한 커리큘럼인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한국어 학습서나 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전도문서와 성경, 신문 등 다양한 자료들을 한국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시도하였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선교사들의 현지어 능력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한 선교본부의 규정에 따라 '학습과정'을 토대로 선교사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각 선교지부에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시니어 선교사들을 관리자(supervisor)로 임명하여 지역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통신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강력한 행정조직을 필요로 하는 원격교육의 속성과 동일하다.

셋째, 시공간적 측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는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교수자였다. 이들을 직접적인 대면 교육이 아닌 '학습과정'과 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 개인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의 개인 기록에는 자신의 한국어 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한국어 교사에 관한 일화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선교회 차원의 공식적인 기록에서도 선교사 개개인마다 개인교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선교회의 예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신규 선교사의 원어민 교사를 배정할 때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이들로 제한하는 등 원어민 한국어 개인 교사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매우 중요한 일부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습과정'을 보면 선교사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범주와 원어민 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야 하는 범주는 일정부분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36>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Study	- Study all the exercises in Scott's *Manual*. - Study sentences of first four chapters in Part Ⅱ of Underwood's *Introduction*, noting especially the divisions of each chapter. - Study forms of address to the Deity. - Study carefully, with a view to thorough mastery, twenty-five verbal endings as explained in Gale's Grammatical Forms. - Study carefully, with a view to thorough mastery, twenty-five verbal endings as explained in Gale's Grammatical Forms.
Learn	- Learn the specific classifiers given on pages 56 to 59 of Underwood's *Introduction.* - Learn the various forms of introduction and salutation. *Optional* – Learn 200 Chinese characters.

<표 36> '학습과정'에서 'Study'와 'Learn' 항목 비교

위의 <표 36>은 1901년 〈북장로회〉의 1년차 한국어 '학습과정' 중에서 'Study'와 'Learn'이라고 표시된 항목만을 따로 정리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Study' 항목들은 학습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교재가 마련되어 있거나 종교적인 요소가 강한 내용으로 충분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인 반면 'Learn' 항목들은 한자, 문화적 요소 포함된 내용[5]과 같이 한국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어민 교사와의 직접적인 면대면 교육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육내용이 주로 한자와 같은 특정 영역 등에 치중되었으며 교사의 역할도 '학습과정' 안에 규정되어 매주 제한적인 학습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기 때문에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라는 조직이 주도한 원격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 주도의 원격교육만으로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한계가 있었다. H.G.언더우드가 1913년 3월의 「*KMF*」에 기고한 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선교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학습 일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고, 생소한 언어인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게다가 선교사들의 한국어 공부를 돕는 원어민 개인 교사들은 경험이 없거나 불성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5) 이외에도 편지 쓰기 형식,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 어휘의 한자, 필기체 쓰기, 고사성어 등이 'Learn' 범주의 학습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문제들로 1909년에 〈북장로회〉에서 시작된 단기 집중 한국어 강좌는 1912년부터는 한국 내 거의 모든 선교회까지 확대되어 〈연합선교협의회〉의 《Language Class》가 시작된다.

《Language Class》는 비록 4주라는 단기간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교실 교육이었으며 집체교육이었다.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춰 3~4단계로 분반을 하고, 또 적정한 인원에 맞춰 클래스(班)를 구성하였다. 수업을 위해 준비된 전문적인 강사와 제작된 교재도 마련되었으며, 과목별로 정해진 시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선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한국어 집체교육의 수요와 요구는 꽤나 높았었다. 1912년 처음으로 〈연합선교협의회〉의 《Language Class》의 신청 서류를 받았던 상황을 애니 배어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When the applications reached twenty we considered that the school would surely be a success. When the forty mark was reached we were astonished and when seventy applications reached us the two or three who were appointed to teach began to see things at night and wondered if they had not bitten off more than they could chew. The response was none the less surprising than gratifying for it showed a great desire on the part of the newer and some of the older missionaries to get acquainted with the Korean language."[6)]
>
> (신청서가 20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학교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개의 도달했을 때 우리는 놀랐고 70개의 신청서가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교사로 임명된 2~3명이 밤에 신청서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은 역량 이상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신규 선교사들과 일부 기존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알기를 갈망하는 큰 욕망을 보인 것에 비하면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1912년 첫 《Language Class》 이후 열린 총회에서는 향후 6개월 과정의 정규 어학코스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1914년까지 연 1회 4주 과정의 집체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내부적인 문제로 중단되었던 교

6) 「*KMF*」, 1912년 8월, p252.

육은 1920년이 되어서야 연합언어학교인 《Language School》로 다시 재개되는데 이때는 단기간의 집중 강좌가 아닌 총 3년 연한의 정규 어학과정으로 연 2회 8주 과정의 집체 교육이 최소 1936년까지는 유지되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학습과정'을 사용한 원격교육에서 집체교육으로 발전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이나 실상 원격교육은 초기의 주된 교육 방법에서 이후 보조적 수단으로 변동되었을 뿐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용된 방식이었다.

〈북장로회〉의 경우 〈연합선교협의회〉의 주도로 처음 실시된 1912년의 《Language Class》의 참석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Language Class》에 참석한 경우 그해 평가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듬해부터는 〈북장로회〉가 자체 평가를 다시 시행하면서 《Language Class》의 참석에 따른 인센티브를 삭제하였으며[7], 〈미감리회〉의 경우는 《Language Class》 참석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험의 면제나 평가 항목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학점(credit)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Language Class》의 참석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독자적인 '학습과정'을 운영하며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연합언어학교의 《Language School》이 시작된 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Language School》의 시작을 준비하던 1919년부터 〈연합선교협의회〉에서는 모든 선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연합언어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하면서 《Language School》의 수업 내용을 각 선교회가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를 권고하고,[8] 1920년의 연회에서는 《Language School》의 수업을 선교회가 전적으로 인정해주기를 요청하는데[9] 《Language School》에서 1학년 과정을 수료하면 소속 선교회의 1년차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다.

---

7) "We recommend that whereas last year those doing satisfactory work as the language school were excused from the language examination as an experiment for one year, with a view to giving an incentive to attend the Language School, the large attendance upon the school is sufficient indication that this incentive is no longer required, resolved therefore ; that language examinations will be required as formerly in June or September.", 「*Minutes and reports of PCUSA*」(1912), p73.

8) "We recommend that who can will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for study and that the Missions be asked to give credit for the courses taken.", 『*AMFC*』(1919), p32.

9) 『*AMFC*』(1920), p34.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1921년 연회에서는 〈미감리회〉, 〈북장로회〉, 〈남장로회〉가 《Language School》 학업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Language School》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선교회의 언어 시험(지필 평가)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10] 그리고 《Language School》의 커리큘럼에 당분간 3학년 과정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를 각 선교회가 소속 선교사들에게 3학년 과정의 학업을 위한 배려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향후 3학년 과정이 개설될 때까지는 3년차의 평가는 1, 2년차의 구술 평가와 함께 각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게 맡긴다고 덧붙였다.[11]

〈연합선교협의회〉의 연회록에 언급된 이와 같은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Language School》에서는 적어도 3학년 과정이 개설된 1926년까지는 1, 2학년 과정의 지필 평가만을 시행하였고, 구술 평가와 3년차 과정에 대한 평가는 개별 선교사들이 속한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Language School》은 총 3년 과정으로 매년 8주간의 2개 학기는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1개 학기는 'Intra-Term'으로 자학자습용 과정이었는데 이 'Intra-Term' 학기에 대한 평가는 《Language School》이 아닌 개별 선교사가 속한 선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연합선교협의회〉의 《Language School》과 각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 즉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가 《Language School》의 개설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교파별 선교회가 '학습과정'을 통해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였던 원격교육은 보다 양질의 교육을 원했던 선교회와 선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Language Class》와 《Language School》이라는 면대면 집체교육의 방식으로 변화했으나 연간 16주라는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 각 선교회에서 선교회의 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선교사들이 3년차까지 한국어 학습을 위해 《Language School》에 매어 있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10) 『*AMFC*』(1921), p28.
11) 『*AMFC*』(1921), p29.

초기부터 사용하였던 '학습과정'을 통한 원격교육이었던 것이다. 〈연합선교협의회〉는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에서 시행할 '학습과정'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위해서 2개의 감리교 선교회와 4개의 장로교 선교회의 한국어 학습과정의 사본을 확보하여 비교하고, 여기에서 합의된 점에 대한 요약문을 준비하여[12] 개별 선교회에서 사용할 학습과정과 평가의 표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양상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원격교육과 집체교육의 상보적 운용은 여러 지역에 언어학교를 개설할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완비되지 않은 당시 선교사들이 처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었다.[13]

나) 내용 중심 접근(Content based Approach)을 통한 교육 효과 증대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지점은 내용 중심 접근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당시 이러한 교육 방법이 지금과 같은 특정한 이론적 토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은 언어와 내용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학습자들에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 지식을 학습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특정한 목적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이며, 언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내적 동기를 고양시키는 데 효과가 높은 방법이다.

따라서 '선교'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주제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

12) 『*AMFC*』(1921), p29.

13) 애니 베어드는 「*KMF*」의 1912년 5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는 상하이 'Union Language School'에 참석할 수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 항저우 지역에서만 한 해에 16개 이상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과 비교해보자면 당시 한국의 선교사들은 가용 가능한 최대한의 교육 방법을 찾았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기도문, 찬송가 등이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배경지식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이라는 당장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결 과제가 한국어 구사능력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내적 동기 역시 매우 높았을 것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내용 중심 접근의 활용된 방식은 교육이 시작된 초기와 중반 이후인 《Language School》에서와는 차이를 보인다.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초기에는 내용과 언어가 통합되지 않은 채 개별적인 학습 내용으로 존재하였다.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언어 영역'과 전도 활동에 요구되는 특정 표현이나 기독교 교리 등에 관한 '내용 영역'이 분리되어 내용과 언어가 분리 병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감리회〉의 1893년 '학습과정'과 〈북장로회〉의 1911년 학습과정을 예로 살펴보면[14]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1년차	1분기	- 언더우드『한영문법』1부의 전반부 - 精選 문장 50개 암기
	2분기	- 언더우드『한영문법』1부의 후반부 - 精選 문장 100개 암기
	3분기	-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ver. 스크랜턴) 암기 - 精選 문장 150개 암기 -『셩경문답』(M.F. Scranton) 읽기 * (시험에서 주기도문 언문으로 쓰기 예정)
	4분기	- 요한복음 1~5장 읽고 분석 -『미이미교회문답』(G.H. Jones) 읽기

14) 〈미감리회〉의 1893년 학습과정은 각 년차마다 4분기로, 〈북장로회〉의 1911년 학습과정은 1년차뿐이기는 하지만 3개의 학기로 세분되어 있어 학습의 단계를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 이 학습과정은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바 있지만 편의를 위해 다시 제시하였다.

2년차	1분기	- 언더우드『한영문법』2부 - 학습할 각 메인 토픽에서 한 문장씩 한국어로 번역하기 -『쟝원량우샹론』(S.A. Moffet)
	2분기	- 요한복음 6~10장 읽고 분석 - 숫자와 성경의 인명 한자 배우기 -『진도입문문답(眞道入門問答)』(F. Ohlinger)
	3분기	- (복습) 요한복음 읽고 분석 -『미이미교회강례』(H.G. Appenzeller),『묘축문답』읽기
	4분기	- 요한복음 1장 전반부의 한자와 한글 편지글의 형식 -『구약공부』(G.H. Jones),『훈ᄋᆞ진언』(M.F. Scranton) 읽기 * (학업 기대치: 원고 없이 한국어 설교 가능한 수준)
3년차	1분기	-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한자와 가족 관계 어휘 -『ᄉᆞ민필지』(H.B. Hulbert) 읽기
	2분기	- 창세기 1,2장과 한국어 직함 관련 어휘
	3분기	-『오륜힝실』첫 두 권 읽기
	4분기	- 창세기 3,4장과 요한복음 2,3장의 한자 - ᄉᆞ복음메합셔(W.B. Scranton) 읽기

<표 37> 미감리회 의 1893년 한국어 학습과정

위 〈미감리회〉의 1893년 학습과정을 보면 학습 초기인 1년차의 1분기와 2분기에는 H.G.언더우의『한영문법』을 통해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언어 영역'을 선행하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문장을 암기하게 하였다. 이 문장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장의 시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과 전도 활동에 요구되는 특정한 표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 2분기에 기초적인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학습한 이후 3분기에는 주요 기도문을 암기하고 교리서 읽기와 같은 '내용 영역'의 학습 항목만 있으며, 4분기에 들어서야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언어와 내용의 통합적 학습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차와 3년차의 학습 내용들은 내용 중심 교수법의 교수 방식 특징 중 하나인 주제 관련 텍스트 읽기를 통한 내용 학습이 많이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15) 1908년에 출판된『찬숑가』로 예상한다. 이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장·감공용 찬송가를 편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한 것인데 베어드(Mrs. Baird), 밀러(F.S. Miller), 벙커

1년차	1학기	-소리 내어 한국어 읽기 매일 연습하기(특히 자음 거센소리와 음운변화에 집중) -'초학언문'의 첫 페이지 공부하기 -『*Fifty Helps*』의 전반부 공부하기 -『언문말칙』 공부하기(18-33쪽, 71-76쪽, 162-172쪽) -『한영문법』 공부하기(23-53쪽, 72-86쪽) -한국어 철자 쓰기 매일 연습하기
	2학기	-한국어 말하기(talking) 매일 연습하기(한국어 읽고 쓰기) -『언문말칙』 공부하기(34-45, 52-71, 76-93, 173-200쪽) -『*Fifty Helps*』의 후반부 공부하기 -『한영문법』 공부하기(54-71, 87-141) -'초학언문' 끝내기 -마가복음 첫 장 읽고 번역하기 -주기도문 암기하기
	3학기	-한국어 말하기 쓰기 매일 연습하기 -『언문말칙』 나머지 공부하기 -『한영문법』 1부 끝내기 -마가복음 2-4장 읽고 번역하기 -'턴로지귀' 읽기(십계명 외우기) -찬양의 형식 공부하고 10개 기도문 문장 배우기. -소개와 인사의 다양한 형식 배우기 -다음의 동사 종결어미과 연결어미 숙달하기 : ᄒᆞ오, ᄒᆞᆫ다, ᄒᆞ다, ᄒᆞᄂᆞ냐, ᄒᆞ엿다, ᄒᆞ겟다, ᄒᆞ겟ᄂᆞ냐, ᄒᆞ자, ᄒᆞᆸ셰다, ᄒᆞ쇼셔, 이오, 일다, 이냐, 잇소, 잇다, ᄒᆞᆷ니다, ᄒᆞᆷ닛가, 이올세다, ᄒᆞ고, ᄒᆞ니가, ᄒᆞ면, ᄒᆞᆯ지라도, ᄒᆞ니, ᄒᆞ여, ᄒᆞ여야, ᄒᆞᆯ, ᄒᆞᆫ, ᄒᆞᄂᆞᆫ, ᄒᆞ나, ᄒᆞ여도. -'Christian News'의 '교회통신'에서 선택한 기사 읽고 번역하기 -한국어 문장 100개 교정 후에 쓰고 외우기 (선택사항:한자) '유학초게' 1권의 한자 200자
2년차		-'the christian News'의 '교회통신' 최소한 한 주에 한 칼럼 읽고 분석하기 -'찬숑가'[15]에서 선택한 찬송가 20개 공부하기 -마가복음 읽기 끝내기 -기도문 5개 암기하기(제안 : '원입교인규죠' 5-8쪽) -한국의 지리 공부하기 -전도문서 2개 읽기(제안 : '구세진쥬', '쟝원량우샹론') -동사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숙달을 위해 주의 깊게 공부하기(슴니다, ᄒᆞ여오, ᄒᆞ지오, ᄒᆞ네, ᄒᆞᄂᆞ니라, ᄒᆞ리다, ᄒᆞ릿가, ᄒᆞ올셰다, ᄒᆞ회다, ᄒᆞ오닛가, 이오닛가, ᄒᆞᆸ시오, ᄒᆞ리라, ᄒᆞ니라, ᄒᆞ도다, ᄒᆞ노라, ᄒᆞ러, ᄒᆞᄂᆞᆫ지, ᄒᆞ거든, ᄒᆞᆫ즉, ᄒᆞᄂᆞᆫᄃᆡ, ᄒᆞ던지, ᄒᆞ넌거, ᄒᆞ면셔, ᄒᆞ매, ᄒᆞᆫᄃᆡ, ᄒᆞ거늘, ᄒᆞ기에, ᄒᆞ거니와, ᄒᆞ엿다가) -한국어 작문하기(최소 200단어 이상) -짧은 설교(Gospel talks)하기 배우기 -사도신경과 성경구절 25개 암기하기 (선택사항:한자) '유학초게' 1, 2권 끝내기

(D.A. Bunker)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편집 원칙은 이미 사용하던 찬송가를 토대로 새 찬송가를 첨가하되 말은 존경어로 구조가 명확하며 의사가 정당하고 교리에 적절한 것만을 쓰기로 한 것이다. 1908년에는 악보 없이 가사만 262편이, 1909년의 개정판에는 4편

3 년 차	-영문 성경을 한국어 구어로 번역하는 연습하기 -복음서와 사도행전 읽기 끝내기 -'Christian News' 매주 한 페이지 읽기 -'셩경문', '셩경도셜' 읽기 -한국어 작문 반복 연습하기(특히, 편지 쓰기) -'쟝원량우샹론' 1-26쪽의 한자어에 들어 있는 한자 배우기 -성경구절 25개 암기하기 -상세한 한국의 가족관계 공부하기('GRAMMAIRE CORÉENNE'의 가계도 참조) -『ᄉᆞ과지남』 완벽하게 공부하기 (선택사항:한자) 국한문체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읽는 법 배우기

<표 38> 〈북장로회〉 의 1911년 한국어 '학습과정'

〈북장로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 3년차와 달리 1년차의 경우는 3개 학기로 나누어져 있어 학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1년차의 1학기에 학습해야 할 항목은 모두 '언어 영역'이며, 2학기에도 '마가복음 읽고 번역하기'와 '주기도문 외우기'를 제외하면 모두 '언어 영역'의 학습에 해당한다. 3학기부터는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 항목들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언어와 내용의 학습이 분리되어 병행될 뿐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학습과정'이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의 두 자료에서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던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 스코트의 『언문말칙』, 게일의 『ᄉᆞ과지남』, 애니 베어드의 『*Fifty Helps*』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어휘와 표현들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Fifty Helps*』에는 교재의 말미에 '종교 용어 리스트(List of Religious Term)'과 '복음 설교에 유용한 짧은 문장(Short Sentences Useful in Presenting Gospel)', '기도문(Prayer Sentences)'을 두어 한국어 학습에서 '선교'라는 목적성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나 H.G.언더우드의 『한영문법』과 스코트의 『언문말칙』의 예시문에서는 기독교 또는 선교와 관련된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게일의 『ᄉᆞ과지남』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셈하지는 않았지만 초판에서는 아주 간간히 보이며 1903년에 나온 개정판은

이 추가되어 악보판으로 개정되었다. 『찬숑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숙자(1995), "한국 최초의 개신교 통일찬송가 「찬숑가」(1908) 연구", 『敎會와 神學』 27, 장로회신대학교, 652-675쪽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초판보다는 다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교재들은 순전히 한국어 학습을 위한 것이었지 '선교'라는 목적에 맞는 내용적 측면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위의 두 학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교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한국어 학습을 선행하면서 동시에 짧은 기도문, 성경 구절, 전도문서 등 실제 텍스트를 통해 종교적인 내용의 학습을 병행하도록 학습과정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초기에도 내용 중심 접근을 통해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그간의 교육 노하우가 축적되고 교실에서의 면대면 교육이 정착된《Language School》이후에는 학습 초기부터 종교적인 내용이 전면에 드러난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Language School》에서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교재인 사우어의『*Korean for Beginners*』이다. 이 교재는 초급 단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교재인데 서문에서 저자가 '교실에서 원고본을 사용하며 얻은 많은 이점을 반영하여'[16] 출판하였다고 밝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실 수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Language School》의 전용 '교과서'였다. 이러한 측면 때문인지 오대환(2012)에서 분석하여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책은 기존의 한국어 학습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재였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직접 책의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Most outcoming missionaries are familiar with the phonetic inductive method of language study as advocated by Dr. Thomas F. Cummings of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
> This handbook is as attempt to apply the principles of that method to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Part one is based upon the suggestions given in the model lessons on John's Gospel as outlined in Dr. Cummings' book "How To Learn a Language". Part two presents a series of drills to cover the most useful

16) "Acknowledgement is made of many valuable suggestions derived from actual use of the text in manuscript form in classroom."

forms for beginners in the language and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grammatical study. Part three offers a few sentences to serve as a short introduction to conversation in Korean."

(한국에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커밍스 박사가 뉴욕신학교[17]에서 주창한 언어 학습의 음성학적 귀납법에 익숙합니다.

이 핸드북은 그 방법의 원칙을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1부는 커밍스 박사의 저서 "어떻게 언어를 배울 것인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요한복음의 수업 모델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2부는 초급자를 위한 가장 유용한 형식을 다루기 위한 일련의 반복연습을 제공하며 문법 공부에 대해 소개합니다. 3부는 한국어로 짧은 대화를 위한 문장들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요한복음'을 중심에 두고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출간된 1925년 이후 《Language School》의 커리큘럼을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다음 <표 39>는 1926년의 커리큘럼 중에서 1학년의 수업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다.

1-A	- Pronunciation, Dictation, Salutations - Korean for Beginners(First half of Part 1, 2) - Grammar(KFB Part 4) - Expression(KFB Part 3)
1-B	- Korean for Beginners(Finish Part 1, 2) -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Chap. 1-4) - Expression(KFB Part 3) - Grammar(KFB Part 4)

<표 39> 1926년 《Language School》 1학년 수업 내용

17) 1902년 설립된 신학교로 현재의 명칭은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이다. 맥코믹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와 함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신학교 중 하나이다.

위의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 전(全)과정 거의 대부분에 『*Korean for Beginners*』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인 '선교'와 주제 연관성이 낮은 교재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서 오는 학업 동기의 저하와 배경지식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용 중심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고안된 일종의 방법적 접근이었던 것이다.

다) 근대적 교육 시스템으로의 발전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그 등장 자체가 새로운 것이었다.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습자 수요가 나타난 것이며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식에서 모두 전에 없던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에 없던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근대적일 수 있는 자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어교육이 근대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발전시키고 정립한 근대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에 있다.

한국 선교 초기 선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활동하였던 초기 선교사들은 미비한 교육적 환경 속에서 별다른 교육적 처치 없이도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써 강력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찰과 경험으로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은 이렇게 누적된 한국어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선임 선교사에 의해 후임 선교사를 교육'하는 개신교 해외선교부의 현지어 학습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다.

그 첫 단계가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후임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인 '학습과정'의 운용과 이를 기초로 시행하였던 학습자 평가, 그리고 선교회의 시니어(senior) 선교사를 활용한 선교지역별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학습과정'은 초기 선교 상황에서 공간적, 시간적, 인적(人的)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면대면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해야 할 내용을 등급화하고 배

열되었다는 점, 학습자 평가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과정'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세환(wash-back)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평가 역시 지필과 구술로 세분화되어 정기적인 평가가 시행되었다.

첫 단계의 교육 시스템은 나름의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교육의 실제적 구현 요소라 할 수 있는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1909년 〈북장로회〉에서 시작하여 1912년에는 〈연합선교협의회〉로 이어져 1914년까지 개설되었던 한국어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는 기존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었다. 오랜 학습과 경험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원어민 교사들이 강사로 나섰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분반을 하여 정해진 수업 일정표에 따라 진행된 교실 수업이었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교과서'가 존재했고, 언어 수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이 포함된 잘 짜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었다.[18] 이 수업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생이 속한 선교회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평가에서 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강습회의 성격을 가진 《Language Class》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이는 이 단기 강좌가 기존의 개별 선교회의 '학습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육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측면에 머무른 과도기적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Language Class》는 교사, 학습자, 부분적이나 교재라는 교육의 3요소가 실현되었다는 점, 학습자 수준에 따른 반배치, 교육 내용의 등급화, 교실이라는 공간, 일정하게 짜인 시간표 등 외국어교육으로서의 근대적 성격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4주간의 짧은 교육기간과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의 부재,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전용 교재의 부족함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5년이라는 공백이 있으나 이후 〈연합선교협의회〉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Language School》의 등장은 《Language Class》에서 드러난 한계들을 대부분 보완하였다. 1920년부터 적어도 1936년까지 수업이 개설된 이 학교는 말 그대

18) 프로그램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오전에 어학, 오후에 문화 활동으로 구성되는 현재 대학기관의 단기 한국어 프로그램의 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로 단기간에 개설된 강좌가 아닌 학기 간 연속성을 가지고 1년에 두 개 학기 또는 세 개 학기가 교육과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개설되었으며,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전용 교과서, 표준화된 지필과 구술평가, 수료증의 발급, 급여를 지급받는 상근 교원 등 외국어교육으로서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 《Language School》의 교육 시스템은 해방 이후 《The Korean Language School》에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한국어교육을 형성하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교육 시스템은 초기 개별 교파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를 거쳐 〈연합선교협의회〉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Language School》로 발전적 과정을 거치며 근대적 교육 시스템을 갖춰왔고, 이는 다시 해방 이후에 《Korean Language School》을 거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계승되어 현대 한국어교육으로 발전한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측면

가) 선교를 위한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선교라는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 한국어를 교수·학습 하는 것이기에 교육에 종교 관련 텍스트가 활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앞서 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용 중심 접근을 위해 성경, 찬송가, 교회신문, 전도문서 등을 교육에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이러한 종교 관련 텍스트의 활용과 함께 인상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 관련 항목들이다.

〈미감리회〉와 〈북장로회〉의 학습과정, 《Language School》의 커리큘럼 등에서 확인이 되는 한국 문화 관련 항목들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

는 서양인들이 영어로 저술한 한국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는 것, 마지막 하나는 한국어로 된 한국 문화 관련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이다.

먼저 서양인이 저술한 한국에 관한 서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주어졌던 텍스트 중에서 단연 가장 높은 빈도로 가장 오랫동안 선교사들이 읽어야 할 한국에 관한 저술은 『Corea, the Hermit Nation(은둔의 나라, 한국)』이었다. 교파별 선교회의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초기부터 《Language School》 초반부까지 거의 모든 커리큘럼에 읽어야 할 책으로 등장한다. 이 책은 그리피스가 1882년에 쓴 한국 역사서로 서양에서는 한국에 대한 책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1911년까지 9판이 출판될 정도였다.

본문은 3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고대부터 한말까지의 역사, 2부는 지리·제도·사회·풍습 소개, 3부는 한말(韓末) 이후 1906년까지의 근대사로 초판에는 없던 것을 1907년 8판에서 추가한 것이다. 역사 부분에서는 한일관계사와 개항 이후의 국제관계에 비중을 두어 고대한일관계사·임진왜란·청일전쟁·러일전쟁·을사조약·종교관련 기사가 중점을 이룬다. 그런데 항목의 구성과 비중이 적절치 않으며 일본 측 자료에 많이 의존하여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있다. 조선에서 미신과 악습, 전제왕권을 구축(驅逐)하고 서구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본이 동아시아 근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07년 이후 중판(重版)에서는 한국 지배층의 무능 때문에 을사조약을 비롯한 일본의 개혁이 불가피했으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한국을 위한 해방전쟁이었다는 왜곡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일본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19]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책이 한국의 선교사들에게는 마치 필독서처럼 읽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리피스는 선교사였으며, 개신교의 전파로 근대적 인간을 만들 수 있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조선 사람이 개신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생활에서 전면적인 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간의 지식

19)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코리아더허밋네이션' 항목.

을 편협하게 만드는 유교의 굴레 속에서 오랫동안 얽매어 온 조선 사람들에 대한 선교사들에 의한 개신교의 교육이 조선에 만연되어 있는 귀신숭배의 전(全)체제를 무너뜨리고, 양반의 모든 특권과 여성의 노예상태와 저열한 조상숭배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를 바랐다.[20]

그리피스는 이러한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리피스와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 선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그리피스가 저술한 한국에 대한 개론서를 필독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그리피스의 책을 읽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맞는 책을 선택하여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선교사들이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교적 신념이 가장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는 텍스트인 '오륜행실'이 바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한국어 텍스트라는 점이다. '오륜행실'은 〈북장로회〉와 〈미감리회〉의 첫 '학습과정'에서부터 등장하여 《Language School》의 마지막 개정 커리큘럼에까지 거의 한 차례도 빠짐없이 꾸준히 등장하는 교육용 텍스트이다. 《Language School》에서는 이 학교에서 교육적 처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Language School 판'의 '오륜행실'이 사용될 정도로 꾸준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된 텍스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꾸준한 사용의 배경은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애초에 오륜행실의 텍스트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넣어 글을 모르는 이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 정도로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얼마간의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언급한 장점으로 인해 아주 폭넓게 읽힌 텍스트였다는 데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

20) 김수태(2010), "윌리엄 그리피스의 한국 근대사 인식", 『진단학보』 110, 144-147쪽.

한 텍스트를 공유한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한국인과의 거리를 좁히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일은 선교사들이 전도를 위해 성경 속 이야기들을 전할 때 한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유사한 한국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21]

이처럼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선교라는 본질적 목적의 수단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의적 요인과 사회언어적 능력을 견인하여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관여하는 요소라면 이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언어보다는 선교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문자언어 교육으로서의 교육 내용의 구성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자 및 문체 교육의 강화이다. 선교회의 '학습과정'과 연합언어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특히 선교사들의 한자 문식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한자 문식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당시 한국의 언어사용과 문자사용 환경의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

근대전환기와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 환경에 놓여 있던 시기였다. 방언, 속어(俗語)로 불리던 우리말의 명칭이 '국어(國語)'로 바뀌었다가 그 지위를 잃고 '조선어'가 되었고, 일본어가 국어가 되면서 타의적인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 처하게 된다. 문자사용의 경우에는 더 복잡했다. 이전까지 한문, 이두문, 한글이 공존하며 쓰이는 다층적 양상을 보였다면 갑오개혁 이후에는 소수의 지식인 계층이 사용하던 '진서(한자/한문)'와 일부 계층과 부녀자들이 사용하던 '언문[22](한글/조선문)'이라는

21)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사들의 영문 잡지였던 'Korean Repository'와 'The Korea Review', 'Korea Mission Field' 등에 실린 영어로 번역된 한국의 이야기들도 단순한 한국 문화의 이해나 소개가 아닌 전도를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층(重層)의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문자 체계의 위계가 뒤바뀌게 된 것은 조선 정부 최초의 근대화 정책이었던 갑오개혁(1894년)을 통해서이다[23]. 물론 실제 언중의 언어생활에서는 여전히 중층형의 문자사용 양상을 보였으나 이 공식적인 선언을 계기로 교육을 통한 한글의 보급과 함께 순한글체 신문인 「독립신문」(1896년)이 창간되고, 한글로 쓴 신소설 등이 등장하는 등의 한글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글 사용의 확대는 자연스레 조선어의 문자언어(글말) 의식의 성장과 함께 조선어 문장어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갑오개혁의 '공문식'을 통해 공문서에서는 한글의 사용이 공식화되었지만 여전히 입말과 글말의 일치라는 '언문일치(言文一致)'의 본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즉, 개인의 글쓰기에서는 한문의 사용, 한글의 사용과 더불어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도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다.[24]

결국 당시 한국 사회가 순한문체, 순한글체, 국한문혼용체가 공존하는 동시에 계층적이었던 다층적인 문자사용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 한국어 글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순한문체, 순한글체, 국한문혼용체 모두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성경의 번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세 가지 양상의 한국어 글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교육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한자 문식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

22) 흔히 '언문'을 한글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상 '언문'은 중국의 한자, 한문에 대립되는 다른 나라 문자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었다. 조선에서는 '훈민정음'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윤표(2013),『한글 이야기』(1), 태학사, 18-21쪽을 참고할 수 있다.

23) 칙령 제1호 '공문식'에서 공문서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되었다는 것은 한자, 한문을 공식적인 것으로 전제하여 왔던 종래의 정치문화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미쓰이 다카시(2013), 앞의 책, 448쪽.

24) 이러한 언문불일치의 기저에는 '국어'와 '국문'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는 '한글(國文)'이라는 공식적인 선언만으로는 언중의 언어와 문자생활의 획기적인 가치 전환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북장로회〉 1891년 ‘학습과정’
1년차:한자 부수 214자, 한자 200자 배우기
2년차:상용 한자 500자 배우기
(추가사항) 오륜행실의 한자 배우기

〈북장로회〉 1901년 ‘학습과정’
1년차:(추가사항) 한자 200자 배우기
2년차:상용 한자어에 들어 있는 한자의 훈음 배우기
(추가사항) 요한복음 1~3장의 한자 배우기, 흔한 이름의 한자 배우기
3년차:(추가사항)요한복음의 나머지 한자 읽기, 성경 각 권의 이름 한자 배우기
4년차:마가복음 읽기
5년차: 초급문리역본 신약전서를 읽는 능력을 습득할 목적으로 한자 공부하기

〈북장로회〉 1911년 ‘학습과정’
1년차:(선택사항)유학초게 1권의 한자 200자
2년차:(추가사항)유학초게 1, 2권 끝내기
3년차:(추가사항)국한문체 사도행전과 복음서 읽는 것 배우기

〈북장로회〉의 가장 이른 시기의 1891년의 ‘학습과정’에서는 1년차에는 부수자와 함께 200자의 한자를 배우고, 2년차에는 500자를 배워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뒤의 두 차례 개정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한자를 배워야 했고 보다 강제성이 높았다. 이는 시기 상 1894년 공문식을 통해 한글이 ‘국문’이라는 선언적 공표도 있기 전이었기에 언중의 문자사용에서 한글보다는 한자의 사용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습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매 학습과정에서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한문체의 학습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감리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Language School》에서도 1, 2년차에 한자의 학습, 3년차에는 국한문체 학습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Language School》이 시작된 1920년대는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언문일치가 진행된 시기였음에도 1936년 마지막 커리큘럼 개정 시까지 교육내용에 국한문체의 학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신문과 잡지

는 공적인 문자생활에서는 한글이 쓰이고 있었지만 개인의 문자생활에서는 여전히 중층의 문자사용 양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기상 1950년대 이후인《Korean Language School》의 경우는 1년차와 2년차에 선택과목으로 한자의 학습이 있으나 국한문체의 학습은 커리큘럼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이 당시는 표준어 및 표기법의 정비가 끝나 '국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로 언문일치가 언중들의 언어문자 생활에 자리를 잡은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언중들의 문자사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 내용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의미와 한계

1)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당대적 의미와 한계

19세기 후반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기왕에 한반도 주변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역관 양성이라는 동양적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어교육과는 달랐다. 한반도의 동남방에서는 기존의 동양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 면에서는 서양식 문법 체계를 과감히 수용한 한국어 학습서가 출간되었으며, 서북방에서는 서양의 제책(製冊)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제시 방법을 적극 활용한 교재 구성 방식을 취한 학습서가 출간되기도 하며 동서양의 외국어교육 방식이 역동적인 교섭을 이루던 시기였다.[25]

그리고 이러한 역동적인 교섭은 개항과 함께 한반도로 이주 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른 학습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기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 및 정착하기 시작한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 집단과 대륙으로의 진출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을 식민지화 하고자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집단이 바로 이 시기 한국어교육을 주도한 두 집단이었다. 즉, 동일한 시기에 동

25) 강남욱(2009), 앞의 논문, 218-219쪽.

일한 공간에서 상이한 목적과 양상으로 두 방향의 한국어교육이 병존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전개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당대의 의미와 한계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은 같은 시기에 병존하였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과 견주어 보았을 때 가능할 것이다.

가) 교수법과 교육 방식의 발전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에서 본격적인 교실 수업이 시작된 단기집중 강좌인《Language Class》에서는 초급인 1단계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2, 3단계의 경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별한 이점(利點)이 없다면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였다.[26] 다시 말해 '직접교수법'을 한국어교육에 사용한 것이다. 당시 강사진이 모두 선교사들로 한국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교수법을 채용한 것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도, 교육, 의료 등의 선교 사업에서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많았고, 특히 마을을 돌며 전도를 하였던 순회 전도에서는 설교나 전도 등에서 실제적인 필요가 높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직접교수법의 사용은 동시기에 있었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과 비교하면 보다 의미가 있다. 일본은 당시 식민지에서의 일본어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한 직접교수법 방식을 선호하였던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조선어교육은, 특히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조선어교육의 경우 철저하게 일본어를 매개 언어로 하여 실제적인 회화연습 등이 포함되지 않은 번역 위주의 교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인 관리들의 한국어 학습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아닌 '조선어 장려 수당'이라는 외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여 장려 시험을 대비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교실 수업이 아닌 잡지라는 매체를 활용한 통신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한 직접교수

26) 「*KMF*」, 1912년 5월호, p132.

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교파별 선교회 중심의 한국어교육 시기 〈언어위원회〉 주도의 원격 교육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집중 강좌인 《Language Class》를 운영하고, 이를 상설화한 《Language School》과 같은 제도화된 학교(교실)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학습자가 있었음에도 제도화된 학교 교육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들의 한국어교육이 식민지 지역어 교육이었다는 한계도 분명하지만 외국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보다는 지배 강화의 수단,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도구화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비록 '선교'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외국어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교수법과 교육방식의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하겠다.

나) 현대 한국어교육으로의 계승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의 한국어교육은 비록 그 성격이 동등한 외국어로서가 아닌 일개 식민지 지역어로서 교육되었지만 당시 한반도에서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총독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38년 소위 '황민화 정책'으로 인해 당시 '조선어'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 역시 줄어들었으며, 1945년 해방으로 인해 국내에서 일본인의 한국어교육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당시 일본인의 한국어교육이 이렇게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쇠퇴·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후의 한국어교육과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만다.

그러나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교육에 비해 공식적인 성격이 부족하고, 규모면에서도 크지 않았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황민화 정책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되어 잠시 중단되고, 해방 이후 3년간의 전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도 간간히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선교사들의 연합언어학

교인 《Language School》은 해방 이후에는 《Korean Language School》로 재건되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연합언어학교는 다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개설로 이어져왔다. 개신교서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전개 양상에서 나타난 이러한 연속성은 한국에서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교육이 해방과 함께 소멸한 것과는 달리 현대 한국어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계승되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 학습자 집단과 교육 주체의 문제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지닌 한계도 있다.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는 선교사 자신들로 이 학습자 집단이 가지는 특징은 특정한 하나의 직업군의 집단이라는 점, 동일한 학습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는 크나 개인적 욕구에 의한 학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이 소수라는 점 역시 문제가 된다.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와 관련된 근대적 특성은 첫째,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집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특정 학습자군(직업, 계급)에 의한 독점적 교육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 학습자의 자율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수법과 교육 방식의 측면에서 근대적 성격을 확보하며 발전해 왔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한국에서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과 달리 현대 한국어교육을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교육 주체가 지니는 한계도 있었다. 오대환(2009)은 일제 강점기의 〈경성 조선어연구회〉를 중심으로 일본인 관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선어교육이 많은 조선인 교육자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경성 조선어연구회〉라는 단체가 교육의 주체였다기보다는 총독부의 '조선어 장려 정책'이라는 식민지 언어 정책에 종속되어 교육을 수행하며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며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27] 그 결은 조금 다르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이기도 했던 선교사 자신들이었다. 교파별 선교회 한국어교육 시기에는 한국인 개인교사가 있었고, 《Language Class》와 《Language School》에서는 한국인 교원이 일정 부분 수업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은 선교사들이 담당하였고, 교육에 사용되었던 교재 역시 모두 선교사들이 저술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인들의 역할이 수동적인 교육의 보조자로서만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학습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들에 의해 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모어 화자인 한국인이 교육의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 보조자로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이 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2) 현대 한국어교육에서의 시사점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가지는 특수성과 교육의 주체와 학습자 집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어교육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국내 한국어교육의 경향은 두 가자 방향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나 이미 입학하여 수학 중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Korean as a Academic Purpose, KAP)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도입국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Korean as s Second Language, KSL)이다.

가) KAP와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27) 오대환(2009), 앞의 논문, 178쪽.

국내 대학들의 글로벌화 추진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 방안으로 교환 학생 및 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면서 대학 내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28], 어학연수를 위해 대학 부설기관에도 많은 수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재학 중이다.[29] 그러나 충분한 어학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대학교육에서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역량 제고(提高)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학 알리미'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서 '언어능력충족 학생비율'에 대한 전체 평균값을 내어보면 3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217개 대학 중에서 어학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43개 학교, 어학능력충족 정부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 99개 학교나 된다. 학부보다 대학원은 더 심각한데 어학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원이 전국 659개 대학원 중에서 285곳이나 되고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원은 무려 90%가 넘는 594곳에 이른다.[30] 이러한 문제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 부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일부 기관, 그리고 일부의 학습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학습자들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과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점이다.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선교'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28) 경향신문의 "등록금 깎아주고, 어학기준 낮춰주고.. 외국인 유학생에 '헐값'으로 학위장사하는 한국 대학들"이라는 제하의 2017년 10월 30일자 기사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301011001&code=940401)

29)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136,234명이고, 이 중 어학연수생은 40,436명이다. 「통계월보」, 2017년 8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0) 그런데 언어능력충족 기준이라는 것 역시 TOPIK 2급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 수학을 위해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언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한국어 수업과 전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들이 실제로 느끼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것이었듯이 대학과 대학 부설기관을 중심으로 한 근래의 한국어교육 역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특정한 목적에 초점을 둔 특수 목적의 한국어교육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한,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학업을 위한 한국어 사용능력의 향상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어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철저하게 수단화되고 도구화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는 학습자가 처한 상황이다. 국내 대학의 필요, 학습자의 요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근래의 현실은 백여 년 전 개신교 선교사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선교 현장에 나가야 했던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초급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내용 중심 접근'의 교육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유의미한 시사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추세는 최소한의 한국어 구사 능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라는 학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부설 기관의 한국어교육과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보다 강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초급 단계부터 대학 수학을 염두에 둔 내용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의 경우는 가능한 한 현장 투입에 유예기간을 두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Language School》이라는 제도적인 교육기관이 등장하기 전에도 선교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의료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2년 동안은 한국어 학습 이외의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었다.[31] 또한 《Language

31) 물론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북장로회〉와 〈미감리회〉 모두 2년차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선교 업무 및 선교회 내 역할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는 점은 적어도 '2년'이라는 학습 시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School》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에 참석하는 선교사들이 학기 중에는 온전히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배려가 있었다. 즉, 선교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의 한국어 학습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어를 학습하는 시기, 특히 초급 단계에서는 선교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최대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와 학문 분야에서 모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면서 한국어와 전공 수업 모두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32]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게 할 수 없다면 대학교육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한국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한국어 학습 이외에 학업에 대한 조건적인 제약[33]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과거의 경험에서 보여준다.

나) KSL과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34]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의 수도 2017년 4월 기준으로 109,387명에 이른다.[35] 이들 이주 배경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 부진과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36] 이러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32) 내용 중심 교수법이 내용의 획득과 언어의 발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심 한국어교육은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3)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학점에 제약을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4) 이중에서 단기 체류를 제외한 장기 체류는 1,540,306명,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235,697명이다. 「통계월보」, 2017년 8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5) 교육부 교육통계 자료.
36) 국제신문, 5월 22일자 기사.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곧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으로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37]

여성결혼이민자[38]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된 이후부터이다.[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도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은 전국 주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 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체교육과 학습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 기관과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통합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부 상황에 따라 방문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체교육이다.[40]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약 21%,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

---

37) 윤희원(2009),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5-25쪽, 여기에서는 9-13쪽.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로 최현욱·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실천』 10(4),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315-329쪽이 상세하다.

38) 학계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행정상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39) 원순옥·이화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민족연구』 62, 한국민족연구원, 93-119쪽, 여기에서는 94쪽.

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체계,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조항록(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제와 개선 방안 -주요 교육 실시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7-268쪽; 이용승·이화숙(2013),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한국어 교육정책 -이주민 참여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16쪽; 최주열(2015),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67-189쪽.

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약 4.2%에 그치고 있어[41] 실제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한국어교육은 의무적인 참여가 아닌 개인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주된 원인은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42] 한국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 대상인 이주민의 거주 규모나 지역적 분포 등에 나타나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센터가 설치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특히 도시에 거주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센터에서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취업, 가사, 육아 등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간적이고 지리적인 접근성의 결여는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과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 문제를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상보적 운영과 자격을 갖춘 선임자인 시니어 선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 지근거리에서 학습을 도와줄 원어민 개인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들은 현재 여성가족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과거에 비해 매체 발달로 원격교육의 사용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다 유용한 집합교육의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과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43]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은 집합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는 별개

41) 이용승·이화숙(2013), 위의 논문, 293-298쪽.

42) 이용승·이화숙(2013), 위의 논문에서는 교육 접근성 문제 외에도 국내의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이 전체 이주민이 아닌 미래에 '국민'으로 포용 가능성이 있는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 이로 인해 수요자에 따른 처치와 특성의 반영이 미흡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43) 다문화가족 지원포털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portal)에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한국사회 이해'의 일부 과목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의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의 연속성도 연계성도 없기 때문이다.[44]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교육과정 안에서 집합교육의 한국어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멘토링 시스템'과 같이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이들을 선발하여 자신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토대로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45]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4) 다누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 웹사이트는 누리-세종학당, 고려사이버대학교, EBS두리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문화동화 구연, 코리아 타임스 한국어 어학당이다.

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주로 이중언어 교사 요원, 통번역 지원 요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제 5 장 결론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어교육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대상으로 이 시기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여 현대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성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의 2장에서는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고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배경하에 전개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같은 시기에 병존하였던 한국에서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대략적으로 개관하였다.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 전개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서양인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19세 중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가톨릭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와 학습, 그리고 19세기 후반 만주와 일본 등지의 접경지와 개항 초기 한국에 입국하였던 외교관 및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동일한 시기에 병존하였던 한국에서의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은 한일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주도의 식민지 언어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발전, 소멸,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3장에서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단기 집중 강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연합언어학교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 '현대 한국어교육으로의 이행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개신교 선교 초기 '교파별 선교회 중심 한국어교육 시기'는 한국에 가장 이른 시기에 선교회를 설치하고 규모면에서도 가장 컸던 〈북장로회〉와 〈미감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두 선교회는 산하에 선교사들의 언어 교육을 관리하는 하부 조직인 〈언어 위원회〉를 두어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언어 위원회〉에서는 당시 선교사들이 처해 있던 교육 환경의 문제였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과 자질을 갖춘 교사의 부족을 고려하여 지역별 선교지부에 한국어교육 책임자(supervisor)를 두어 지역 신규 및 후임 선교사들에게 주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하고, 한국인 개인교사를 연결시켜 주는 등 전반적인 한국어 학습 상황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 이미 '학습과정'을 수료한 시니어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또 전체 3년 과정의 일종의 학습 가이드라인인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집체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 내용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학습자들이 전문적인 교사가 없이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 '학습과정'은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기도 하였는데 매년 1회 개최되는 연회에서의 이 '학습과정'의 항목들에 대해 지필 및 구술평가를 시행하여 유급 및 승급, 졸업 등의 학사관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및 투표권 등에 제약을 두어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통제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신교의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학습의 수요자였던 선교사 자신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개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의 주도로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평가, 학습자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선교 초기의 한국어교육은 '교실 수업', 교사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수업을 담당할 만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넓은 선교 지역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교육을 위해 한곳에 모이

기가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1910년을 전후하여 한국에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한국어 지식을 가진 교사가 확보되며 '교실 수업'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09년에 시작된 〈북장로회〉에서 시작한 평양에서의 《Language Class》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었으며, 이 평양에서의 《Language Class》의 성공적 개최는 이후 〈미감리회〉와의 협력을 거쳐, 당시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으로 조직된 선교회들 간의 통합 기구였던 〈연합선교협의회〉로 이어져 1914년까지 년 1회 4주간, 주 15시간의 단기 집중 강좌가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Language Class》는 기존의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써 전문적인 언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3~4개 레벨의 수업이 개설되었고, 정해진 수업 시간표에 따라 한국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교사 교사와 많은 경험을 가진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수업의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매일 15분에서 30분의 발음 드릴 연습이 진행되었으며 1단계 수업은 영어로, 2단계와 3단계 수업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장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Language Class》는 교사와 학습자, 교재라는 교육의 3요소와 더불어 수준에 따른 반배치, 교육 내용의 등급화 시도, 교실이라는 공간, 일정한 수업 시간표 등이 마련되어 기존의 교파별 선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어교육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강습회였다는 점과 선교사들의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4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 명확한 교육 목표의 설정도 평가도 없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Language Class》는 이후 선교사들을 위한

연합언어학교인 《Language School》로 변모하여 1920년부터 1936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이 학교는 'school'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에 개설된 강좌가 아닌 학기 간 연속성을 가지고 1년에 두 개 학기 또는 세 개 학기가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3년의 수업 연한으로 개설되었으며,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전용 교과서, 표준화된 지필과 구술평가, 수료증의 발급, 급여를 지급받는 상근 교원 등 근대적인 제도적 교육기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950년을 전후하여 새롭게 등장한 《Korean Language School》의 개설 과정과 이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 교육 내용 등의 검토를 통해 이 학교가 1940년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한 선교사 강제추방으로 중단되었던 《Language School》이 해방 이후 돌아온 선교사들에 의해 재건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Korean Language School》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관계에 관한 여러 문헌의 검토를 통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라는 한국 최초의 현대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의 설립이 《Korean Language School》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대 한국어교육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북장로회〉와 〈미감리회〉로 대표되는 교파별 선교회의 한국어교육에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은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상보적 운영과 내용 중심의 접근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선교를 위한 한국 문화 이해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과 당시의 중층적인 문자생활이 반영된 한자와 문체 교육이 강조된 교육 내용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교파별 선교회의 〈언어 위원회〉부터 시작된 교수법과 교수방식 등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당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습자 측면에서 소수의 특정 집단의 학습자 군이라는 한계와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에도 모어화자인 한국인이 교육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보조자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가지는 특수성과 교육의 주체와 학습자 집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어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연구와 특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전개된 양상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한국어교육사 안에서 발견한 이 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지니는 의미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롭게 나타난 학습자들에 의한 한국어교육이 등장하고 한국에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처음 인지되어 교수·학습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 그리고 이 한국어교육이 비교적 체계적 과정을 거치면 발달하면서 외국어교육으로서의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최초로 형성하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대변되는 현대 한국어교육을 계승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앞서 서론과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개의 한국어교육이 병존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일면만을 통해 이 시기 한국어교육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라는 한 부분과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이라는 다른 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이 시기 한국어교육이 갖는 성격을 제대로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현대 한국어교육 이전 시기의 한국어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교육 형성의 토대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주체와 학습자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는 있으나 당시 서

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이 가진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근대적 성격을 확인하였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로 그 시기를 제한한 점, 동일한 시기에 병존하였던 한국에서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육과의 세밀하고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연구가 지닌 한계라 하겠다. 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제한된 시기에 대한 통시적 연구이기는 하나 이 연구가 이후의 한국어교육사 관련 논의들을 보다 풍부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초 자료>

대한기독교감리회100주년기념사업회(1984), 『朝鮮監理會年會錄』, 대한기독교감리회100주년기념사업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2000), 『조선기독교 연합공의회 회의록(*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영인본』, 서울장신대 소장본.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1986),『*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 영인본』, 한성대학교 소장본.

Annual Meeting of the Fed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1912-1937),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1905-1911),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Annual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1894-1917), 예일 대학교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http://findit.library.yale.edu/).

Korea Mission Archiv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GCAH), Drew University, USA.

Korea Mission Archiv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PHS), Philadelphia, USA.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1903-1939), <http://findit.library.yale.edu>.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1903-1919), 예일 대학교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http://findit.library.yale.edu/).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11),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Rules and by law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1891-1916), 예일 대학교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http://findit.library.yale.edu/).

<국내 논저>

강남욱(2005), 敎材 評價論을 통한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남욱(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로스(Ross. J), 호세코(寶迫繁勝), 게일(Gale. J. S.)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2), 한국학중앙연구원, 193-222쪽.

강병헌·강승혜(2016), “1950년대 국내 한국어교육에서 개신교 선교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어교육 주체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5,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1-26쪽.

강병헌·강승혜(2017), “1950-60년대 학습자가 인식한 한국어교육 환경 연구 -개신교 선교사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3(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6쪽.

강승혜(2003ㄱ).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7쪽.

강승혜(2003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7-60쪽.

강이연(2005), “최초의 한국어 연구: 한-불, 불-한 사전들과 한국어 문법서”, 『프랑스학연구』 31, 프랑스학회, 1-28쪽.

강이연(2008).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 *GRAMMAIRE CORÉENNE*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과 번역학적 의의-”, 『프랑스어문교육』 2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7-35쪽.
고경민(2012),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영진 외(2012),『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서울: 소명출판사.
고영진(2008), “근대 한국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근대국어’의 기점 문제를 중심으로”,『한일 근대어문학 연구의 쟁점(1)』, 제3회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고예진(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수 외(2010),『100년 전의 한국사 : 미래 100년을 위해 과거 100년을 질문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김동환(2012), “언어와 문화와 문학교육의 상호성”,『문학교육학』38, 한국문학교육학회, 37-67쪽.
김두응(1978), “Medhurst의『조선위국자휘』에 대하여”,『국어교육』33, 한국국어교육연구소, 141-152쪽.
金壽泰(2010), “윌리엄 그리피스의 한국 근대사 인식”,『진단학보』 110, 125-156쪽.
김승태 외(1994),『내한 선교사 총람(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양진(2017), “민족어문학과 국어학: 영역과 경계를 중심으로”,『어문논집』79, 민족어문학회, 89-113쪽.
김영명(2009), “찰스 사우어의 생애와 목회 활동 그리고 사상”, 한국교회사학회 117차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김은영(2009), “1831-1886년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여행 보고문”,『프랑스사연구』20, 한국프랑스사학회, 101-130쪽.
김은주(2001),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학문으로서의 미래 조망”,『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3-77쪽.
김인수 역(2009),『제임스 S. 게일 목사의 선교편지』, 쿰란출판사.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한국어교육』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143쪽.

김주필(2009), “諺文字母의 反切的 運用과 反切表의 性格”,『한국학논총』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91-518쪽.

김주필·홍성지(2017), “한국어 교재 Corean Primer (1877)의 특성과 텍스트 형성 배경”,『언어학』78, 한국언어학회, 99-129쪽.

김중섭(2004), “한국어 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한국어교육』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5-92쪽.

김철영(2005),『여명기 민족을 깨운 기독교 출판』, 서울: 이레닷컴.

김칠성(2014), “한국개신교 선교역사의 시작은 언제인가?”,『한국교회사학회지』38, 한국교회사학회, 181-216쪽.

김하수(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이중언어학회 16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김하수(2008), “외국어교육학으로서의 한국어교육학”,『문제로서의 언어 1』,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혜란(2008),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교육관, 한국외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정(2003), “일제 강점기 ‘朝鮮語教育’의 意圖와 性格”,『어학연구』31(3), 서울대 어학연구소, 431-455쪽.

남기심(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회고와 전망”,『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5,26합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쪽.

노명완(1997),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그 탐구 과제”,『한국어학』6, 한국어학회, 35-64쪽.

대한성서공회(1993),『대한성서공회사 1～2』, 서울: 대한성서공회.

류대영(2004),『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2010), “‘언어문제’에서 본 한국 근대사”,『한국학

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41-477쪽.

민현식(2005), “한국어교육학 개관”,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박붕배(1985), “日帝期의 우리 國語(朝鮮語)科敎材分析硏究”, 『논문집』 18, 서울교육대학, 43-107쪽.

박붕배(2002), “대한제국 말기의 국어교육과 일제 시대의 조선어 교육”, 『교육한글』 15, 한글학회, 7-38쪽.

박새암(2015), “근대 한국어 신문 읽기 교재의 내용과 구성-『*NEWSPAPER READING For Beginners*(1939)』에 대하여-”, 『한성어문학』 34, 한성어문학회, 353-385쪽.

박새암(2016ㄱ), “‘근대적 한국어교육 형성기’ 설정의 문제”, 『언어정보와 사회』 29,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1-180쪽.

박새암(2016ㄴ),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연구 -<미감리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3(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9-144쪽.

박새암(2017),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초기 한국어교육 연구”, 『인문과학연구』 35,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8-200쪽.

박영순(2004),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7, 국어교과교육학회, 17-51쪽.

박용규(2003), “칼리지 문제와 서울·평양 미션회 갈등”, 『역사신학 논총』 5,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159-169쪽.

박용규(2013), “한국 성경 번역·출간의 서지학적 연구(1882-1977)”, 『長老敎會와 神學』 10, 한국장로교신학회, 25-47쪽.

박진완(2013), “구한말 일본인에 의한 조선어 교육 방식 연구 -초량어학소(草梁語學所)『복문록(復文錄)』의 분석을 통해-”,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3차 국제학술대회논문집, 343-355쪽.

박진완(2015),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의 조선어 교육방식 연구 -「복

문록(復文錄)」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 2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7-124쪽.

박진완(2016),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 「復文錄」의 성립 과정”, 『한국어학회』 72, 85-119쪽.

백낙천(2017), “어문의 표준화와 성경 번역 전개 양상”, 『동악어문학』 72, 동악어문학회, 9-35쪽.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31쪽.

송 민(1897),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어 연구 과정』,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33-148쪽.

송기중(1993), “近代化 黎明期의 外國語 語彙에 대한 關心”, 『韓國文化』 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7-48쪽.

신명선(2006), “개화기 국어 생활 연구-독립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127-156쪽.

안종철(2011), “아더 베커(Arthur L. Becker)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49-275쪽.

야마다 칸토(山田寬人, 2000), “教育機関에 있어서의 朝鮮語科의 設置와 廢止에 관한 一考察”, 『일본문화학』 9, 한국일본문화학회, 423-435쪽.

양미강(1997),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39-179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한국어학당 50년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오대환(2009),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 연구: ‘조선어 장려 정책’과 ‘경성 조선어연구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대환(2011), “해방 전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조선어교육에 관한 기록의 발굴”,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7-194쪽.

오대환(2012), “*Korean for Beginners*를 통해 본 해방 전의 조선어교육 - 초판본(1925년)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23(3), 국제한국어교육학

회, 159-193쪽.
오대환(2013ㄱ),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조선어교재 ‘일용조선어(EVERY-DAY KOREAN)’에 관한 고찰”,『한국어교육』2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86쪽.
오대환(2013ㄴ), “해방 후의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의 역사적 의미-Korean Language School(1949-1958)-”,『언어와 문화』9(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3-191쪽.
오대환(2014),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조선어교육의 쇠퇴 원인에 대한 고찰”,『언어와 문화』10(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41-166쪽.
오새내(2016),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육에 종사한 조선인 교육자들의 행적에 대한 국어학사적 연구”,『우리어문연구』55. 우리어문학회, 459-486쪽.
오성철(2015), “한국 현대교육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시론”,『교육사학연구』25(2), 교육사학회, 157-184쪽.
오세완(1987), “한국에서의 프랑스 선교사들의 출판·언론활동”,『교회사연구』5, 한국교회사연구학회, 125-131쪽.
옥현진(2010), “국어교육 질적 연구 동향에 대한 일고찰”,『국어교육』132, 한국어교육학회, 249-268쪽.
원순옥·이화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민족연구』62, 한국민족연구원, 93-119쪽.
윤애선(2013), “개화기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고리 맞추기”,『코키토』7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4-162쪽.
윤희원(2009),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34, 국어교육학회, 5-25쪽.
이경해(2011), “파리외방전교회와 조선의 만남”,『人文科學硏究』17,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9-111쪽.
이기문·장소원(2000),『국어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이길원(2013),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의 언어관과 국제교류”,『石堂論叢

』57,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03-170쪽.
이만열(1985),『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만열(2013), “한글어 성경 번역의 초기 역사와 한국 교회”,『長老敎會와 神學』10, 한국장로교신학회, 6-24쪽.
이명희(2003), “明治時代의 朝鮮語學習 -<交隣須知>의 時代的 背景을 中心으로-”,『日語日文學硏究』44, 韓國日語日文學會, 205-227쪽.
이미향(2015), “KFL과 KSL의 학습요인별로 본 한국어 교재의 담화 연구 -1950~1980년 중반의 자료를 대상으로-”,『한국언어문화학』1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79-109쪽.
이민우·김진해(2016), “20세기 초 활자본 고소설의 언어적 근대성 연구”,『한국어학』72, 한국어학회, 55-84쪽.
이복수(2001), “선교와 언어 그리고 언어훈련”,『고신선교』1, 9-38쪽.
이상혁(2009), “‘한국어’ 명칭의 위상 변천과 그 전망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Korean language’명칭 변화를 중심으로-”,『국제어문』46, 국제어문학회, 165-188쪽.
이상혁(2014ㄱ), “근대 학문 형성기 근대 국어의 성격에 대하여”,『아시아문화연구』35,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67-197쪽.
이상혁(2014ㄴ), “근대 한국(조선)의 서양 외래어 유입과 그 역사적 맥락”,『언어와 정보사회』23,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9-187쪽.
이상혁(2016), “근대 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 인식에 대하여”,『한국인물사연구』25, 한국인물사연구소, 185-212쪽.
이상현(2010),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東方學志』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3-278쪽.
이선호·박형우(2012), “19세기 말 미국 북 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대한 연구”,『東方學志』1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75-303쪽.
이선호·박형우(2013),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지침서에 대한 연구”,『신학논단』7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75-303쪽.
이용민(2010),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와 평양 선교지부의 관계”,『한국기독교와 역사』3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5-225쪽.

이용승·이화숙(2013),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한국어 교육정책 -이주민 참여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16쪽.

이은령(2010), “19세기 이중어 사전 『한불자전(1880)』과 『한영자전(1911)』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72, 한국프랑스학회, 63-88쪽.

이은령(2011), “『한어문전』의 문법기술과 품사구분”, 『프랑스학연구』, 56, 프랑스학회, 177-210쪽.

이은령(2012), “『한어문전 *Grammaire Coreenne*』과 19세기 말 문법서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78, 한국프랑스학회, 433-460쪽.

이은령(2016), “한불자전과 현대 한국어문학”,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197-229쪽.

이은희(1996), “교재의 텍스트적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6, 국어교육학회, 36-80쪽.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1-141쪽.

이응호(1980), “모리슨 목사의 The Corean Syllabary에 대하여”, 『국어교육』 37, 한국어교육학회, 161-183쪽.

이응호(1982), “19세기 중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 『明大論文集』 13(1), 명지대학교, 7-62쪽.

이응호(1983), “Hoffmann의 「천자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1,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3-82쪽.

이지영(2003),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변천”, 『국어교육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69-410쪽.

이지영(2004),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03-541쪽.

이지영(2005), “교재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정 광(1990), “중국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169-181쪽.

정 광(解)(1981), 『朝鮮衛國字彙』, 서울: 홍문각.

정근식(2007), “구한말 조선어 교육과 일본인 통역 경찰의 형성”,『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7-55쪽.

정명규(1984), “일제의 조선어교육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배달말교육』2(1), 배달말교육학회, 97-124쪽.

정승혜(2005), “日本에서의 韓語(朝鮮語)教育과 教材에 관한 概觀”, 국제학술대회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 발표요지, 東京: 朝鮮語研究會.

정승혜(2006ㄱ), “대마도에서의 한어(韓語) 교육”,『語文研究』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58쪽.

정승혜(2006ㄴ), “일본에서의 한어(韓語) 교육과 교재에 대한 개관”,『이중언어학』30, 이중언어학회, 335-353쪽.

정승혜(2008), “小倉文庫 所藏 나카무라쇼지로 資料의 國語學的 考察”,『일본문화연구』26, 동아시아일본학회, 101-130쪽.

정승혜(2015), “조선후기 조일(朝日) 양국(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한국실학연구』29, 한국실학학회, 81-117쪽.

정연희(2013), 원격교육논의의 ‘교육’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인성(1999), “초중등학교에서의 원격교육 도입 전략 탐구”,『교육공학연구』15(1), 한국교육공학회, 355-373쪽.

정인성(2007),『원격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정효운(2007), “한국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와 대마도 -대마도의 역할과 한·일 양국의 인식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학회, 335-368쪽.

조숙자(1995), “한국 최초의 개신교 통일찬송가 「찬숑가」(1908) 연구”,『教會와 神學』27, 장로회신학대학교, 652-675쪽.

조항록(2005ㄱ),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방법론 소고”,『한국언어문화학』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65-281쪽.

조항록(2005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한국어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조항록(2010),『한국어 교육정책론』, 서울: 한국문화사.

조항록(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제와 개선 방안 -주요 교육 실시 체계를 중심으로-”,『한국어 교육』2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7-268쪽.

조현범(2015),『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차하순 외(1995), 韓國史時代區分論, 서울: 소화.

최경봉(2011), “근대국어 연구의 특수성과 방법론”,『언어사실과 관점』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36쪽.

최영철·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개항 이후 학제 도입부터 통감시대까지”,『語文論集』57, 중앙어문학회, 453-477쪽.

최주열(2015),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한국언어문화학』1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67-189쪽.

최현욱·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론과 실천』10(4),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315-329쪽.

하강진(2016), “표제어 대역 한자어의 탄생과『한불자전』의 가치”,『코기토』8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07-143쪽.

한국기독교역사학회(2011),『한국 기독교의 역사1』, 서울: 기독교문사.

한영균(2015), “『朝鮮偉國字彙』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코기토』7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3-135쪽.

허재영(2004ㄱ),『(월간잡지) 朝鮮語1~6』(영인본), 역락.

허재영(2004ㄴ),『朝鮮文 朝鮮語 講議錄(上~下)』(영인본), 역락.

허재영(2007ㄱ),『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해와 탐색』, 보고사.

허재영(2007ㄴ),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한말연구』20, 한말연구학회, 293-316쪽.

허재영(2008),『우리말 연구와 문법 교육의 역사』, 보고사.
허재영(2010),『근대 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 교육』, 보고사.
허재영(2011ㄱ),『일제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 경진.
허재영(2011ㄴ),『일본어 보급 및 조선어 정책 자료』, 경진.
허재영(2012), “한국어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 교린수지(交隣須知)와 사과지남(辭課指南) 비교 연구”,『한말연구』31, 한말연구학회, 361-383쪽.
허지은(2008), “쓰시마 조선어 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한일관계사연구』29, 한일관계사학회, 123-170쪽.
홍양희(2015), “식민지 초기 교육 담론과 ‘동화주의’”,『한일관계사연구』50, 한일관계사학회, 253-285쪽.
홍윤표(2013),『한글 이야기 1, 2』, 태학사.
홍종선(2009), “20세기 국어 문법의 통시적 변화”,『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35-61쪽.
황백현(2010), 對馬島의 韓語學習에 관한 硏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사윤(2015),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학』12(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21-244쪽.
황호덕(2016), “사전과 번역과 현대 한국어문학, 고유한 근대 지성의 출현과 전파 번역의 황혼-이광수, 제임스 게일, 월리엄 커의 근대 한국(어)관, *The Korea Bookman*을 중심으로-”,『반교어문연구』42, 반교어문학회, 13-45쪽.
Natalia, Noskova(2013),『시험적인 노-한 사전』(1874)과『시험적인 노-한 소사전』(1904)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외 논저>

Allen D. Clark(1965), *Korean Grammar for Language Students*,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A. Baird(1903),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영국 국립 도서관 소장본)

A. Cohen(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London: Longman.

C. A. Sauer(1957), *How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School.

C. Dallet(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안응렬·최석우 역주(1979, 1980),『한국천주교회사』상·중하, 경북: 분도출판사.

C. Goodrich(1906), *Hints concerning the study of language on missionary soil, the call, qualification and preparation of candidates from foreign missionary service*,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C.D. Stoke(1947), *History of Methodist missions in Korea, 1885~1930*, 장지철·김흥수 역(2010),『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H.G. Underwood(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韓英文法). Yokohama: Kelly & Walsh.(역문2-11)

H.G. Underwood(1908), *The call of Korea,* 이광린 역(1997),『韓國改新敎受容史』, 서울: 一潮閣.

H.H. Stern(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심영택 외 역(1995),『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하우.

Harry A. Rhodes & Archibald Campbell(1984),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Harry A. Rhodes(1934),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1*, 1, 최재건 역(2010),『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1884-193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L.H. Underwood(1908),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김철 역(2008),『

Underwood 부인의 조선견문록』, 서울: 이숲.

P. Cyr(1998), *Didactique des langue étrangères Les Stratégies d'apprentissage*, 한상헌·윤미경 역(2011),『외국어 학습 전략』, 서울: 만남.

R. Oxford(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bury House/Haper Collins, NY.

R.E. Speer(1897), *Report on the Mission in Korea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PCUSA.

W.E. Griffis(1912),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이만열 역(2015),『아펜젤러,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 서울: IVP.

李省展(2007),『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 교육: 미션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역,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三ツ井崇(2003),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語支配の構造: 朝鮮語規範化問題を中心に, 임경화·고영진 역(2003),『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사.

부 록

[부록 1] : 〈북장로회〉 한국어 '학습과정'

1) 189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 Read carefully Underwood's Grammatical Notes. - Learn sentences of first four chapters in PartⅡ. of Underwood's Introduction, or all the exercises of Scott's Manual, or combine the two in proportion. - Read and translate the Gospel of Mark, with careful analysis of the first eight chapters, noticing structure of sentences, meaning of words, and their relation one to another. - Read and translate Korean part of first two volumes of "O Ryun Haing Sil." - Learn the 214 Chinese Radicals and two-hundred characters. - * Elective : Korean part of Mencius
2nd Year	- Study carefully Grammatical Notes of first year's course; Learn sentences of chapter 5-10 of Underwood's Introduction. - Read and translate, analyzing structure of sentences, the remaining volumes of "O Ryun Haing Sil." - Read and analyze the remaining chapters of the Gospel of Mark and the Gospel of Matthew. - Translate an English tract assigned by examining committee. - Learn 500 common Chinese characters. - * Elective : Read Lon-E of Confucius, Grammaire Coreene with reading of stories in the same. Learn Chinese characters in O Ryun Haing Sil while reading the Korean.
3rd Year	- The course of study for the third year is to be laid out for each individual missionary by the examining committee at the close of the second year.

2) 190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Daily practice in talking Korean. 2. Mrs. Baird's *Fifty Helps*. 3. Study all the exercises in Scott's *Manual*. 4. Read carefully Underwood's *Grammatical Notes*. 5. Study sentences of first four chapters in PartⅡ of Underwood's *Introduction*, noting especially the divisions of each chapter. 6. Read and analyze the first sixteen Korean exercises in the *Grammaire Coreenne*. 7. Frequent practices in writing Korean with a view to both proper writing and spelling. 8. Learn the specific classifiers given on pages 56 to 59 of Underwood's *Introduction*.

	9. Study forms of address to the Deity. 10. Study carefully, with a view to thorough mastery, twenty-five verbal endings as explained in Gale's *Grammatical Forms*. 11. Read and translate the first chapter of the Gospel of Mark. 12. Read a Christian tract. 13. Learn the various forms of introduction and salutation. 14. Commit ten conversations. 15. Commit the Lord's Prayer. *Nevius' Methods of Mission Work* Read Griffis's *Korea – the Hermit Nation*. *Optional* – Learn 200 Chinese characters.
2nd Year	1. Daily practice in speaking Korean. 2. Review the first year's course of study. 3. Study sentences of chapters 5-10 of Underwood's *Introduction*. 4. Read and translate, analyzing structure of sentences the first volume of *O Ryun Haing Sil*. 5. Read and analyze exercises 17-33 in the *Grammaire Coreenne*. 6. Study carefully with view to thorough mastery, twenty-five verbal endings as explained in Gale's *Grammatical Forms*. 7. Commit five prayers. 8. Commit twenty verses of Scripture. 9.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its provinces, capitals, chief cities, mountains, rivers, islands, etc. 10. Read two christian tracts. 11. Commit the list of common verbs on page 185 of Underwood's *Introduction*. 12. Commit the list of words on pages 89, 90, 91 of Gale's *Grammatical Forms*. 13. Finish reading Mark's Gospel. 14. Learn the names of such chinese characters as enter into commonly used Sinico-Korean words. 15. Daily practice of reading Korean aloud and of writing Unmun. *Optional* – Learn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first three chapters of the Gospel of John: learn the Chinese characters in ordinary names.
3rd Year	1. Daily practice in speaking Korean. 2. Review the second year's course of study. 3. Running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spoken Korean. 4. Study carefully twenty-five verbal endings. 5. Read Matthew, Luke, John, and Acts. 6. Read five christian tracts. 7. Commit five paragraph addresses useful in presenting the Gospel. 8. Commit thirty verses of Scripture. 9. Frequent practice in Korean composition.

	10. Learn forms of letter writing. Read carefully the articles on your own department of work contained in *London Conference Reports*, 1888, and *Shanghai Conference Reports*, 1890. *Optional* – Read the remainder of the Chinese of John's Gospel: learn the Chinese characters of the names of the books of the Bible.
4th Year	1. Daily practice in speaking Korean. 2. Review the third year's course of study. 3. Prepare a tract on a subject assigned by the committee. 4. Study carefully from page 174 to page 184 of Underwood's *Introduction*. 5. Commit thirty verses of Scripture. 6. Study carefully, with a view to thorough mastery, twenty-five endings, as explained in Gale's *Grammatical Forms*. 7. Study carefully Gale's *Grammatical Forms*. 8. Re-read Scott's *Manual*, Underwood's *Introduction*, and the stories in the *Grammaire Coreenne*. 9. Frequent practice in Korean composition. 10. Learn to read and write the grass character. 11. Read critically the Mission hymn book. 12. Read one of the Korean classics. Read Carpenter's *Self-support in Bassein*. Chinese: read the Gospel of Mark.
5th Year	1. Daily practice in speaking Korean. 2. Review the course of study laid down for the first, second, third, fourth years. 3. Commit one verse of Scripture a week. 4. Study the history of Korea. 5. Study Korean ballads with a view to meter and poetical form. 6. Read a Korean novel. 7. Study of Korean relationship in detail. 8. Read the *Doctrine of the Mean*. 9. Make a special study of Korean Buddhism, sprit worship, and other native cults, with a special view to the acquiring of psychological and religious terms. Read Lawrence's *Missions in the Orient*. Read special books on eastern religions. Study of Chinese, with a view to acquiring facility in reading the Easy Wenli New Testament.

GENERAL SUGGESTIONS.

1. Carry a note book in which to put down new words and phrases. Study this book.
2. Learn whole sentences rather than individual words.
3. Learn to talk idiomatically, without translating in your mind from English.
4. Improve every opportunity to listen, and make opportunities to talk.

3) 191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st Period	1. Daily practice in reading Korean aloud, paying especial attention to aspirated consonants and euphonic changes. 2. Study first the pages of 초학언문. 3. Study first half of Mrs. Baird's "Fifty Helps." 4. Study Scott's Manual, pages 18 to 33; 71 to 76, and 162 to 172. 5. Study Underwood's Introduction pages 23 to 53, and 72 to 86. 6. Daily practice in writing the Korean character.
	2nd Period	1. Daily practice in talking, writing and reading Korean. 2. Study Scott's Manual pages 34 to 45, 52 to 71, 76 to 93, and 173 to 200. 3. Study second half of Mrs. Baird's "Fifty Helps." 4. Study Underwood's Introduction pages 54 to 71, and 87 to 141. 5. Finish 초학언문. 6. Read and translate the first chapter of the Gospel of Mark. 7. Commit the Load's Prayer.
	3rd Period	1. Daily practice in talking and writing Korean. 2. Study the remainder of Scott's Manual. 3. Finish first part of Underwood's Introduction. 4. Read and translate Mark ch. 2-4. 5. Read 턴로지귀, memorizing the Ten Commandments as therein contained. 6. Study forms of address to the Deity and learn ten prayer sentences. 7. Learn the various forms of introduction and salutation. 8. Master the following verbal endings and connectives: ᄒᆞ오, ᄒᆞᆫ다, ᄒᆞ다, ᄒᆞᄂᆞ냐, ᄒᆞ엿다, ᄒᆞ겟다, ᄒᆞ겟ᄂᆞ냐, ᄒᆞ자, ᄒᆞᆸ셰다, ᄒᆞ쇼셔, 이오, 일다, 이냐, 잇소, 잇다, ᄒᆞᆷ니다, ᄒᆞᆷ닛가, 이올세다, ᄒᆞ고, ᄒᆞ니가, ᄒᆞ면, ᄒᆞᆯ지라도, ᄒᆞ니, ᄒᆞ여, ᄒᆞ여야, ᄒᆞᆯ, ᄒᆞᆫ, ᄒᆞᄂᆞᆫ, ᄒᆞ나, ᄒᆞ여도. 9. Read and translate selections from the 교회통신 in the Christian News. 10. Write and memorize, after corrections, 100 original sentences in Korean. 11. Chinese (Optional) First 200 Characters in Volume One 유학초게.
2nd Year		1. Read and analyze at least one column a week in the 교회통신 of the christian News. 2. Study 20 selected hymns of the Mission Hymn Book. 3. Finish reading the Gospel of Mark. 4. Commit five prayers. Suggested, the prayers in 원입교인규죠 pages 5 to 8. 5.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6. Read two Christian tracts. Suggested 구세진쥬 and 쟝원량우샹론. 7. Study carefully with a view to thorough mastery the following verbal endings and connectives: 슴니다, ᄒᆞ여오, ᄒᆞ지오, ᄒᆞ네, ᄒᆞᄂᆞ니라, ᄒᆞ리다, ᄒᆞ릿가, ᄒᆞ올셰다, ᄒᆞ회다, ᄒᆞ오닛가, 이오닛가, ᄒᆞᆸ시오, ᄒᆞ리라, ᄒᆞ니라, ᄒᆞ도다, ᄒᆞ노라, ᄒᆞ러, ᄒᆞᄂᆞᆫ지,

	ᄒᆞ거든, ᄒᆞᆫ즉, ᄒᆞᄂᆞᆫ디, ᄒᆞ던지, ᄒᆞ넌거, ᄒᆞ면셔, ᄒᆞ매, ᄒᆞᆫ디, ᄒᆞ거늘, ᄒᆞ기에, ᄒᆞ거니와, ᄒᆞ엿다가. 9. Write an original composition in Korean of not less than 200words 10. Learn to make short Gospel talks. 11. Memorize 25 selected verses of Scripture and Apostles Creed. 12. Chinese (Optional). Finish volumes One and Two 유학초게.
3rd Year	1. Practice running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Bible into spoken Korean. 2. Finish reading the Gospels and Acts. 3. Read a page a week in the Christian News. 4. Read 셩경문답 and 셩경도셜. 5. Frequent practice in Korean composition, especially letter writing. 6. Lear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entering into the Sinico-Korean word in pages 1 to 26 of 쟝원량우샹론. 7. Memorize 25 verses of Scripture. 8. Study Korean family relationships in detail. See Geneological table in French Grammar. 9. Complete the study of Gale's Grammatical Forms. 10. Chinese (Optional). Learn to read the Gospels and Acts in Mixed Script.

[부록 2] : 〈미감리회〉 한국어 '학습과정'

1) 1893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st Quarter	One half of Underwood's Instruction Part Ⅰ. Fifty selected sentences memoried.
	2nd Quarter	Reminder of Underwood's Instruction Part Ⅰ. One hundred selected sentences memorized.
	3rd Quarter	To be committed to memory: The Lord's Prayer The Ten Commandments ⇒ version by Dr. Scranton. The Apostle's Creed One hundred and fifty selected sentences memorized. TO BE READ, 셩경문답 (Mrs M. F. Scranton) The student will be expected to write the Lord's Prayer in Öm-mun, at the examination.
	4th Quarter	To be read and analyzed – the first five chapters of John. TO BE READ, 미이미교회문답 (G. H. Jones)
2nd Year	1st Quarter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One sentence from each of the main topics to be studied, and rendered into Korean. TO BE READ, 쟝원량우샹론 (S. A. Moffett)
	2nd Quarter	Chapter's Ⅵ-Ⅹ of John, to be read and analyzed. To be learned in Chinese character-the numerals and the names of the books of the Bible. TO BE READ, 진도입문문답 (F. Ohlinger)
	3rd Quarter	The remainder of John to be read and analyzed. TO BE READ, 미이미교회강례 / 묘축문답 (H. G. Appenzeller)
	4th Quarter	One half of John Ⅰ in Chinese, and Korean correspondence forms. TO BE READ, 구약공부(G .H. Jones) / 훈ᄋᆞ진언(Mrs. M. F. Scranton) At the end of the second year the student will be expected to be able, or to have already preached a sermon in Korean without notes.
3rd Year	1st Quarter	Balance of John Ⅰ and Vocabulary on relationship. TO BE READ, ᄉᆞ민필지 (H. B. Hulbert)
	2nd Quarter	Genesis chaps. Ⅰ and Ⅱ, and Vocabulary on Korean titles.
	3rd Quarter	Read 오륜힝실, First two vols.

	4th Quarter	Genesis, chaps. Ⅲ and Ⅳ in Chinese. John, chaps. Ⅱ and Ⅲ in Chinese. TO BE READ, 수복음메합서 (W. B. Scranton)

2) 1896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2. The Noun in its simple forms. 3. The Personal pronouns. 4. The Simple, Indic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Forms in the present, past, and future. 5. Simple adjectives and adverbs. 6. Forms of salutations and dismissals. 7. Counting 8. Money 9. Simple subordinate forms of the verb such as temporal, conditional, etc. 10. (a) Ten conversations to be committed.(conversations to be furnished). (b) To be *Committed* {Lord's Prayer / Apostle's Creed} To be *Read* {Methodist Catechism / First five chapters of John}
2nd Year	1. The Complex forms of noun endings. 2. Pronouns, demonstrative, indefinite, reflexive &c. &c. 3. The compound tenses of the verb and the imperfect. 4. The verbal noun. 5. Noun classifiers. 6. Desiderative, hortatory, exclamative, dubitative and promissory forms of the verb. 7. Complimentary terms for the second and third personal pronouns. 8. The Chinese numerals. 9. Twenty conversations to be committed. Complete the study of M. E. Catechism, the remainder of John and Mark. To be *Committed* = {The Ten Commandments. To be *Read* {셩경도셜 / 묘축문답}
3rd Year	1. Involved sentences and continuative particles. 2. Prayer forms.

	3. The verb in its peculiar forms as interruptive, hypothetical &c. 4. Euphonic peculiarities. 5. Ellison and its laws. 6. Idioms. 7. Literary forms. 8. A general review. 9. Extempore conversation. The candidate will be supposed to have acquired a vocabulary of 2000 words which he (or she) can use as occasion demands. To be *studied*, Matthew, Luke, Acts and Methodist ritual. To Temple Keeper completed, analyzed &c. To be *read*. 오륜힝실(1. vol.)

3) 1898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ire. (The latter to be thoroughly drilled under Korean teacher.) 2. The Noun in its simple forms with post positions. (See Scott's Manual, Underwood's Grammar.) 3. The Personal pronouns. (See Underwood's Grammar. 60-66 inclusive.) 4. The Verb: a. The Simple, Indic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of present, past, and future in high and middle form. (See Gale 1-36) b. Simple subordinate forms. See Gale 88-92. c. Participial forms. (See Gale 120-124.) Underwood's Grammar 150-154. d. Adjective, adverbial and substantive forms. See Underwood's Grammar. 5. Salutation and dismissals (Consult teacher.) 6.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7. Euphonic peculiarities. See Scott and Underwood. 8. Sentences in Scott's Manual up to page 200, and adverbs according to Scott. 9. To be committed – The Lord's Prayer and Apostle's Creed. 10. To be read and studied first eight chapters of Matthew.

	11. To be read, Methodist Catechism. Books recommended: - Mrs. Baird, Fifty Helps; Scott's Manual; Underwood's Grammar; Gale's Grammatical Forms; Gale's Dictionary, and French Grammar and Dictionary. Perfect freedom in consulting and member of the examining committee is urged.
2nd Year	1. Connective Particles. See Gale. 2. Pronouns – demonstrative as – 그; 이; 뎌. Reflexive as 스ᄉᆞ로. Collective as 모도. Intensive as 바. Distributive as 각. Reciprocal as 셔로. Interrogative or Indefinite as 누가; 엇던. 3. Compound tenses of the verb, as ᄒᆞ엿겟소; ᄒᆞ엿셧겟소; ᄒᆞ더라; ᄒᆞ엿더라; ᄒᆞ엿겟더라; ᄒᆞ노라 etc. 4. Desiderative as ᄒᆞ고져ᄒᆞ오. Hortatory as 홉세다. Exclamative as ᄒᆞ난고나. Dubitative as 홀넌지. Promissory as ᄒᆞ마. Petitionary as ᄒᆞ쇼소. See Gale's Forms. 5. Noun classifiers. See Underwood's Grammar, 77 and others. 6. Complimentary terms for the 2nd and 3rd person. Consult teacher. 7. Completion of sentences in Scott's Manual and extemporary conversations. 8. Remainder of Gospels and Methodist Catechism to be studied and names of the books on the bible to be learned. 9. Ten Commandments to be committed. 10. To be read - 셩경도셜 and 묘축문답.
3rd Year	1. Involved sentences and continuative particles. 2. Complex forms of noun ending as 의께로 etc. 3. Completion of all verbal forms according to Gale's Grammar Forms. 4. Ellison and its laws. See Gale 136. 5. Idioms and proverbs. Consult teacher.

	6. Literary forms. See Gale 7. General review. 8. Ability to pray in public and to preach or address a congregation. 9. To be studied – Acts – Epistles – Methodist Ritual and completely analyze 묘축문답. 10. To be read 오륜힝실 – all five volumes.

4) 1899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ire. (The latter to be thoroughly drilled under Korean teacher.) 2. The Noun in its simple forms with post positions. (See Scott's Manual, Underwood's Grammar.) 3. The Personal pronouns. (See Underwood's Grammar. 60-66 inclusive.) 4. The Verb: a. The Simple, Indic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of present, past, and future in high and middle form. (See Gale 1-36) b. Simple subordinate forms. See Gale 88-92. c. Participial forms. (See Gale 120-124.) Underwood's Grammar 150-154. d. Adjective, adverbial and substantive forms. See Underwood's Grammar. 5. Salutation and dismissals (Consult teacher.) 6.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7. Euphonic peculiarities. See Scott and Underwood. 8. Sentences in Scott's Manual up to page 200, and adverbs according to Scott. 9. To be committed – The Lord's Prayer and Apostle's Creed. 10. To be read and studied first eight chapters of Matthew. 11. To be read, Methodist Catechism. Books recommended: - Mrs. Baird, Fifty Helps; Scott's Manual; Underwood's Grammar; Gale's Grammatical Forms; Gale's Dictionary, and French Grammar and Dictionary. Perfect freedom in consulting and member of the examining committee is urged.

2nd Year	1. Connective Particles. See Gale. 2. Pronouns – demonstrative as – 그; 이; 뎌. Reflexive as 스스로. Collective as 모도. Intensive as 바. Distributive as 각. Reciprocal as 셔로. Interrogative or Indefinite as 누가; 엇던. 3. Compound tenses of the verb, as ᄒᆞ엿겟소; ᄒᆞ엿셧겟소; ᄒᆞ더라; ᄒᆞ엿더라; ᄒᆞ엿겟더라; ᄒᆞ노라 etc. 4. Desiderative as ᄒᆞ고져ᄒᆞ오. Hortatory as 홈세다. Exclamative as ᄒᆞ난고나. Dubitative as 홀넌지. Promissory as ᄒᆞ마. Petitionary as ᄒᆞ쇼소. See Gale's Forms. 5. Noun classifiers. See Underwood's Grammar, 77 and others. 6. Complimentary terms for the 2nd and 3rd person. Consult teacher. 7. Completion of sentences in Scott's Manual and extemporary conversations. 8. Remainder of Gospels and Methodist Catechism to be studied and names of the books on the bible to be learned. 9. Ten Commandments to be committed. 10. To be read - 셩경도셜 and 묘축문답.
3rd Year	1. Involved sentences and continuative particles. 2. Complex forms of noun ending as 의게로 etc. 3. Completion of all verbal forms according to Gale's Grammar Forms. 4. Ellison and its laws. See Gale 136. 5. Idioms and proverbs. Consult teacher. 6. Literary forms. See Gale 7. General review. 8. Ability to pray in public and to preach or address a congregation. 9. To be studied – Acts – Epistles – Methodist Ritual and completely analyze 묘축문답. 10. To be read 오륜힝실 – all five volumes.

5) 1902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⑴ The Alphabet and Syllabary. ⑵ “Fifty Helps”, by Mrs. Baird. ⑶ Scott’s Manual, Pgs. 18-160. ⑷ Underwood’s Introduction, Pgs. 1-86. ⑸ Gale’s “Korean Grammatical Forms”, Pgs. 1-36. ⑹ Three Hundred Sentences in Korean. Selected by student. ⑺ Study of Korean Salutations and Dismissals. ⑻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the Counting of Money. ⑼ Euphonic changes. ⑽ Read and Analyze Chapters 1-8 Gospel of Matthew. ⑾ Memorize the Lord’s Prayer and the Apostles’ Creed. ⑿ Memorize 10 verses of Scripture in Korean. ⒀ Practice reading in the Hymn-book. COLLATERAL READING. “Korean Sketches”, by Rev. J. S. Gale. Life of Wm. James Hall, M. D., by Mrs. Hall.
	EXPLANATIONS AND SUGGESTIONS. ⑴ The student should practice writing the alphabet and drill in sth syllabary thoroughly under the guidance of the teacher. A knowledge of the original sounds of the syllables will thus be obtained and prepare the way for the study of the euphonic changes. In this connection Scott’s Manual pages 1-17 will be found helpful. ⑵ The work laid down in Scott, Underwood and Gale in Nos. 3, 4 and 5 above carries the student over the theoretical part of Korean Grammar. It is not expected that the student will master each one of these text-books but that he will through them become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⑶ The Three Hundred Sentence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by the student with a translation in English attached. This should be handed to the Committee at the time of the examination. They should be

	written, one-half of them in literary and one-half of them in colloquial form. The student is as liberty to select them from any of the study Manual, or to compose them himself. A union of both these methods will be found helpful. (4) The study of Euphonic changes is of much importance in the study of Korean. Thorough and continuous drill on these during the first year will simplify the after work of the student.
2nd Year	(1) Gale's "Grammatical Forms", Pgs. 37-92. (2) Underwood's "Introduction", Pgs, 87-211. (3) Three Hundred Sentences, selected by the student. (4) Read and analyze chapters 9-28 Gospel of Matthew. (5)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6) Study the following Tracts: - Conversations with the Temple Keeper. Leading the Family in the Right Way. (7) Study petitionary and prayer forms. (8) Learn the etymology of 100 Sinico-Korean words. (9) Memorize 20 verses of Scripture. (10) Study in the Ritual. (11) To be read: - M. E. Church Catechism. Bible Story Book COLLATERAL READING. "C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EXPLANATIONS AND SUGGESTIONS. (1) The grammatical work for the second year takes the student into a thorough study of the Korean verb. As the main Korean verb in 호다 has about 800 different inflections it will be no small task to be come familiar with it. The "Gramaire Coreene" of the French Mission will be found helpful by student in the second year. (2) The same rule will govern the Three Hundred Sentences in the second year that held in the first year. See suggestion 3 under first year. (3) In the study of the geography of Korea the student is expected to

	become familiar with the names and location of the provinces and principal cities, rivers, mountains and five of the largest islands of Korea. (4) In the study of the Ritual the Forms for Baptism,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and Reception of Members and Probationers will be required. (5) The 100 Sinico-Korean words for study etymologically will be furnished on application to any member of the Committee on Examination.
3rd Year	(1)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Pgs. Ⅰ-ⅩⅩⅠ. (2) Review Grammatical parts. Gale and Underwood. (3) Critical study of sentences in Gale's Forms, Pgs. 95-249. (4) Analytical study of Epistle to the Roman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Translation at sight from the following: - Gospel of John. Book of the Acts. Epistle to the Hebrews. (7) Study in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8) Sinico-Korean Phrases. etc., furnished by Committee. (9) Practice during the year in extemporaneous prayer. (10) Practice during the year in extemporaneous speaking. (11) To be read: - 신학월보 for the current year. The Two Friends. Pilgrim's progress. The Story of Hong Kil-dong. (12)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in Korea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to be decided on in consultation with the teacher during the year. COLLATERAL READING. "Chinese Sketche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Mrs. Bishop.
	SUGGESTIONS AND EXPLANATIONS. (1) The introductory matter in Scott's Manual will give the student a

	very good idea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 and enable connection the articles in the Korean Repository on various phrases of the language will be found helpful. ⑵ In the study of forms of letter writing there is a Manual of Letter Writing issued by the Koreans which will be most helpful. Its name is 간독. ⑶ In the study of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the student is necessarily thrown on his own investigations. During the year notes might be made on such idiomatic forms as the student finds in the course of his study. ⑷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can be carried on in the local prayer and church services.

6) 1904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Pgs. 18-160. 4. Underwood's Grammar, Part Ⅰ. 5. "Fifty Helps", by Mrs. Baird. 6. Thorough and continuous drill in euphonic changes. 7. Three hundred original sentences in Korean with translations. 8. Thorough study and constant practice of Korean salutations and dismissals. 9. Translation at sight Chapters 1-8 Gospel of Matthew. 10. Memorize the Lord's Prayer, Apostles' Creed, and the Ten Commandments. 11. Intelligent reading of the 찬미가. 12. Three Ritualistic forms of the Discipline, Baptism, Probationers, Full Membership. 13. To be read : - 복음요ᄉᆞ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Life of Wm. James Hall", by Mrs. Hall.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gs. 1-92.

	3. Analyze the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7. To be studied : - 미이미교회문답 셩경도셜 The remaining four important ritualistic forms in Discipline. 8. Stud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Memorize and be able to write 20 verses of Scripture. 10.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묘츅문답 인가귀도 Collateral Reading "C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Pgs. Ⅰ-ⅩⅪ. 2. Review, grammatical parts Gale and Underwood. 3. Critical study of sentences in Gale Pgs. 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Gospel of John, Book of Acts,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 - 신학월보(for the current year), 쟝원량우샹론, 텬로력뎡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Collateral Reading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e Bird Bishop.

7) 1906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Pgs. 18-160. 4. Underwood's Grammar, Part Ⅰ. 5. "Fifty Helps", by Mrs. Baird. 6. Thorough and continuous drill in euphonic changes. 7. Three hundred original sentences in Korean with translations. 8. Thorough study and constant practice of Korean salutations and dismissals. 9. Translation at sight Chapters 1-8 Gospel of Matthew. 10. Memorize the Lord's Prayer, Apostles' Creed, and the Ten Commandments. 11. Intelligent reading of the 찬미가. 12. Three Ritualistic forms of the Discipline, Baptism, Probationers, Full Membership. 13. To be read : - 복음요ᄉᆞ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Life of Wm. James Hall", by Mrs. Hall. 14. Learn to read 50 Chinese characters.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gs. 1-92. 3. Analyze the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e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 - 미이미교회문답 셩경도셜 The remaining four important ritualistic forms in Discipline. 8. Stud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Memorize and be able to write 20 verses of Scripture. 10.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묘츅문답

	인가귀도 11. Learn to recognize the Chinese Radicals and Learn 500 Chinese characters. Collateral Reading "C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Pgs. Ⅰ-ⅩⅪ. 2. Review, grammatical parts Gale and Underwood. 3. Critical study of sentences in Gale Pgs. 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Gospel of John, Book of Acts,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 - 신학월보(for the current year), 쟝원량우샹론, 텬로력뎡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Collateral Reading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e Bird Bishop.

8) 1907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Pgs. 18-160. 4. Underwood's Grammar, Part Ⅰ. 5. "Fifty Helps", by Mrs. Baird. 6. Thorough and continuous drill in euphonic changes. 7. Three hundred original sentences in Korean with translations. 8. Thorough study and constant practice of Korean salutations and dismissals. 9. Translation at sight Chapters 1-8 Gospel of Matthew. 10. Memorize the Lord's Prayer, Apostles' Creed, and the Ten Commandments.

	11. Intelligent reading of the 찬미가. 12. Three Ritualistic forms of the Discipline, Baptism, Probationers, Full Membership. 13. To be read : - 복음요슈 Ewa", by W. A. Nonle. "Korea", by G. H. Jone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Life of Wm. James Hall", by Mrs. Hall. 14. Learn to read 50 Chinese characters.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gs. 1-92. 3. Analyze the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e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 - 미이미교회문답 셩경도셜 The remaining four important ritualistic forms in Discipline. 8. Stud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Memorize and be able to write 20 verses of Scripture. 10.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묘츅문답, 인가귀도 11. First Half Gale's Reader Ⅰ. Collateral Reading "C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Pgs. Ⅰ-ⅩⅪ. 2. Review, grammatical parts Gale and Underwood. 3. Critical study of sentences in Gale Pgs. 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Gospel of John, Book of Acts,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 - 신학월보(for the current year), 쟝원량우샹론, 텬로력뎡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11. Last half Gale's Reader Ⅰ. Collateral Reading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e Bird Bishop.

9) 1908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Pgs. 18-160. 4. Underwood's Grammar, Part Ⅰ. 5. "Fifty Helps", by Mrs. Baird. 6. Thorough and continuous drill in euphonic changes. 7. Three hundred original sentences in Korean with translations. 8. Thorough study and constant practice of Korean salutations and dismissals. 9. Translation at sight Chapters 1-8 Gospel of Matthew. 10. Memorize the Lord's Prayer, Apostles' Creed 11. Intelligent reading of the 찬송가. 12. Three Ritualistic forms of the Discipline – Baptism, Probationers, Full Membership. For Ladies 감리교회문답 13. To be read : - 셰례문답 "Ewa", by W. A. Nonle. "Korea", by G. H. Jone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Life of Wm. James Hall", by Mrs. Hall. 14. Learn the first 50 characters in the Chinese National Reader no. Ⅰ.
2nd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Year	2. Gale's Grammatical Forms, Pgs. 1-92. 3. Analyze the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e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 - (Evangelistic) (Educational) (Medical) 셩셔공회문답 초학지디 젼례공용문답 셩경도셜 십산초학 위셩학 The remaining four important ritualistic forms in Discipline. 8. Stud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Memorize and be able to write 20 verses of Scripture. 10.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셩ᄉᆞ쵱론 11. Review and Complete Chinese National Reader Ⅰ. Collateral Reading "K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Pgs. Ⅰ-ⅩXI. 2. Review, grammatical parts Gale and Underwood. 3. Critical study of sentences in Gale Pgs. 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Gospel of John. Book of Acts.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Evangelistic) (Educational) (Medical) 신학월보 ᄉᆞ민필지 Anatomy 쟝원량우샹론 산슐신편 Physiology by O. R. Avison 텬로력뎡 신학월보 신학월보 Life of Martin Luther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11. Chinese Educational Reader Ⅰ. Collateral Reading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e Bird Bishop.

10) 1909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a. Declensions of nouns and pronouns. b. Times and seasons. c. Adjectives; kinds, conjugations, and comparison. 4. The verb. a. As conjugated in Underwood's. b. The distinction between it-ta(잇다) and il-ta(일다). Scott p.135. c. Negation (Scott) 5. Adverbs, as given in Scott. 6. Post-positions (Scott p.153.) 7. Study the formation of indirected discourse as given in Mrs. Baird's Fifty Helps. a. 면, 거든 Mrs. Baird's Fifty Helps. Gale's Grammatical Forms 88,90. b. 니, 니까, 니간드로, ᄒᆞ니,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ᆫ고로 Gale's Grammatical Forms 70-73. c. Concessive ᄒᆞ나, ᄒᆞ되, ᄒᆞ도, ᄒᆞ거니와, ᄒᆞᆯ지라도 Gale's Grammatical Forms 96-99. d. Alternative ᄂᆞᆫ지, 던지 Mrs. Baird's Fifty Helps and Gale's Grammatical Forms 117-118. e. Temporal Scott p.118. f. Fearing Scott p.122. g. Wishing and desiring ᄒᆞ고져ᄒᆞ다, ᄒᆞ고시푸다, ᄒᆞ려 or 랴ᄒᆞ다. 8. Salutations and dismissals in high, middle and low forms. a. On acquaintance. b. Morning and evening. c. On street. 9. Reading.

	a. Careful attention to euphonic changes and pronunciation of words. b. Proper emphasis of clauses and phrases. c. Careful reading of the three Ritualistic forms of Discipline. 10. Memorize 100 sentences illustrating the above forms. 11. Two hundred sentences to be written and translated by the student. 12. Translation of the first Epistle of John; the student to have a general knowledge of the words and the forms as studied in the first year. 13. To be read. "Ewa", by W. A. Noble. "Korea", by G. H. Jone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ages. 1 to 92. 3. Grammatical Analysis of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student must memorize 100 of these sentence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Methodist Episcopal Church Catechism, prepared by W. G. Cram. 8. Study carefull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셩ᄉᆞ총론 10. To be read "K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Read carefully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2. Review Grammatical Forms in Gale. 3. Study Grammatical forms of the sentences in Gale's grammatical Forms p.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a. Gospel of John. b. Book of Acts. c.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Evangelistic) (Educational) (Medical) a. 신학월보 ᄉᆞ민필지 Avison's Anatomy b. 텬로력뎡 산슐신편 〃 Physiology c. 쟝원량우샹론 신학월보 신학월보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11. Chinese a. Nam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b. Principal Mission School. c. Principal Mission Hospitals. d. Review first and second year. 12. To be read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e Bird Bishop.

11) 1911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a. Declensions of nouns and pronouns. b. Times and seasons. c. Adjectives; kinds, conjugations, and comparison. 4. The verb. a. As conjugated in Underwood's. b. The distinction between it-ta(잇다) and il-ta(일다). Scott p.135. c. Negation (Scott) 5. Adverbs, as given in Scott. 6. Post-positions (Scott p.153.) 7. Study the formation of indirected discourse as given in Mrs. Baird's Fifty Helps. a. 면, 거든 Mrs. Baird's Fifty Helps. Gale's Grammatical Forms 88,90. b. 니, 니까, 니간드로, ᄒᆞ니, ᄒᆞᄂᆞᆫᄃᆡ, 흔고로 Gale's Grammatical Forms 70-73. c. Concessive ᄒᆞ나, ᄒᆞ되, ᄒᆞ도, ᄒᆞ거니와, 홀지라도 Gale's Grammatical Forms 96-99.

	d. Alternative 는지, 던지 Mrs. Baird's Fifty Helps and Gale's Grammatical Forms 117-118. e. Temporal Scott p.118. f. Fearing Scott p.122. g. Wishing and desiring ᄒᆞ고져ᄒᆞ다, ᄒᆞ고시푸다, ᄒᆞ려 or 랴ᄒᆞ다. 8. Salutations and dismissals in high, middle and low forms. a. On acquaintance. b. Morning and evening. c. On street. 9. Reading. a. Careful attention to euphonic changes and pronunciation of words. b. Proper emphasis of clauses and phrases. c. Careful reading of the three Ritualistic forms of Discipline. 10. Memorize 100 sentences illustrating the above forms. 11. Two hundred sentences to be written and translated by the student. 12. Translation of the first Epistle of John; the student to have a general knowledge of the words and the forms as studied in the first year. 13. To be read. "Ewa", by W. A. Noble. "Korea", by G. H. Jone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ages. 1 to 92. 3. Grammatical Analysis of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student must memorize 100 of these sentence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Methodist Episcopal Church Catechism, prepared by W. G. Cram. 8. Study carefull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셩셔촁론 10. To be read "K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Read carefully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2. Review Grammatical Forms in Gale. 3. Study Grammatical forms of the sentences in Gale's grammatical

	Forms p.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a. Gospel of John. b. Book of Acts. c.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Evangelistic) (Educational) (Medical) a. 신학월보 ᄉᆞ민필지 Avison's Anatomy b. 텬로력뎡 산슐신편 〃 Physiology c. 쟝원량우샹론 신학월보 신학월보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11. Chinese a. Nam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b. Principal Mission School. c. Principal Mission Hospitals. d. Review first and second year. 12. To be read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e Bird Bishop.

12) 1912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a. Declensions of nouns and pronouns. b. Times and seasons. c. Adjectives; kinds, conjugations, and comparison. 4. The verb. a. As conjugated in Underwood's. b. The distinction between it-ta(잇다) and il-ta(일다). Scott p.135. c. Negation (Scott) 5. Adverbs, as given in Scott. 6. Post-positions (Scott p.153.)

	7. Study the formation of indirected discourse as given in Mrs. Baird's Fifty Helps. a. 면, 거든 Mrs. Baird's Fifty Helps. Gale's Grammatical Forms 88,90. b. 니, 니까, 니간드로, ᄒᆞ니, ᄒᆞᄂᆞᆫᄃᆡ, 흔고로 Gale's Grammatical Forms 70-73. c. Concessive ᄒᆞ나, ᄒᆞ되, ᄒᆞ도, ᄒᆞ거니와, 홀지라도 Gale's Grammatical Forms 96-99. d. Alternative ᄂᆞᆫ지, 던지 Mrs. Baird's Fifty Helps and Gale's Grammatical Forms 117-118. e. Temporal Scott p.118. f. Fearing Scott p.122. g. Wishing and desiring ᄒᆞ고져ᄒᆞ다, ᄒᆞ고시푸다, ᄒᆞ려 or 랴ᄒᆞ다. 8. Salutations and dismissals in high, middle and low forms. a. On acquaintance. b. Morning and evening. c. On street. 9. Reading. a. Careful attention to euphonic changes and pronunciation of words. b. Proper emphasis of clauses and phrases. c. Careful reading of the three Ritualistic forms of Discipline. 10. Memorize 100 sentences illustrating the above forms. 11. Two hundred sentences to be written and translated by the student. 12. Translation of the first Epistle of John; the student to have a general knowledge of the words and the forms as studied in the first year. 13. To be read. "Ewa", by W. A. Noble. "Korea", by G. H. Jone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ages. 1 to 92. 3. Grammatical Analysis of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student must memorize 100 of these sentence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Methodist Episcopal Church Catechism, prepared by W. G. Cram. 8. Study carefull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Read thoroughly so as to be able to teach 셩셔총론 10. To be read "K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Read carefully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2. Review Grammatical Forms in Gale. 3. Study Grammatical forms of the sentences in Gale's grammatical Forms p.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a. Gospel of John. b. Book of Acts. c.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to 10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Evangelistic) (Educational) (Medical) a. 신학월보 ᄉᆞ민필지 Avison's Anatomy b. 텬로력뎡 산슐신편 〃 Physiology c. 쟝원량우샹론 신학월보 신학월보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11. Chinese a. Nam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b. Principal Mission School. c. Principal Mission Hospitals. d. Review. 12. To be read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a Bird Bishop.

13) 1913년의 한국어 학습과정

1st Year	1. The Alphabet and Syllabary. 2. The Chinese and Korean numerals and counting of money. 3. Scott's Manual of Stokes's Helps. a. Declensions of nouns and pronouns. b. Times and seasons.

	c. Adjectives; kinds, conjugations, and comparison. 4. The verb. a. As conjugated in Underwood's. b. The distinction between it-ta(잇다) and il-ta(일다). Scott p.135. c. Negation (Scott) 5. Adverbs, as given in Scott. 6. Post-positions (Scott p.153.) 7. Study the formation of indirected discourse as given in Mrs. Baird's Fifty Helps. a. 면, 거든 Mrs. Baird's Fifty Helps. Gale's Grammatical Forms 88,90. b. 니, 니까, 니간드로, ᄒᆞ니, ᄒᆞᄂᆞᆫᄃᆡ, 흔고로 Gale's Grammatical Forms 70-73. c. Concessive ᄒᆞ나, ᄒᆞ되, ᄒᆞ도, ᄒᆞ거니와, 홀지라도 Gale's Grammatical Forms 96-99. d. Alternative ᄂᆞᆫ지, 던지 Mrs. Baird's Fifty Helps and Gale's Grammatical Forms 117-118. e. Temporal, Scott p.118. f. Fearing, Scott p.122. g. Wishing and desiring ᄒᆞ고져ᄒᆞ다, ᄒᆞ고시푸다, ᄒᆞ려 or 랴ᄒᆞ다. 8. Salutations and dismissals in high, middle and low forms. a. On acquaintance. b. Morning and evening. c. On street. 9. Reading. a. Careful attention to euphonic changes and pronunciation of words. b. Proper emphasis of clauses and phrases. c. Careful reading of the three Ritualistic forms of Discipline. 11. Memorize the first ten lessons and questions of Becker's Introd. Sentences. 12. Two hundred sentences to be written and translated by the student. 13. Translation of the first Epistle of John; the student to have a general knowledge of the words and the forms as studied in the first year. 14. To be read. "Ewa", by W. A. Noble. "Korea", by G. H. Jones. "Every Day life in Korea", by D. L. Gifford.
2nd Year	1. Underwood's Introduction, Part Ⅱ. 2. Gale's Grammatical Forms, Pages. 1 to 92. 3. Grammatical Analysis of Gospel of Matthew. 4. Select 100 Sinico-Korean words and learn their etymology. 5. Four hundred original sentences, half in colloquial and half in literary

	form, with translations; student must memorize 100 of these sentences. 6. Study the geography of Korea and learn the Chinese for the names of the provinces, their capitals, chief rivers, open ports, mission stations, and names of the principal railroad stations. 7. To be studied; Methodist Episcopal Church Catechism, prepared by W. G. Cram. 8. Study carefully petitionary forms and practice in extemporaneous prayer. 9. Memorize lessons 11-40 of Introductory sentences especial attention being paid to the method of memorizing. 10. To be read "Korea the Hermit Nation", by W. E. Griffis. "Korean Sketches", by J. S. Gale.
3rd Year	1. Read carefully Introduction to Scott's Manual 2. Review Grammatical Forms in Gale. 3. Study Grammatical forms of the sentences in Gale's grammatical Forms p.95-249. 4. Analytical study of grammatical forms in a. Gospel of John. b. Book of Acts. c. Epistles to the Roman and Hebrews. 5. Study forms of letter writing. 6. Study the idiomatic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7. Select and learn 10 Sinico-Korean Phrases. 8. Practice during the year extemporaneous prayer and speaking. 9. To be read a. 신학월보 b. 텬로력뎡 c. 쟝원량우샹론 10. Present an original composition of 1500-3000 characters on some subject helpful to the student. 11. Chinese a. Nam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b. Principal Mission School. c. Principal Mission Hospitals. d. Review. 12. To be read "Chinese Characteristics", by A. H. Smith. "Korea and her Neighbors", by Mrs. Isabella Bird Bishop.

[부록 3] : 《Language School》의 커리큘럼

1) 1920년의 커리큘럼

LANGUAGE COURSE SEOUL LANGUAGE SCHOOL

학기	교육내용	시수
1-1	Syllabary	3
	Salutations (Reading, pronunciation, aspirates)	2
	Conversation (1st half Stokes: 'Korean by Clause Method')	5
	Grammar (Easy sentences, work in Mrs. Baird's: - 'Fifty Helps')	5
1-2	Conversation (Colloquial phrases and endings)	5
	Religious Terms (Prayer forms and preaching phrases)	5
	Mark (Intensive study 1st three chapters from grammatical point of view)	5
2-1	Conversation, Special words and terms(text prepared by Mr. Underwood for this course)	5
	Mark (Finish reading the Gospel)	5
	Newspaper	3
	Relationships	1
	Geography (Taught by Korean in Korean, Mimeographed charts and maps and special work from selected issues of daily press of Christian Messenger)	1
2-2	Conversation (continuation of above)	5
	Pilgrim's Progress	5
	Newspaper	3
	Relationships	1
	Geography (Continuation of 1st term)	1

2) 1921년의 커리큘럼

FEDERAL COUNCIL LANGUAGE COURSE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Syllabary and Salutations	2
	Dictation	2
	Euphonic Changes	1
	Stokes 'Korean by Clause Method'	5
	Grammar (III. Sentences, based on Scott or Baird)	5
Intra-Term Work A	○ Read carefully Underwood Part Ⅰ. to pp.141 ○ Study Underwood Part Ⅱ. to Chap. Ⅴ. ○ Study Mrs. Baird 1st half ○ Commit the Lord's Prayer ○ Practice writing daily and read aloud at least half an hour each day. ○ Hand in at beginning of 2nd tern 100 original sentences.	
1-b	Easy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5
	Mark's Gospel, Chap. Ⅰ-Ⅴ.	5
	Conversation (Sentences based on Stokes or Underwood part Ⅱ)	5
Intra-Term Work B	○ Finish Mark's Gospel ○ Finish Underwood Part Ⅰ. ○ Finish Mrs. Baird ○ Study Prepositions and Conjunctions(Underwood Part Ⅱ) ○ Learn 100 Chinese Characters (for examination) ○ Review work done in the school and continue daily practice in reading and writing. Time yourself and try to attain a speed of 5 syllables per sec. in reading.	
2-a	Conversation (1st half Underwood's "Everyday Korean")	5
	Aesop's Fables	3
	Geography	1
	Relationships	1
	Hymns (1-20)	2
	Gospel Talks or Bible Stories	3
Intra-Term Work C	○ Study Gale's Grammatical Forms pp.1-107 ○ Read and analyze at least a column a week in the 'Christian Messenger'(about 2/3 Church News and 1/3 general) ○ Practice using the common contractions of long endings ○ Write an original composition of at least 400 words to be handed in to the Language School Faculty	

	○ Study words and phrases connected with life of the people and hand in a list of 100 words or phrases you have learned since close of last term	
2-b	Pilgrim's Progress Part Ⅰ.	3
	Original talks on assigned subjects	1
	Newspaper	3
	Oryun Haing Sil or some other strictly Korean book	3
	Conversation (2nd half Underwood's 'Everyday Korean')	5
Intra-Term Work D	○ Read the Gospels and Acts, Gale's Grammatical Forms, pp. 107-241 ○ Study Korean Rules of Order ○ Practice running translation of Bible into Korean ○ Practice Korean composition and write at least two letters to helpers or bible women giving instructions as to the work, letters to be turned in to School Faculty ○ Read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Korean books: (titles to be selected by School Faculty) ○ Learn 200 Chinese Characters (for examination)	

3) 1926년의 커리큘럼

COURSE OF STUDY FOR THE LANGUAGE SCHOOL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Pronunciation, Dictation, Salutations	5
	Korean for Beginners(First half of Part 1, 2)	5
	Grammar(KFB Part 4)	3
	Expression(KFB Part 3)	2
1-B	Korean for Beginners(Finish Part 1, 2)	5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3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Chap. 1-4)	4
	Expression(KFB Part 3)	1
	Grammar(KFB Part 4)	2
1-C Home Work	Study Underwood's 'Introduction.' Parts I & II. 'Mrs. Baird's 'Fifty Helps' - 1926 Edition. Learn by Heart, 'The Lord's Prayers, and 10 out of the list of 20 selected Bible Verses. Read the rest of Mark's Gospel.	

	Practice daily - writing, and reading aloud. Prepare and hand in 100 original sentences. Learn the first 100 characters, in the 'Chinese Character Game'. Make 5talks - Teaching a Sunday School Lesson is accepted, repetitions are counted.	
2-A	Everyday Korean(First Half)	3
	Gospel Talks and Bible Stories	4
	Geography of Korea, and Korean Relationships	2
	Reading and Translating Korean Books	4
	Analytical Study of 20 selected Hymns	2
2-B	Pilgrim's Progress (Part 1)	3
	Oh Ryun Haing Sil(Language School's Edition)	3
	Everyday Korean (Finish)	3
	Reading and Translating Korean Magazines	2
	Expression (Half the time given to Bible Talks)	4
2-C Home Work	Read and analyze at least a column a week in the Church Paper. Write a Composition of 500(or more) syllables. Your Teacher to help in putting this into final form, ideas and words your own. Make a list of 100 new words and phrases. Help as above from teacher. Read John's Gospel and The Acts of Apostles. Practice running translation from the N.T. into spoken Korean. Memorize the 'Apostles' Creed'. Learn 3 Hymns so you can recite (or sing them from memory.)	
3-A	Grammatical Forms (One-half of each section)	4
	Advanced work on New Forms, Connectives, Words, and Phrases	2
	Read and analyze a modern Korean Novel	4
	Expression (Original talks, criticized on Composition and Delivery)	3
	Read Genesis in Mixed Script	2
3-B	Grammatical Forms (Finish)	4
	Advanced Work as above	2
	Read and analyze assigned Koreans Books	4
	Expression as above	3
	Reading assigned book of Bible in Mixed Script	2
3-C Home Work	Study Rules and Form of Government of your Church. (Include in this the forms for Baptism, etc. though you may never need to use them) Memorize 3 Psalms. Psalm 117 will not be accepted. Memorize 6 more Hymns. / Read Hebrews. Submit in your own writing an original address for public delivery.	

4) 1928년의 커리큘럼

LANGUAGE SCHOOL COURSE.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Pronunciation, Dictation, Salutations	5
	Korean for Beginners (First Half of Part 1, 2)	5
	Grammar (KFB Part 4)	3
	Expression (KFB Part 3)	2
1-B	Korean for Beginners (Finish Part 1, 2)	5
	Religious Phrases and Prayer Forms	3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 (Chap. 1-4)	4
	Expression (KFB Part 3)	1
	Grammar (KFB Part 4)	2
1-C Home Work	Study Dr. H.G. Underwood's 'Introduction' Parts I & II Study Mrs. Baird's 'Fifty Helps' 1926 Edition. Memorize the Lord's Prayer and 10 out fo the list of 20 selected Bible Verses. Read and translate Mark's Gospel, Chap. 5-16 Learn the first 100 characters in the 'Chinese Character Game.', Prepare in writing 100 original sentences. Make 5 talks in public. Repetition of same talk are counted, or teaching a Sunday School class is taken as making a 'talk.'	
2-A	Everyday Korean (First Half)	3
	Expression (Gospel Talks and Bible Stories)	4
	Reading and Writing Unmun Script	2
	Reading and Analyzing 20 selected Hymns	2
	Reading Korean Books	2
	Geography of Korea	1
	Korean Family Relationships	1
2-B	Everyday Korean (Finish)	3
	Gale's Grammatical Forms (Half of each section)	4
	Pilgrim's Progress (Part 1)	2
	Oh Ryun Haing Sil (Language School's Edition)	2
	Expression (Half the time given to Bible Talks)	4
2-C Home Work	Read and analyze at least a column a week in you Church Paper. Read and translate John's Gospel and the Acts of the Apostles. Memorize the Apostle's Creed. Memorize 3 hymns so you can recite (or sing) them. (Doxologies will	

	not be accepted as hymns) Practice running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New Testament into spoken Korean. Make a list of 100 new words and phrases. Write a composition of not less than 500 syllables. In this and the word list, your teacher may help in the final draft, but ideas, words, and penmanship should be your own.	
3-A	Grammatical Forms (Finish)	4
	Reading and analyzing a modern Korean Novel	4
	Expression (Original talks, criticized on Composition and Delivery)	3
	New Forms, Connectives, Words, and Phrases	2
	Read a book of the Bible in Mixed Script	2
3-B	Reading Mixed Script	4
	Expression (Continuing work of 3A)	2
	New Words, etc (Continuing work of 3A)	4
	Reading assigned Korean books	3
	Lectures in korean on Korean History, literature, etc	2
3-C Home Work	Memorize 6 more hymns (The Doxologies will not count.) Memorize 3 Psalms (The 117th will not be accepted). Read Hebrews. Study the Rules and Form of Government of your Church. Even though you may not expect to use them in your own line of work, include the forms for baptism, etc. Hand in an address prepared for public delivery- this need not be a sermon—\ in your own writing. The degree of help from a teacher specified under 2-C is allowed.	

5) 1931년의 커리큘럼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Sentences for Beginners (M.B. Stokes)	5
	Pronunciation, salutation, expression, conversation	5
	Grammar (based on above sentences, Sentence analysis)	3
	Reading and writing Eunmun (Based on 1st Yr. Public School Reader)	2
1-B	Sentences for Beginners	5
	Analytical study of Mark (1-5)	5
	Grammar (based on above sentences)	3
	Conversation	2
1-C Home Work	Mrs. Baird's Fifty Helps, Memorize Lord's Prayer and 10 out of the 20 selected Bible verses. Read and Translate Mark Chs. 6-16	

	Learn the first 200 characters in the Chinese Character Game. Learn these to write as well as to read. Prepared in writing 100 original sentences. Make 5 talks in public	
2-A	Every Day Korean (First Half)	3
	Expression (Gospel Talks and Bible stories)	2
	Connectives (Thorough analytical study)	3
	Conversation	2
	Easy Korean Novel (as Ahai Sangwhal)	3
	Korean Magazine	2
2-B	Everyday Korean (Second half)	3
	Expression (Bible talks and stories)	2
	Connectives (Thorough analytical study)	3
	Conversation	2
	Korean Novel	3
	Easy Magazine	2
2-C Home Work	Same as before. Oryun Haingsil, Analytical study of Hymns.	
3 (Winter Term)	Careful analysis of Korean Novel	3
	Connectives	3
	New Words and expressions	2
	Reading a Book of Bible in Mixed Script	2
	Expression (conversation, original talks, letter writing)	5
Special Course (Older Missionaries)	Parliamentary Terms and speaking in public assemblies	3
	New words and expressions	2
	Analytical study of connectives	3
	Conversation	2
	Reading Korean Book, or articles in paper	3
	Mixed Script	2

6) 1934년의 커리큘럼

학기	교육내용	시수
1-A	First Reader, used in Common Schools, for pronounciation, etc.	5
	Korean for Beginners (First Half of Part 1, 2)	5
	Grammar (KFB Part 4)	3
	Expression (KFB Part 3)	2
1-B	Readers, as above	3
	Korean for Beginners (Finish Part 1, 2)	5
	Analytical Study of Mark's Gospel (Chap. 1-4)	5

	Grammar & Expression (KFB Part 3, 4)	2
1-C	Study Dr. H.G. Underwood's 'Introduction' Parts I & II Study Mrs. Baird's 'Fifty Helps' 1926 Edition. Memorize the Lord's Prayer and 10 selected Bible Verses. Learn the first 100 original sentences.	
2-A	Everyday Korean (First Half)	3
	Acts of the Apostles	5
	Korean Novel reading	3
	Analyzing 20 selected Hymns	2
	Geography and family of Relationships	2
2-B	Everyday Korean (Finish)	3
	Grammatical Forms (Gale or Stokes)	3
	Korean Novel reading	3
	Pilgrim's Progress (Part 1)	2
	Oh Ryun Haing Sil (Special Language School Edition)	2
	Expression (Bible Talks, etc)	2
2-C	Read and analyze at least a column a week in you Church Paper. Read and translate John's Gospel and the Acts of the Apostles. Memorize the Apostle's Creed. Memorize 3 hymns so as to be able to recite and sing them. (Doxologies not counted as hymns) Practice running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New Testament into spoken Korean. Make a list of 100 new words and phrases(new to you), then use these in 100 sentences of your own, English into Korean.	
3-A	Grammatical Forms (Gale or Stokes) Finish.	4
	Reading and analyzing a modern Korean Novel	4
	Expression (Original talks, criticized on Composition and Delivery)	3
	New Forms, Words, and Phrases	2
	Read a book of the Bible in Mixed Script	2
3-B	Reading Mixed Script	5
	Expression (Continuing work of 3A)	4
	New Words (Continuing work of 3A)	3
	Reading assigned Korean books	2
	Lectures in korean on Korean History, literature, etc	1
3-C Home Work	Memorize 6 more hymns Memorize 3 Psalms (exclude 117) Read Hebrews. Study the Rules and Form of Government of your Church. Hand in an address prepared for public delivery(this need not be a sermon) The Language School furnished a list of books in English, on Korea. Each student is expected to read the number therein required for each term, dividing the total requirement over the three years.	

	Report on reading is made with the written work for each C term.

[부록 4] : 《The Korean Language School》의 임시 커리큘럼(1955)

<First Year>

First Term	**Course A - Memorization / six or seven hours**
	These two memorization texts provide a series of forty lessons, covering a period of nine to ten weeks at the rate of one lesson each day. The two texts are to be used alternately, one week in twenty Questions and one week in John's Gospel. <Texts> - Twenty Questions For Beginners - Twenty Lessons in John's Gospel
	Course B - Reading / Five hours
	This course to be taken at the same time as Course A, about half the time each day being given to this material. The text on the Alphabet will take about two weeks, omitting lesson 10, which is taken up later as needed. During this time hymn reading is taken up as a test of proficiency in the use of the alphabet. The second two weeks are given to the text on Worship. Ability to find texts and hymns as announced, memorization of the Lord's Prayer, ability to recite the creed with the congregation, are basic to the completion of this course. The last half of the term is given to a study of the text on Conversation, a part of each day given to the review of previous material. <Texts> - Ten Lessons in the Alphabet - Preparation For Worship - Conversation for Beginners - Korean Hymnal-Large type word edition.
	Course C - Supplementary
	a. Grammar - Basic forms for cases in nouns and pronouns, basic past, present and future forms of the verb as appear in the above texts. <Text> - Korean Grammar for Beginner (In preparation) / one hour

	b. Elementary Outlines in Korean Geography (text in preparation) Covering provinces, rivers, products, cities, and other statistical / one hour **c. How to Begin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 Attendance on a lecture plus frequent reading of the manual is essential to the best progress. Those not in the regular school should confer with a member of the language committee as this topic is vital to the beginner.
Second Term	Preliminary to the work of the second term will be a review of the material of the first term, inasmuch as incomplete material will be regarded as inter-term assignment.
	Course A - Grammatical Forms / Five or six hours
	The forty lessons of this course cover most of the grammatical forms, giving several examples of each class. It is suggested that the first half of each text be taken before taking up the second half. <Texts> - Twenty Lessons in Grammar - Twenty more Lessons in Grammar
	Course B - Reading / Five hours
	The student begins reading of easy material New words used in sentences, questions and answers on text, material translated. See Memorandum Reading as a Method of Language Study. <Texts> - Story of Jesus (Laubach series) Book 1 / Book 2
	Course C - Supplementary
	a. Conversation - Begin organized study of conversation, using note-book method as outlined in memorandum on conversation Note-book. Five topics should be selected with fifteen or more sentences related to each topic, entered in the note-book and memorized. / Two hours. <Texts> - English Phrase Book (H.J. Lew) - Similar texts on Korean-American conversation as available. **b. Chinese Characters** - The first hundred characters, covering reading of dates, names of thirty cities, city and country addresses. / Two hours. <Text>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 Book 1, “Time and Place” **c. Korean History** - Reading and/or lecture course covering eight epochs in Korean history. **References** - High-light of Korean History (Language School)

	-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Osgood) - Korea, Her History and Culture (Korea Office Public Information)
Third Term	**Course A - Conversation / Five hours**
	Continue work on conversation note-book as outlined in the work of the second term. At least a topic a week should be studied, with fifteen or more sentences on each topic. <Text> Same as in second term
	Course B - Mark's Gospel / Five hours
	Organized reading of the New Testament is begun. See memoranda on "Use of the Bible in Language Study" and "Literary Forms Found in Bible Reading"
	Course C - Supplementary
	a. Grammar - A review of the grammatical Forms / Two Hours <Text> Korean Grammatical Outlines (Kinsler in Preparation) **b. Christian Catechism** - Questions and answers on basic Christian beliefs. / Two hours <Text> Christian Catechism Primer (Published by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c. History of Missions** - Reading and/or lecture course on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Text> History of Missions to 1910 (L.G. Paik) The Bible in Korea (J.C.F Robertson)
Inter Term	During the summer season, the student should complete the reading of the Gospel of Mark, and finish any other incompleted work. the following books in English should also be read in addition to reading of material already assigned. - Korean Perspective: A Picture of Korea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 Underwood of Korea (Lillias H. Underwood) - A Modern Pioneer in Korea, Appenzeller (William E Griffis) - Syngman Rhee (Robert T Oliver)

<Second Year>

First Term	**Course A - Reading / Five hours**
	This course introduces the readers published by the Christian Literacy Association based on Korean life and culture. They take one into Korean life in a way that few texts for beginners in the language can do. <Texts> Han Kool Tok Pon No 1. (A)
	Course B - Conversation / Five hours

	Continue Conversation Note-Book but base material specifically on phases of religious and missionary life dealing with church, government relations, relief problems, school, hospital, and other problems of everyday missionary work. <Texts> To be prepared
	Course C - Supplementary
	a. Bible outlines - Investigation of outlines and tables used in Bible teaching. See memorandum on Religious Vocabulary. <Text> The Bible At a Glanc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Two hours **b. Chinese Characters** The second hundred characters. / Two hours <Text>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Part 2 “Signs Seen on the Street”
Second Term	**Course A - The Book of Acts / Five hours**
	Beginning a second book in the New Testamen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questions and answer on the text and to outlines of chapters. See Memorandum Use of The Bible in Language Study.
	Course B - Bible Biographies / Five hours
	Text No 1 in a series published by the Korea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 especially for high schools.
	Course C - Supplementary
	a. Prayer Forms - The address to the Deity, confession, thanksgiving, and petition. / Two hours. <Texts> Korean Prayer Forms, Part 1 (C Y Ahn) **b. Vocabulary studies** - Family Relationships, Government Offices. / One hour <Text> Vocabulary sheets as indicated. **c. Talks in Korean** - Talks based on material studied in Han Kool Tok Pon (Ⅱ-1), Story of Jesus(Ⅰ-2), and Bible Biographies(Ⅱ-2) / One hour
Third Term	**Course A - Psalms / Five hours**
	A study of selected psalms, as given in the Responsive Readings in the Korean Hymnal.
	Course B (1) - Prayer Forms / Two to three hours
	Continuation of study of Korean prayers, with special preparation of forms to be used for grace at table, opening of worship, prayer when visiting, prayer to be used at some special meeting.
	Course B (2) - Gospel Talks / Two to three hours
	Retelling Gospel stories. Writing of Gospel stories.
	Course C - Supplementary
	a. Chinese Characters in religious work. One hundred characters / Two Hours <Text>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Part3 “Headlines in Church Paper” **b. Parliamentary Procedure** - What goes in conference and committee, what to

	say when called on to preside. / Two hours <Text> Preparation for presiding

<Third Year>

The courses listed herewith are merely suggestive of courses that may be offered advanced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first two years of work. Courses offered at any given term would depend on the needs of the students enrolled. The list is suggestive of the type of work the student may do in his own private study.
Course A. Church Papers - Ten articles, one week, clipped from the church paper of one's own denomination, entered into scrap book, with all new words listed, and fully translated.
Course B. Daily Newspaper - Ten articles form daily newspapers studied as suggested for Course A.
Course C. Magazines - Reading of material form Children Friend, Christian Home, Farm Life, or other magazine selected according to profession or type of missionary work, following general method of Course A.
Course D. Medical Science - Study the text on Home Nursing.
Course E. Natural Science - School text on science, or one of the following: a-Why? 왜? b-How 어떻게 c-Study of Inventions 발명공부
Course F. Social Science - School text in Korean Geography Books 1 and 2 Oo Ri Na Ra Saing Hwal 우리 나라 생활
Course G. Social Science - School text in history Books 1 and 2 Oo Ri Na Ra Pal Tal 우리 나라 발달
Course H. Ritual - Study of the ritual for Baptism, Lord's Supper Marriage, and Funerals.
Course I - Any text in the school text-book series of the Korea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 No 1, Bible Biographies having already been studied in the course, Second year, second term.
Course J - Any text in the Han Kool Tok Pon Series, published by the Chritian Literacy Association, Book No 1, having already been studied in Second Year, First Term.
Course K. Sermons for Children - A Reading of one or more books of Children sermons of which there are a number on the market.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Park, SaeAm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imed at freshly establishing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specif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and na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the Western protestant Missions for their missionaries taking pla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 20th century, and elucidating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For this purpose, relevant materials such as minutes of official minutes of Missions, reports and personal correspondences were collected, and the contents with respect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extracted and used for analysis.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protestant missionaries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including (1) the time when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mainly conducted in missions of each religious sect, (2) the time when it was mainly conducted in the form of a short-term intensive course, (3) the time when it was conducted through a union language school and (4) the time of transition to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nalyzed thoroughly focusing on relevant historical records. (1) The time when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conducted mainly in missions of each sect for their missionaries was investigated by focusing on activit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PCUSA) and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C), both of which played a leading role among various sects having entered Korea. They had a sub-organization 'Language Committee' in charge of managing language education of their missionaries, and controlled and manage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ctively by utilizing the 'course of study', a learning guideline, and a 'mentoring system' that enabled a missionary to help his successor's learning. (2) During the time when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mainly conducted in the form of short-term intensive courses, the 'classroom lesson', which had been a limit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preceding time, emerged through a short-term intensive course 'Language Class' in Pyengyang initiated in 1909 by PCUSA. Later, after a coordination with MEC, it became under management by the Federal Council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which was a united organization of mission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ecumenical movement' of the time, and had been opened once a year in Pyengyang and Seoul, respectively, until 1914. (3) During the time when it was conducted through a Union Language School, 'Language School' created and operated permanently as a union

language school of missions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curriculum played a central role in conduc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chool operated from 1920 to at least 1936 had a modern institutional education system such as dedicated textbooks developed according to defined curricula, standardized written and oral assessments, issue of completion certificates and paid permanent staff. (4) In analysis of the time of transition to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Korean Language School' emerging freshly around 1950 was confirmed to be a reconstruction of the 'Language School' that had been closed down around 1940 after missionaries had been expelled from Korea by the Japanese colonialists. Those missionaries returned to Korea after the Liberation and rebuilt the school under the name 'Korean Language School'. It was also confirmed again that this institution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s first modern Korean education institution 'YONSEI KLI'.

Given that the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 20th century i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utilization of the complementary management of distance education and gathering education and the content-based approach, characteristic features in terms of education contents could be found in that they consisted of the lessons to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for mission and the emphasis of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style reflecting multi-layered literacy life at the time.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identify the whole flo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ducted before the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a series of process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which also revealed that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lies in the efforts by the Western protestant missionaries having start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Moreover, although there are a few limitations in terms of the teachers and learners of education, this study has another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the modern na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the Western protestant missionaries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at the time. However, this study also has limitations in that it examined only the time span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 20th century, and did not provide finely detailed and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Japanese in Korea, which also existed during the same period.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testant Missionary, Missions, Language Committee, Course of Study, Union Language School